

거대한 갈등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
기독교 시대 동안

엘렌 굴드 화이트

죽장과 선지자, 시대의 소망,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 예수의 비유 및 기타 작품 의 저자 .

이 책에 나오는 원어로 된 모든 성경 인용문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성경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머리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죄와 불행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행.

이 책은 빛과 어둠, 죄와 의, 생명과 죽음, 옳고 그름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 갈등의 참가자이자 행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때때로 이 엄청난 전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 됐나요? 아니면 그녀는 항상 여기에 있었나요? 복잡한 측면의 일부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신의 선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나 선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련된 주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갈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당신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는 뻘뻘하고 차갑고 영원한 밤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아니면 빛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요?

질문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 갈등, 즉 이기심의 유입과 유출되는 사랑 사이의 투쟁이 어떻게 선의 승리로 영원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 영혼을 위한 이 영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확실히 우리 안에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식에 대한 이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

독자 여러분, 이 작품의 목적은 고민하는 영혼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배운 사람이 기록하였으니, 주님의 비밀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

우주의 생명과 관련된 이 매우 중요한 갈등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지난 20세기 역사에서 추출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구원하러 오신 갈보리의 사람을 거절한 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이야기의 슬픈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책은 민족들의 큰 행로와 함께 1세기에 하느님의 백성이 겪었던 박해를 지적합니다. 뒤따른 사도 교회의 대배도; 갈등의 주요 본질 중 일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종교 개혁에 의해 일어난 각성; 끔찍한

정의의 원칙을 거부한 프랑스의 교훈; 성경의 부활과 승영, 그리고 성경의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영향력; 마지막 날의 종교적 각성; 모든 어둠의 속임수에 맞설 수 있는 빛과 지식의 놀라운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빛나는 근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임박하고 현재의 갈등은 중요한 계을 포함하고 누구도 중립을 선택할 수 없으며 단순하고 명료하며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이 악에 대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것 위에 빛을, 어둠 위에 빛을, 슬픔 위에 기쁨을, 죽음 위에 생명을, 절망 위에 희망을, 굴욕 위에 영광을, 복수심에 찬 증오 위에 영원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을 주소서.

이 책의 이전 판들은 많은 영혼들을 참된 목자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 판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편집자들은 기도합니다.

편집자

소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창조주와 공개적인 교통을 누렸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 높은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계획을 통해 땅의 주민들이 여전히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사람들과 교통하셨고,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신성한 빛이 세상에 비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21).

인류 역사의 처음 25세기 동안에는 기록된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것은 대를 이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준비는 모세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성한 영감을 받은 계시가 신성한 책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일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가인 모세로부터 복음의 가장 숭고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며, 다양한 문체로 많은 저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딤후 3:16), 인간의 말로 표현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생각과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은 꿈과 환상, 상징과 인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진리가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인간의 언어로 구현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진리가 담긴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지위와 직업, 지적, 영적 자질이 크게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쓴 성경의 책들은 문체가 뚜렷이 대조되고 설명되는 주제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작가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종종 동일한 진리가 다른 저자보다 한 저자에 의해 더 인상적으로 제시됩니다.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측면과 관계로 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부주의한 독자에게는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의 깊고 경건한 학생은 그들의 글에서 가장 명확한 통찰력을 보고 그 밑에 깔린 조화를 식별할 것입니다.

다양한 개인을 통해 진실이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납니다. 작가는 주제의 한 측면에 가장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인식 및 감상 능력과 조화를 이루는 점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아래 자신의 마음에 가장 설득력 있게 감동을 주는 것, 즉 각자 안에 있는 진리의 다른 특징을 제시하지만, 그들 모두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진리는 하나가 되어 삶의 모든 상황과 경험에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완전한 전체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분 자신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하고 쓸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보화는 땅의 그릇에 맡겨졌으나 여전히 하늘에 속한 것이라 증거는 인간의 언어로 불완전하게 표현되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니 순종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능력의 영광을 보느니라. 신성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오류가 없는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경험의 시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령은 그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하기 위해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펼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말씀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고 주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해야 하는 표준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1)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위하여!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8:20).

계몽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언하는 부류의 오류로 인해 성령의 사업이 큰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상을 부주의하게 따르는 것은 단지 혼란과 기만과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한 자의 계획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주의자들과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해 자행되는 사탄의 속임수 중 하나이며,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등한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그분의 성령은 복음주의 시대 전체를 통해 그분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두 구약의 성경이 주어지는 동안 성령께서는 신성한 정경에 포함될 계시에 관계없이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자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 성경의 전달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경고와 책망과 조언과 교훈을 받았는지 알려 줍니다.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진술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경이 끝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훈계하고 위로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장차 올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성경은 이러한 약속이 사도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까지 미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이 교회에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며 우리가 다 믿음과 지식에 하나가 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4:12, 13).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 -19).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심오한 것들을 이해력을 밝히고 마음에 열여 주는 성령의 사역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축복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놀랍게 나타나신 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 39).

하나님의 큰 날 장면과 직접 관련하여 주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그분의 영이 특별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요엘 2:28). 이 예언은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복음 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 신성한 은혜의 나타남으로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큰 갈등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세력에 맞서도록 힘을 주시기를 위해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하려고 할 때 그들은 특히 성령의 조명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종적인 구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사탄은 큰 힘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큰 분노를 가득 안고” 내려오십니다. (계 시록 12:12) 그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속이는 기사로” 일할 것입니다(살후 2:9). 한때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았던 이 특권적인 마음은 육천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일에 전적으로 전념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능력과 교활함의 모든 깊이를 획득 **하고**

세속 **전쟁** 중에 자행된 모든 잔인함은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실행될 것입니다. 이 위험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 “흠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14). 그 때에는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부여가 교회에 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선과 악 사이의 오랜 갈등의 장면이 이 페이지의 저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요 죄의 창시자요 창시자이신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여러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미워하는 동일한 미움과 오류를 일으키는 동일한 속임수의 전략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며, 인간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도록 인도된 것은 과거 역사 전반에 걸쳐 묘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품고 사랑 대신 두려움과 증오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려는 사탄의 노력. 하나님의 율법을 소외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주장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감히 율법의 기만에 저항하는 자들을 박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든 시대를 거쳐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족장, 선지자, 사도, 순교자, 개혁가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이전 시대의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고,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며, 동일한 목적을 향해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쟁은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 끔찍한 강도로 특징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앞으로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묘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단호해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함이니라(막 13:22)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와 과거와 미래의 장면을 보여 주었을 때, 나는 그렇게 나에게 계시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박한 미래의 투쟁을 밝히기 위해 그것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나는 다양한 시기에 세상에 선포되어 온 인류의 분노를 샀던 위대하고 시험하는 진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교회 역사에서 사건들을 선택하고 분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계 12:11) 사람들의 증언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갈등의 전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자의 계획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발견될 사람들이 피해야 할 위험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는.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개혁의 진전을 이룬 위대한 사건들은 개신교 세계에 잘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책의 길이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간결성에 따라 이 이야기를 간결하게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그 적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간략한 공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역사가가 사건을 그룹화하여 주제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요약하거나 세부 사항을 적절하게 요약한 경우에는 그의 말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를 권위자로 인용할 목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술이 주제에 대한 빠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 사업을 우리 시대에 가져온 사람들의 경험과 견해를 기록할 때, 때때로 그들의 출판된 저작물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원시 시대의 전투에 관한 새로운 진실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과 원칙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거의 기록은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의 갈등의 일환으로 볼 때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미래에 빛이 비치며, 과거의 개혁자들처럼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 줍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

이 책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의 현장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과 그가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죄의 기원과 최종 처분을 밝히고, 피조물을 대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여 주십시오. 이는 그 영향력을 통하여 영혼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께 찬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가의 간절한 바람이다.

엘렌 굴드 화이트

제1장

예루살렘의 멸망

아! 너도 오늘 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이 일이 네 눈에 숨겨졌도 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참호로 너를 에워싸고 그들이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무너뜨리고 너와 및 네 가운데 있는 네 자녀를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누가복음 19:42-44)

예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 그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때는 유월절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각지에서 모여와서 큰 민족 축제를 지켰습니다.

순례자들의 천막이 있는 정원, 포도원, 푸른 비탈 한가운데에는 제방 언덕, 인상적인 궁전, 이스라엘 수도의 거대한 요새가 서 있었습니다. 시온의 딸은 자랑스럽게 "내가 여왕으로 앉아 있으니... 통곡을 보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름다웠고, 몇 세기 전에 왕의 음유시인이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하늘의 은총을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요 온 땅이 기뻐하는 것은 큰 왕의 성 시온 산이로다." (시 48:2). 전체적으로 웅장한 사원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는 태양 광선이 대리석 벽의 새하얀 빛을 비추고, 황금빛 문과 탑과 첨탑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자부심인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아들이 기쁨과 놀라움의 전율 없이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누가복음 19:41) 승리의 입성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는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즐거운 호산나 소리가 언덕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고 수천 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왕, 세상의 구속자를 선포하시다 그분은 갑작스럽고 신비한 슬픔으로 억눌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공통된 슬픔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강렬하고 억제할 수 없는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발걸음이 그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는 다가올 고난의 현장인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희생제물이 통과했던 양의 문도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은 그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사 53:7) 그분께 열려질 것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 처형 장소인 갈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밟으시게 될 길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큰 흑암의 공포가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시간에 그분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이러한 장면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초인간적인 고뇌가 그 비이기적인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정죄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분이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람들의 눈이 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의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눈에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약속의 아들이 순종적인 제물로서 제단에 묶인 모리아 산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친 제물의 상징이었습니다(창 22:9). 그곳에서 축복의 언약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약속이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창 22:16-18). 그곳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희생의 불꽃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칼을 비켜갔습니다(대상 21장). 이는 죄인들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재를 상징하는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처소로”(시편 132:13) 원하시는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들은 향로를 흔들었고 향연은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드러졌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속죄소 위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사다리의 기초가 있었습니다(창 28:12; 요한복음 1:51). 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세상을 위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늘과 맺은 언약을 지켰더라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렘 17:21-

25). 그러나 은혜받은 백성의 역사는 배교와 반역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기회를 멸시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하 36:16), 그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진실." "(출애굽기 34:6);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탄원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경건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일찍이 일어나 보내사 그 사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그 백성과 그 거할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음이라”(요일 1:13).

(대하 36:15). 훈계와 간구와 책망이 실패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하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의 선물에 천국의 모든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변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시 80:8). 그분의 손이 이방인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는 그것을 “비옥한 언덕에” 심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보살핌은 그 주위에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내 포도원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느냐”고 외치십니다.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느니라”(사 5:1-4). 여전히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분은 포도원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파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정성껏 다루셨으며, 자신이 직접 심으신 이 포도원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셨습니다.

삼년 동안 빛과 영광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행 10:38)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저는 자를 걷게 하며 말씀을 들으셨느니라 귀먹은 자,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눅 4:18; 마 11:5).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은혜로운 초대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28).

비록 그분의 선이 악으로 보상받고, 그분의 사랑이 미움으로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시 109:5), 예수님은 자비의 사명을 확고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로서 차욕과 궁핍을 매일의 몫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불행을 완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밀어내는 자비의 파도

그들은 경건하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더욱 강한 물결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유일한 돕는 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되었고, 그분의 권고는 무시되었으며, 그분의 경고는 조롱당했습니다.

희망과 용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류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배도와 반역을 쌓아온 구름이 이제는 불행을 안겨주었고, 죄를 지은 백성에게 곧 터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상실은 온 세상의 이익과 부보다 무한히 더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때, 온 도시, 온 나라의 파멸된 폐허, 한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 곧 하나님의 보물이었던 그 도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들의 죄로 인한 무서운 황폐를 애도하였다. 예레미야는 그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자기 백성의 딸들의 죽은 자들, 사로잡혀 간 여호와의 양 떼를 위하여 주야로 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렘 9:1; 13:17). . . 그렇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세기에 걸쳐 예언적인 시선을 쏟으신 분의 고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였던 성을 향하여 칼을 들고 멸망시키는 천사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디도와 그의 군대가 점령했던 바로 그 자점인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분은 계곡 건너편에 있는 신성한 뜰과 주랑을 바라보셨고,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무서운 시각으로 둘러싸인 성벽을 보셨습니다. 외국 호스트에 의해.. 그는 전쟁을 위해 기동하는 군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위된 도시 안에서 빵을 달라고 울부짖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과 탑들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연기가 나는 폐허 더미만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대를 굽어보시면서 그분은 언약백성이 황량한 해변에 난파된 배의 잔해처럼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임할 현세적인 징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사람들이 흠탕물로 버려야 할 진노의 잔의 첫 모금을 보셨습니다. 신성한 자비와 부드러운 사랑은 다음 슬픈 말로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였느냐?,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마태복음 23:37). 오!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은총을 입은 민족으로서 너희를 방문할 때와 너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로다! 내가 정의의 사자를 제지하고 너희에게 회개를 권하였으나 헛되니라. 너희가 배척하고 배척한 이는 종과 사신과 선지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너희 구원자이시니라. 당신이 파괴되면 책임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5:40)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세상이 불신과 반역으로 굳어져 하나님의 보복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 신속히 나아가는 상징을 보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불행이 그분의 영혼을 억눌러 그분의 입술에서 비통함으로 가득 찬 이 부르짖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함, 눈물, 피 속에 흔적이 남아 있는 죄의 기록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지구의 괴로움과 고난에 대한 무한한 연민으로 감동되었고, 그 모든 것을 완화시켜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조차도 인간의 불행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지원의 원천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 기꺼이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상 폐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시고, 고뇌하여 몸을 굽히셨도다! 이 광경은 온 천국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죄의 엄청난 악의 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는 무한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과 유사한 속임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법도는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죄에 속박된 수백만 명, 둘째 사망을 겪게 되어 있는 사탄의 종들은 그가 방문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끔찍한 실명! 이상한 말도 안돼!

부활절 이틀 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후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감람산에 가시어 풀이 무성한 비탈에 그들과 함께 앉으셨다. 도시의 탁 트인 전망. 다시 한 번 그분은 그 성벽과 망대와 궁전을 관찰하셨습니다.

신성한 산에 왕관을 씌운 아름다움의 왕관인 매혹적인 광채를 지닌 사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전에 시편 기자는 거룩한 집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 76:2). 그분은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당으로 건축”하셨습니다. (시 78:68, 69).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윗 왕은 많은 보물을 축적하였고, 그 건축 계획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대상 28:12, 19).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군주인 솔로몬이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 사원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본 건물 중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둘째 성전에 관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성전의 영광이 첫 성전보다 크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떨게 할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학개 2:9 및 7).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그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500년 전에 오랜 포로 생활에서 파괴되고 거의 황량한 나라로 돌아온 백성에게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새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그 건물이 전 건물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생각하여 우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느낌을 효과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서 이 성전의 처음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너희 눈에는 이것에 비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학개 2:3; 스 3:12).

그리고 이 마지막 집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그 장엄함에서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의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도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을 기념할 만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현은 없었습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우는 영광의 구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태울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세키나"는 더 이상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지 않습니다.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판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제사장에게 여호와와 뜻을 알리는 어떤 음성도 하늘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학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자부심과

불신은 선지자의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이의 살아 계신 임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사렛 사람이 거룩한 뜰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쳤을 때, “만국의 보배”가 그분의 성전에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만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째 성전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물로 바쳐진 하늘의 선물을 스스로 빼앗았고, 그 날 황금 문을 떠나신 겸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은 성전에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라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38).

제자들은 예언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와 노동, 건축 기술을 40년 이상 아낌없이 쏟아부어 도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에게 로마와 유대의 부를 아낌없이 베풀었고 심지어 세상의 황제도 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로마에서 직접 가져온 거의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흰색 대리석 블록이 구조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제자들은 “돌들과 건물들을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주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마가복음 13:1)

이 말씀에 대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인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

예루살렘의 붕괴와 함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인 영광 중에 친히 오셔서 우주 제국의 보좌를 차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고 로마의 속박에서 나라를 해방시키신 사건을 연관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자 그들의 마음은 그 임재로 돌이켜 감람산에 구주와 함께 모여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나라에 무슨 표적이 있사오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는 것과 세상의 종말로부터? ” (마태복음 24:3)

자비롭게도 미래는 제자들에게 가려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두 가지 무서운 사건, 즉 구속주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도시와 성전의 멸망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중요한 움직임에 대한 요약물 그들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분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할 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예언은 그 의미에 있어서 이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하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 특히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한 보복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절정에 앞서 틀림없는 징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운 시간은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마태복음 24:15, 16; 누가복음 21:20) 성벽 너머 수백 야드 떨어진 성지에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도주에서 안전을 찾아야 합니다. 경고 표시가 보이자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는 도망하라는 신호를 즉시 따라야 했습니다. 결국 그랬던 사람

그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집 지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더울 때 일할 때 흔히 버려지는 겉옷을 가져오느라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면적인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헤롯의 통치 하에서 예루살렘은 크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의 자연적인 힘에 더해 망대, 성벽,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그 도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멸망을 공개적으로 예언한 사람은 그 시대의 노아처럼 미친 경각심 있는 사람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35) 그들의 죄와 완고한 불신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진노가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선언하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정의를 미워하며 모든 정의를 굽게 하며 피로 시온을 건설하며 불의로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너희여 이 말을 들으라. 그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판결하며 그 제사장은 이자를 위하여 가르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도다.” (미가 3:9-

11).

이 말은 독선이 가득한 부패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으나 그 율법의 모든 원칙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 자신의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며,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의 원인이 그리스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국가로서의 안전을 위해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만일 우리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48) 만일 그리스도가 희생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강하고 연합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대제사장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건설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구주께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의 구주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독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이 밭처럼 갈아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에 이르리라.” (미가 3:12).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신 후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 도시와 나라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연장하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거부하고 당신의 아들을 살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놀라웠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대하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베어라. 왜 아직도 땅을 쓸데없이 점유하고 있는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누가복음 13:7)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녀를 잠시 동안 살려두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일축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고 빛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의 전파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뿐 아니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자녀는 부모의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주어진 모든 빛을 알고도 그들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빛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들의 죄악을 찻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들의 완고한 완고함을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대한 증오와 잔인함으로 마지막 자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보호를 거두시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서 그들의 억제력을 거두셨으며 그 나라는 그분이 택하신 지도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악한 충동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이제 그들은 정복자가 되었다. 사단은 영혼의 가장 낮고 가장 맹렬한 정욕을 자극했습니다. 남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넘어서 충동과 맹목적인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은 잔인함으로 인해 사탄과 같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국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의심, 시기, 증오, 분쟁, 반역, 살인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보안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친척이 서로 배신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고, 자식이 부모를 죽였습니다. 국민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통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 우리를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거짓 비난은 그 자신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사야 30:11) 이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국가의 수장이었고, 최고 수준의 시민적, 종교적 권위가 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함께 뭉쳐서 불행한 희생자들을 약탈하고 고문했으며, 다시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성전의 신성함조차도 그들의 무서운 잔인함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자들은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성소는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일을 선동한 자들은 그들의 맹목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추측으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도시이므로 멸망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로마 군단이 성전을 포위했을 때에도 백성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끝까지 군중은 가장 높으신 분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였고 이제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었습니다. 불행한 예루살렘여! 내부 불화로 분열되고, 서로의 손에 의해 아들들의 피가 죽고, 거리가 붉게 물들고, 외국 군대가 요새를 파괴하고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라는 그분의 경고 말씀이 참됨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7:2)

재난과 파멸을 알리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초자연적인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비치었습니다. 구름 위, 해가 질 무렵, 전차와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 집결했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상한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여기서 떠나자!”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의 큰 문은 너무 무거워서 스무 명도 거의 닫을 수 없었고, 거대한 쇠창살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한 돌층계에 깊이 고정되어 눈에 띄는 요원의 조차 없이 자정에 문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며 그 도시에 닥칠 불행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놀라운 애곡을 불렀다. “동쪽에서 오는 소리, 서쪽에서 오는 소리, 사방에서 오는 소리! 예루살렘과 성전을 반대하는 소리여!

신랑과 신부를 반대하는 목소리! 인민을 반대하는 목소리!” 이 이상한 존재는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애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학대에 그는 단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아! 예루살렘이여!” “화로다! 그 주민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가 예언했던 포위 공격에서 죽기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약속된 표적을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이른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중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1:20, 21) 케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로마인들이 도시를 포위한 후, 모든 것이 즉각적인 공격에 유리해 보였을 때 그들은 설명할 수 없이 포위 공격을 해제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에 성공할 희망이 없는 포위된 사람들이 항복하려 했을 때 로마 장군은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는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표징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그들에게는 구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건은 유대인이나 로마인 모두 기독교인의 탈출을 막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케스티우스가 철수하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퇴각하는 군대를 추격했고, 두 군대가 완전히 전투를 벌이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떠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나라는 그들을 가로막으려는 적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포위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요단 강 건너편 페레아 땅에 있는 펠라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케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추격하던 유대 군대는 그토록 잔인하게 후방으로 쓰러져 케스티우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철수를 완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사상자 없이 탈출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성공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 대한 완고한 저항을 장려했고, 이는 곧 운명의 도시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Titus Vespasian)가 포위 공격을 재개했을 때 예루살렘에 닥친 재난은 끔찍했습니다. 그 도시는 유월절 때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성벽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존했다면 주민들에게 여러 해 동안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식량은 이전에는 논쟁을 벌이는 세력들 사이의 시기와 복수로 파괴되었으며 이제는 기근의 모든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밀 한 스아가 한 달란트에 팔렸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허리띠와 신발의 가죽과 방패의 안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빠져나와 성벽 바깥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을 채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고문을 당해 붙잡혀 죽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이 그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모은 것을 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비인도적인 고문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숨겼을 수도 있는 마지막 빈약한 보급품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잔인함은 잘 먹고 단지 미래를 위한 식량을 비축해 두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자행되었습니다.

기근과 역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애정이 파괴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물건을 훔쳤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연로한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선지자의 질문: "여자가 자신이 키우는 아이에 대해 그토록 잊을 수 있습니까?" (사 49:15) 정죄받은 도시의 성벽 안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녀를 삶아 내 딸 백성을 멸망시킬 때에 식물로 삼았느니라." (도주.

4:10). 다시 14세기 전에 주어진 경고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품과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또 그의 자식들을 위함이나 네 원수가 에워싸고 맹렬히 치는 중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므로 그가 그것을 은밀히 먹을 것임이나 당신은 당신의 문에 있습니다. (신명기 28:56, 57)

로마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그들이 항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항한 수감자들은 투옥되면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성벽 앞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 끔찍한 일은 여호사밧 계곡을 따라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그들 사이에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라는 소름끼치는 저주가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갇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7:25)

디도는 기꺼이 그 끔찍한 상황을 끝내고 예루살렘이 그 운명을 완전히 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곡에 쌓여 있는 시체들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마치 매료된 사람처럼 그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돌에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점령하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제로 성소를 피로 더럽히지 말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다른 곳에서 싸운다면 어떤 로마인도 성전의 신성함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자신은 매우 설득력 있는 호소를 통해 그의 동포들에게 항복하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시와 예배 장소를 구원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신랄한 저주로 대답됐다. 계속해서 그들을 촉구하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 인간 중재자인 그에게 화살이 발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간청을 거절하였고 이제 그 훈계와 간청은 그들을 끝까지 저항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다. 성전을 지키려는 디도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누군가가 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완고함과 포위된 도시 내에서 자행된 가증스러운 범죄는 로마인들 사이에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티투스네 폭력으로 성전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능하다면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불복종되었습니다.

그가 밤을 지내기 위해 천막으로 들어가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밖에 있는 군인들을 공격했습니다. 투쟁 중에 현관의 구멍을 통해 횃불이 던져졌고, 즉시 신성한 건물을 둘러싼 삼나무로 덮인 방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티도는 장군과 군단병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군인들에게 불을 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분노한 군인들은 성전에 인접한 방에 횃불을 던졌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사람들을 칼로 대거 죽였습니다. 성전 계단 아래로 피가 물처럼 흘렀습니다. 수천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싸우는 소리 너머로 “이거 보드!”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티토는 군인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교들과 함께 신성한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본 광채는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꽃이 아직 성소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병사들 사이로 뛰어들어 다시 한 번 싸움을 멈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백부장 Liberalis는 그의 참모진과 함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존경심조차도 유대인에 대한 맹렬한 적개심, 전투의 맹렬한 악화, 약탈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이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불꽃의 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이 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한 군인이 문 경첩 사이에 불타는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눈부신 연기와 화염으로 인해 장교들은 후퇴했고, 고귀한 건물은 운명에 맡겨졌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 전체가 화산처럼 불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들이 차례로 무너졌고, 사람들에게 삼켜졌습니다. 지붕들 백향목 망대는 불길 같고 금 침탑은 붉은 빛 침탑 같고 문루는 불과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이웃 산들은 빛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더라 끔찍한 불안으로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시 상부의 성벽과 높은 곳은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고통으로 창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복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로마 병사들의 고향소리,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반군들의 비명 소리가 화재의 소음과 목재가 무너지는 천둥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산의 메아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음에 반응하거나 다시 가져왔습니다. 비명과 애도가 벽을 따라 울려 퍼졌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모아 비통함과 절망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밖에서 보는 광경보다 더욱 끔찍했다.

남자와 여자, 노소, 반군과 성직자, 싸우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무차별 학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살인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군단병들은 말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체 더미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도시 전체가 곧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정복할 수 없는 망대를 버렸고, 티투스는 그 망대가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들을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쟁 기계도 그 거대한 성벽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과 성전은 기초까지 무너졌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땅은 “발처럼 갈아졌”습니다 (렘 26:18). 이어진 포위 공격과 학살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렸으며, 승자의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고, 원형 극장의 맹수들에게 던져졌거나, 집 없는 방랑자로 지구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족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로서 닥친 완전한 파멸 속에서,

흘어진 후에 그들에게 닥친 불행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반역하여 패망하였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오세. 13:9; 14:1). 그들의 고통은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형벌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기꾼이 자신의 일을 숨기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였고, 사단은 그의 뜻에 따라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받았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자행된 끔찍한 잔혹행위는 그의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탄의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보호에 대해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통제 아래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잔인하고 비뚤어진 세력을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관용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 제한은 제거됩니다. 죄인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범법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부된 모든 빛의 광선, 멸시되거나 무시된 모든 경고, 탐닉된 모든 정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수확을 낳는 뿌려진 씨앗입니다. 끈질기게 저항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죄인에게서 물러나고, 그 결과 영혼의 악한 정욕을 통제할 능력이 남지 않게 되며, 사탄의 사악함과 적개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탄원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대하고 엄숙한 경고가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죄인에게 임할 확실한 형벌에 대해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관한 구주의 예언은 또 다른 성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끔찍한 비극은 그 예언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선택받은 도시의 운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그분의 율법을 기뻐한 세상이 정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지구가 오랜 세기에 걸친 범죄 동안 목격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들을 목상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하늘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는 엄청났지만, 미래의 계시에서는 더욱 어두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기록, 즉 소란과 갈등과 혁명의 기나긴 행렬, “소란스럽게 싸우는 자들의 갑옷과 피에 뒹구는 옷”(사 9:5)은 과거의 기록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공포는 하나님의 영이 악인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더 이상 인간의 정욕과 사탄의 진노가 터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탄의 통치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산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사 4:3)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를 내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30, 31). 그 때에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입의 영으로 소멸되고 그의 강림의 광채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다(살후 2:8).

옛날 이스라엘처럼 악인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너무도 멀어서 그들의 본성은 악으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달된 교훈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 경고하시고 다가오는 헤카툼에서 벗어날 표징을 주신 것처럼, 그분은 그 마지막 멸망의 날에 대해 세상에 경고하시고, 원하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 날이 다가올 표징을 주셨습니다. 다가올 분노.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일월성신에는 표징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25; 마 24:29; 마가복음 13:24-26; 요한계시록 6:12-17)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징조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까웠고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3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막 13:35)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듣는 사람은 어둠 속에 버림받아 그날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오리라”(살전 5:2).

세상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구주의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한 기별에 더 이상 영예를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의 날은 갑자기 악인에게 임하리라. 당신의 변함없는 일상을 따르세요. 즐거움, 사업, 상업 및 이익 탐욕에 연루된 남성을 찾는 것;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사람들은 거짓 안전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한밤중에 지키지 않은 집을 약탈하듯이 부주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홀연한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5).

제 2 장

초기의 박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장면을 계시하셨을 때, 그분이 그들을 떠나실 때부터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백성들의 경험을 예언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구주께서는 사도들의 교회에 곧 닥칠 폭풍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미래를 더 깊이 꿰뚫어 보시고 다가오는 암흑과 박해의 시대에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닥칠 맹렬하고 파괴적인 폭풍을 식별하셨습니다. 끔찍한 의미를 지닌 몇 가지 간결한 진술을 통해 그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부과할 역할을 예언했습니다(마 24:9, 21, 22).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똑같은 굴욕과 비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에게 내려진 적개심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했습니다. 이교는 복음이 승리하면 그 성전과 제단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박해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싸움”을 견뎌냈습니다(히 10:32).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심지어 감옥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히브리서 11:36).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귀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받은 자와 무학한 자 모두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 정부 하에서, 바울이 순교할 당시 시작된 이러한 박해는 수세기 동안 어느 정도 맹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끔찍한 범죄와 기근, 역병, 지진과 같은 큰 재앙을 초래했다는 거짓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대중의 증오와 의심의 대상이 되자 이익을 사랑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기꺼이 배반하려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국에 대한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의 해충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맹수에게 던져지거나 원형 극장에서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의 가족으로 뒤덮인 채 경기장에 던져져 개들에게 찢겨졌습니다. 그의 형벌은 종종 대중의 주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공연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웃음과 박수로 희생자들의 처절한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피난처를 찾는 곳마다 들짐승처럼 사냥당했습니다. 그들은 항랑하고 외로운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빈곤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토굴과 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37, 38). 카타콤바는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로마 경계 바깥의 언덕 아래에는 흙과 바위를 뚫고 긴 회랑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 성벽 너머로 수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어둡고 복잡한 통로 네트워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이 지하 격리실에 죽은 사람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의심받고 불법화되었을 때 그들은 집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깨어날 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동굴에서 나올 것입니다.

가장 야만적인 박해 속에서도 이 예수의 증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흠 없이 지켰습니다. 모든 안락함과 햇빛은 박탈당했지만, 어둡지만 친근한 대지의 마음을 그들의 집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말로 서로 격려하여 궁핍과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락을 잃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을 안식과 보상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자기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히 11:35).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큼으로 기뻐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들보다 먼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으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하늘의 흥벽에 기대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승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확고함을 관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계 2:10).

폭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이 충실한 기수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었으나 그분의 사업은 결단력 있게 전진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추종자들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의 독수리들도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침투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조장하는 이교 총독들을 훈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의 사악함은 우리의 약함을 시험하지만 그러한 잔인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확신으로 이끌도록 하는 강력한 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더 많이 수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수천 명이 체포되어 살해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보장되었고 그분은 승리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견뎌낸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살아 있는 모본과 그들이 임종 당시에 한 간증은 진리를 옹호하는 영구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탄의 백성들은 그의 봉사를 떠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기독교 교회에 그의 깃발을 꽃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더욱 성공적으로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힘과 인내와 확고함은 쇠퇴하고 손쉬운 먹이가 될 것입니다.

대적은 이제 무력으로 얻지 못한 것을 교활하게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해는 그쳤고 그 자리는 세상적인 번영과 명예라는 위험한 유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핵심 진리는 거부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회개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엄청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에 비하면 감옥과 고문과 불과 칼은 축복이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일부 특징을 양도하거나 수정하는 데 찬성했고, 기독교의 일부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합류하면서 이것이 완전한 개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깊은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위 기독교라는 가면을 쓴 사탄은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그들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진리의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준을 낮추는 데 동의했고, 기독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회심하여 교회와 연합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매달리고 예배의 대상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심지어 마리아와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에 유입된 우상 숭배의 혐오스러운 동요는 교회에 해로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잘못된 교리, 미신적인 의식, 우상 숭배 의식이 그들의 신앙과 예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힘을 합쳤을 때 기독교는 부패했고 교회는 그 순수성과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리의 창시자에게 충성을 유지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결점을 바로잡고 모델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폭로하는 명확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피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순수하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고의로 죄에 빠지는 사람은 교회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품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과 연합시키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과 모범의 유익을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그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자들과 연합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그러나 유다는 은혜롭게 그에게 비치도록 허락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탐닉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나쁜 성격 특성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비난을 받자 분노하여 스승을 배반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 악을 품는 모든 사람은 죄의 길을 정죄함으로써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들은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배반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은밀히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려고 탐욕스럽게 자신들의 일부를 보류하면서 속이는 자들로 행동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이 사기꾼들의 실제 성격을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순결함에 대한 이 미움의 오점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켰습니다. 교회 안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 놀라운 증거는 위선자들과 행악자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습관과 성향에 있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박해가 닥쳤을 때,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교회는 남아 있었다.

비교적 순수하다. 그러나 괴롭힘이 그치자 덜 성실하고 헌신적인 개종자들이 교회에 합류했고,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빛의 왕과 어둠의 왕 사이에는 연합이 없으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도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에서 반 개종한 사람들과 연합하기로 동의했을 때,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로 빛나갔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그토록 많은 수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 그들에게 더 큰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을 박해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때 참된 기독교 신앙을 옹호했던 사람들만큼 참된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방법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도자들은 반 이교도 동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교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에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교회에 유입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위장한 속임수와 가증한 것에 맞서 충실하고 굳건히 서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사적인 투쟁이 요구되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교리는 이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불법화되었습니다.

길고도 극심한 갈등 끝에, 충실한 소수의 소수는 배도한 교회가 여전히 거짓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와의 모든 연합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오류를 감히 용납하지 못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손녀의 신앙에 위험을 의미할 것입니다. 평화와 연합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과 일치하는 어떠한 양보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평화조차도 원칙을 희생함으로써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타협해야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차이가 생기고 심지어 투쟁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이 충성스러운 영혼들에게 작용했던 원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되살아난다면 교회와 세상에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둥인 교리에 대한 놀랄 만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손을 강화시켜 지난 시대의 충실한 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하고 싸웠던 거짓 이론과 치명적인 환상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흠 없는 행실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죄인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끊임없는 책망이었습니다. 비록 수가 적고 부나 지위나 명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성격과 교리가 알려진 곳이면 어디든 행악자들에게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벨이 신성 모독하는 가인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그들의 이기심과 부패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충실한 제자들은 죄의 길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평화의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에게 “평화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 평야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선하신 뜻이 있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14) 이러한 예언적 진술과 예언적 진술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이다.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지구 전체에 평화, 조화, 행복을 퍼뜨릴 체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장 극심한 대적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삶의 원칙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그들은 그것에 반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순결함을 미워하며, 자신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주장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킵니다. 복음이 칼이라고 불리는 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고상한 진리 때문에 증오와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박해를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신비한 섭리는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도록 허락하시는 반면, 가장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한 능력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한 불의와 억압을 용인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섭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주께서는 시련과 암흑의 시대에 그들의 영혼을 압박할 의심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요한복음 15:20)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추종자들이 악한 사람들의 잔인함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문과 순교를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잡아가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악인들이 그들의 참 모습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시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십니다. 의인들이 다시 고난의 풀무에 던져지는 것은 그들 자신이 정결케 되기 위함이며, 그들의 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의 일관된 행실이 악인과 불신자들을 정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그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최악의 분량을 채웠을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완전한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 날에는 그분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을 향한 모든 잔인함과 불의의 행위는 마치 그리스도께 행해진 것처럼 처벌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을 끌어야 할 또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박해가 대체로 잠잠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어떤 반대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현재 종교는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었던 순수하고 거룩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가 그토록 무관심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바로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생명력 있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너무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부흥하게 하여 박해의 영이 되살아나서 박해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3 장

배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교황권을 확립하게 될 대배교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나타나기를 원함이라”(살후 2:3,4). 더욱이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살후 2:7)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교회에 몰래 들어가 교황권의 발전을 위한 길을 마련할 오류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점차적으로, 그러나 세력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함에 따라 더욱 공개적으로 불법의 신비가 계속해서 신성모독하고 기만적인 일을 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교도의 관습이 기독교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타협과 순응의 정신은 이교주의 하에서 교회가 견뎌낸 극심한 박해로 인해 한동안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고 기독교가 왕궁과 왕궁에 침투하자 그리스도교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함을 버리고 이교 제사장과 통치자들의 거만함과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 대신에 교회는 인간의 이론과 전통을 두었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의 명목상 개종은 큰 기쁨을 가져왔고 세상은 의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패 활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의식과 미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신앙과 예배에 통합되었습니다.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이러한 타협은 예언에서 예언된 “불법의 사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 종교 제도는 사탄의 능력의 걸작이자 보좌에 앉아 자신의 뜻에 따라 땅을 통치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사탄은 한때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분은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셔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시고, 만일 예수께서 흑암의 왕의 우월성을 인정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만한 유혹자를 꾸짖으시고 그를 강제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에게 동일한 유혹을 더 성공적으로 제시합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호의와 지원을 구했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는 사탄의 대표자인 로마의 주교에게 순종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로마교의 주요 교리 중 하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의 눈에 보이는 수장이며, 세계 각지의 주교와 목사들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황은 신성이라는 칭호를 오만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 하느님 교황”이라고 부르며,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동일한 주장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주장되고 있으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 경의를 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활한 원수의 요구에 직면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대담한 뻔뻔함에 직면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누가복음 4:8)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한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다는 암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황의 최상권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교황은 찬탈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어떤 권세도 갖지 않습니다.

로마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이단이며 참된 교회에서 고의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비난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려놓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 3절)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사탄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들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도 공격을 받으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방패를 높이 들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모든 제안에 그분은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반대하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교황 찬탈자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경을 무지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고 유한한 인간을 그의 참된 위치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성한 진리는 숨겨지고 억압되어야 했습니다. 이 논리는 로마 교회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서의 유통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거나 집에 두는 것이 금지되었고, 부도덕한 사제들과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그 가르침을 해석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지구상의 하나님의 대표자로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류 탐지기가 제거된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일했습니다. 그 예언은 교황권이 “때와 율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다니엘 7:25).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의 명목상 기독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형상과 유물 숭배가 점차 기독교 예배에 도입되었습니다. 총회의 법령1은 마침내 우상 숭배 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신성 모독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 로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형상 숭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십계명을 보존하기 위해 열째 계명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교에 대한 방임의 정신은 하늘의 권위에 대한 더욱 큰 불경을 불러일으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탄은 또한 넷째 계명을 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인 수백만 달러의 안식일을 제쳐두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이교도들이 “송양받는 태양의 날”로 지키는 축제를 찬양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였고 그분의 율법이 불변함을 믿고 그 계율의 신성함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일요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날 종교예배는 거행되었으나 여전히 휴양일로 지켜졌다. 동시에 안식일은 여전히 열심히 지켜졌습니다.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사업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안식일에 가장 엄격한 요구를 하여 그 준수를 무거운 짐으로 삼았다. 이제 그는 안식일에 대해 거짓 빛을 던졌다는 점을 이용하여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로 경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한

일요일을 여가의 날로 삼고, 사탄은 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증오를 보여주고, 토요일을 슬픔과 금식과 우울의 날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4세기 전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을 로마 제국 전역의 공적인 축제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³ 태양의 날은 그의 이교도 신민들에 의해 숭배되었고 기독교에서는 존중되었습니다. 이교와 기독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야심과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기독교인과 이교도 모두가 같은 날을 지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교회의 주교들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설득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점차적으로 일요일을 어느 정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안식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여기고 넷째 계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켰습니다.

대기만자는 아직 그의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깃발 아래 기독교 세계를 통합하고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교황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쯤 개종한 이교도, 야심찬 고위 성직자, 세상을 사랑하는 성직자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대협의회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좀 더 강조되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높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이교 축제는 마침내 신의 제도로 영예를 얻게 되었고, 반면에 성서의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로 선언되었으며 그 준수는 저주로 선언되었습니다.

대배도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대하여”(데살로니가 후서 2:4) 자기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명백히 가리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유일한 계율을 감히 바꾸었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계시되시며, 그러므로 거짓 신들과 구별됩니다. 일곱째 날은 창조의 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안식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특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하는 계명을 반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합니다.

이제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기독교 안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성경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 날에는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 영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제도로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불법의 신비”(데살로니가 후서 2:7)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 시대에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교황권의 아들을 입양하셨는가? 성경이 승인하지 않는 변경에 대해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6세기에는 교황권이 확고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의 중심지는 제국의 도시에 세워졌고 로마의 주교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교주의는 교황권에 무너졌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요한계시록 13:2)를 주었습니다.

그러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에 예언된 교황의 압제 1,260년이 시작되었습니다.”² 그리스도인들은 충절을 유지하는 것과 교황의 숭배와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여생을 지하 감옥에서 보내거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고문대, 화형대 또는 사형집행인의 도끼 아래.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1:16 및

17). 이전에는 유례없이 맹렬한 박해가 신자들에게 닥쳤고,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둔과 모호함 속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느니라.” (계시록 12:6).

로마 교회의 권력 장악은 암흑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힘이 커질수록 어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믿음은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로마 교황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대신에, 교황이 권위를 위임한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그들의 지상 중재자이며 그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는 것은 범죄자의 육체와 영혼에 가장 엄격한 처벌을 가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오류가 많고, 그릇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로 향했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 흑암의 왕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거룩함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성경이 억압되고 인간이 최고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기, 기만, 엄청난 사악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과 전통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항상 발생하는 부패가 명백해졌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충실한 기수는 실제로 소수였습니다. 진리가 목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만연하고 참 종교가 땅에서 추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은 사라졌지만 종교의 형태는 다양해졌고 사람들은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을 중보자로 삼을 뿐 아니라 죄를 속죄하는 데 적합한 행위를 신뢰하도록 배웠습니다. 긴 순례, 참회 행위, 유물 숭배, 교회, 성소 및 제단 건축, 교회에 많은 금액의 지불, 이와 유사한 많은 행위는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거나 그분의 은혜를 확보하기 위해 명령되었습니다. 사람들이여, 그분께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거나 제물이나 참회 행위로 마음을 진정시키셔야 합니다!

악덕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 영향력은 꾸준히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8세기 말경에 교황주의자들은 교회 초기에 로마의 주교들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확립하려면 그에게 권위의 얼굴을 주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했고, 이는 거짓말의 아버지가 쉽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글은 승려들에 의해 위조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공의회 법령이 발견되어 초창기부터 교황의 보편적 우월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했던 교회는 이러한 속임수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기초(고전 3:10, 11) 위에 세워진 소수의 신실한 건축자들은 거짓 교리의 잔해가 사업을 방해할 때 당황하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게 하는 자들의 힘이 쇠하고 잔해가 너무 많아서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느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10) 박해, 사기, 불법 및 사단이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에 맞서는 끊임없는 투쟁에 지쳐서 충실한 건축자였던 일부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재산과 생명이 근본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를 기억하라"(느헤미야 4:14). 그리고 그들은 각각 칼을 허리에 차고 역사를 계속했습니다(엡 6:17).

진리에 대한 동일한 증오와 반대의 정신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동일한 경계와 신실함이 그들의 종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37)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상 숭배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형상과 기도가 두려지기 전에 촛불을 태웠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미신이 만연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미신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있어서 이성 자체가 그 영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제들과 주교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관능적이며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지와 악덕에 빠질 것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 즉위의 또 다른 단계는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로마 교회의 완전성을 선포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제시한 제안 중에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증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선포한 어떤 판결도 누구도 번복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자신의 특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오류성을 옹호하는 이 사람의 전제적 성격에 대한 특별한 예는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를 대하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교황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군주는 파문당하고 폐위되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 반란을 부추긴 자신의 왕자들의 탈영과 위협에 겁을 먹은 헨리는 로마와 화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와 충실한 하인과 함께 겨울 동안 알프스를 넘어 교황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레고리가 은퇴한 성에 도착하자 그는 경비병의 호위 없이 바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극심한 겨울 추위 속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맨발에 비참한 옷을 입은 채 허락을 기다렸다. 교황이 그보다 먼저 갈 것입니다.

헨리가 3일 동안 단식하고 고백한 후에야 교황은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것은 황제가 그의 위엄을 회복하거나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교황의 승인을 기다리는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레고리는 "왕들의 자존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오만한 교황의 지배적인 자존심과 용서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음의 문에서 자신을 받아들일도록 간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유순함과 온유함 사이의 대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 20:27)

후세기에는 로마가 가르친 교리에 오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부터 이교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개종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교 철학의 교리를 고수하고 연구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 심각한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불멸성에 대한 믿음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들. 이 교리는 로마교가 성인 기원과 동정 마리아 숭배를 확립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이단이 나타났고, 이는 즉시 교황의 신앙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가 연옥이라고 불렀고, 속기 쉽고 미신적인 군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된 또 다른 이교 사상의 도입을 위한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이단을 통해 그녀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고 더러움에서 해방된 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고통의 장소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로마가 지지자들의 두려움과 악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임수, 즉 면죄부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함과 모든 부수적인 고통과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현세적 지배력을 확장하고, 적들을 처벌하거나, 감히 영적 우월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교황청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교회에 돈을 지불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불길 속에 갇혀 있던 죽은 친구들의 영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마는 금고를 가득 채우고 머리 돌 곳도 없는 그분의 대표자로 주장되는 이들의 장엄함과 사치, 악덕을 지원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경전의 의식은 우상 숭배적인 미사 희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황의 사제들은 무의미한 무언극으로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적인 가정을 가지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늘을 거역하는 이 끔찍한 이단에 대한 믿음을 선언해야 하며, 사형에 처해야 했으며 이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길에 던져졌습니다.

13세기에는 교황권의 모든 창조물 중 가장 끔찍한 것, 즉 종교 재판이 확립되었습니다. 어둠의 왕자는 교황 계층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였고, 반면에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악한 법령을 끔찍하게 기록하고, 너무 두려운 행위의 역사를 기록하여 사람이 볼 수 없게 하였다. 인간의 눈. “큰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훼손된 모습으로 이 배도한 세력에 대한 복수를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황권은 세상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왕과 황제는 로마 교황의 법령에 복종했습니다. 현재와 영원한 인간의 운명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교리는 광범위하고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로마의 의식은 경건하게 거행되었으며, 축제는 일반적으로 지켜졌습니다. 그 성직자들은 명예롭고 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로마 교회가 이보다 더 큰 위엄, 웅장함, 권력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황권의 정오는 세상의 도덕적인 자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바리새인들처럼 천주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빛을 싫어했습니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된 그들은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며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 탐욕, 방탕이 만연했습니다. 남자들은 부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범죄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궁전은 가장 사악한 방탕의 현장이었습니다. 통치하는 교황들 중 일부는 너무나 반항적인 범죄를 저질러 세속 총독들이 이들 교회 고위 인사들을 폐위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용납하기에는 너무 사악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은 지식, 예술, 문명 분야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지적 마비가 기독교에 떨어졌습니다.

교황의 통치 하에 있는 세상의 상태는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이 끔찍하고 충격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제사장이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6);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니라 오직 거짓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고 살인 위에 침입과 살인도 있느니라." (호세아 4:1, 2).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방한 결과였습니다.

제4장

알도파

교황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지상에 내린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유일한 삶의 법칙으로 여기고, 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후손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단자로 정죄받았고, 그들의 동기는 도전을 받았고, 그들의 성격은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그들의 저술은 금지되고, 왜곡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건함을 유지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산으로서 그 순수성에 대한 믿음을 대대로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패권이 확립된 후 뒤따른 암흑의 세기 동안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기록에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박해자들의 비난 외에는 그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교리나 법령에서 반대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글이든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의 표현, 즉 교황 교리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부자와 가난한 자, 높거나 낮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는 또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잔인함에 대한 모든 기록을 파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황 공의회는 그러한 기록이 담긴 책과 저작물을 불 속에 던져야 한다고 포고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책의 수가 적었고 보존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주의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교회도 오랫동안 양심의 자유를 편안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황 권은 권세를 얻자마자 팔을 뻗어 그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차례로 그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아주 일찍 영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세기에 영국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로마교의 배교로 인한 부패가 없었습니다. 이 먼 해안까지 확장된 이교 황제들의 박해는 영국 최초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영국의 박해를 피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코틀랜드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진리는 아일랜드로 전해졌고, 이 모든 나라에서 진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색슨족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이교도가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정복자들은 노예들의 가르침을 경멸했고, 기독교인들은 거친 산과 습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가려졌던 빛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한 세기 후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장 먼 땅까지 퍼져나가는 광채로 빛났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경건한 콜롬바와 그의 협력자들이 왔고, 그들은 외딴 섬인 아이오나에 흩어진 신자들을 모아 그곳을 선교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도자들 중에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하여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선교사들이 떠난 학교가 이오나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영국에 눈을 돌리고 영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6세기에 그 선교사들은 이교도 색슨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야만인들의 호의를 얻었고 수천 명이 로마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황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개종자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눈에 띄는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자는 성격과 교리와 태도에 있어서 단순하고 겸손하며 성경적이었지만, 전자는 교황권의 미신과 거만함과 오만함을 드러냈다.

로마 사절은 이들 기독교 교회들이 주권자인 교황의 우월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교황은 교회에서 최상권을 가질 권리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복종만 교황에게 양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복종을 얻으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들의 사자들이 나타낸 교만에 놀란 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교황권의 진정한 정신이 드러났습니다. 그 로마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쟁을 가져올 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색슨족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로부터 치명타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파괴되거나 교황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성경적 신앙의 증인들을 상대로 전쟁과 음모와 속임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관할권 밖에 있는 나라들에는 교황의 부패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집단이 여러 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교주의에 둘러싸여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믿음의 법칙으로 지키고 성경의 많은 진리에 순종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함을 믿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는 교회는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남용에 저항한 사람들 중에서는 왈도파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교황권이 왕좌를 차지한 바로 그 땅에서, 교황권의 거짓과 부패는 가장 확고하게 저항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피에몬테 교회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폭정에 맞서 헛된 투쟁을 벌인 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온 세상이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권세의 우월성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들의 권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믿음의 순결함과 단순성을 보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별이 있었습니다. 옛 믿음을 고수하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부는 고향 알프스를 버리고 외국 땅에서 진리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좁고 고립된 계곡과 바위산 은신처로 물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보존했습니다.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유지하고 가르쳤던 신앙은 로마가 전파한 거짓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의 합법적 체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그들의 양 떼와 포도원에서 매일의 수고에 얽매인, 알려지지 않은 은신처에 있는 저 겸손한 농부들은 배도한 교회의 교리와 이단에 반대되는 진리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최근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적 신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교회의 믿음, 즉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 3절)을 위해 싸웠습니다. 광활한 수도에 자리잡은 교만한 계층이 아닌 “사막의 교회”

세상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진리의 보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참된 교회가 로마에서 분리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예언에서 예언된 대로, 교황권은 진리를 땅에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혀 티끌이 되었고 사람의 전통과 관습은 높아졌습니다. 교황권 아래 있던 교회들은 곧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연한 오류와 미신으로 인해 심지어 하나님의 참 백성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여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요일에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황 지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더럽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더 가혹한 언어로 비난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피함으로써만 일부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왈도파 사람들은 유럽의 모든 민족 중에서 최초로 성경 번역본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들은 모국어로 손으로 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진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특별한 증오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가 묵시록 이후 배교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고 목숨을 걸고 그 부패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장기간의 박해로 인해 계속되는 압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타협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원칙을 조금씩 포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암흑과 배도를 통해 로마의 패권을 부인하고 형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며 참 안식일을 지키는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의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사보아 왕가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불에 타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 세기 동안 박해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던 산의 높은 성벽 뒤에서 왈도파 사람들은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고대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맡겨진 강력한 진리에 걸맞은 인상적이고 장엄한 성소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충실한 유배자들에게 산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위에 우뚝 솟은 변함없는 위엄을 자녀들에게 지적하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영원한 산.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띠를 띠셨느니라. 무한한 힘을 지닌 팔 외에는 어떤 팔도 그들을 제자리에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팔은 동료 인간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명을 끝낼 수 있지만, 그 팔은 여호와의 율법의 계울을 바꾸거나 그분의 계울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을 그 기초에서 뽑아 바다에 던지는 데에는 무력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그분의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은 불변의 산들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아래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으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소리 없는 상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닦힌 고난 때문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고독 속에서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노와 잔인함을 피할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누리며 기뻐했습니다.

종종 적들이 쫓을 때 높은 산의 요새가

그들에게 안전한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로마 군대는 그들의 감사 노래를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건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열렬했습니다. 그들은 집과 땅, 친구, 친척, 심지어 생명 그 자체보다 진리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이러한 원리를 주의 깊게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 사본은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귀중한 진리는 기억 속에 맡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숭고한 자연의 풍경과 일상생활의 소박한 축복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 이들은 모든 은혜와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한 부모로서 그들은 자녀를 매우 현명하게 사랑했으며 자녀가 방종에 익숙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놓여 있으며 아마도 순교자의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견디고 통제에 복종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법, 말을 통해 판단하는 법,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들의 귀에 들어간 부적절한 말이 그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형제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적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늑대들처럼 감히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케.종교적 신앙.

왈덴스인들은 진리를 위해 그들의 오랜 번영을 희생했으며, 끈기 있는 인내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싸웠습니다. 산 사이의 경작 가능한 땅은 모두 세심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계곡과 비옥하지 않은 경사면은 생산이 가능하도록 작업되었습니다. 절약과 엄격한 극기는 아이들이 유일한 유산으로 받은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삶을 훈련의 삶으로 계획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는 개인적인 노동, 선견지명, 돌봄, 믿음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힘들었지만 유익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훈련과 발전을 위해 마련하신 학교입니다.

청년들이 고난 속에서 수고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지성의 수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봉사를 위해 모두 향상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왈덴스 교회는 그 순수함과 단순함에서 사도 시대의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성서를 유일하고 최고이며 오류가 없는 권위로 옹호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오만한 로마의 사제들과는 달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0:28).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푸른 초장과 생명 샘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화려함과 교만의 랜드마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장엄한 교회나 큰 성당이 아니라 산 그늘 아래, 알프스 계곡에, 또는 위험할 때에는 바위가 많은 요새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어린이들과 교리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을 방문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훈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과 형제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으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펼쳐

천막 만드는 사람은 각자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배웠습니다.

청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반 학문 분야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성서가 주요 연구였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기억에 남고 많은 서신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복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성서 전체가 들어 있었고, 다른 사본에는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한 짧은 발췌문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진리의 보화가 드러났습니다.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때로는 지구상의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햇불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복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순금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겪은 시련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밝고, 더 선명하고, 더 강력했는지는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이 충실한 일꾼들을 둘러쌌습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오류와 이단과 미신의 쓰레기 속에 묻어두도록 교황의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선동했지만, 진리의 말씀은 모든 암흑 시대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썩지 않게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단순하고 순수한 의미를 모호하게 하고 자신들의 증언과 모순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를 위협하는 폭풍을 이깁니다. 광산에는 표면 아래에 풍부한 금과 은 광맥이 숨겨져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귀중한 광맥을 발견하기 위해 땅을 파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진지하고 겸손하며 경건한 구도자에게만 드러나는 진리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인류의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의 교과서로 삼으시고, 모든 시대에 연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계시로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별된 각각의 새로운 진리는 그 창조자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계시입니다. 성경 연구는 인간을 창조주와 친밀한 관계로 이끌고 그분의 뜻에 대한 더 명확한 지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왈도파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원리로 여겼지만, 마음을 확장하고 지각을 일깨우는 데 있어 세상과의 접촉, 인간의 지식과 활동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맹목적이지 않았습니. 일부 젊은이들은 산악 학교를 마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도시에 있는 교육 기관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고향인 알프스보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야가 더 광범위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젊은이들은 유혹에 노출되었고, 악행을 목격했으며, 그들에게 가장 교묘한 이단과 가장 위험한 속임수를 가져온 사탄의 교활한 대리자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은 그들을 이 모든 것에 대비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누구도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은 그들의 가장 큰 보물인 귀중한 성경 사본을 감추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져왔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손에 조심스럽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Vaudois 젊은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기관에서 참된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얻었으며, 종종 그들의

원칙은 학교 전체에 스며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지도자들은 가장 엄격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이단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선교적이다. 새롭게 된 마음의 첫 번째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회에서 진리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로마가 부과한 포로 생활을 깨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왈도파 목사들은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전도자로서의 경험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교회를 맡기 전에 어떤 선교지에서 3년 동안 봉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이 봉사는 인간의 영혼이 힘든 시대에 사목 생활에 적합한 입문이었습니다. 성직에 안수받은 젊은이들은 세상의 부와 영광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힘든 수고와 위험의 삶, 어쩌면 순교자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둘씩 둘씩 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청년은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남성과 어울리고, 자신의 훈련을 책임지고 청년이 그의 지시를 들어야 하는 동반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종종 모여서 기도하고 상담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 목적을 알리는 것은 그들에게 패배를 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성격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각 목사는 상업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선교사들은 세속 직업을 위장하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대개 상인이나 판매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비단, 레이스, 보석과 같은 엄선된 귀중품을 거래하여,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거부되었을 곳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바치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성서의 전체 사본이나 부분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제시하여 고객의 관심을 이 사본으로 이끌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흥미가 생기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부분이 기꺼이 남겨졌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사업은 자신들의 산기슭에 있는 평야와 계곡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맨발과 여행의 흔적이 있는 투박한 옷을 입고 그들은 스승님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를 통과하고 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씨앗을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 길에 교회가 나타났고 순교자들의 피가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 충실한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영혼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려져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계를 통과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마음에 행복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왈덴스인들에게 성경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신 기록이나 현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과 영광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으며, 기도와 눈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귀중한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무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책에 분명하게 밝혀진 구원의 계획을 보았고 신앙 안에서 위로와 희망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법왕의 오류의 흑암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교황과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죄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용서받기 위해 헛되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 생각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영혼과 육체를 괴롭게 했지만 아무런 구원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심적인 영혼들은 로마교리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친구와 친척을 버리고 수녀원의 감방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잦은 단식과 잔인한 채찍질, 한밤중의 철야 기도, 차갑고 축축한 그의 우울한 방의 돌 위에 오랜 시간 동안 부복하는 것, 오랜 순례, 굴욕적인 참회와 끔찍한 고문을 통해 수백만 명이 양심의 평안을 추구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친 본성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했고, 한 줄기 빛이나 희망도 없이 무덤에 빠졌습니다.

왈덴파 사람들은 이 영혼들과 생명의 빵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선행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속죄할 수 있다는 교리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신뢰하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자신을 추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영혼의 의존은 실제적이며, 그분과의 관계는 가지와 몸,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만큼 친밀해야 합니다.

교황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가혹하고 어둡고 적대적인 것으로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구주께서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너무 부족하여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계몽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근심과 피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팔을 벌리고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로 가리켜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와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사탄이 세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왈도파 선교사는 탐구하는 마음에 귀중한 복음 진리를 열성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된 부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복수심이 많으시며 심판을 집행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을 볼 수 있었던 양심적이고 죄에 빠진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과 눈물이 나는 눈으로 종종 무릎 꿇고 형제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희망을 드러내는 귀중한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빛은 어두워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어두운 구름을 물리쳤으며, 마침내 정의의 태양이 마음을 비춰 그 광선으로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여러 번 읽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듣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올바르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부분을 반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다음 말씀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일 1:7).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 15)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요구에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거나 천사가 중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참된 빛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지요, 그분의 피는 나의 희생이십니다. 당신의 제단은 나의 고해성사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6)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폭풍에 시달린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구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안도감이 너무나 컸고, 그들에게 쏟아진 빛의 홍수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천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졌느니라.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속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감옥과 기둥을 탐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장소로 옮겨져 때로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 때로는 빛과 진리를 갈망하는 소그룹에게 밝혀졌습니다. 종종 저녁 내내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너무 커서 사자의 사자는 이해가 구원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종종 읽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내 제물을 받아주실까? 그분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실까?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대답이 밝혀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믿음은 약속에 매달렸으며 다음과 같은 기쁜 응답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긴 순례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성한 유물을 찾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은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의 흐름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예수님의 이름은 찬양과 감사로 찬양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영혼들은 빛을 퍼뜨리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반복하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참되고 살아있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상하고 엄숙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리의 사자는 자신의 길을 갔지만 그의 겸손한 모습, 성실함, 진지함, 깊은 열정은 종종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 놀라고, 놀라고,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고집하자 예수께서는 양 떼 중 잃어버린 양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온 천사일까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의 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 미지의 지하 감옥에서 여생을 보냈는지, 아니면 진실을 목격한 곳에서 뼈가 하얗게 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파괴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결과는 오직 심판에서만 완전히 알려질 것입니다.

알도파 선교사들이 사탄의 왕국을 침공하고 있었고 어둠의 세력이 깨어나 더욱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악의 왕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는 그의 대리자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황의 지도자들은 이 겸손한 사람들의 수고가 자신들의 대의에 큰 위험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회. 진리의 빛이 방해받지 않고 빛나도록 허락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뒤덮고 있는 무거운 오류의 구름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결국 로마의 패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는 이 백성의 실제 존재는 로마의 배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으며, 따라서 가장 극심한 증오와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가 용납할 수 없는 빈번한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지구상에서 닦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산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끔찍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문관들이 그를 쫓았고, 무고한 아벨이 살인자인 가인 앞에 쓰러지는 장면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옥한 땅은 계속해서 황폐화되었고, 그들의 집과 예배당은 휩쓸려갔습니다. 한 때 무성한 들판과 근면한 사람들의 집이 있던 곳에 이제는 사막만 남았습니다. 맹수가 피 맛에 점점 더 분노하는 것처럼 교황주의자들의 분노도 희생자들의 고통에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들 순수한 신앙의 증인 중 다수는 산 전체에서 박해를 받았고, 울창한 숲과 바위 꼭대기에 숨어 있던 계곡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금지된 계급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적들조차도 그들을 평화롭고 조용하며 경건한 백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교황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범법으로 인해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할 수 있는 모든 굴욕과 모욕과 고문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로마가 한때 증오받는 종파를 근절하기로 결정했을 때, 교황은 그들을 이단자로 정죄하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인노켄티우스 8세, AD 1487). 그들을 도살장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방랑하다거나 부정적하다거나 무질서하다는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양 떼의 양”을 유혹하는 경건하고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사악하고 가증한 악한 종파”가 자신의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하면 “독사처럼 쳐부수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오만한 권력자가 이런 말을 다시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는 그 일들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심판 때에 그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이 교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단에 대항하는 십자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잔인한 일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개인은 “모든 교회적, 일반적, 개인적 고통과 형벌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황소는 십자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맹세했던 모든 맹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화하고 이단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모든 죄 사함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Vaudois를 위해 체결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하인에게 그들을 버리라고 명령했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문서는 배후에 있는 통제 정신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들리는 것은 용의 포효이지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닙니다.

교황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의 큰 표준에 맞추고 싶지 않았지만, 로마가 원했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그들 자신의 표준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따르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부패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성직자들과 교황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지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는 그의 본성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죽인 바로 그 영입니다. 똑같다

피에 굶주린 네로를 그 시대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대항하도록 움직였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 대해 여러 세기에 걸쳐 자행된 박해를 자신의 구속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내와 꾸준함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십자군 전쟁과 그들이 겪은 잔인한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중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받아 죽었지만 그들의 피가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어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알도파 사람들은 루터가 태어나기 몇 세기 전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땅에 씨를 뿌렸으며,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되어 루터 시대에 매우 넓고 깊어진 종교 개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았느니라”(계 1:9).

제5장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이 몇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족쇄를 쉽게 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감옥 문을 여시고 쇠문을 풀어 당신의 종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숨겨진 보물인 진리를 찾으려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섭리에 따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성한 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까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사자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오류와 미신의 사슬을 끊고 오랫동안 노예로 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 자유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도파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에게만 알려진 언어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어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국어. 세상은 자정을 지났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사라지고 곳곳에서 다가오는 새벽의 전조가 나타났습니다.

14세기 영국에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나타났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기독교계 전체를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선언하도록 허락받은 로마에 대한 대항의는 결코 침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의는 개인, 교회, 국가의 해방을 가져오는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위클리프는 교양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경건함과 뛰어난 재능, 다작의 지혜로 대학에서 알려졌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 속에서 그는 지식의 모든 분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스콜라 철학, 교회 정경, 민법, 특히 자기 나라의 민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에서 그의 교육의 가치는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변 철학에 대한 철저한 지식 덕분에 그 오류를 폭로할 수 있었고, 국가법과 교회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위한 엄청난 투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학교에서 배운 지적 훈련을 통해 철학 신학자들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의 힘, 그의 지식의 범위와 효과는 친구와 적 모두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옹호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특권층의 선두에서 있다는 사실과 그의 적들이 그의 당파들의 무지나 약점을 폭로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대의를 경멸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만족스럽게 보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아직 대학에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고대 언어로만 존재하던 당시, 학자들은 문맹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진리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혁가로서 위클리프의 미래 활동을 위한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오라클에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에 관심을 쏟았을 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기술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학문적 연구나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전에 헛되이 구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계시된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유일한 옹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쳤으며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의 개혁가들처럼 위클리프도 그의 작업 초기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로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헌신은 그를 거짓과 충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황권의 오류를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수록 더욱 단호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위클리프는 두려움 없이 성경을 금지한 신권을 비난했으며, 성경이 사람들에게 회복되고 교회에 확립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열성적인 교사였으며 웅변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그가 선포한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 사고력, 삶의 순결함, 불굴의 용기로 인해 일반적인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만연한 죄악을 보고 이전 신앙에 불만을 품고 위클리프가 제시한 진리를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 지도자들은 이 개혁자가 자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를 냈습니다.

위클리프는 예리한 오류 탐지자였으며 로마 당국이 승인한 많은 남용을 두려움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는 왕의 군목으로 봉사할 때 교황이 영국 주권자에게 요구하는 공물 지불에 대해 용기 있는 입장을 취했으며, 세속 통치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교황의 주장은 이성과 계시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의 요구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세속적 권위에 대한 교황의 주장을 부인하고 공물 바치기를 거부하는 데 연합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교황의 패권에 효과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개혁가가 길고 단호한 싸움을 벌인 또 다른 악은 탁발 수도사 조직의 제도였습니다. 이 수사들은 영국에 득세해 영국의 위대함과 번영을 방해했습니다. 산업, 교육, 도덕성 등 모든 것이 해로운 영향을 받았습니다. 승려들의 유희 생활과 구걸은 인민의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모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경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타락했습니다. 수사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랑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에 헌신하도록 유도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물론,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초기 교부들 중 한 사람은 효도와 의무보다 수도원 제도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너를 먹여살렸던 젓가슴을 네 발 밑에 두고 곧장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나중에 루터가 제목을 붙인 이 괴물 같은 비인간성으로 인해 “기독교인과 인간의 냄새보다 늑대와 폭정의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에 대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의 지도자들은 고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전통. 그리하여 집은 황폐해지고, 부모는 아들딸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의 학생들도 승려들의 거짓된 표현에 속아 승려에 합류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망쳤으며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을 보고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함정에 걸리면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많은 부모들은 승려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수가 감소했다. 학교는 소멸되었고 무지가 만연했습니다.

교황은 이 수도사들에게 고백을 듣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큰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는 수사들은 사면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그들에게 의지했고, 이러한 상황은 최악의 악덕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필요를 덜어주기로 되어 있던 기부금은 승려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며, 그들의 명령에서 기부금을 보류하는 사람들의 불경건함을 비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수사들의 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들의 웅장한 건물과 호화로운 식탁은 국가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승려들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매혹적인 이야기와 전설, 농담만 할 수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미신을 믿는 군중을 계속 통제하여 모든 종교적 의무가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성인 승배와 수도사에 대한 기부에 있어서 교황의 최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천국의 자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명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수도원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위클리프는 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제도 자체가 거짓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악의 뿌리를 쳤습니다. 토론과 조사가 촉발되었습니다. 승려들이 교황의 면죄부를 팔며 전국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로마 교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탐욕이 끝이 없는 수도사들의 능력에 놀란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승려들과 고위성직자들이 우리를 암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은폐하기 위해 이 탁발승 수도사들은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며,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자선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가식은 그들의 대의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배우도록 성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모든 것 중에서 로마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는데, 로마인은 진리를 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수도사들을 반대하는 논문을 쓰고 출판하기 시작했지만,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그 저자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면이나 파문의 권한은 일반 사제들보다 교황에게 더 크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먼저 신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한 진정한 파문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세웠고 수백만 명의 영혼과 육체가 포로로 잡혀 있던 거대한 현세적, 영적 지배 구조를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클리프는 로마의 간섭에 맞서 영국 왕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환되었고, 왕실 대사로 임명되어 두 시간을 보냈다.

몇 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교황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성직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상황을 검토하고 영국에서 그에게 숨겨졌던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후 작업의 기초가 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황청의 대표자들에게서 그는 계층 구조의 실제 성격과 목표를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탐욕, 교만, 사기가 로마의 신이라고 선언하면서 더 공개적이고 더 열성적으로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논문 중 하나에서 그는 교황과 그의 수집가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지원과 매년 수천 마르크, 그리고 성찬과 영적인 것들을 위한 왕의 돈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성직매매 이단이며, 모든 기독교계가 그들의 이단을 지지하고 유지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왕국이 엄청난 양의 금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교만하고 세속적인 성직자의 수집가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우리에게서 모든 돈을 가져가면서 이 상승은 고갈될 것입니다. 땅을 주고 그는 성직매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외에는 아무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직후, 위클리프는 왕으로부터 루터워스 목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군주가 그의 명확한 연설에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력은 국가의 신념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치를 형성하는 데에도 느껴졌습니다.

교황청의 천둥소리가 즉시 그에게 쏟아졌다. 세 개의 교서가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하나는 대학에, 하나는 국왕에게, 다른 하나는 고위 성직자에게 보내졌으며 모두 이단 교사를 침묵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교서가 도착하기 전에 주교들은 열심으로 위클리프를 소환하여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자가 그를 따라 법정에 왔고, 사람들은 건물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습격하여 판사들을 위협하여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위클리프는 평화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워드 3세가 사망했는데, 고위 성직자들은 그의 노령을 이용하여 개혁자에 대항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위클리프의 전 보호자가 국가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교서가 도착하자 영국 전역에서 이단자를 투옥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측정값은 모닥불을 직접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위클리프가 곧 로마의 복수의 희생양이 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니라”(창 15:1)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개혁자에게가 아니라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교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레고리오 11세가 죽자 위클리프의 재판을 위해 모였던 성직자들은 해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종교개혁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들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죽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명의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각각 절대 오류가 없다고 공언하는 두 개의 상충되는 세력이 이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각자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상대방과 전쟁을 벌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적들에 대한 끔찍한 저주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천국의 보상 약속으로 그의 요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황권을 크게 약화시켰다. 라이벌 진영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위클리프는 한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교황에서 다른 교황으로 저주와 비난이 퍼졌고,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의 급류가 흘렀습니다. 범죄와 스캔들이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개혁자는 루터워스(Lutterworth)에 있는 자기 본당의 조용한 은신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루는 교황에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쟁과 부패를 야기한 분열은 종교 개혁을 위한 길을 마련했으며, 사람들은 교황권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분열”이라는 논문에서 이 두 사제가 서로를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한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두 제사장으로 다스리느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클리프도 그의 스승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루터워스에 있는 자신의 교구의 초라한 집들에 빛을 퍼뜨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빛을 영국 전역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단순하고 독실한 설교자들의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든 다니며 시장에서, 대도시의 거리에서, 시골 골목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노인과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대학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충실히 밝혀 '복음의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의미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그는 영국의 모든 사람이 모국어로 놀라운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려는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갑자기 그들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60세도 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그의 힘이 약해지고 너무 일찍 늙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위험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수사들 사이에 큰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교회에 끼친 해를 깊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고백을 듣기 위해 재빨리 그의 숙소로 갔다. 4개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과 6명의 공무원이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죽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앞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모두 취소하십시오.” 개혁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수에게 그를 침대에서 들어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는 그토록 자주 그들을 떨게 만들었던 확고하고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 수사들의 악행을 선포할 것입니다.” 놀라고 당황한 승려들은 재빨리 방을 떠났습니다.

위클리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로마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살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백성을 해방시키고 계몽시키고 복음화하기 위해 하늘이 정한 도구였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질병에 시달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해야 할 반대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용기를 얻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적 능력의 활력으로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수고를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고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개혁자는 루터워스에 있는 자신의 목사관에서 바깥에서 맹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의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에 열렸습니다. 이제 개혁자는 감옥이나 스테이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을 영국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동포들에게 성경을 줌으로써 무지와 악의 사슬을 끊고 조국을 해방하고 고양시키는 데 더 많은 일을 했으며, 전쟁터에서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두어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쇄 기술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느리고 힘든 작업을 통해서만 성경 사본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구하려는 관심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책을 복사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필사자들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구매자 중 일부는 성경 전체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만 구입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성경은 곧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호소는 그들을 교황의 교리에 대한 수동적인 복종으로부터 일깨웠습니다. 이제 위클리프는 개신교의 독특한 교리,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과 성경의 무오류성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보낸 설교자들은 개혁가의 저작물과 함께 성경을 널리 퍼뜨렸으며, 영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의 출현은 교회 당국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무기가 거의 쓸모가 없는 요원인 위클리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성경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전에 영어로 출판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그러한 법률은 나중에 제정되어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천주교 지도자들은 개혁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첫째, 주교 대화는 그의 저작물을 이단으로 선언했고, 젊은 왕 리처드 2세를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여 정죄된 교리를 지닌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는 왕실 칙령을 얻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대회에서 의회에 항소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전국 평의회에서 교직 제도를 비난하고 교회가 승인한 엄청난 남용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힘으로 교황청의 찬탈과 부패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개혁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친구도 없이 왕관과 주교가 결합된 권위 앞에 자신 있게 머리를 숙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교황주의자들은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클리프의 감동적인 호소에 각성된 의회는 박해하는 칙령을 폐지하였고 개혁가는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 왕국의 최고 교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단에 대한 어떠한 호의도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로마는 승리할 것이고 개혁자의 활동은 중단될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위클리프는 자신의 교리를 포기하거나 그 법정을 불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고수하셨으며 박해자들의 비난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위에 대해 망각하고 청중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집하고 그들의 궤변과 기만을 영원한 진리의 저울에 달아 보았습니다. 그 회의실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천상의 매력이 그의 청취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힘이 없어 보였다. 주님의 화살통에서 나오는 화살처럼 개혁자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그를 비난했던 이단이라는 비난은 그들 스스로에게 던져졌습니다. 당

그는 누가 감히 그들의 잘못을 퍼뜨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홍보합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덤 가장자리에 노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리는 너보다 강하고 너를 이기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임에서 물러가셨는데 그의 대적들 중 누구도 그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일은 거의 끝났다. 그가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진리의 깃발이 그의 손에서 거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류 왕국의 견고한 진로부터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자주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로마 교황청 앞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마비 발작으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었다면 소환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로마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편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자는 자신의 목사관에서 교황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억양은 정중하고 기독교적 정신이기는 했지만 교황청의 거만함과 교만을 날카롭게 견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로마의 주교에게 선포하게 되어 기쁩니다. , 틀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로마의 주교가 여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법 .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의 위대함은 위엄이나 세속적인 영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매우 밀접하게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순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셨고 멸시하고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지배권을 누리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점을 제외하고는 교황이나 다른 어떤 거룩한 사람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명예를 탐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오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모든 현세적 지배권과 정부를 세속 권력에 맡겨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그는 그리스도께서 특히 사도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직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점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한다면 나는 가장 겸손하게 시정을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감수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뜻과 소망대로 일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로마 주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른 것을 원하셨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교황 우르바노 6세를 이미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움직이셔서 그의 성직자들과 함께 그가 삶과 태도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들 역시 그들을 충실히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위클리프는 교황과 그의 추기경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보여 주었으며, 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에게 그들과 그들이 대표한다고 공언하는 주님 사이의 대조를 보여 주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자신의 삶이 충실함의 대가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했습니다. 왕과 교황과 주교들은 그의 파멸을 조장하는 데 연합하였고, 그와 스테이크 사이에는 기껏해야 몇 달이 걸릴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순교의 먼 면류관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만한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순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락됩니다. 무엇! 조용히 살아야 하나... 절대! 타격을 가하자.

나는 당신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그분의 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매일의 삶의 위험 속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일하던 그 사람은 적들의 증오에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는 결코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 먹이를 확신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옮기셨습니다. 루터워스(Lutterworth)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그는 성찬식을 하려던 중 마비 증세를 입어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위클리프에게 그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 주위에 파숫군을 두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였느니라. 종교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었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암흑 시대의 무명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자신의 개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인 그는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진리의 체계에는 그를 따르는 개혁자들이 능가할 수 없는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00년 후에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초가 너무나 넓고 깊었고, 그 구조가 너무나 견고하고 진실하여,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그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심과 자성을 해방시키고 오랫동안 로마의 승리 수레에 멍에를 메고 있던 민족들을 해방시키려는 위클리프가 시작한 위대한 운동의 근원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생명수처럼 14세기부터 흘러나온 축복의 흐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묵시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받은 계시이자 믿음과 실천의 충분한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신성하고 무류한 권위로 존중하고, 천 년 전에 확립된 가르침과 관습을 의심할 바 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하도록 요청한 권위였습니다.

교회가 교황을 통해 말하는 대신, 그는 유일하고 참된 권위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계시일 뿐 아니라 성령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시며 모든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스스로 그 의무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클리프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황과 로마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개혁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폭, 사교의 명확성, 진리를 수호하는 확고함, 진리를 수호하는 용감함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삶의 순결, 연구와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근면, 부패하지 않는 성실, 사역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 사랑과 충실성은 최초의 개혁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지적 모호함과 도덕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클리프의 성품은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계시의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든 능력에 신선함과 활력을 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확장하고, 지각을 날카롭게 하며, 판단력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에서도 할 수 없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망을 고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분은 목적의 안정성, 인내,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되게 하고 영혼을 성화시킵니다. 성경을 주의깊고 경건하게 연구함

마음을 무한한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인간을 줄 것입니다.

인간 철학의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가장 유능한 훈련의 결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활동적인 지성과 더 고귀한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해석이 빛을 주나니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깨닫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130)

위클리프가 가르친 교리는 한동안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Wycliphites 또는 Lollards”로 알려진 그의 추종자들은 영국을 횡단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지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지자 설교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귀족에 속한 일부, 심지어 왕의 아내까지 개종자 중에는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개혁이 있었고, 로마교의 우상 숭배 상징물이 교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성서를 그들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잔혹한 박해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로마의 호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영국 군주들은 주저하지 않고 개혁자들을 희생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의 제자들에게 모닥불이 명령되었습니다. 순교는 순교를 따랐다.

불법화되고 고문당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오직 그들의 주장만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귀에 부르짖느니라. 교회의 원수이자 왕국의 반역자로 쫓겨난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계속 설교했고, 최선을 다해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한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종종 구덩이와 동굴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박해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만연해 있는 종교적 신앙의 부패에 맞서 조용하고 경건하며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항의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을 위해 인내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시대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세속적 소유물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추방된 형제들을 기꺼이 보호해 주었고, 그들 역시 추방되었을 때 파문당한 사람들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박해자들의 분노에 겁을 먹고 신앙의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며, 회개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나와 자신들의 포기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하 감옥에서, “롤러드의 탑”에서, 그리고 고문과 불길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하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위클리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의지를 그에게 강요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의 시신이 무덤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증오는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개혁자가 사망한 지 40여년이 지난 후 콘스탄스 공의회 법령에 따라 그의 뼈를 발굴하여 공개적으로 불태웠으며 그의 재는 근처 개울에 던졌습니다. 고대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냇물은 그의 재를 에이번 강으로, 에이번 강은 세번 강으로, 세번 강은 작은 바다로, 그리고 그것들은 바다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의 유골은 그의 교리의 상징이며, 현재 이 교리는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악의적 행위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헤미아의 존 후스(John Huss)는 위클리프의 저술을 통해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버리고 종교 개혁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나라에 진리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퍼졌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이쪽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 신성한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6장

후스와 제롬

복음은 이미 새 세기에 보헤미아에 확립되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었고 대중 예배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졌습니다. "왕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고 자랑했던 그레고리오 7세는 국민을 노예화하려는 의도도 적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헤미안 언어로 된 공공 예배를 금지하는 교서를 유포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거행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많은 악과 이단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선언했고, 그리하여 로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고 백성을 가두는 명령을 내렸다. 어둠 속에서. 그러나 하늘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제공하셨습니다.

박해로 인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많은 왈도파와 알비파인들은 보헤미아로 이주했습니다. 감히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은밀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믿음은 여러 세기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후스 시대 이전에도 보헤미아에는 교회의 부패와 방탕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층구조에 대한 두려움이 깨어났고

복음의 제자들에게 대한 박해. 숲과 산에서 강제로 제사를 지내다가 군인들에게 사냥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 승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나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바치는 동시에 자신들의 대의가 승리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진리의 원수들의 분노가 지금 우리를 휩쓸고 있지만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칼도 없고 권세도 없는 평민 중에서 일어나서 저를 이기지 못하리라' 루터의 시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일어나 로마를 반대하는 증언을 하여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João Huss는 미천한 출신이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어머니는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재산 중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아들을 위해 그러한 유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스는 지방 학교에서 공부한 후 프라하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난한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는 여행에 그의 어머니와 동행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유산도 없고 세상의 재물도 없는 과부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도시에 접근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 없는 청년 옆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Huss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빠른 발전으로 곧 두각을 나타냈고, 흠잡을 데 없는 삶과 온화하고 애교가 많은 행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신봉자였으며, 로마 교회가 제공한다고 공언하는 영적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년을 맞아 그는 고해성사를 받고 자신이 저축한 얼마 안 되는 마지막 동전 몇 닢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약속된 사죄에 참여하기 위해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그는 신권에 입문했습니다. 빠르게 명성을 얻은 그는 곧 왕실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총장도 되었습니다.

그가 교육을 받은 대학.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불쌍한 학생은 조국의 자랑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후스가 개혁 작업을 시작한 곳은 다른 분야였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몇 년 후, 그는 베들레헴 예배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는데, 그 예배당의 창설자는 대중 언어로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옹호했습니다. 이 관행에 대한 로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헤미아에서는 이 관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무지가 크며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는 최악의 악덕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후스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했던 진리와 순결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면서 그러한 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후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프라하 시민인 제롬은 영국에서 돌아올 때 위클리프의 저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으로 개종한 영국 여왕은 보헤미안 공주였으며, 그녀의 영향력으로 인해 개혁가의 작품도 모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후스는 이 작품들을 흥미롭게 읽었으며 그 저자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하는 개혁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후스는 그를 로마에서 멀리 데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때 영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프라하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빛을 받았음을 알고 그 먼 땅에 그 빛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패권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으로 시작하여 그들은 곧 당국에 의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술가이자 설교자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곳에 그들은 두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여 나귀를 타시고”(마태복음 21:5)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 뒤를 이어 맨발로 여행에 입을 옷을 입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려한 예복과 삼중 왕관을 쓴 교황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화려한 장식을 한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이 뒤따르는 교황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모든 학급의 관심을 사로잡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구도 그 도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과 그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교황의 교만과 오만함 사이의 대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라하에는 큰 소동이 있었고, 얼마 후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교훈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은 후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작물을 더욱 주의 깊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위클리프가 옹호하는 모든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교황권의 진정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고 더욱 열성적으로 교직의 교만과 야망과 부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 대학교의 소란으로 인해 수백 명의 독일 학생들이 철수하면서 그 빛은 보헤미아에서 독일로 퍼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후스로부터 성경에 대한 첫 지식을 얻었고, 돌아와서 고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활동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고, 후스는 곧 교황 앞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특정한 죽음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왕이자 왕비인 대학, 귀족, 정부 관료들은 연합하여 후스가 프라하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표를 통해 로마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교황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교황은 후스를 기소하고 정죄하고 프라하 시를 금지령에 빠뜨렸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러한 문장은 어디에서 발음되든 광범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의식은 교황을 하나님 자신의 대표자,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 현세적, 영적 심판을 불러일으킬 권세를 지닌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금지령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천상의 포털이 폐쇄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파문을 철회하기를 기뻐할 때까지 죽은 자들은 축복의 거처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의 징조로 모든 종교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교회 뜰에서 열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봉헌된 땅에 매장되는 것이 거부되었고, 어떠한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도랑이나 들판에 안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상상력에 호소하는 조치를 통해 인간의 양심을 지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라하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은 후스가 자신들의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로마의 복수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혁자는 잠시 고향 마을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프라하에 남겨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물러났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에 주의를 기울여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가져올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악한 제사장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금할까 두려워하여 떠나갔으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기꺼이 죽기를 원하노라." 후스는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지역을 여행하며 열성적인 군중에게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복음을 억압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거스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후 13:8).

"후스의 경력 중 이 시점에서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갈등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교회가 벼락으로 그를 말살하려고 했을지라도 후스는 그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전히 그에게 아내였습니다. 후스가 싸우고 있는 것은 권위의 남용이지 원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해와 양심의 원리 사이에 끔찍한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오하다고 이해했는데, 어떻게 그것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없는 교회에 대한 순종이 왜 그런 상황을 낳아야 하는가? 이것은 후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매시간 그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 의심이었다. 그에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 해결책은 이미 구세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제사장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정당한 권위를 사용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과 자신이 설교하는 사람들의 지침을 위해 이해성을 통해 전달된 성경의 교훈이 양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권을 통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 프라하의 소란이 진정되자 후스는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예배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적들은 활동적이고 강력했지만, 여왕과 많은 귀족들은 그의 친구였고 국민들은 대부분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고상한 가르침과 그의 거룩한 삶을 로마주의자들이 전파하는 타락한 교리, 그리고 그들이 행한 탐욕과 방탕을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Huss는 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에 있는 동안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롬이 종교 개혁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연결되어 있었고 죽어서도 나누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롬은 뛰어난 천재성, 웅변, 학식(대중의 호응을 얻은 재능)을 뛰어난 수준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격의 힘을 구성하는 자질에서는 후스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의 차분한 인식은 진정한 겸손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의 조언에 복종했던 Jerônimo의 충동적인 정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노력으로 종교개혁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빛을 비추시어 그들에게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로마교의 어둠에서 이끌어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해야 할 큰 장애물이 많았고, 그분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한 단계씩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모든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오의 태양의 완전한 영광처럼, 이 빛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지도자들에게 조금씩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다른 충실한 일꾼들은 사람들을 종교 개혁의 길로 더욱 더 인도하기 위해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교황이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으며, 그들의 투쟁은 그리스도교국을 범죄와 무질서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임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무기를 획득하고 병사를 모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축복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성직자들도 흥내를 낸다.

그들의 상급자들은 성직매매[면죄부나 성찬과 같은 영적인 물건이나 교회 혜택과 같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세속적인 물건의 불법 매매]와 전쟁을 통해 경쟁자들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후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용납되는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억압한 불행의 원인이 로마교 지도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라하 시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17) 그 도시는 다시 금지령에 놓이게 되었고 후스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물러났습니다. 벨렘에 있는 그가 사랑하는 예배당에서 그토록 신실하게 전했던 간증이 끝났습니다. 그는 진리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교국 전체에 더 넓은 시나리오를 말해야 합니다.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 해악을 치료하기 위해 콘스탄스에서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세 명의 라이벌 교황 중 한 명인 요한 23세에 의해 지기스문트 황제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공의회에 대한 요청은 당시의 고위 성직자들처럼 도덕적으로 느슨한 교회 관리들에 의해서도 조사를 거의 견디지 못하는 성격과 정책을 가진 교황 요한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지기스문트의 뜻을 감히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공의회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는 교회 분열을 해결하고 이단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대립교황과 새로운 견해의 주요 전파자인 존 후스(John Huss)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표자들이 대표했습니다. 교황 요한은 표면적으로는 공의회 의장이었지만 황제가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은밀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많은 걱정을 안고 참석했습니다.

당신은 티아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악덕과 그것을 확보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위 성직자들과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화려하게 콘스탄스 시에 입성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성직자와 고위 인사들이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네 명의 최고 행정관이 들고 다니는 황금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군대가 호송되었고, 추기경들과 귀족들의 화려한 예복이 위풍당당하게 과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여행자가 콘스탄스에게 다가왔습니다. 후스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처럼 친구들을 떠나 불을 향해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의심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행 중에 보헤미아 왕과 지기스문트 황제로부터 안전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죽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왕의 명령을 받아 수많은 치명적인 적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나의 구세주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지혜를 내 입에 부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그분의 진리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용감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유혹, 투옥, 그리고 필요하다면 잔인한 죽음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놀랄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특히 고통이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죽음이 그분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나의 모든 재산을 변함없이 건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흠 없이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 내가 복음의 진리를 일점 일획도 숨기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기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르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아마도 프라하에서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당신에게 회복시키도록 정하신다면, 그분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전진합니다."

복음의 제자가 된 한 신부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후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깊은 겸손을 가지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유한 옷차림을 즐기며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혜택과 재물의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집을 더 꾸미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영적인 건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경건하고 겸손하십시오. 쾌락을 위해 자원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만일 너희가 생활을 고치지 않고 사치를 삼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 자신과 같이 심한 벌을 받을까 두렵도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나의 교훈을 받았으므로 나의 교리를 알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본 어떤 허영심도 본받지 마십시오." 그는 편지 앞면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죽었을 거라고 확신하기 전에 이 편지를 열어보세요."

여행 중에 후스는 자신의 교리가 널리 퍼져 있고 자신의 주장이 호의를 얻고 있다는 징후를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모였고 어떤 도시에서는 치안관들이 그를 따라 거리를 다녔습니다.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후스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황제의 안전한 행동에 교황의 개인적 보호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숙하고 반복된 선언을 어기고, 개혁자는 교황과 추기경들의 명령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체포되어 혐오스러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의 배신으로 인해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곧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살인, 성직매매, 간음 외에 가장 사악한 범죄, 즉 "언급할 가치도 없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관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교황도 폐위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교황 자신이 후스가 사제들을 고발하고 개혁을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해임한 공의회는 또한 개혁자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후스의 투옥은 보헤미아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력한 귀족들은 분노에 맞서 의회에 격렬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전한 행위의 위반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던 황제는 후스의 기소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의 적들은 사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편견, 두려움, 교회에 대한 열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이단에 충성하지 않을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과 황제 위에 있는 의회는 '말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장을 고안하여 승리했습니다.

질병과 투옥으로 약해졌고, 감옥의 오염되고 습한 공기로 인해 열병이 생겨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후스는 마침내 의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인 채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와 선의를 바쳤습니다. 오랜 재판 기간 동안 그는 진실을 확고히 주장했으며,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위계의 부패에 대해 엄숙하고 충실하게 항의했습니다.

교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순교자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몇 주 동안 고통을 겪는 동안 하늘의 평화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내일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원으로 우리가 다시 내세의 맛있는 평화를 누리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유혹과 시련 속에서 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탱해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 그는 참된 믿음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던 프라하의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교황과 그의 주교들이 자신이 벽에 그린 그리스도의 그림을 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스는 이 환상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많은 예술가들이 훨씬 더 많은 수와 더 밝은 색상으로 인물을 대체하기 위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화가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교황과 주교들이 오게 하십시오. 그들은 결코 다시는 그들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혁자는 그 꿈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고 싶었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설교자들에 의해 모든 마음 속에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스는 황제, 제국의 제후들, 왕실 사절들, 추기경들,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수많은 군중으로 구성된 크고 화려한 모임이었던 공의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의 사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오랜 전투에서 이 최초의 큰 희생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자신의 최종 결정을 표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스는 자신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타협한 말을 너무도 수치스럽게 위반한 군주를 꿰뚫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자유 의지로 공의회에 출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황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보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자 강렬한 홍조가 지기스문트의 얼굴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고와 함께 강등식이 시작됐다. 감독들은 그 죄수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그가 제사장의 예복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이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갈 때 모욕을 주기 위해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다시 철회하라는 재촉을 받고 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얼굴로 하늘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요!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 불쌍한 몸보다 당신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복이 하나씩 벗겨졌고, 각 주교는 의식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관이나 주교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흉측한 악마의 형상과 "대 이단자"라는 문구가 그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나를 위해 왕관을 쓰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치욕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가시덤불."

이렇게 옷을 입은 고위 성직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맹세했습니다. 후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 후 그는 세속 당국에 넘겨져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행렬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무장한 남자들, 값비싼 예복을 입은 사제들과 주교들, 그리고 콘스탄스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기둥에 묶여 모든 것이 불에 탈 준비가 되었을 때, 순교자는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라는 권고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오류를 포기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죄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쓰고 설교한 모든 것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죄와 멸망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쓰고 전파한 이 진리를 나의 피로써 가장 기쁘게 확증하겠습니다."

불꽃이 그를 덮기 시작하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영원히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의 적들조차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성적인 한 교황주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후스와 제롬의 순교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고통의 비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불의 강도도 그들의 노래를 거의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스의 시신이 완전히 화장된 후 그의 재는 그 위에 놓여 있던 흙과 함께 모아서 라인 강에 던져져 바다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가 전파한 진리를 자기들이 뿌리째 뽑았다고 헛되이 상상했습니다. 그날 바다에 던져진 재가 땅의 모든 나라에 뿌려진 씨앗과 같을 것이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땅에서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콘스탄스 의회 홀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앞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들을 수 있는 메아리를 일깨웠습니다. 후스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가 목숨을 바친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확고함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죽음에 직면하여 진리를 굳건히 지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의 처형은 로마의 배신적인 잔인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적들은

사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대의를 헛되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콘스탄스에서는 또 다른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다른 증인의 피가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제롬은 후스가 의회로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에게 확고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그가 어떤 위험에 빠지면 달려가서 그를 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혁자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충실한 제자는 즉시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행동도 없이 단 한 명의 동료와 함께 콘스탄사(Constança)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후스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도시를 떠났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어 족쇄에 채워져 군인들의 구금에 맡겨졌습니다. 의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려는 그의 시도는 "그와 함께 불길에! 불길에!"라는 외침에 직면했습니다. 제로니모는 지하감옥에 던져졌고, 빵과 물을 먹으며 사슬에 묶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투옥된 잔인함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자기들의 손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를 1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덜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후스의 죽음은 교황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행동을 위반한 것은 분노의 폭풍을 촉발시켰고, 더 안전한 수단으로 의회는 제롬을 화형시키는 대신 가능하다면 그를 철화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의회 앞으로 끌려갔고 사임하거나 화형에 처해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옥 초기의 죽음은 그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동정심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질병, 지하 감옥의 가혹함, 불안과 긴장의 고문으로 약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후스의 죽음으로 낙담한 제롬의 용기는 쇠퇴하고 의회에 복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가르쳤던 "거룩한 진리"를 제외하고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리를 정죄하는 공의회의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편을 통해 제로니모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의 고독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후스의 용기와 충실성을 생각한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리를 부인했던 자신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견디신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철화하기 전에 그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와 의심이 그의 영혼을 괴롭혔다. 그는 로마와 평화를 이루기 전에 더 많은 철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따르고 있던 길은 완전한 배도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의회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제출물은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후스의 죽음으로 자극된 그의 피육은 새로운 희생자를 부르짖었다. 오로지 진실을 무조건 포기함으로써만 제로니모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순교한 형을 따라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사임을 철화하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엄숙히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의 결과를 두려워한 고위 성직자들은 그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의 진실성을 단지 긍정하거나 부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롬은 그러한 잔인함과 불의에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끔찍한 감옥에 삼백사십일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더러움과 악취와 가장 궁핍한 가운데, 저를 당신 앞으로 데려가셔서 저의 치명적인 원수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 너희가 나를 거절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요 세상의 빛이거든 삼가 정의를 거스르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나약한 죽을 뿐이라 내 생명을 보잘 것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권고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요청이 마침내 승인되었습니다. 재판관들 앞에서 제롬은 무릎을 꿇고 신성한 영이 그의 생각과 말을 인도하여 진리에 어긋나거나 그의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 이는 그 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18-20) 제롬의 말은 그의 적들 사이에서도 놀라움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일년 내내 지하 감옥에 갇혀 글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마치 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훨씬 명확하고 강력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 정죄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행렬을 지적했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에는 당시 사람들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비난을 받고 추방되었지만 나중에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음을 입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불의한 법정에서 행악자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철회에서 제롬은 후스를 정죄한 판결의 정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회개를 선언하고 순교자의 결백함과 거룩함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João Huss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탁월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도,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기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부인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제롬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 중에서, 이번 사건만큼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나에게 통렬한 후회를 안겨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위클리프와 나의 주인인 거룩한 순교자인 요한 후스에게 내린 불의한 선고를 승인했을 때, 죽음이 두려워 정죄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고백하고, 수치스럽게 굴복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교리.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죄, 특히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판사들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위클리프와 존 후스를 정죄한 것은 그들이 교리를 흔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성직자들의 추문에 불만을 품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만함, 교만, 그리고 고위 성직자와 사제들의 모든 악덕. 그들이 말한, 반박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중단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고위 성직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추가 증거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완고한 이단자들은 물러가십시오!"

폭풍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롬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야! 내가 죽는 게 두렵다고 생각하니? 당신은 나를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지하감옥에 1년 동안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음보다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터키계 유대인이나 이교도, 그리고 내 삶은 말 그대로 뼈 위에서 썩어버렸습니다.

평생;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도는 사람의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토록 엄청난 야만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분노의 폭풍이 몰아쳤고 제롬은 급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는 제롬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회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교회 고위 인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대를 포기한 대가로 그에게 가장 밝은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이 그분께 주어졌을 때 그의 주인처럼 제롬은 확고부동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내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혹자 중 한 사람이 "성경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해.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나요? 교회가 해석하기 전에는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우리 구주의 복음보다 더 믿음에 합당합니까?" 제롬이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유전을 따르라고 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상고하라 하였느니라."

"이단자!"라고 대답했다. "당신과 너무 많은 논쟁을 벌인 것을 후회합니다. 시간. 나는 당신이 악마에게 이끌리는 것을 봅니다."

곧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후스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고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리스도께 고정되었고,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사형집행인이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그는 순교자의 뒤를 지나갔으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담대히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내 앞에 불을 놓아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면 나는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위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주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입술은 계속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불이 그 일을 마쳤을 때, 순교자의 재는 그들이 안착한 땅과 함께 모여 후스의 재와 마찬가지로 라인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을 충실히 전하는 자들이 멸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진리의 빛, 즉 그들의 영웅적인 모범의 빛은 꺼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태양의 궤도를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새벽이 밝아오는 그날의 새벽을 막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후스의 처형은 보헤미아에 분노와 공포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은 그가 제사장들의 악의와 황제의 배반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충실히 가르치는 교사로 선포되었으며, 그의 죽음을 선포한 공의회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교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교황의 칙령에 따라 위클리프의 저술물은 불태워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면한 사람들은 이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성서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성서의 일부와 관련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후스의 암살자들은 자신들의 대의가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황제는 연합하여 이 운동을 진압했고, 지기스문트의 군대는 보헤미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자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완전히 눈이 멀게 된 지스카. 그러나 그는 당시 가장 유능한 장군 중 한 명이자 보헤미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의 도움과 자신들의 대의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에 저항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군대를 조직한 황제는 보헤미아를 침공했지만 굴욕적으로 격퇴당했습니다. 후스파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으며, 그 무엇도 그들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년 후, 용감한 지스카(Zisca)가 죽었지만, 그의 자리는 똑같이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자 어떤 면에서는 더 유능한 지도자인 프로코피우스(Procopius)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눈먼 전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보헤미안의 적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황은 후스파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고, 다시 엄청난 군대가 보헤미아로 돌진했지만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십자군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황 국가에서는 인력, 돈, 전쟁 군수품이 모였습니다.

군중은 결국 후스파 이단자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황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대군은 보헤미아에 입성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군대는 그들 사이에 강만 있을 때까지 서로 접근했습니다. 연합군은 수적으로 훨씬 우월했지만 후스파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마치 홀린 듯 침묵을 지키고 그들을 목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비한 공포가 호스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 강력한 힘은 일격도 가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흩어지듯 부서지고 흩어졌다. 도망자들을 추격하던 후스파 군대에 의해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은 승자의 손에 들어갔고, 전쟁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대신 보헤미안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 새 교황이 집권하면서 또 다른 십자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모든 교황 국가에서 사람과 재물을 데려왔습니다. 이 위험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격려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십자군에게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 보장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하늘에서 풍성한 보상을 약속받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쟁터에서 명예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청난 군대가 집결하여 국경을 넘어 보헤미아를 침공했습니다. 후스파 군대는 그들 앞에서 후퇴했고, 그리하여 침략자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유인되었습니다.

나라 내부로 들어가 승리를 손에 쥐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마침내 프로코피오의 군대는 멈추고 적에게 등을 돌리며 전투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십자군은 진영에 남아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군대의 소음이 들리자 후스파가 눈에 띄기도 전에 십자군은 다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자, 장군, 일반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침략의 지도자였던 교황 사절이 겁에 질려 무질서한 군대를 집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도망자의 물결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패배는 끝났고, 또 다시 엄청난 전리품이 승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보낸 대규모 군대, 훈련을 받고 전투 장비를 갖춘 용감한 전사들의 무리가 약하고 약한 국가의 방어자들 앞에서 타격을 입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침략자들은 초자연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쳐부수신 분, 기드온과 그의 삼백 명 앞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패주시키신 분, 하룻밤에 오만한 앗수르의 군대를 쳐부수신 분께서는 압제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다시 당신의 손을 펴셨습니다. “보라,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네 주위에 있는 자들의 뼈를 흠으심이라 네가 그들을 혼란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니라”(시 53:5).

무력으로 정복할 희망을 잃은 교황 지도자들은 외교에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헤미안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배신하고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헤미안인들은 로마와의 평화 조건으로 네 가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즉, 성경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에 대한 전체 교회의 권리와 신성한 예배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 모든 세속 직분과 권위에서 성직자를 배제합니다. 범죄의 경우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민사 법원의 관할권이 부여됩니다. 교황 당국은 마침내 네 가지 조항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정확한 의미를 결정할 권리는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약이 체결되었고 로마는 갈등으로 얻지 못한 것을 위장과 사기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후스파의 기사와 성경에 자신의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왜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헤미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자유를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 서로 다툼과 유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에서 고귀한 프로코피우스(Procopius)가 죽고 보헤미아의 자유도 죽었습니다.

후스와 제롬의 배신자인 지기스문트는 이제 보헤미아의 왕이 되었고, 보헤미안인의 권리를 지지하겠다는 그의 맹세를 무시하고 교황권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대한 복종으로 인해 얻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삶은 일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화되었고 길고 험된 투쟁으로 인해 제국의 국고가 고갈되었으며, 이제 그는 통치한 지 1년 만에 죽고 내전 직전에 왕국을 버리고 악명 높은 이름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폭동, 싸움, 유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외국 군대가 보헤미아를 침공했고 내부 불화가 계속해서 국가를 괴롭혔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은 피버린내 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대 형제들이 로마와 화해하고 그 오류를 흡수하면서, 옛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결국 뚜렷한 교회를 형성하고 "연합 형제회"라는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들에게 모든 계층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고함은 흔들리지 않았다. 숲과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아야만 했던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나라에 비밀리에 파견된 사자들을 통해 그들은 여기 저기 소외된 사람들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도 적고 저 도시에도 적었고 그들과 같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으며 알프스 한복판에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고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왈도파 그리스도인들과의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에 확고한 보헤미안인들은 박해의 밤을 기다리며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평선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악한 날에 던져졌으나 그들은 날이 새려면 한 세기가 지나야 한다는 제롬의 말을 되풀이한 후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종 되었던 집의 지파들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1470년경에 박해가 그치고 비교적 번영하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세기말에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연합 형제단' 교회가 200개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도망한 남은 자들은 형통하였다.

불과 칼의 파괴적인 분노는 후스가 예언한 그날의 새벽을 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7장

루터가 로마에서 분리되다

우선, 교회를 교황의 어둠에서 가장 순수한 신앙의 빛으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열성적이고 열성적이며 헌신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다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 외에 종교적 신앙의 다른 기초를 인정하지 않는 루터는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 개혁과 세상 깨우침을 위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구자들처럼 루터도 가장 가난한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시절은 독일 농부의 초라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광부로서 매일의 노고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교육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건설되어 가는 거대한 성전의 건축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루터에게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준비시켰던 학교에는 필수품, 궁핍, 가혹한 징계가 가해졌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강하고 활동적인 의지와 강인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정직하고 단호하며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떠하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신념에 충신했습니다. 그의 정당한 상식으로 인해 그는 수도원 생활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터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화해하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그때에도 의견은 변함이 없었다.

루터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준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인의 미덕 실천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목격한 아버지의 기도는 종종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분의 진리를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한 삶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도덕적, 문화적 이점은 그들의 부모가 열심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경건하고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확고함과 활력으로 인해 그들은 때때로 엄청난 가혹함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는 비록 어떤 면에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규율에서 비난보다는 승인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어린 나이에 파견된 학교에서 가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가난이 너무 심해서 집을 떠나 다른 도시의 학교에 갈 때 한동안 집집마다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구해야 했고, 배가 고프는 적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 종교에 관한 어둡고 미신적인 생각이 만연하여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누워서 어두운 미래를 떨면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하고 무자비한 재판관이시며 잔인한 폭군으로 여기신다는 생각에 끊임없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낙담 속에서도 루터는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높은 도덕 표준과 지적 탁월성을 향해 단호하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지식에 목말라 있었고, 그의 정신의 정력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은 허식적이고 피상적인 것보다 견고하고 유용한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8세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고 그의 전망은 더 밝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인색함과 헌신을 통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인 친구들의 영향력은 그가 이전에 받았던 교육의 어두운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가들의 연구에 전념하여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부지런히 소중히 여기고 현자들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교육자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그녀는 이미 뛰어난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 그의 정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기억력, 생생한 상상력, 강력한 추론력,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그는 곧 동료들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지적 훈련은 그의 이해력을 성숙시키고 삶의 갈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과 예리한 인식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루터의 마음 속에 거하여 그가 확고한 목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겸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감을 갖고 있었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동시에 그의 마음은 인도와 지원을 구하는 탄원을 계속해서 내쉬었습니다. 그는 종종 “기도를 잘하는 것이 공부의 반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조사하던 중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존재조차 무시했다. 그는 공중 예배 중에 사람들에게 낭독되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일부를 들었고 그것이 성경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신성한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생명의 말씀을 읽다가 멈춰 서서 “아, 하나님이 이런 책을 주셨더라면!”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줄기가 그의 이해력에 진리의 보화를 드러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그를 수녀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집집으로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는 존경과 감사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시대에 있었고, 그러한 굴욕적인 임무는 그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깊은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굴욕이 필요하다고 믿고 참을성 있게 인내했습니다.

그는 일상 업무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공부에 바쳤고, 휴식도 피했으며, 부족한 식사 시간까지 아껴 썼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수녀원 벽에 묶여 있는 성경을 발견하고 자주 그곳으로 갔다. 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용서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로는 아무런 구제도 얻지 못한 본성의 악을 진압하기 위해 단식, 철야, 채찍질을 통해 노력하면서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내 수도회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어떤 승려가 수행을 통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했다면 나는 죽기까지 고행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활력을 잃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실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거운 영혼은 안도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루터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친구이자 조력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경건한 슈타우피츠는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의 마음에 열어주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네 죄 때문에 너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에 너의 구속주의 품에 몸을 맡기라. 그분의 삶의 의로움과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이는 그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비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 온 오류에 맞서 엄청난 투쟁을 벌인 끝에 그는 진리에 매달렸고 괴로워하는 그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루터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수녀원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어로 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성서에 관해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복음서, 서신서는 기쁨에 찬 청취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장상인 스타우피츠는 그에게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주저했습니다. 그가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루터는 이미 성경에서 강력한 인물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웅변은 청중을 사로잡았고, 그가 진리를 제시하는 명확성과 힘은 그들의 이해를 꿰뚫고 설득했습니다. 스님의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루터는 여전히 교황 교회의 진정한 아들이었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보로 이 여행을 했으며 도중에 수도원에 머물렀습니다.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부와 웅장함, 사치에 감탄했습니다. 막대한 수입의 혜택을 받은 승려들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장 부유하고 값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호화로운 식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걱정으로 루터는 이 장면을 자신의 삶의 비이기적이고 고한 모습과 대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당황스러웠다.

마침내 그는 멀리 일곱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으로 땅에 엎드려 “거룩한 로마여,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도시에 들어가 교회를 방문하고 신부와 승려들이 반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모든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그를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 채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모든 계층에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이 하는 외설적인 농담을 들었고 심지어 미사 중에도 그들의 끔찍한 욕설에 겁을 먹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와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방탕과 관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대신 모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죄와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진 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죄가 나오는 심연이다.”

최근 법령에 따라 교황은 “빌라도의 계단”에 무릎을 꿇고 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면죄부를 약속했습니다. 이 계단은 우리 구주께서 로마 궁정을 떠날 때 내려오셔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로마.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하게 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음성이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채 벌떡 일어나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독일 수도사의 영혼에 그 힘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교황권의 기만을 향해 열렸으며 다시는 감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그는 로마에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고, 그 때부터 교황 교회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분리가 크게 심해졌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경에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교황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신실하게 전파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승려나 교사가 아니라 권위 있는 성경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교리 외에 다른 어떤 교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교황의 패권의 기초 자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콜라학파(중세 대학 교수들)의 사변적인 불신앙을 두려움 없이 공격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철학과 신학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식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고 비난했으며, 청중의 마음을 철학자와 신학자의 궤변에서 선지자와 사도가 제시한 영원한 진리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에 황홀한 배고픈 군중에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주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한 용서와 평안의 확신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빛이 밝혀졌고 그 빛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가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조화되지 않습니다. 진실과 오류 사이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한 쪽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다른 쪽을 공격하고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 10:34)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몇 년 후에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내 행동의 주인이 아니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혼란과 혁명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이제 곧 전투에 투입될 참이었다.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마 21:12)이 그들의 제단 옆에 놓여 있었고, 사는 자와 파는 자들의 함성이 대기에 울려 퍼졌다. 로마에 성 베드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구실로, 교황의 권위 하에 죄에 대한 면죄부가 공개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즉 불의의 샴으로 놓인 모퉁잇돌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바로 그 수단은 로마의 힘과 위대함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가장 단호하고 성공적인 적들을 탄생시켰고, 교황권을 뒤흔들고 교황의 머리 위에서 삼관왕을 흔드는 전쟁을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면죄부 판매를 관리하도록 임명된 관리인 테첼(Tetzel)은 사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가장 사악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면한 후 교황의 용병과 부도덕한 계획을 조장하는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오만하게도 가장 악명 높은 거짓을 반복하고, 속기 쉽고, 미신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환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교황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그리고 그 야심 찬 지도자들의 권력과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 곳에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Tetzel이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한 사자가 그를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총이 여러분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 신성모독자를 환영했습니다. 악명 높은 교동이 교회에 침투했고 Tetzel은 설교단으로 올라가서 면죄부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로 장려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 용서 증서 덕분에 구매자가 나중에 범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면죄부에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돈이 가슴 밑바닥에서 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 그 돈을 받은 영혼은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부터 능력을 얻어 기적을 행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받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이 나와 함께 있어 멸망에 이르게 하도다”(행 8:20). 그러나 수천 명이 Tetzel의 제안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과 은이 국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죄를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한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 구원보다 더 쉽게 달성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학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면죄부의 교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성과 계시에 반하는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고위 성직자도 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당혹스러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통해 일하시지 않을지 걱정스럽게 문의했습니다.

루터는 여전히 가장 엄격한 성격의 교황주의자였지만 면죄부 상인들의 신성모독적인 주장에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면 증서를 받은 자신의 회중 중 다수는 곧 그들의 목사에게 그들의 다양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바라며 호소했는데,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면죄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들에게 사면을 주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당황한 가운데 그들의 고해신부가 그들의 증명서를 거부했다는 항의를 갖고 테첼로 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대답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수사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광장에 모닥불을 세우라고 명령했으며, “그의 가장 거룩한 면죄부에 감히 반대하는 이단자들을 불태워라”라는 교황의 명령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진리의 옹호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담대히 참여합니다. 강단에서는 뜨겁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 죄의 공격적인 성격을 폭로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범법의 죄책을 줄이거나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무료 선물입니다. 루터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얻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굴욕과 자기 처벌을 구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밖을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찾았다고 청중에게 확신시켰습니다.

Tetzel이 자신의 사업과 불경스러운 주장을 계속하는 동안 Luther는 이러한 노골적인 학대에 대해보다 효과적인 항의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이에 대한 적절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는 특정 성일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많은 유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모든 성인"의 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루터는 교회로 향하는 군중들과 합류하여 면죄부 교리에 반대하는 95개 제안이 담긴 문서를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는 다음날 대학에서 그들을 공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맞서 그들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책들은 읽고 또 읽고, 어디에서나 반복되었습니다. 대학과 도시 전역에서 큰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을 통해 이 논제들은 죄를 용서하고 죄의 형벌을 사면해 주는 권한이 교황이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면죄부 계획은 사기, 즉 사람들의 미신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계략, 그의 거짓된 주장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루터의 논문은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안한 질문은 며칠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몇 주 후에는 그 질문이 그리스도교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교회에 만연한 끔찍한 죄악을 목격하고 한탄했지만 그 전진을 막을 방법을 몰랐던 많은 헌신적인 로마교도들은 큰 기쁨으로 이 논문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로마교구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부패의 물결을 막기 위해 은혜롭게 손을 얹으셨다고 느꼈습니다. 왕자들과 행정관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거부하는 오만한 권력이 곧 진압될 것이라는 사실에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대중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궤변이 일소되자 겁에 질렸습니다. 범죄를 비준하고 수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목격한 교활한 성직자들은 분노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제 그 개혁자는 신랄한 비난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주제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분쟁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상을 추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지혜, 그리고 먼저 겸손하게 낮은 의견의 신탁을 참고하지 않고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니라.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냈으면 누가 능히 막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추진하겠느냐. 나의 뜻은 저희의 뜻도 아니요 우리의 뜻도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루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의 일을 시작했지만, 심한 갈등 없이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적들의 비난, 그의 목적의 왜곡, 그의 성품과 동기에 대한 불공평하고 악의적인 언급이 마치 파괴적인 홍수처럼 그에게 닥쳤고, 그 결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들이 그의 개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의 말은 그에게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미 교회에 더 밝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비난과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고위 인사들, 두 사람 모두

교회와 국가는 그들의 논제의 진실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계몽하고 개혁하는 것은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지금 로마의 금고로 흘러드는 수천 개의 급류를 막는 것이며, 그리하여 교황 지도자들의 사치와 사치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황청을 전복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깨우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대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루터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에 맞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의 권위에 맞서게 되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엔 세상의 왕들과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떨었던 교황의 위엄에 반대하겠습니까?" 나는 종종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원이 실패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그 전능하신 팔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연구나 지력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자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의 저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연구와 지력에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이 문제에 경험이 있는 자를 믿으라." 여기에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탄과 그가 꾸며낸 우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대결하려면 지력과 인간의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관습과 전통, 또는 교황의 선언과 권위에 호소할 때 루터는 성경과 성경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식주의와 미신의 노예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 외쳤던 것처럼 그의 피를 위해 외쳤습니다. 로마 광신자들은 "그는 이단자다"라고 소리쳤다. "그에게 한 시간 더 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즉시 교수대에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루터는 그의 분노에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일을 갖고 계셨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서 귀한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진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고문과 죽음을 당하였다.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 전역의 사고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저술에서 수많은 빛을 일깨우고 계몽시켰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죽은 형식주의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로마교의 미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모든 교리와 진술을 증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진보에 대한 열망이 모든 곳에서 일깨워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은

시간은 인간의 의식과 지상의 중재자에게로 향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심은 교황 당국의 두려움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이단 혐의에 답하기 위해 로마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그의 친구들을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부패한 도시에서 그를 위협하는 위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로마로 가는 것에 항의했고 그가 독일에서 심문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마련은 마침내 이루어졌으며 사건을 심리할 교황 특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교황이 그의 관리에게 전달한 지시에는 루터가 이미 이단자로 선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사는 "그를 기소하고 지체 없이 그를 복종시키도록 강요"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문하라." 교황은 또한 유해한 이단을 완전히 근절할 목적으로 그의 특사에게 황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존엄 여부에 관계없이 교회나 국가에서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파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체포하여 로마의 복수에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교황권의 진정한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서 전체에서 기독교 원칙이나 심지어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건이 조사되기 전에 그는 즉석에서 이단자로 선고되었고, 같은 날 경고와 고발, 재판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교회나 국가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거룩한 아버지라고 자신을 부르신 분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루터에게 진정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필립 멜란히톤을 비텐베르크로 보냈습니다. 젊고 겸손하며 예의가 수줍음이 많은 멜란히톤의 건전한 판단력, 폭넓은 지식, 설득력 있는 웅변은 순수함과 정직한 성격과 결합되어 일반적인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능의 광채는 그의 성격의 운유함보다 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열렬한 복음의 제자가 되었고, 루터의 가장 신실한 친구이자 가장 귀중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절함, 조심성, 정확성은 독일 개혁가의 용기와 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에 대한 고수는 종교 개혁에 힘을 더해 주었고 루터에게는 큰 흥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재판 장소로 지정되었고, 개혁자는 그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도보로 출발했습니다. 그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중에 납치되어 살해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위협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어떤 모험도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에게 한동안 비텐베르크를 떠나 기꺼이 그를 보호해 줄 사람들과 함께 안전을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폭풍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계속 충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의 언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아서 다투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이 더 많아질수록 나의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그들은 이미 나의 명예와 나의 좋은 이름을 멸했습니다. 남은 것은 나의 것뿐입니다. 비참한 몸,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내 생명을 몇 시간 단축시키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영혼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매 순간 죽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교황 사절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선동적인 이단자

이제 그것은 로마의 권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특사는 루터가 탈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개혁자는 안전한 행동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보호 장치 없이는 사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에게 촉구했으며, 그들 스스로도 황제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대표자는 가능하다면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하거나, 실패할 경우 그를 로마로 데려가 후스와 제롬의 운명을 함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루터가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건함을 확신하지 못한 채 나타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개혁자는 이 일을 확고히 거부했습니다. 황제의 보호를 약속하는 문서를 받기 전까지 루터는 교황 대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교도들은 정중한 모습을 통해 루터를 설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절은 그와의 면담에서 그에게 큰 우정을 선언했지만, 루터는 암묵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토론이나 질문 없이 모든 점에 있어서 양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황대사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교회에 대한 존경심, 진리에 대한 열망, 자신이 가르친 내용에 대한 모든 반대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자신의 교리를 가장 악명 높은 일부 대학의 시험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어떤 오류도 입증하지 못한 채 철회를 요구한 추기경의 행위에 항의했습니다.

유일한 응답은 "철회하세요, 철회하세요!"였습니다. 그 개혁자는 자신의 태도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진리를 버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에 응답할 수 없는 유산은 그에게 비난과 경멸, 아침의 폭풍을 일으켰고, 전통의 인용문과 교부들의 선언문이 산재해 있었고 개혁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회의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루터는 마침내 자신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데 마지막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억압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쓰여진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강제 언어로 지배할 오만하고 수다스러운 독재자의 양심입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루터는 성경의 많은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이 문서를 큰 소리로 읽은 후 추기경에게 전달했지만 추기경은 이 문서가 쓸데없는 말과 관련 없는 인용의 덩어리라고 선언하면서 경멸하며 그것을 제쳐두었습니다. 완전히 도전을 느낀 루터는 자신의 입장, 즉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대해 오만한 고위 성직자와 대결하고 그의 가정에 완전히 도전합니다.

고위 성직자는 루터의 추론이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제력을 완전히 잃고 분노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만하고 화난 억양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십시오!"

개혁자는 즉시 친구들과 함께 물러났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철회도 기대할 수 없다고 완전히 선언했습니다. 추기경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써서 루터를 굴복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추종자들과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의 방법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자 완전히 실망한 채 이 사람 저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루터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참석한 대총회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그들이 표현한 정신뿐 아니라 그들의 입장의 힘과 진실성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대조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고 확고한 개혁자는 진리를 옆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렀다. 주제 넘고 권위주의적이며 오만하고 비합리적인 교황의 대리인은 성경에서 단 한 마디 논증도 하지 않은 채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철화하지 않으면 로마로 보내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 안전한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교도들은 그를 붙잡아 투옥시키려고 공모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지체 없이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야 하며 그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극도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에 동의한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치안판사가 임명한 가이드와 함께 말을 타고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도시의 어둡고 조용한 거리를 헤쳐 나갔습니다. 경계심 많고 잔인한 적들은 그를 멸망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을 위해 설정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염려와 열렬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루터는 성벽에 있는 작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가이드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밖으로 나온 도망자들은 서둘러 탈출했고, 사절이 루터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루터는 추격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탈출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루터의 탈출 소식을 들은 특사는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지혜와 확고함으로 인해 큰 영예를 받기를 바랐으나 그의 희망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편지를 보내 루터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작센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교황 사절에게 성경에서 자신의 오류를 보여 줄 것을 주장했으며, 자신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를 포기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권자는 여전히 개혁 교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루터의 말의 진실성, 힘, 명료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혁가의 실수가 입증될 때까지 프리드리히는 그의 보호자로 남아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사의 요청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마르티호 박사가 아우크스부르크에 나타났으니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의 실수를 확신시키지 않고 그의 주장을 철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국의 학자들은 마틴의 교리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거나 이단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를 로마로 보내거나 그를 우리 주에서 추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사회의 도덕적 장벽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대규모 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계몽된 양심의 명령만 인식하고 순종한다면, 범죄를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복잡하고 값비싼 조치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루터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교회에 더 나은 영향력이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또한 루터가 대학 교수로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혁가가 논문을 발표한 지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성 교회에서는 이미 "모든 성도" 축제에 교회를 방문하는 순례자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로마에는 숭배자들과 제물이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의 유물을 숭배하기 위한 순례자들이 아니라 교실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이 비텐베르크에 왔던 또 다른 계층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루터의 저작물은 어디에서나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대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텐베르크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고대 시온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텐베르크에서도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빛을 꿰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 땅."

루터는 여전히 로마교의 오류에서 부분적으로만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교황의 법령 및 헌법과 비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교황령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의 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토록 거짓되게 표현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 교회의 지지자였으며 자신이 친교에서 분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자의 저작물과 교리는 그리스도교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작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사본이 프랑스와 스페인에 전달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의 가르침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실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멸의 무감각함에서 깨어나 신앙 생활의 기쁨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루터의 공격에 점점 더 격분했고, 그의 가장 열광적인 반대자들 중 일부, 심지어 가톨릭 대학의 의사들까지도 반항적인 수도사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망토 밑에 총기를 숨긴 낯선 사람이 개혁자에게 다가와 왜 혼자 걷고 있는냐고 물었다.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을 듣고 그 낯선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곳을 피하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로마는 루터를 파멸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교리는 수녀원, 농부의 집, 귀족의 성, 대학, 왕궁 등 모든 곳에서 들렸습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에서 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후스의 저작을 읽으면서 그 자신이 옹호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위대한 진리가 보헤미안 개혁자에 의해 전파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기회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어거스틴과 나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후스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 세상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진리가 100년 전에 그에게 전파되어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기독교 개혁을 지지하여 독일의 황제와 귀족들에게 호소하면서 교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를 상징합니까 아니면 겸손한 베드로를 상징합니까? 그들은 교황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리자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상관보다 더 큰 목사가 있습니까?"

그는 대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대학이 성경을 설명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자기 아들을 지옥에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경은 생활의 법칙으로 준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는 모든 기관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 호소는 독일 전역에 빠르게 퍼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 나라가 흥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의 기치 주위에 모였습니다. 루터의 반대자들은 복수를 간절히 원하면서 교황에게 루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즉시 정죄되어야 한다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개혁자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60일이 주어졌는데, 그 후에도 그들이 철회하지 않으면 모두 파문당했다.

종교개혁에게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파문 선고는 강력한 군주들을 겁에 질리게 했고, 강력한 제국들을 불행과 황폐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들은 사냥해서 죽여야 할 무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덮칠 폭풍에 대해 눈이 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지자요 방패가 되실 것을 믿으며 굳게 섰습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용기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폭풍우가 나에게 닿는 곳 어디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 죽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가 계신 곳에 있어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교황의 칙서가 루터의 손에 닿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멸하고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거부합니다... 그 안에서 정죄받은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최선의 원인을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고 그의 왕좌가 바로 사탄의 왕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더 큰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로마의 결의안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감옥과 고문, 칼은 복종을 강요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약하고 미신을 믿는 자들은 교황의 명령 앞에 떨어졌다. 루터에 대한 전반적인 동정심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생명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자의 작업이 곧 끝날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용기를 유지했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세상은 그의 상황을 보고 그가 죽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힘으로 정죄 선고를 철회하고 로마 교회를 영원히 떠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학생, 의사,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루터는 교황의 권력을 옹호하는 교회법, 법령, 일부 저작물과 함께 교황 교서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적들은 내 책을 불태움으로써 일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의 대의를 손상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보복으로 그들의 책을 끝장냈습니다. 심각한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황과 장난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 나 없이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리라."

루터는 자신의 대의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을 조롱한 적들의 비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지 않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다 하니니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홀로 있었고 엘리야는 아합 왕의 나라에 홀로 있었고 이사야는 홀로 있었느니라 예루살렘에는 에스겔만 있고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있느니라... 로마야 들으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나 다른 큰 인물들 선지자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겸손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전에는 목자 아모스를 택하셨느니라 나이가 들면서 성도들은 왕들과 방백들과 배반하는 제사장들과 현자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반면, 억압자 편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가장 강력한 권력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과의 끔찍한 투쟁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혔던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날이 갈수록 느낀다. 오!

비록 나 자신이 감히 교황에 맞서고 그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이 내 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까! 내 마음의 환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교황주의자들의 입에 그토록 자주 등장했던 질문을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씩씩하게 물어 보았습니까? '너 혼자만 현명한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틀릴 수 있나요? 만약 결국 당신이 틀렸고 당신의 잘못에 너무 많은 영혼을 연루시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는 나와 사탄과 싸웠다.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없는 말씀으로 이러한 의심에 맞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교황은 루터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제 그 위협은 성취되었습니다. 개혁가가 로마 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선언하는 새로운 교서가 발표되었으며,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비난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동일한 정죄에 포함시켰습니다.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는 하나님께서 특히 그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고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루터 시대에도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한 현대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그들이 처해 있는 조건에 맞는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진리에 대한 가장 넓은 관점이 그들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를 반대했던 로마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이론과 전통을 받아들이려는 동일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초기 개혁자들보다 더 많은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큰 투쟁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19, 20) 반면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한다면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6) 오늘날 세상의 정신은 이전보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자들은 이제 그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대의 형태는 변할 수 있고, 적대감은 더 교묘하기 때문에 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적대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제8장

루터는 보름스 다이어트에 직면했다

황제 카를 5세가 독일의 왕위에 올랐고, 로마에서 온 특사들은 서둘러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국왕이 종교 개혁에 맞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한편, 샤를에게 왕위를 물려준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그에게 알현을 허락하기 전에 루터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황제는 매우 당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루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제국의 칙령 외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인은 "그의 황제폐하나 다른 어느 누구도 아직 루터의 저술이 반박되었음을 입증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에 그는 "박사님.

루터는 현명하고 경건하며 공정한 재판관 앞에서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행동을 보장받았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은 이제 카를이 황제의 왕좌에 오른 직후 보름스에서 열린 게르만 국가 회의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와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독일 왕자들은 심의회에서 젊은 군주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고국의 모든 지역에서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왔습니다. 귀족 출신의 영주이며, 강력하고 자신의 유전적 권리를 질투합니다. 의식적인 계층적 우월함과 권력으로 우쭐대는 왕자 같은 성직자들; 고귀한 기사들과 그들의 무장한 신하들, 해외와 먼 나라의 대사들이 모두 보름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규모 집회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는 색슨족 개혁가의 명분이었습니다.

찰스는 이전에 선거인에게 루터를 의회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루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분쟁 중인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약속했습니다. 루터는 황제 앞에 나타나기를 열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건강은 매우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거인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보름스로 여행할 수 없다면 나 역시 병든 상태로 그곳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황제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처럼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풀무 속의 이스라엘 백성 세 명이 아직 살아서 불타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악인의 비웃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피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죽음이 내 형제들의 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탈출이나 후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나에게 기대하십시오. 도망칠 수도 없고,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루터가 의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름스에 퍼지자 전반적인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특별히 맡은 교황 특사 알레안드로는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가 교황청의 사업에 재앙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황이 이미 사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주교 교황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Aleandro는

그 사람의 설득력 있고 강력한 주장은 많은 왕자들을 교황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격렬하게 루터가 보름스에 오는 것에 대해 황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루터의 파문을 선언하는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특사의 진술에 추가되어 황제가 퇴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카를 5세는 선거인에게 루터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비텐베르크에 남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은 알레안드로는 루터의 확신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는 최선의 대의에 합당한 끈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왕자, 고위 성직자 및 기타 의회 구성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개혁자를 폭동, 반란 및 신성 모독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 나타내는 열정과 열정은 그것을 이끈 정신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교황의 한 작가는 "종교에 대한 진정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증오심과 복수에 대한 갈증이 그의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루터의 주장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배의 열심으로 알레안드로는 교황의 칙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황제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법에 따라 이 일은 제후들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마침내 특사의 끈질긴 고집에 압도되어 카를은 그에게 자신의 사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교황대사에게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집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의는 훨씬 더 컸습니다. 알리안더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여주인인 로마를 수호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인 그리스도교국의 정사 앞에서 베드로의 수위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는 웅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행사의 장엄함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신의 섭리는 로마가 정죄를 받기 전에 가장 엄숙한 법정 앞에서 로마가 가장 능숙한 연설가들에 의해 나타나서 방어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개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알레안드로의 연설이 미칠 영향을 예고했습니다. 작센 선제후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도하에 그의 고문 중 일부가 대사의 연설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학식과 웅변의 모든 힘을 이용해 Aleandro는 진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루터를 교회와 국가, 산 자와 죽은 자, 성직자와 평신도, 공의회와 특히 기독교인의 적으로서 비난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오류에는 십만 명의 이단자를 화형시킬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개혁신앙의 당파들을 경멸하려고 애썼다: "저 루터교인들은 누구인가? 오만한 문법학자, 부패한 성직자, 방탕한 승려, 무지한 변호사, 타락한 귀족들로 이루어진 잡다한 군중과 그들이 속인 서민들. 그리고 변태.

가톨릭 정당은 숫자와 지능, 권력 면에서 얼마나 우월합니까! 이 저명한 의회의 만장일치 법령은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보여주며, 흔들리는 사람들을 확고히 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러한 무기로 모든 시대에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확립된 오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감히 제시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한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교리를 전파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수가 적으며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무능력하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와 영향력 면에서 얼마나 우월합니까! 우리 중에는 위대하고 저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편에 더 많은 세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 주장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종교 개혁 시대보다 더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루터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신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일에서 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성경에는 새로운 빛이 끊임없이 비치고 있으며 새로운 진리가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특사의 강의는 국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교황의 옹호자를 이길 수 있는 루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를 변호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터와 그가 가르친 교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단을 뿌리 뽑으려는 일반적인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대의를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승리는 패배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쟁자들이 공개적인 싸움에 돌입하면서 진실과 오류 사이의 대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로마는 다시는 이전처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루터를 로마의 복수에 넘겨주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존재하는 부패를 보고 개탄했으며, 그 결과로 독일 국민이 겪는 학대가 근절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계층의 부패와 야망. 그 특사는 교황의 규범을 가장 호의적인 시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국회위원에게 영향을 주어 교황의 폭정이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작센의 조지 공작은 고상하고 단호하게 그 고귀한 집회에 서서 교황권의 기만과 가증스러운 행위,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를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로마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학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든 수치심은 제쳐두고 그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돈, 항상 돈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임무인 그들은 거짓만 말하고 용인될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말이 클수록 그들의 이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부패한 물이 흘러나오는 오염된 근원입니다. 그들은 손을 잡습니다... 아아! 이것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추문입니다.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루터 자신도 교황의 남용에 대해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난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흐르헤 공작이 개혁자의 적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이 그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회중의 눈이 열렸더라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류의 어둠 속에 빛의 광선을 비추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정신과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바로 그 대적들을 인도하여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사업의 길을 준비한 것은 진리와 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는 루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독일 국민을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교황의 탄압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는 곧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101가지 사양이 포함된 이 목록은 황제에게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청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국의 영적 우두머리가 승인하는 추악한 행위의 일상적인 열매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강탈적인가! 우리 나라의 파멸과 불명예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개혁을 명령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매우 겸손하게 그러나 매우 긴급하게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공의회는 개혁자가 그 앞에 나타나도록 요구했습니다. Aleander의 간청, 항의 및 위협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마침내 동의했고 루터는 국회에 참석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이 표창장으로 안전한 행동이 발부되어 안전한 곳으로의 복귀를 보장했습니다. 루터는 그를 보름스로 인도하도록 특별히 위임받은 전령에 의해 비텐베르크로 끌려갔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편견과 적개심을 알면서도 그의 안전한 행동이 존중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반박했다: "교황주의자들은 내가 보름스에서 만나는 것을 거의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의 정죄와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사역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철회를 강요할 수 있을지 웬들 속에서 고민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나의 철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람이 우리 주의 대적자요 마귀의 사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루터는 위험한 여행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황실 사자 외에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세 명이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멜란히톤은 그들과 합류하기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루터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감옥에 가거나 죽기까지 그를 따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루터가 멸망한다면 종교개혁의 희망은 이 젊은 협력자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멜란히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고 내 적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계속 가르치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내 대신 일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보존된다면 나의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의 출발을 보기 위해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감동받은 군중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가와 그의 동료들은 비텐베르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예감에 의해 억압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어떤 도시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들이 쉬려고 멈춰 섰을 때 친구 신부는 순교를 당한 이탈리아 개혁가의 초상화를 루터 앞에 들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루터의 글이 보름스에서 정죄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사자들은 황제의 칙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지된 작품을 치안판사에게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의회에서 루터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개혁자의 결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전령은 여전히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모든 도시에서 금지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르푸르트에서 루터는 영예로운 영접을 받았습니다. 감탄하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그는 구걸 가방을 들고 자주 헤매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녀원에 있는 자신의 감방을 방문하여 현재 독일을 가득 채운 빛이 그의 영혼에 비취지게 된 투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설교하도록 끈질기게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강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황제의 전령이 그에게 허락했고, 한때 수녀원에서 봉사했던 수도사가 이제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모인 군중에게 루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의사, 작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죄를 속죄하시며 음부의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일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느니라 기쁜 소식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의 공로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보아라'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보라, 오 사람아! 너희 죄를 없애고 너희를 구원한 이는 바로 나 뿐이다. 이제는 너희가 평안하도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루터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에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당신은 부자인가요? 당신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가난합니까? 당신의 봉사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오직 너를 위한 것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매혹적으로 들었습니다. 배고픈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서 교황과 사절과 황제와 왕들보다 높이 들려지셨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위험한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상하면서 그는 자아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보리의 사람 뒤에 숨어 오직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혁자가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어디에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열성적인 군중이 그의 주위에 모였고, 친근한 목소리로 로마교도들의 의도를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산 채로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존 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도 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까지 불을 피울지라도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너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저 하마의 턱으로 들어가서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 이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Worms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두려워했습니다. 적들은 대의의 성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의 선동으로 그는 모든 어려움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알려진 친절한 신사의 성으로 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협하는 위험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두려움을 일깨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름스에 지붕의 타일만큼 많은 악마가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 수많은 군중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성문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모임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황제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흥분은 강렬했고, 군중 한가운데서 날카롭고 불쌍한 목소리가 루터에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장례 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루터가 실제로 보름스에 나타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도착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즉시 자신의 보좌관들을 보내어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고려하게 했습니다. 주교 중 한 명인 확고한 로마교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단번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스문트는 요한 후스를 화형에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자의 안전한 행동을 관찰할 의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황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 놀라운 사람을 보고 싶어 했고, 곧 그의 여관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가득 찼습니다. 루터는 최근 병에서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꼬박 2주 동안의 여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의 중대한 사건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했으며, 그에게는 고요함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귀족, 기사, 사제, 시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는 단지 몇 시간의 휴식만을 즐겼습니다. 이들 중에는 황제에게 학대에 대한 개혁을 매우 용감하게 요청한 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그들은 모두 나의 복음으로 인해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적들은 물론 친구들도 용감한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침착하게 그들을 영접하였고, 위엄과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응답 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확고하고 용감했습니다. 힘든 일과 질병의 흔적으로 얼룩진 그의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은 친절하고 쾌활하기까지 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의 엄숙함과 깊은 진지함은 그의 적 들조차 완전히 반대할 수 없는 힘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친구와 적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향력이 그를 돕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그에게 마귀가 들렸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루터는 의회에 출석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알현실로 안내하기 위해 황실 장교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소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리마다 교황의 권위에 감히 저항할 수도사를 보기를 열망하는 관중들로 붐볐습니다.

그가 판사들 앞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전투의 영웅인 늙은 장군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스님! 불쌍한 스님! 당신은 나나 다른 많은 대장들이 겪어보지 못한 행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대의가 정의롭고 그것에 대해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공의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제는 왕좌를 차지했고 제국의 가장 저명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답변한 것보다 더 인상적인 집회 앞에 나타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번 참석은 그 자체로 교황권에 대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교황은 그 사람을 유죄판결했고, 그는 이제 바로 그 행위로 인해 교황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정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금지하고 모든 인간 교제에서 분리시켰으나 공손한 언어로 소환되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모임에 영접되었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영원한 침묵을 선고했으며, 이제 그는 그리스도교국의 가장 먼 곳에서 온 주의 깊은 청취자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를 도구로 삼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이미 왕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굴욕을 안겨준 것은 수도사의 목소리였다."

그 강력하고 지독한 집회 앞에서 비천한 출생의 개혁가는 겁을 먹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그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에게 다가왔고 한 사람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때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시련의 시간에 당신의 종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황제의 보좌 바로 옆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인 집회 위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한 제국 관리가 일어서서 루터의 저술 모음집을 가리키며 개혁가에게 두 가지 질문, 즉 자신이 그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된 의견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책의 제목을 읽은 후 루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그 책이 자신의 책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신앙과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가장 크고 귀한 보화인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솔하고 경솔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속고** 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거나 진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죄에 포함될 경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33). 이러한 이유로 나는 황제 페하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겸손히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을 하면서 루터는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절차는 그가 열정이나 충동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설득시켰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용통성이 없음을 보여준 사람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침착함과 자제력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나중에는 신중함, 결단력, 지혜, 위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는 그의 적들을 놀라게 하고 실망시켰으며 그의 무례함과 교만을 질책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마지막 대답을 하기 위해 등장했다. 진리에 맞서 연합한 세력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그의 마음은 기절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공포의 먹이가 되었느니라. 그 앞에는 위험이 배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승리를 거두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루터 위에 모여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영의 고통 속에서 엎드려 통곡하며 상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어찌 그리 두렵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내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미 죽음의 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 하느님,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옵소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당신의 일이니 나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싸울 것이 없나이다... 원인은 주의 것이니... 공의롭고 영원한 원인이로다 오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며 나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흔들리고 그에게서 난 것은 다 실패하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요새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섭리로 인해 루터는 위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공포로 짓밟은 것은 곧 임박해 보였던 고문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직면했고, 그에 대처하기에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약함 때문에 진리의 대의가 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밤 외로운 시냇가에서 분투할 때 그의 영혼에는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루터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도 그의 믿음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공의회 앞에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평화가 돌아왔고 그는 그 나라의 유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채 그 앞에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답변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이 쓴 글의 일부를 검토했으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신성한 책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며 "비록 자신의 간증을 자신의 증언으로 인봉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피."

루터가 국회에 다시 소개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혹감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용감하고 고상한 그는 지상의 위대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공식

그런 다음 Imperial은 교리를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루터는 폭력이나 열정 없이 복종하고 겸손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수줍어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회를 놀라게 할 자신감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요한 황제이시며, 가장 존경받는 왕자이시며, 가장 온화한 귀족이시여, 나는 오늘 당신의 명령에 따라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의명분을 옹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진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대답할 때 법정 의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승려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출판한 작품이 모두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분이 믿음과 선행을 다루셨는데, 심지어 그의 적들까지도 그것이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가 고백한 진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황권의 부패와 남용을 폭로하는 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폐지하면 로마의 폭정이 강화되어 많은 불경건한 행위가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책의 세 번째 부류는 기존의 악을 옹호했던 개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점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조차도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진리의 적들을 부추겨서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한 사람일 뿐 신은 아닙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였으면 그 악한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내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황제 폐하나 그 누구이든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 내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나는 즉시 내 모든 잘못을 철회하고 내 책을 불 속에 가장 먼저 던질 것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내가 노출된 위험을 고려하고 저울질해 봤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담하기는커녕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이 소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요 운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놀랍고 두려우십니다. 불화를 피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맞서 싸우고 현재의 재난과 영원한 황폐라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두려운 홍수를 우리 머리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한 많은 예를 인용할 수 있고,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왕들인 바로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명백히 더 신중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확립하려고 생각했을 때보다 결코 그들 자신의 파멸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매 그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루터는 독일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라틴어로 반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전 노력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과 같은 명확성과 에너지로 다시 연설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임의 일을 인도했습니다. 많은 제후들의 마음은 오류와 미신으로 인해 너무 눈이 멀어 첫 번째 논문에서 루터의 추론의 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 그들은 요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빛에 눈을 감고 진리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루터의 말의 힘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자 국회 대변인은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했다...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고요한 폐하와 방백들이 간단하고 명확하며 직접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교황이나 공의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의 증거나 더 확실한 이론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인용한 말씀으로도 만족할 수 없거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의 양심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입장을 정하고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하여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기초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위대함과 순결한 품성,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그가 오류의 세력에 대해 증언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의 우월성을 증언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회중은 놀라서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첫 번째 대답에서 루터는 낮은 어조로 공손하고 거의 순종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로마교도들은 이것을 그들의 용기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철회를 위한 서곡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카를로스 자신도 수도사의 피곤한 표정을 경멸스럽게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겸손한 옷차림과 간결한 말투는 "이 사람은 결코 나를 이단자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루터가 보여준 용기와 확고함, 그리고 그의 생각의 힘과 명확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황제는 감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스님은 용감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독일 왕자들은 자국의 대표자를 자부심과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동료 종교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원인은 이제 더욱 불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절대적인 주장인 위협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천황과 제국은 완고한 이단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루터의 고상한 변호를 가까이 들던 친구들은 이 말에 떨어졌지만 의사 자신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서 나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자들이 회의하는 동안 국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터의 끈질긴 복종 거부는 수세기 동안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철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가 자신의 교리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한 것 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든 위협이든 그가 로마의 명령에 굴복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황청 지도자들은 왕과 귀족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들의 통치가 겸손한 수도사에 의해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에 역겨워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문을 통해 그가 그들의 분노를 느끼도록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처해 있는 위협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침착함과 위엄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연설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교만과 열정, 속임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시야를 잃었고, 자신이 교황, 고위 성직자, 왕, 황제보다 무한히 우월한 존재 앞에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루터의 간증을 통해 그 순간 친구와 적들을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권능과 위대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느니라

그 의회에 참석하여 제국 수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제후들은 루터의 대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용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받은 인상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후 나중에 종교 개혁의 확고한 지지자가 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루터가 의회에 출석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며 깊은 감동을 가지고 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환희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사의 용기, 단호함, 자제력을 목격하고 더욱 확고하게 자신을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논쟁을 벌이는 양당을 비교하였고, 교황과 왕과 고위 성직자들의 지혜가 진리의 힘으로 인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교황권은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느껴질 패배를 겪었습니다.

특사는 루터의 연설이 가져온 효과를 깨달았을 때 이전과는 달리 로마 통치의 안전을 두려워했고 개혁자를 패배시키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를 유명하게 만든 모든 웅변과 외교적 기술을 사용하여 젊은 황제에게 하찮은 승리를 위해 강력한 로마 주교의 우정과 지원을 희생하는 여러 석음과 희생의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효과가 없었다. 루터의 답변 다음 날, 찰스는 전임자들의 정책을 이어가며 가톨릭 종교를 유지하고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알리는 메시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오류를 부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와 그가 가르친 이단에 대해 가장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했습니다. "한 단순한 승리가 자신의 광기에 빠져 그리스도교국의 신앙에 반대했습니다.

나는 이 악의 진행을 막기 위해 나의 왕국, 나의 힘, 나의 친구, 나의 보물, 나의 몸과 피,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을 희생할 것입니다. 나는 아우구스티누스 루터를 해임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사소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와 그의 종파를 끈질긴 이단자로 간주하여 파문, 금지,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는 각 주 구성원들에게 충실한 기독교인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루터의 안전한 행동을 존중해야 하며 루터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루터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제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황의 특사와 대표자들은 개혁자의 안전한 행동을 무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라인강은 100년 전 존 후스의 재를 받았던 것처럼 그의 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제후들은 비록 그들이 교황주의자임을 확신하고 루터의 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대중의 신앙 위반에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후스의 죽음에 뒤따른 재난을 지적하고, 감히 독일과 그 젊은 황제의 머리에 그 끔찍한 악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를 자신은 이 보잘것없는 제안에 대해 이 신앙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추방되더라도 왕자들에게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가장 확고한 교황주의 적들은 나중에 지기스문트가 후스에게 행한 것처럼 개혁자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를 교회의 관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개 집회에서 후스가 군주에게 약속한 말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사슬을 가리키던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Charles V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Sigismund처럼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루터가 제시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국왕은 "나는 전임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고 썼다. 그는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평소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잔인함과 부패로 교황권을 지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부모가 받은 것 이상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며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관습과 전통을 고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추가적인 빛을 보내실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들의 부모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던 곳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부모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부모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조상의 책임보다 더 큼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빛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는 추가적인 빛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와서 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를 범치 아니하였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22) 동일한 신성한 능력이 루터를 통해 독일의 황제와 제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이 비치자, 그분의 영은 그 모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빌라도가 교만과 인기를 허용하여 세상의 구세주에 대항하여 마음을 단단히; 소심한 펠릭스가 진리의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 방법: "이제 네 길로 가라.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자랑스러운 아그리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거의 설득하고 있습니다!" (행 24:25; 26:28) 그러나 그는 하늘이 보낸 메시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카를 5세는 세상의 오만과 정치의 제안에 굴복하여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터를 반대할 계획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도시 전체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혁자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은 로마교의 부패를 감히 폭로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로마의 배신적인 잔인함을 알고 그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귀족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대한 부실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왕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 문과 공공장소에는 루터를 비난하는 포스터도 있고, 루터를 지지하는 포스터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현자의 의미심장한 말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어린 아이인 땅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전 10:16). 독일 전역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대중의 열광은 루터에게 가해진 어떤 불의도 제국의 평화는 물론 심지어 제국의 안정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황제와 의회 모두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왕좌.

작센의 프리드리히는 연구된 예비군을 유지하면서 개혁자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기고, 지지하지 않는 경계심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과 그의 모든 적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에 대한 동정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왕자, 백작, 남작 및 기타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스팔라틴(Spalatin)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의사의 작은 방은 자신을 소개한 모든 방문객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보다 더 나은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그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숭고한 진실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기는 커녕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와 타협하기 위해 루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귀족과 방백들은 만약 그가 계속해서 교회와 의회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기한다면 그는 곧 제국에서 추방될 것이며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호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거침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주님과 유일한 진리이신 신성한 말씀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내 몸과 피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그는 황제의 심판에 복종하라는 촉구를 받았고,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와 제후들, 심지어 가장 겸손한 기독교인이라도 내 글을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점에 온 마음을 다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이 말씀에 달려 있고 나는 그 권위에 매여 있습니다."

또 다른 호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안전한 행동을 포기하고 나의 존재와 생명을 황제의 처분에 맡길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는 총회의 결정에 가까이 복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총회의 결정이 성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관해서라면 모든 기독교인은 비록 백만 개의 의회의 지지를 받더라도 교황만큼 훌륭한 판사입니다." 마침내 친구와 적 모두 화해를 위한 어떤 노력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개혁가가 한 가지 점에서 굴복했다면 사탄과 그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은 교회를 해방시키고 새롭고 더 나은 시대를 여는 수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에 게 교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의 확고함과 충실함은 비슷한 경험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람의 계획 위에, 사탄의 막강한 힘 위에 섰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명령에 이어 자신을 정죄하는 다른 명령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구름이 그들의 길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스를 떠나면서 그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귀 자신이 교황의 성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성채를 크게 무너뜨리셨고, 마귀는 예수가 자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확고함을 반역으로 이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쁜 소식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려 함이라 금생의 모든 일에 나의 신실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 일에는 지는 것과 얻는 것이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 . . 그러나 영생에 속한 일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복종은 진정한 예배이며 오직 창조주께만 드려야 합니다."

보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터의 환대는 그곳으로 갈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고귀한 성직자들은 파문당한 승려에게 인사를 했고, 통치자들은 황제가 비난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강요받았고, 황제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다시 한번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수갑을 채우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름스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주의자들은 황제에게 그에 대한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법령에서 루터는 비난을 받았다.

"남자의 모습과 승려의 옷을 입은 사탄 자신"으로. 안전 행위가 만료되는 즉시 그의 업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를 환영하거나, 그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주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구금되어 발견된 곳마다 당국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체포되어 물품과 재산을 몰수당해야 합니다. 그의 저술물은 파기되어야 했으며 마침내 이 법령에 감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모든 사람은 그의 정죄에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작센 선제후와 루터의 가장 우호적인 제후들은 그가 떠난 직후 보름스에서 물러났고, 황제의 법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로마교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위험한 때에 당신의 종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계하는 눈이 루터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진실하고 고상한 마음이 그를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는 그의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은폐만이 루터를 사자의 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센의 프리드리히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혁자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의 협력으로 선제후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루터는 그의 친구들과 적들로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숨겨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체포되어 수행원들과 헤어진 뒤 재빨리 숲을 통과해 고립된 산악 요새인 바르트부르크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체포와 실종은 너무나 미스터리해 싸여 있어서 프레드릭 자신도 오랫동안 루터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루터의 행방을 모르는 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Frederico는 개혁자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루터는 여전히 죄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레안드로와 그의 지지자들은 복음의 빛이 꺼질 것 같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대신에 개혁자는 진리의 저수지로부터 그의 등불을 채우고 있었고 그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의 안전한 곳에서 루터는 전투의 열기와 소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한동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요함과 오랫동안의 휴식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극심한 갈등에 익숙해진 그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절에 교회의 상태는 그의 앞에 일어났고 그는 절망에 빠져 부르짖었습니다. "슬프도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여호와 앞에 성벽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고, 그는 전투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태함과 방종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매일 생산했습니다. 그의 펜은 결코 유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루터를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했을 때, 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펜에서 나온 수많은 전단지만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는 또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동포들에게 특별한 봉사를 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밭도 섬에서 그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당시의 죄와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공생활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루터를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에게 이 중요한 활동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산간 휴양지의 고독과 어둠 속에서,

루터는 세상의 모든 지원 범위에서 제거되었고 인간의 칭찬에서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굴욕을 통해 그는 갑자기 높아졌던 아찔한 높이를 다시 안전하게 걸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기뻐할 때, 오류와 미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사람들을 찬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인간 대리자에게 고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그들이 단순한 도구를 존중하고 섭리의 모든 사건을 지휘하는 손을 무시하도록 이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까?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도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양심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개혁 작업은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러한 정신 때문에 종종 지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사업이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그러한 작품이 인간적인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인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진리의 해석자인 루터에게로 쏠렸으나 모든 눈이 진리의 영원하신 창조주께로 향하도록 그는 옮겨졌습니다.

제9장

스위스 개혁가

교회 개혁을 위한 도구를 선택할 때 교회 형성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 천사 스승은 칭호를 갖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며,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칭찬과 명예를 받는 데 익숙한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우월함에 대해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동료 인간들을 동정하고 겸손한 나사렛 사람과 동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문맹이고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라는 초대가 주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겸손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덜 받을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를 위해 그들을 더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개혁가들은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즉 그 시대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지위에 대한 자부심과 성직자의 편협함과 부패의 영향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큰 결과를 얻기 위해 겸손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돌리리라.

루터가 작센의 한 광부 오두막에서 태어난 지 몇 주 뒤,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양치기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Zwingli의 어린 시절과 초기 수업을 둘러싼 분위기는 그가 미래의 사명을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했습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경건하고 숭고한 장면을 보게 된 그의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위엄에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향 산에서 이른 용감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젊은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할머니 곁에서 그녀가 교회의 전설과 전통 중에서 모은 몇 안 되는 귀중한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산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들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아기와 갈보리의 사람에 관해 알려 주었습니다.

존 루터처럼, 츠빙글리의 아버지도 아들의 교육을 원했고, 소년은 어릴 때부터 고향 계곡에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빠르게 발전했고, 그를 가르칠 유능한 교사를 찾는 것이 곧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3세에 그는 당시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있던 베른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삶의 유망한 미래를 파괴하려는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들은 그를 수도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미니크회 수도사와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는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교회의 장식, 전례의 화려함, 유명한 “기적을 행하는” 유물과 형상의 매력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베른의 도미니크회 회원들은 이 재능 있는 젊은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득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 웅변가이자 작가로서의 타고난 능력, 음악과 시에 대한 그의 천재성은 그의 모든 화려함과 과시보다 사람들을 그의 예배에 끌어들이고 그리하여 그의 수도회 수업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만과 과도한 아침으로 츠빙글리를 그들의 수도원에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터는 학생이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Zwingli는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는 수사들의 계획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승려들의 나태하고 쓸모없는 삶을 따르도록 허락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유용성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령이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고향 계곡에서 그다지 만족할 수 없었고, 재빨리 학업을 재개하여 얼마 후 바젤에 정착했습니다. 츠빙글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고대 언어 교사인 비템바흐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런 방법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에 신성한 빛의 광선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학자와 철학자들이 가르친 이론보다 더 오래된 진리와 무한히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고대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의 대속을 위한 유일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츠빙글리에게 이 말은 새벽이 오기 전 첫 번째 빛의 광선과 같았습니다.

Zwingli는 곧 바젤에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현장 작업은 고향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알파인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는 일에 온 영혼을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양 떼가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당시의 한 개혁가는 말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성경의 진리와 로마의 이단 사이의 대조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일하고 충분하고 오류가 없는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역사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선입견된 이론이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모든 도움을 구했으며, 성실과 기도로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선언한 성령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Zwingli는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너희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빛이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모든 구원과 은총으로 영혼을 비추고, 하느님 안에서 위로하고 겸손하게 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츠빙글리의 이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성경에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철학과 신학(스콜라주의)은 항상 나에게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으로 순수하게 설명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나에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츠빙글리가 전파한 교리는 루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였습니다. 스위스 개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군사이며 그분만이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루터에게 쓴 글은 한 줄도 없고, 루터가 나에게 쓴 글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토록 한결같이 가르치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516년에 츠빙글리는 아인지델른 수녀원의 설교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마의 부패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개혁자로서 자신의 고향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티브 알프스. 아인지델른의 가장 큰 매력 중에는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처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수녀원 문 위에는 “여기서 완전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계절의 순례자들은 처녀 예배당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큰 축일에는 스위스 전역,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크게 괴로워한 츠빙글리는 미신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선포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성전에 더 많이 계시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신 곳마다 당신 주위에 계시며 당신의 말을 들으십니다... 쓸데없는 수고, 지루한 순례, 헌금, 처녀와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곱해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이 나는 두건, 삭발한 머리, 길게 늘어진 옷, 금으로 장식한 슬리퍼에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위한 만족스러운 희생제물이요 희생제물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친 여행이 헛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은 그들에게 쓰라린 실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어지는 용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옛 길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찾는 당혹감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음의 순결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제와 교황에게 구원을 맡기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열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교가 명한 규례들은 영혼에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믿음을 통하여 구주의 피를 속죄 제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귀중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는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도시에서 도시로 전달되었고, 동정녀 수도원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제안이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해 해고된 Zwingli의 급여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기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신주의와 미신의 힘이 무너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당국은 Zwingli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간섭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자신들의 대의에 동참시키려고 아침으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동안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Eisiedeln에서의 Zwingli의 노력은 그를 더 큰 분야에 준비시켰고 그는 곧 이 분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후, 그는 취리히 대성당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곳은 스위스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곳에서 발휘된 영향력은 널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취리히로 초대 한 성직자들은 혁신을 피하고 싶어했고 그에게 그의 의무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집회에서 헌금을 모으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단에서나 고해석에서나 모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위한 그들의 관심을 간증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자와 대중,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의식에서 나오는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성찬을 집행하고,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사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행을 위해 귀하를 대신할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설교할 때. 특별히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명한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집전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비난을 조용히 들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중요한 직위에 부름을 받은 영광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자신이 채택할 방침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적은 마태오 성인에 따라 복음 전체를 가르치고, 오직 성경의 근원에서만 말하고, 모든 깊이에서 말하고, 본문과 본문을 비교하고,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찬양하기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나의 직무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그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그를 설득 하려고 노력했지만 츠빙글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 순수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오래된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진리로 인해 이미 관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수로 모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펴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영감받은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읽고 설명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인제델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로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일한 완전한 희생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구원의 참된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도자와 교사부터 장인과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설교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값없는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만과 부패를 두려움 없이 질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성당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세가 되어 우리를 이 이집트의 어둠에서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처음에는 큰 호응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가 일어났다. 승려들은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례하고 위협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Zwingli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참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에 대해 눈을 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개혁사업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 바젤에 있는 개혁파 신앙의 친구가 루터의 저서 일부와 함께 루시안 한 명을 취리히로 보냈는데, 그는 이 책들의 판매가 빛을 퍼뜨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Zwingli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Lucian이 충분한 신중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를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심지어는 집에서 집으로, 스위스 전역으로 데려가서 루터의 글, 특히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다니게 하십시오. 평신도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더 많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와 미신의 족쇄를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사탄은 더 큰 힘으로 인간을 어둠 속에 가두어 더욱 단단히 묶어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용서와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곳에서 일어섰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칭의를 받은 로마는 새로운 활력으로 그리스도교국 전체에 시장을 개방하고 돈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었고, 교회의 보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은 범죄할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운동이 모두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입니다. 로마는 죄를 허용하여 죄를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과 해방자로 지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 판매가 도미니크회 수사들에게 위임되었으며 악명 높은 테첼(Tetzel)이 주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인신매매가 이탈리아 수도사인 산상(Sanção)의 통제 하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제재는 이미 교회를 위해 훌륭한 봉사를 했으며, 독일과 스위스로부터 교황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는 스위스를 건너 많은 군중을 끌어들이고, 가난한 농민들의 빈약한 수입을 탈취하고, 부유층에게 풍부한 기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영향은 인신매매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인신매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Zwingli는 스위스에 입국한 직후 Sanction이 도시 근처에서 불법 거래를 하고 도착했을 때 아직 Einsiedeln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개혁자는 즉시 그에게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Zwingli는 수사의 의도를 폭로하는 데 성공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는 사면업자들에 대해 열성적으로 설교했습니다. Sanction이 그 장소에 접근했을 때 그는 그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소환장과 함께 의회의 메신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결국 계략으로 입국을 확보했지만 단 한 번의 사면도 없이 거절당하고 곧 스위스를 떠났다.

1519년 스위스를 휩쓸었던 전염병, 즉 "큰 죽음"으로 인해 개혁에 대한 강한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파괴자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치는 그들이 최근에 얻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보다 안전한 기초를 갈망했습니다. 취리히의 Zwingli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너무 아파서 회복될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에도 그의 희망과 용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된 속죄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가장자리에서 그들에게 돌아온 사랑하는 목자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병자들을 돌보다가

죽어가면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츠빙글리는 그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새로워지는 힘을 스스로 더욱 충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 그가 목상한 주제였습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고 부패와 정죄로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사셨느니라." "그분의 열정은 영원한 희생이며,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영원히 신성한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자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하나님을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끄는 깨어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

츠빙글리의 설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말을 들으러 온 군중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성당이 가득 찼습니다. 조금씩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는 청중들에게 진리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들을 놀라게 하고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소개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업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하며, 그들 앞에 그분의 모본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과 관습은 필연적으로 버려질 것이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개혁이 단계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놀란 그의 적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1년 전, 비텐베르크 수도사는 보름스에서 교황과 황제에게 “아니오”라고 선언했고, 이제 모든 것이 취리히에서 교황의 주장에 대한 유사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Zwingli에 대한 공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막사에서는 때때로 복음의 제자들이 화형에 처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을 가르치는 자는 침묵해야 한다. 따라서 콘스탄시아의 주교는 세 명의 대표를 취리히 공의회에 파견하여 츠빙글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법을 범하도록 가르쳐 사회의 평화와 선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가 무시된다면 보편적인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연합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취리히에서 4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일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보호책이 아닌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표자들은 보좌들에게 교회에 남을 것을 촉구했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Zwingli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에게 신실하게 고백하여 이름을 주신 동일한 반석, 동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든지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참으로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회의 결과, 감독단 대표 중 한 명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의회는 츠빙글리에 대한 조치를 거부했고 로마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개혁자는 적들의 계획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 튀어나온 절벽이 발 밑에서 천둥소리를 내는 파도를 두려워하듯이 나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성직자들의 노력은 그들이 전복시키려는 대의명분을 더욱 발전시킬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의 실종으로 우울해진 그의 추종자들이 스위스에서 복음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취리히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자마자 그 열매는 악덕을 진압하고 질서와 조화를 촉진하는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Zwingli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평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분쟁도, 위선도, 탐욕도, 불화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평화와 경건의 열매로 채워주는 우리의 교리로부터가 아니라면 그러한 연합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습니까?”

종교 개혁으로 얻은 승리는 로마교도들이 자신들의 전복을 위해 더욱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 박해가 얼마나 작은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무기로 개혁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Zwingli와 논쟁을 계속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충돌 장소뿐만 아니라 경쟁자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심판도 스스로 선택하여 승리를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한때 츠빙글리를 그들의 권력 안에 넣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침묵하자,

움직임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조심스럽게 숨겨졌다.

토론은 바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의 계획을 의심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황 막사에 불을 피울 것을 경고한 취리히 공의회는 그들의 목사 자신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취리히에서 그는 로마가 보낼 수 있는 모든 무장세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리를 위한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바덴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에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와 할러(Haller)는 종교개혁자들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었고, 박식한 의사들과 성직자들의 지원을 받은 유명한 에크 박사(Doctor Eck)는 로마의 옹호자였습니다.

Zwingli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느껴졌습니다. 비서들은 모두 교황주의자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메모하는 것이 금지되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바덴에서 전해진 내용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매일 받았습니다. 논쟁에 참석한 학생은 그날 발표된 논쟁을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학생이 이 기록을 Oecolampadius의 일일 편지와 함께 취리히의 Zwingli에 전달했습니다. 개혁자는 조언과 제안을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밤에 작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아침에 편지를 가지고 바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문에 배치된 경비병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 사자들은 머리에 새 바구니를 이고 방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Zwingli는 그의 교활한 적대자들과의 전투를 유지했습니다. 미코니우스는 "그는 적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명상과 토론 지원, 그리고 바덴에게 조언을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기대하며 로마교도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바덴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호화롭게 살았고, 그들의 식탁에는 가장 값비싼 진미와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의무의 무게는 재미와 축화로 해소되었습니다.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개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 무리의 거지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였고, 적당한 식사로 그들을 식탁에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오에콜람파디우스의 집주인은 그의 방에서 그를 관찰할 기회를 이용하여 그가 항상 연구나 기도에 열중하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존경하며 "이단자는 적어도 매우 종교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 "에크는 화려하게 장식된 설교단에 거만하게 올라갔고, 겸손하고 정숙한 옷을 입은 오에콜람파디우스는 거칠게 건설된 연단에서 상대방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Eck의 강력한 목소리와 무한한 자신감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명성뿐 아니라 금에 대한 희망에서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수호자는 관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선의 주장이 실패하자 그는 모욕을 주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겸손하고 자신감이 없는 오에콜람파디우스는 전투를 피하고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언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의의 다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절차는 온화하고 정중했지만 그는 유능하고 결단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로마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교회 관습의 권위에 호소할 반면, 개혁자는 성경을 굳게 고수했습니다. "우리 스위스에서는 관세가 헌법에 따르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두 논쟁자 사이의 대조는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개혁가의 조용하고 명료한 논리는 아주 온화하고 겸허하게 제시되어 에크의 폭력적이고 오만한 발언에 혐오감을 느끼는 마음의 호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논의는 18일 동안 계속됐다. 결국 교황주의자들은 큰 자신감을 갖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대다수의 대표자들은 로마 편에 섰고, 의회는 개혁자들이 패배했다고 선언했으며, 개혁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츠빙글리와 함께 교회에서 끊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는 어느 쪽에 유리한지 드러났습니다. 이 논쟁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른과 바젤 같은 중요한 도시들이 종교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제10장

독일 개혁의 진전

루터의 미스터리한 실종은 독일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터에 관한 질문은 어디에서나 들렸습니다. 개혁자에 관해 가장 모순된 소문이 돌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종교 개혁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큰 애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로마교 지도자들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지 공포에 질려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루터의 죽음을 기뻐했지만 곧 사람들의 분노를 피해 숨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루터가 그들 중에 있는 동안 루터의 대담한 행동에 대해 루터의 실종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여 대담한 개혁자를 파멸시키려고 노력한 자들은 이제 그가 무력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횃불을 켜고 루터를 찾아 온 땅으로 나가서 루터를 원하는 나라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교황 사절들은 그 칙령이 루터의 운명보다 관심을 덜 끌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였지만 안전하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읽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 용감한 사람의 대의에 동참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끊임 없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뿌린 씨앗은 곳곳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의 부재는 그의 존재가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믿음과 열정으로, 것처럼 숭고한 방법으로 시작된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모든 개혁 운동에서 시도했던 일, 즉 진짜 작품 대신 가짜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기독교 1세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16세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는 상상을 하고, 루터가 소심하게 시작한 종교 개혁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가 한 바로 그 일을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충분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인상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기준을 그 확실한 지침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류와 거짓을 탐지하는 위대한 탐지자를 제쳐두는 이 행위로 사단이 마음대로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 선지자 중 한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합류한 한 학생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선언하며 학업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로. 천성적으로 광신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열성팬들의 행동은 적지 않은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터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웠고 이제 일부 진실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선지자들의 주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운동의 지도자들은 비텐베르크로 가서 멜란히톤과 그의 동맹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우리는 사도요 선지자입니다.

루터는 물론 그가 설교하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요소였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멜란히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특이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탄."

새로운 가르침의 결실은 곧 명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예 체쳐두도록 인도되었습니다. 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제한을 거부하고 학업을 그만두고 대학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종교 개혁 사업을 부흥시키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종교 개혁 사업을 파멸의 문턱으로 몰고 갔을 뿐입니다. 로마교도들은 자신감을 되찾고 "한 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바르트부르크에 있던 루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깊은 후회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였고 진리의 사업을 위협하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반대가 그에게 지금 겪고 있는 것만큼 큰 고통과 당혹감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종교 개혁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최악의 적이 생겨났습니다. 그에게 그토록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바로 그 진리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사업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추진되었고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은 직위를 맡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힘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업 결과에 종종 동요를 느꼈습니다.

개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교리가 겸손하고 무명인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라리 열 번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철회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 자체도 광신주의와 불법의 세력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태는 루터의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서 그의 적들은 그가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때때로 "이것이 이 위대한 종교개혁 사업의 끝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흘러왔습니다. "이 일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신이나 광신주의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 더 이상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루터에게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위험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국의 금지령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적들은 자유롭게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돕거나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제국 정부는 지지자들에 대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위협에 빠졌고,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바르트부르크를 떠나겠다는 뜻을 선언한 후 작센 선제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폐하의 보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하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폐하께서 제 방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비텐베르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칼도 진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가는 길에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전하의 비난과 온 세상의 분노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주민들은 나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독일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징벌하실 혁명을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면서도 결단력과 확고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통해 통제와 통제를 얻은 것을 반박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나는 미신과 불신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양심의 자유를 위해 일했습니다. 자유 믿음의 참된 본질이다."

루터가 돌아와서 설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곧 비텐베르크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는 붐볐다. 그는 큰 지혜와 친절로 강단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했습니다. 미사를 폐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조치를 취한 일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서 복음의 만찬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강제로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래야 하는 거지?'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사람의 마음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할 권리가 있지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설교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강제로 힘을 쓴다면, 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얼굴 매너리즘, 아름다운 외모, 경연성 확일성과 위선. 그러나 마음의 성실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런 승리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와 온 세상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분의 말씀의 단순한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나는 설교하고, 토론하고,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난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황, 면죄부, 교황주의자들에 맞서 싸웠지만 폭력이나 폭동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설교하고 글을 쓴 다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전파한 말씀이 교황권을 무너뜨렸는데, 그 어떤 왕자나 황제도 그토록 큰 타격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무력을 행사했다면 아마도 독일 전체가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영혼과 육체의 파멸과 파괴. 결과적으로 나는 가만히 서서 말씀이 온 땅을 가로질러 흐르게 했습니다."

루터는 일주일 내내 날마다 계속해서 기대하는 군중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신적인 흥분의 마력을 깨뜨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타락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큰 해를 끼친 행로를 가진 광신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미친 판단력과 규율 없는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며, 비록 하늘의 특별한 깨우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장 작은 반대나 심지어 가장 친절한 책망이나 충고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떤 질문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루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루터는 만나기로 동의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폭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곧 비텐베르크를 떠났습니다.

광신주의는 한동안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더 큰 폭력과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죽은 문자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모두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는 그들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저와 같은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겸손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느끼며,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께 위로와 지원을 얻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광신자들 중 가장 활동적인 토마즈 뮌처(Thomaz Münzer)는 상당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올바르게 지도했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참 종교의 기본 원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개혁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존재라고 상상했으며, 다른 많은 열광적인 사람들처럼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지위와 영향력을 얻기를 열망했으며 심지어 루터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Münzer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로 대체함으로써 단지 다른 형태의 교황권을 확립했을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참된 개혁을 가져오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평생 성경을 본 적이 없더라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광신적인 주인들은 인상의 지배에 복종하고 모든 생각과 충동을 신의 음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불태워 "문자는 죽이되 영은 살리느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Münzer의 가르침은 경이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열망에 호소하는 동시에 사실상 인간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 인간의 교만을 만족시켰습니다. 그의 교리는 수천 명이 받아들였습니다. 곧 그는 공중 예배의 모든 질서를 비판하고 방백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벨리알을 모두 섬기려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교황권의 멍에를 거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국가 권력의 억제로 인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승인을 주장하는 뮌처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그들이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편견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폭동과 갈등의 장면이 뒤따랐고, 독일의 들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인한 광신주의의 영향을 목격하면서 이전에 에르푸르트에서 겪었던 영혼의 고뇌가 이제 두 배의 힘으로 그를 억압했습니다. 교황의 제후들은 반란이 루터 교리의 합법적인 열매라고 선언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선언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난에는 근거가 조금도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자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준다. 진리의 사업이 이와 같이 불명예를 당하고 가장 낮은 광신주의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가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란의 지도자들은 루터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루터가 그들의 교리에 반대하고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국가 권위에 반대하는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복으로 그들은 그를 무식한 현학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왕자와 백성 모두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로마교도들은 종교 개혁이 급속히 쇠퇴하는 것을 목격하기를 희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터가 바로잡으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오류에 대해서도 루터를 비난했습니다. 광신적인 정당은 자신들이 막대한 불의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항의하여 대다수 국민의 동정을 얻는 데 성공했고, 항상 그렇듯이 반대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흔히 그렇듯이 그들은 순교자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데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은 잔인함과 억압의 희생자로서 동정과 칭찬을 받았습니 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에 하늘에서 드러냈던 것과 동일한 반역의 영에 의해 선동된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 죄를 의, 의를 죄라고 부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비난과 질책이 그들 위에 쌓이는가! 사탄의 앞잡이에 불과한 사람들은 칭찬과 아첨을 받고 심지어 순교자로 비춰지는 반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거짓 거룩함은 아직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그것은 루터 시대와 동일한 정신을 보여 주는데, 마음을 성경에서 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르도록 이끈다. 이것은 순결과 진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진말하게, 루터는 사방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옹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찬탈된 교황의 권위와 스콜라학파의 합리주의 철학에 맞서 싸웠으며, 동시에 종교 개혁과 동맹을 맺으려는 광신주의에 맞서 바위처럼 굳게 섰습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요소들 각각은 나름대로 성경을 제쳐두고 인간의 지혜를 종교적 진리와 지식의 원천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주의는 이성을 이상화하고 이를 종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로마 교는 사도들에게서 끊이지 않는 계통으로 전해지며, 어느 시대에도 불변하는 영감을 자신의 최고 주교라고 주장하며, 사도직의 신성함 아래 온갖 사치와 부패가 숨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ünzer와 그의 협력자들이 의도한 영감은 상상력의 기이함보다 더 높은 근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은 모든 인간 또는 신의 권위를 전복시켰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받은 진리의 큰 보물이자 모든 영감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바르트부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신약성서 번역을 마쳤고, 그리하여 복음은 독일 사람들의 모국어로 전해졌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번역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사람의 전통과 계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멸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토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났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추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에 무력했습니다. 로마는 성경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권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저주, 고문은 똑같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더욱 비난하고 금지할수록,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읽고 또 읽었으며,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억할 때까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신약성경이 호평을 받는 것을 보고 즉시 구약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완성하자마자 부분적으로 출판했습니다.

루터의 저술물은 도시와 작은 마을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쓴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도처에 유포되었습니다. 수도원 의무의 불법성을 깨닫게 된 수도사들은 나태한 삶을 활동적인 삶으로 바꾸고 싶어하며 개혁가의 저작물과 그의 친구들을 팔아 지방을 횡단했습니다. 독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용감한 콜포처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글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지한 자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밤에는 마을 학교의 교사들이 벽난로 옆에 모인 소그룹에게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어 주었습니다. 노력할 때마다 어떤 영혼들은 진리를 확신했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해석하면 빛이 비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시 119:130). 성경 연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황의 통치는 백성들을 무지와 타락 속에 가두는 철 멍에를 두었습니다. 미신적인 형식 준수가 철저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봉사에서 마음과 지성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해석한 루터의 설교와 일반 사람들의 손에 있는 말씀 그 자체는 그들의 잠자고 있는 능력을 일깨웠고, 영적 본성을 순화하고 고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력.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종교 개혁의 교리를 옹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사제와 수도사에게 맡겼던 교황주의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나서서 새로운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한 사제들과 수사들은 이전에 그들이 무식하고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한 가톨릭 저술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루터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성서의 신탁에만 믿음을 두도록 설득했습니다." 군중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진리를 듣기 위해 모였으며 심지어 박식하고 웅변적인 신학자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무지는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가르침에 의해 반박되었을 때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군인,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은 성직자나 학식 있는 의사들보다 성경적 가르침에 더 익숙했습니다.

복음의 제자들과 로마교 미신의 옹호자들 사이의 대조는 평민들 사이에서나 글을 읽을 줄 아는 계층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어 연구와 문학 배양을 소홀히 한 오래된 계층 구조 옹호자들에 반대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성경 연구와 조사에 전념했으며 성경에 익숙했습니다.

고대 문학의 보물과 함께. 빠른 배움, 고상한 영혼, 용기 있는 마음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 젊은이들은 곧 어느 누구도 그들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개 집회에서 이 젊은 종교 개혁 옹호자들은 로마교 의사들과 대면하여 매우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적들의 우둔함을 당황하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을 마땅한 경멸의 대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로마 교직자들은 회중이 줄어들자 치안 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전 청중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서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견했고, 오랫동안 미신적인 의식과 인간 전통이라는 쓸데없는 지푸라기로 그들을 먹여살렸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23). 따라서 빛은 모든 곳으로 침투했습니다. 도망자들은 어떤 곳에서 그들에게 현대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 살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또는 이 특권이 거부될 경우 개인 집이나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청중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그들에게는 봉헌된 성전이었습니다. 그토록 힘차고 안전하게 선포된 진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퍼졌습니다.

교회 당국과 정부 당국 모두 이단을 분쇄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감옥과 고문과 불과 칼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피로 자신들의 믿음을 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박해는 진리를 퍼뜨리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과 연합하려고 노력한 광신주의는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의 대조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1장

왕자들의 항의

종교 개혁에 의해 주어진 가장 고귀한 증언 중 하나는 1529년 스피라 의회에서 독일의 기독교 왕자들이 항의한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사람들의 용기, 믿음, 확고함은 다가올 시대를 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항의로 인해 개혁교회는 개신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개신교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에 어둡고 위협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루터를 무법자로 선언하고 그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믿는 것을 금지한 보름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제국 내에서는 종교적 관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였습니다. 샤를 5세는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지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종종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종 감히 로마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 즉시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터키 군대가 동부 국경에 나타나거나 프랑스 왕, 심지어 황제의 위대함을 질투하는 교황 자신도 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분쟁과 소란 가운데서 종교 개혁은 강화되고 확산되도록 남겨졌습니다.

결국, 로마교 군주들은 개혁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들의 봉토를 하나로 모으도록 강요했습니다. 1526년 에스피라 의회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각 주에 종교 문제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보로 이어진 위협이 지나가자마자 황제는 이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1529년 에스피라에서 두 번째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군주들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인 수단으로 종교 개혁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면 찰스는 검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에스피라(Espira)에 대거 등장했고, 개혁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증함과 미움과 초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난한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국회에 참석한 복음주의 왕자들은 거주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피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작센 선제후의 예배당에서 열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위기를 촉발시켰다.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결의안이 큰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천황이 결의안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황실 메시지가 국회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의적인 행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가야바와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셨습니다." 로마교도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완고한 한 교황주의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투르크인들이 루터교인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일을 지키고 루터교인들은 그것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의 오래된 오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전자를 거부해야 합니다." Melanchth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전체 집회에서 Faber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돌을 던집니다."

종교적 관용은 법적으로 확립되었고 복음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권리 침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름스의 칙령에 의해 여전히 금지령을 받고 있는 루터는 에스피라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그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그 긴급 상황에서 당신의 사업을 수호하도록 세우신 방백들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전 수호자 작센의 고귀한 프리드리히

루터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형제이자 후계자인 존 공작은 기쁨으로 종교 개혁을 받아들였으며, 평화의 친구이면서도 신앙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큰 활력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로마교 관할권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개혁자들은 이전에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그토록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국가들을 다시 한 번 통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보름스의 칙령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국가에서는 “반란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개혁이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해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 거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로마 카톨릭도 루터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사제들과 교황 고위 성직자들의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칙령이 실행된다면, 종교 개혁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확산될 수 없고, 이미 존재했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금지될 것입니다.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한과 금지 사항에 즉시 복종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교황 숭배의 재건은 필연적으로 고대의 남용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신과 불화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작품을 완전히 파괴할 기회가 즉시 올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협의를 위해 모였을 때 모두가 낙담한 것 같았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칙령을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개혁자들은 얼마나 쉽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구실과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루터교 제후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종교 개혁의 개념을 받아들인 모든 신민에게도 동일한 이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종하면 얼마나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갈등 야당이 이를 개시할 것인가?"

미래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평화를 받아들이자. 로마가 뾰족한 올리브 가지에 매달리고 독일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개혁자들은 확실히 자신들의 대의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행동 노선의 채택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 합의가 믿음에 기초하고 행동한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심을 강요하고 자유로운 탐구를 금지하는 것은 로마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개신교 신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합의에 특별히 규정된 호의로서, 그러나 권리로서가 아닙니다. 합의에 명시된 모든 것 중에서 권위의 대원칙이 우선해야 하며 양심은 관할권 밖에 있습니다. 로마는 무류한 재판관이었고 복종해야 합니다. 제안된 협정은 종교의 자유가 개혁된 작센 지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기독교계에서는 자유로운 탐구와 개혁 신앙의 고백이 범주가 될 것이며 감옥과 화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왕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 개혁이 마지막 개종을 이루고 마지막 땅을 정복했다는 선언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마다 영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도메인? 개혁자들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황 땅에서 목숨을 바칠 수십만 명의 피에 대해 자신들이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복음의 대의와 그리스도교국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영토와 고귀한 직함,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왕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심했습니다. "이 법령을 거부합니다. 양심 문제에 있어서 다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자들은 독일이 자신이 누리는 평화에 대한 관용 법령의 빛을 지고 있으며, 이 법령을 폐지하면 제국 전체를 불안과 분열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의회는 의회가 열릴 때까지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것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국가 권한의 한계입니다. 시민 권위에 의해 종교적 의식을 규제하거나 강요하려는 세속 정부는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고귀하게 싸웠던 바로 그 원칙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이 "무자비한 고집"으로 분류한 것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공개적으로 종교 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도시의 대표자들은 마침내 국회에 소집되었고, 그들은 제안 조건에 동의할지 여부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요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시험에 처했을 때 거의 절반이 종교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개인 판단의 권리를 희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 때문에 비판과 박해와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황제를 대표하는 페르난도 왕은 제후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이 법령이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설득의 기술을 시도했으며, 이 사람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면 그들을 더 단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들에게 그러한 행위가 황제를 크게 기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법령을 수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실한 사람들은 지상 통치자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황제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왕은 마침내 이 법령이 황실 칙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선거인과 그의 친구들만이 다수에 복종하는 일만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개혁자들에게 숙고하거나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집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페르디난드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사자를 보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그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복종만 남았습니다."

제국파는 기독교 군주들이 성경을 인간의 교리와 계율보다 우월하게 고수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이 원칙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교황권이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황제와 교황의 대의는 강하고 개혁자들의 대의는 약하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만약 개혁자들이 오로지 인간의 도움에만 의존했다면 그들은 교황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력했을 것입니다. 숫자가 적고 로마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의회 결정에서 진리의 성경에, 독일 황제에게서 천지의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페르디난도가 자신의 양심에 대한 확신을 고려하기를 거부하자 왕자들은 그의 부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즉시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 항의합니다. 엄숙한 선언문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요 유지자요 구속자요 구원자이시며 언젠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 피조물 앞에 항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우리의 양심의 권리, 우리 영혼의 구원에 어긋나는 모든 일에서 제안된 법령을 고수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지식으로 부르실 때, 그는 이 신성한 지식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성한 말씀에 부합하는 것 외에는 참된 교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신앙의 가르침을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더 명확한 텍스트로 설명된 텍스트와 함께,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에게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계몽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은총에 의해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포함된 대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순수한 설교를 유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 이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는 모든 교리와 삶의 확실한 법칙이며 결코 우리를 실패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축하는 사람은 그를 대적하여 배열된 인간의 모든 허영심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모든 권세에 대항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멍에를 거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황제 폐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왕자로서 우리를 다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귀족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당하고 정당한 의무인 모든 애정과 순종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

다이어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용기에 놀랐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험난하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불화와 갈등, 유혈 사태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대의가 정의롭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신뢰하며 용기와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항의 시위는 영혼과 하느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입법을 할 수 있는 행정관의 권리에 반대하고 선지자 및 사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교회의 독단적인 권력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신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오류 없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개신교는 인간의 주권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최고 권위로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강단의 최고 권위로 높였습니다. 양심의 힘은 국가의 힘 위에, 성경의 권위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교황의 왕관과 황제의 왕관 위에 높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가르쳤고 행정관이나 제사장이 간섭할 권리를 부인했습니다. 에스피라 시위는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엄숙한 증언이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천 사람의 기억 속에 기록되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지울 수 없는 하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주의 독일 전체는 이 항의를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새롭고 더 나은 시대에 대한 약속을 숙고했습니다. 왕자 중 한 사람은 에스피라의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힘차고,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그분을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굳건함 속에서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 성공을 거둔 후 세상의 호의를 얻기 위해 타협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불충성한 것이 되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을 것입니다. 이 고귀한 개혁가들의 경험은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사탄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6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성경이 생활의 지침으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의 교리와 교훈이 공개적으로 포기되고 있으며, 개신교의 위대한 원칙, 즉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법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에스피라의 개신교가 거부했던 반기독교 세력은 이제 잃어버린 패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애착은 오늘날 개혁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다가 개신교인들에게 위협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손이 뻗어나가는 징후도 있었습니다. 이때 멜란히톤은 친구 그리나이우스(Grynaeus)를 급히 스피라(Spira) 거리를 거쳐 라인 강으로 데려가 지체 없이 강을 건너도록 촉구했습니다. 놀란 그리네우스는 갑자기 탈출한 이유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멜란히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엄하고 엄숙한 모습의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페르디난도가 그리나이우스를 체포하기 위해 집행관을 파견할 것입니다.' 라인 강둑에서 멜란히톤은 강물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사이에 끼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반대편에 있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피에 목마른 자들의 잔인한 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나이우스는 저명한 가톨릭 의사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설교 중 하나에 충격을 받은 그는 그에게 가서 더 이상 진리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교황주의자는 자신의 분노를 숨겼지만 즉시 왕에게 가서 그에게서 개신교도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 멜란히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떠난 후 장교들이 그리네우스를 찾으러 와서 집을 위에서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멜란히톤은 주님께서 그의 친구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 거룩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개혁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페르난도 왕은 복음주의 제후들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황제와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제국을 어지럽히는 불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를 5세는 에스피라의 항의 다음 해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회를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신교 왕자들이 소환되어 등장했습니다.

큰 위협이 종교개혁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편에 굳건히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센의 선거인은 그의 고문들로부터 국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권고받았습니다. 황제는 왕자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왕자들의 존재를 요구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강력한 적과 함께 도시의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상하게 선언했습니다. “왕들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인과 그의 수행원은 아우크스부르크로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협적인 위험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픈 얼굴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코부르크까지 동행한 루터는 그 당시 작곡된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여행: "강한 성은 우리의 신이다." 많은 고통스러운 징조가 사라졌고, 영감을 주는 선율의 소리로 인해 많은 마음의 부담이 가벼워졌습니다.

개혁된 군주들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성경에서 추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루터, 멜란히톤 및 그 동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개신교도들에 의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중요한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적 문제와 혼동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향력 외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기독교 왕자들이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기 위해 모였을 때, 멜란히톤은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몫이지만, 다른 문제들은 지상의 강자의 권위가 유보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십니다."라고 작센의 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왕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내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선거 모자와 예복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름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방백은 펜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 나는 내 재산과 생명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 백성과 국가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신앙고백서에 포함된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상의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황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와 왕자들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은 카를 5세는 개신교 개혁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신앙고백서를 읽었습니다. 그 8월 대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명백히 제시되었으며, 교황 교회의 오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은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날이자 기독교와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올바르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텐베르크 수도사가 보름스에서 홀로 국가 평의회 앞에 선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제국의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말씀과 기도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임에서 저명한 고해사제들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높여지는 이 시간까지 나는 살 수 있어 기쁨으로 떨립니다." 성경에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하리이다"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119:46).

바울 시대에 그가 투옥되었던 복음이 제국 도시의 방백들과 귀족들 앞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그 때, 황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한 내용이 궁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인이 듣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제국의 통치자와 영주들은 놀랍게도 들었습니다. 왕들과 위인들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왕자들은 설교자였으며 설교는 왕실의 신성한 진리였습니다.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시대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일이나 이보다 더 장엄한 고백은 없었습니다."

"루터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교황의 주교는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선제후와 그의 지지자들이 한 신앙고백을 확고한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라고 또 다른 성직자가 Eck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에는 있지 아니하리나"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부들과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루터교인들은 성경과 함께 있고 우리는 그들 밖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독일 제후 중 일부는 개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황제 자신은 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개신교는 진리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 유포되었으며, 다음 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이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함께 모여 그들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것이 열렸다면 그리고 그들은 고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에 대한 동일한 강력한 증거를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탈출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군대를 그의 주인에게 보여 주었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17) 보라, 그 산에는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하였고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호위하기 위하여 거기 주둔하였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종교 개혁을 위한 일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루터가 가장 확고하게 고수했던 원칙 중 하나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제국의 왕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어 연맹에 연합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복음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옹호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개입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대신하여 개입하시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정치적 예방 조치는 합당하지 않은 두려움과 죄악된 불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개혁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연합하고 수천 개의 칼이 그를 향해 뽑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이 칼날과 마귀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

다시, 나중에 개혁된 군주들이 제안한 동맹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작센 선거인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양심 앞에서 제안된 동맹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강력하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고 사악한 군주들의 생각을 쫓아낼 방법과 수단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오류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참아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고 원수를 갚거나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폐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적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이다 다만 당신의 손이 당신의 형제들의 피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황제께서 우리를 그의 궁정에 넘겨달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나타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 세상을 뒤흔든 힘은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종들은 거룩한 고요함으로 그분의 약속의 반석 위에 그들의 발을 세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전투 동안 루터는 단 하루도 단 하루도 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간과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은밀하게 그의 영혼을 쏟아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경배와 두려움, 희망이 가득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또 당신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을 흠으실 줄을 아나이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위험에 처하였나이다 .. 우리가 그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오 아버지, 우리를 보호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린 멜란히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에는 없느니라. 아멘! 만일 그 일이 불의하면 그 일을 버리고 그 일이 의로우면 어찌하여 우리를 잠들게 하신 이의 약속을 두려움 없이 거스리리요 그리스도는 공의와 진리의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리라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느니라 ;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에게 맞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방백들과 목사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들을 시온에 두노니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6). 개신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웠으므로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12장

프랑스 종교개혁

독일 종교개혁의 승리를 상징하는 에스피라 시위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수년간의 갈등과 암흑기로 이어졌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의 분열로 인해 약해지고 강력한 적들의 공격을 받아 개신교는 완전히 멸망될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명이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했고 개신교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이 배반당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개혁 군주들은 황제의 손에 넘어갔고 도시에서 도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승리의 순간에 황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그의 일생의 야망이었던 교리를 제거하기 위해 관용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자신의 왕국과 보물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군대가 전투로 지치고, 그의 보물이 고갈되고, 그의 많은 왕국이 반란으로 위협받는 한편, 그가 억압하려고 헛되이 노력했던 신앙이 도처에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스 5세는 전능하신 세력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황제는 어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실패했고, 기나긴 투쟁으로 너무 늙고 지쳐, 그는 왕좌에서 물러나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의 암울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주(州)가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반면, 다른 주는 로마의 신조에 맹목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박해는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그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카펠(Cappel)의 피바다에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역경에 압도된 오에콜람파디우스는 곧 사망했습니다. 로마는 승리를 거두었고 여러 곳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나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분은 종교 개혁을 수행할 일꾼들을 깨우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루터의 이름이 개혁자로 알려지기 전에 이미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에 매달린 첫 번째 사람 중 한 사람은 폭넓은 학식을 갖고 파리 대학의 교수였으며 성실하고 열성적인 교황주의자였던 르페브르 노인이었습니다. 고대 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성서에 관심을 쏟았고 성서 연구를 제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르페브르는 열성적인 성인 숭배자였으며, 교회 전설에 나오는 성인과 순교자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성서에서 매우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목적을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실제로 성인에 대한 언급을 찾았지만 로마 달력에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빛의 홍수가 그의 마음에 터졌습니다.

놀랍고 혐오스러운 그는 제안된 임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나 츠빙글리가 종교 개혁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512년에 르페브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는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구속의 신비를 다루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 이 대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합니다. 무고한 사람은 정죄받고 죄인은 풀려나고 복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은 죽고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영광이 어둠에 잠겨 있고

그는 얼굴의 수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내적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광을 입으셨느니라.”

그리고 구원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순종의 의무는 인간에게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면 당신은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당신은 신성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특권을 이해하게 되리니, 그들이 얼마나 순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인 내면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길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르페브르의 학생들 중에는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용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진리를 계속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Guilherme Farel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아들이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도록 가르친 그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에 따르면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5) 충실한 로마교인으로서 그는 감히 교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교황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들었을 때를 언급하면서 "나는 맹렬한 늑대처럼 이를 갈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레베프레와 함께 지치지 않는 성인 숭배자였으며, 파리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제단에서 예배하고 성물함을 제물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수는 영혼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참회 행위는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확신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인 앙 레베프레는 다음과 같은 개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자유롭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정죄받고 범죄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

파렐은 큰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회심의 모범을 따라 전통의 속박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유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맹렬한 이리의 흥포한 마음 대신 온순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담담히 교황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 돌아왔다"고 말했다.

르페브르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퍼뜨리는 동안, 파렐은 교황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업에도 열성적으로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러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고위 인사인 모(Meaux)의 주교가 그와 합류했습니다.

기술과 박식으로 뛰어난 다른 교사들도 복음 선포에 동참하여 장인과 농민의 집에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당시 군주였던 프란시스 1세의 누이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왕과 왕비 어머니는 한동안 그녀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고 개혁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자비롭게도 그들의 눈에서 가려졌습니다. 그들이 폭풍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모(Meaux)의 주교는 자신의 교구에서 성직자와 사람들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지하고 부도덕한 성직자들은 제거되었고, 가능한 한 학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감독은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것이 곧 성취되었습니다. 르페브르는 신약성서 번역을 맡았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되는 동시에 프랑스어 신약성서가 모(Meaux)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감독은 그 책을 배포하는 데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당에서는 곧 모(Meaux)의 농민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들이 생수의 샘을 기뻐하며 부르짖듯이 이 영혼들도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고, 들판의 일꾼들과 작업장의 장인들은 성경의 귀한 진리를 이야기하며 매일의 수고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술집에 가는 대신 서로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합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곧 이 커뮤니티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했고 열심히 일하고 문맹인 농부였지만 변화시키고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그들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모(Meaux)에서 켜진 빛은 그 광선을 멀리 퍼뜨립니다. 매일 개종자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승려들의 편협한 광신을 경멸했던 왕은 한동안 계층 구조의 분노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수장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불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스테이크와 철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모의 주교는 더 쉬운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굳건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도 진리를 간증했습니다. 순교에 대한 용기와 신실함으로 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그들의 증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과 궁전의 고귀한 홀에는 부, 사회적 지위, 심지어 생명보다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왕족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갑옷에는 주교의 예복과 주교관보다 더 송고하고 결단력 있는 정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이스 드 베르캥(Luís de Berquin)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했고, 학문에 전념하는 용감하고 정중한 기사였으며, 매너와 확고한 도덕성을 갖춘 세련된 기사였습니다.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황령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으며 미사와 설교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교에 대한 특별한 혐오감을 나타냄으로써 이 모든 다른 덕목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섭리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거기에 교황권의 가르침이 아니라 루터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 사업에 온전한 헌신을 다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프랑스 귀족 중 가장 교양 있는 사람", 그의 천재성과 웅변, 그의 불굴의 용기, 영웅적인 열정과 왕이 가장 좋아하는 궁정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국의 개혁가로 예정된 인물로 여겼습니다. : "베르캥이 프란시스 1세를 제2의 선제후로 찾았다면 베르캥은 제2의 루터였을 것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더 나쁘다"고 교황주의자들은 외쳤다. 그는 실제로 프랑스의 로마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단자로 여겨 감옥에 가두었지만 왕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지속적인 투쟁을 유지했습니다.

로마와 종교개혁 사이에서 고민하던 프란치스코는 수도승들의 맹렬한 열성을 목인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베르캥은 교황 당국에 의해 세 번이나 투옥되었지만, 군주는 그의 천재성과 고귀함을 존경하여 그를 악한 계층의 희생양으로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베르캥은 프랑스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인 망명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학식은 뛰어나지만 진리를 섬기는 데 생명과 명예를 지키는 도덕적 위대함이 결여되어 있는 수줍음 많고 과묵한 에라스무스는 베르캥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 베네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알다시피, 그는 천 개의 머리를 갖고 독을 뱉어내는 괴물입니다.

어디에나. 당신의 적은 군단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보다 낫다면 그들은 당신을 비참하게 멸망시킬 때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보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나를 신학부에 맡기지 마세요."

그러나 위험이 커질수록 베르캥의 열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정책과 비굴한 조언을 채택하기는커녕 더욱 용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옹호할 뿐 아니라 오류를 공격할 것입니다. 로마교도들이 그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이단이라는 비난은 그들 자신에 대한 반박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대자 중 가장 활동적이고 신랄한 사람은 도시와 국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교회 권위 중 하나인 파리 대대학교 신학과의 박식한 의사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의 글에서 베르캥은 공개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며 따라서 이단적"이라고 선언한 12가지 제안을 취하여 주권자가 이 논쟁에서 재판관 역할을 해줄 것을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군주는 반대자들의 힘과 날카로움을 대조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고, 이 거만한 승려들의 자존심을 낮추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여 로마교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들의 대의를 옹호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가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 고문, 화형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무기였습니다. 이제 게임은 바뀌었고 그들은 베르캥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 거리 모퉁이에 훼손된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는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와 분노의 표정을 지으며 현장에 모였습니다. 왕도 몹시 동요했습니다. 여기에 승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들은 신속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베르캥 교리의 결실이다"라고 그들은 외쳤다. "이 루터교 음모로 인해 종교, 법률, 왕좌 자체 등 모든 것이 곧 파멸될 것입니다."

베르캥은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왕은 파리를 떠났고 수도사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자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여전히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형은 선고 당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정오에 베르캥은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그 희생자가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가치있고, 고귀한 가문 중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불안한 군중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경멸과 쓰라린 증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얼굴 위에는 어떤 그림자도 맴돌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생각은 그 소란스러운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비참한 수레, 추격자들의 음침한 눈빛, 자신이 향하고 있는 끔찍한 죽음, 베르캥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살아 계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곁에 계셨느니라. 베르캥의 표정은 천국의 빛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고, 그는 "벨벳 망토, 새틴과 다마스쿠 이중옷, 황금 스타킹"을 입고 쾌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과 미래의 우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려 했으며 어떤 비탄의 기색도 그의 기쁨을 어둡게 할 수 없었습니다.

행렬이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행렬의 시선과 모습에서 가져온 고요한 평화와 즐거운 승리를 감탄하며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은 성전에 앉아 신성한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Berquin은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두려워한 승려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순교자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 버렸습니다. 따라서 1529년에 교양 있는 파리의 최고 문학 및 교회 권위자는 "1793년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의 신성한 말을 어떻게 교수대에 의해 질식시키는가에 대한 끔찍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르캥은 목이 졸려 죽었고 그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프랑스 전역의 종교개혁 친구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증인들은 "우리는 또한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직면하고 다가올 삶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Meaux)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동안 개혁파 교사들은 설교 자격이 취소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르페브르는 얼마 후 독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Farel은 어린 시절의 환경에 빛을 퍼뜨릴 목적으로 프랑스 동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접수되었으며, 그가 두려움 없이 열정적으로 가르친 진리는 듣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곧 당국은 그를 침묵하게 했고 그는 도시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일할 수 없었지만 평원과 마을을 건너 개인 집과 고립된 초원에서 가르치고 젊었을 때 은신처였던 숲과 바위 동굴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Far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박해, 매복 등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한 힘으로."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도 "복음의 더 큰 유익"(빌 1:12)에 기여했습니다. 파리와 모오에서 금지된 사람들은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행 8:4). 그리하여 빛은 프랑스의 가장 외딴 여러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파리의 한 학교에는 명상적이고 조용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강력하고 예리한 마음의 징후를 보였고 그에 못지않게 삶의 놀라운 올바름, 지적 열정, 종교적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천재성과 응용력은 곧 그를 대학의 자부심으로 만들었고, 존 칼빈이 교회의 가장 유능하고 명예로운 옹호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빛의 광선은 칼빈이 감히 있는 스콜라주의와 미신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이단자들이 정죄받은 불을 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떨면서 새로운 교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단에 직면하게 되었고 개신교 가르침에 맞서 로마 신학의 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개혁파에 합류한 칼빈의 사촌이 파리에 있었습니다. 두 친척은 자주 만나서 그리스도교국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개신교인 올리베탄(Olivetanus)은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종교는 인간이 창조한 종교로서 의식과 선한 행위를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칼빈은 "나는 당신의 새로운 교리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의지로 쫓아낼 수 없는 생각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방에 홀로 앉아 사촌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칼빈은 정의롭고 거룩한 재판관 앞에서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중재, 선행, 교회의 의식 등은 모두 죄를 속죄하는 데 무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영원한 절망의 암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의사들이 그를 구제하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 고백과 참회는 영혼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익한 투쟁에 참여하는 동안 칼빈은 우연히 광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이단자가 화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고문과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정죄 속에서 그는 어린 학생이 교회에 가장 엄격한 순종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망과 어둠과 고통스럽게 대조될 만큼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단자들이 성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아버지,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당신의 피가 나의 불순물을 씻어 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당신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쓸데없는 헛소리를 많이 만들었으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내 앞에 햇불처럼 두셨고, 당신은 내 마음을 만지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 외에 다른 모든 공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신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열두 살이었을 때 그는 작은 교회의 목사직에 임명되었고 교회의 정경에 따라 지역 주교로부터 그의 머리에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성품을 받지도 않았고, 성직자의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나, 성직자가 되어 직분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받았다.

이제 그는 결코 사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한동안 율법을 공부했지만 마침내 그 목적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개 설교자가 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았고 이 직위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직관에 압도되어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열렬한 호소로 마침내 그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렇게 미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토록 큰 위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칼빈은 조용히 일을 시작했고 그의 말은 마치 땅에 내리는 상쾌한 이슬 같았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 지금은 복음을 사랑하여 마가렛 공주의 보호를 받는 지방 도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보호. 칼비노는 아직 어렸고, 온화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진리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곧 그 교사는 도시에서 가장 먼 도시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는 성과 오두막 모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파리로 갔다. 글을 읽고 배운 사람들 사이에는 특이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을 성서로 이끌었고, 성서의 진리에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서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심지어 로마교의 옹호자들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칼빈은 종교 논쟁 분야에서 능숙한 전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끄러운 신학자들보다 성취해야 할 훨씬 더 높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대학 강당이 신학 토론의 소란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칼빈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파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또 다른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Lefèvre와 Farel의 호소는 거부되었지만 메시지는 이 위대한 수도의 모든 계층에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왕

정치적 이해관계는 아직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로마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개신교가 프랑스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개혁 신앙이 파리에서 전파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이 부재하는 동안 그는 개신교 목사에게 도시의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교황의 고위 인사들이 이것을 금지하자 공주는 궁전 문을 열었습니다. 홀 중 하나는 예배당으로 준비되었으며 매일 특정 시간에 설교가 설교되고 모든 계층과 조건의 시민이 초대된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종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대기실과 홀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

귀족, 정치가, 변호사, 상인, 장인. 왕은 이러한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파리에 있는 교회 두 곳을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도시는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영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절제와 순결, 질서와 노동이 술취함과 방탕과 다툼과 나태함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계층 구조는 비합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전파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여전히 간섭하기를 거부했고, 교황주의자들은 주민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군중의 두려움, 편견, 광신을 깨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맹목적으로 굴복한 파리는 고대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방문할 때와 평화에 관한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단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용을 보였고, 교황주의자들은 군주에 대한 우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문을 닫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칼빈은 여전히 파리에 있었고 연구와 묵상, 기도를 통해 미래의 활동과 계속해서 빛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에 대한 의혹이 일어났다. 당국은 그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각하는 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는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간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서둘러 그의 방으로 왔을 때 위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바깥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문앞에서 경찰관들을 멈추게 했고, 다른 친구들은 개혁가가 창문 중 하나를 통해 내려오는 것을 도왔고, 그는 재빨리 도시 교외로 도망갔습니다. 종교 개혁의 일꾼 친구의 오두막에서 피난처를 찾은 칼빈은 주인의 예복으로 변장하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는 다시 마가렛의 영토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개혁자는 강력한 친구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며 예전처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프랑스를 복음화하겠다는 결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가라앉자마자 칼빈은 대학이 있고 새로운 의견이 이미 호평을 받고 있던 푸아티에에서 새로운 분야를 찾았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설교는 없었지만, 행정관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때로는 공공 정원에서 칼빈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얼마 후 청취자가 많아질수록 도시 외곽에 모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깊고 좁은 협곡 옆에 만남의 장소로 동굴이 선택되었으며, 그곳에서 눈에 띄는 나무와 바위가 고립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길을 따라 도시를 떠난 소그룹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찬이 거행되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에 의한 주님의 말씀.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은 신실한 전도자들이 사역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프랑스가 하나의 국가로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작업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곧 불길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프랑스를 떠나자마자 개신교에 폭풍이 닥쳤을 때, 만일 그가 그 나라에 남아 있었다면 그 개신교는 완전히 파멸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국이 독일과 스위스를 따라잡기를 열망한 프랑스 개혁가들은 로마의 미신에 대해 큰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온 국민을 일깨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중과 싸우는 포스터가 프랑스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전진을 촉진하는 대신, 이 열성적이었지만 시기적절한 운동은 그 전파자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의 개혁 신앙을 믿는 친구들에게도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로마교도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 즉 왕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선동자인 이단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요구하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부주의한 친구의 손인지 교활한 적의 손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숨겨진 손에 의해 포스터 중 하나가 왕의 개인 방 문에 게시되었습니다. 군주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수세기 동안 숭배를 받아온 미신이 가혹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이고 무서운 진술을 왕 앞에서 소개하는 전례 없는 대담함은 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한동안 떨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분노는 다음과 같은 끔찍한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체포하고 루터교를 완전히 근절시키십시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왕은 완전히 로마 편을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의 모든 루터교인들을 체포하는 조치가 즉각 취해졌습니다. 신자들을 비밀 집회에 부르는 데 익숙해진 개혁 신앙의 신봉자인 가난한 장인이 붙잡혀 화형에 처해 있다는 위협을 받고 교황 특사를 인도하여 모든 개신교인의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도시. 그는 추악한 제안에 겁을 먹었지만 불길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하여 형제를 배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호스트에 앞서 사제, 향로, 승려 및 군인의 행렬에 둘러싸여 왕실 탐정 모린은 반역자와 함께 천천히 조용히 도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개신교도들이 대중에게 행한 모욕에 대한 속죄 행위인 "거룩한 성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퍼레이드 이면에는 치명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루터교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배신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멈추고 집이 침입당했으며 가족이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무시무시한 행렬은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크든 작든 집 하나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파리 대학의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모린은 도시 전체를 뒤훑었다... 공포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잔혹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고, 고통을 지속시키기 위해 불을 줄여달라는 특명도 내려졌다. 그러나 이 신자들은 승자로서 죽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추격자들은 그들의 확고한 확고함에서 그들을 움직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이단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처형을 퍼뜨리려는 목적으로 파리 전역에 교수대를 배치하고 모닥불을 연이어 피웠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여전히 복음에 있었습니다. 파리 전체는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새로운 견해가 낳은 그런 사람들 순교자의 기둥 같은 설교단은 없었습니다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밝히는 고요한 기쁨, 잔혹한 불길 속에서도 그들의 영웅적 행위, 그들의 온유함

그들은 상처를 용서하고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며 거부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지지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계속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하는 사제들은 개신교도들에 대한 가장 끔찍한 비난의 유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을 학살하고, 정부를 몰락시키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단 한 조각의 증거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에 대한 예언은 매우 다른 상황과 반대되는 성격의 원인으로 인해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가톨릭교인들이 무죄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가한 잔인함은 보복의 무게를 더해갔고, 수세기 후에는 그들이 왕과 그의 정부와 그의 신하들에게 압박하리라고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3세기 후에 프랑스에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것은 개신교의 설립이 아니라 개신교의 제거였습니다.

이제 의심과 불신, 공포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각심 속에서도 루터교의 가르침이 교육, 영향력, 품성의 탁월함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사로잡았는지 드러났습니다. 신뢰와 명예를 누리던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었습니다. 장인, 인쇄업자, 학생, 대학 교수, 작가, 심지어 신하들까지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이 파리를 떠나 고국에서 자발적으로 추방되었으며, 많은 경우에 그들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단자들이 그들 가운데 용인되어 있다는 생각에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수많은 비천한 희생자들에게로 쏟렸습니다. 감옥은 만원이 되었고,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길의 연기로 공기가 흐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16세기 초 지식 르네상스를 위한 위대한 운동의 지도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문필가들을 궁정에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사랑과 수도사의 무지와 미신에 대한 경멸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종교 개혁에 허용된 관용의 수준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탄압하려는 열의에 고무된 이 지식의 **후원자**는 프랑스 전역에서 언론을 폐지한다고 선언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지적 문화가 종교적 불관용과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기록 사례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엄숙한 공개 행사를 통해 프랑스는 개신교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미사를 정죄하여 높은 하늘에 가해진 모욕을 피로 속죄하고 왕이 백성을 위하여 이 끔찍한 일을 공개적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35년 1월 21일은 무서운 의식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온 나라에 미신적인 두려움과 광신적인 증오가 일어났다. 파리는 주변 지역에서 몰려든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거대하고 인상적인 행렬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집들은 슬픈 커튼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단이 세워졌고, 각 문 앞에는 '거룩한 성찬'을 기념하는 햇불이 켜졌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왕궁에서는 행렬이 형성되었습니다.

본당의 십자가와 깃발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은 햇불을 들고 돌씩 짝을 지어 걸어왔습니다. 네 명의 수도사들이 독특한 의상을 입고 뒤따랐습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유명한 유물 컬렉션을 따랐습니다. 그 때에 고귀한 성직자들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군대는 파리의 주교에 의해 찬란한 휴대용 하늘 아래로 옮겨졌고, 네 명의 고위 왕자가 운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관과 왕실 망토도 입지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손에 가느다란 양초를 들고 있는 군주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왕은 그의 영혼을 더럽힌 악덕이나 그의 손을 더럽힌 무고한 피 때문이 아니라 대중을 감히 단죄한 신하들의 대죄 때문에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직후 여왕과 국가 고위 인사들도 각각 불을 붙인 햇불을 들고 돌씩 걸어왔습니다.

그날 의제의 일부로 군주는 주교 궁전의 본당에서 왕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직접 연설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감동적인 웅변의 말로 이 나라에 닥친 "범죄와 신성모독과 슬픔과 치욕의 날"을 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파멸로 위협하는 해로운 이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모든 충성스러운 신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각하, 내가 진실로 여러분의 왕인 것처럼, 제 팔다리 중 하나가 이 가증한 부패로 더럽혀진 줄 안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어 잘라 버리겠습니다. 내 자녀 중 하나가 이 병에 걸렸다면 나는 그를 아끼지 않고... 나도 그를 하나님께 넘겨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눈물이 그의 목소리를 막았고 온 회중은 울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종교를 위해 살고 죽을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거부한 민족의 어둠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총"이 나타났으나 프랑스는 그 권능과 거룩함을 보고 수천 명이 그 신성한 아름다움에 매료 되고 도시와 작은 마을이 그 광채로 밝혀진 후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빛. 그들은 하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부르다가 마침내 그들 자신의 속임수에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결백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혈 범죄로 그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기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을 스스로 거절하였다.

이단을 진압하겠다는 엄숙한 맹세가 대성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약 3세기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이성의 여신"을 즉위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렬이 형성되었고 프랑스 대표들은 그들이 맹세했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행렬의 돌아오는 길을 따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단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교수대가 세워졌고, 왕이 다가가면 모닥불을 켜서 그가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겪은 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철회를 요청하자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전에 설교한 것과 모든 성도들이 믿었던 것만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행렬은 고문 장소에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출발지인 왕궁으로 돌아온 후 군중은 흩어지고 왕과 고위 성직자들은 그날의 일에 만족하며 이제 막 시작된 일이 이단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자축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프랑스가 거부한 평화의 복음은 사실상 근절될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1793년 1월 21일, 프랑스가 맹세한 날로부터 258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혁파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끝나자,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진 또 다른 행렬이 파리 거리를 횡단했습니다. "역시 왕이 주인공이었고, 또다시 폭동과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더 많은 희생자를 요구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은 교수대가 세워졌고, 다시 한 번 일상의 장면은 끔찍한 처형으로 끝났습니다. 간수 및 처형자들과 싸우던 루이 16세는 처형대로 끌려가서 도끼를 맞고 잘린 머리가 연단에 떨어질 때까지 강제로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만이 유일한 희생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형된 후, 공포정치의 유혈낭자한 기간 동안 2,800명의 인간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계시하고 사람들의 양심과 관련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면서 공개된 성경을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이 하늘의 율례와 원칙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백성의 목전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총명이 될 것임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리하리라 말하라: 이 위대한 사람들은 오직 현명하고 이해력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신명기 4:6) 프랑스는 하늘의 선물을 거부함으로써 무정부 상태와 파멸의 씨앗을 뿌렸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틀림없이 작동하여 혁명과 공포정치가 탄생했습니다.

광고로 인해 박해가 촉발되기 오래 전에, 용감하고 열렬한 파렐은 강제로 고국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가서 츠빙글리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종교 개혁에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그 나라에서 보내게 되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종교 개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망명 첫 몇 년 동안 그는 특히 고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동포들에게 전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지칠 줄 모르고 경계하면서 분쟁을 지켜보며 격려와 조언의 말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망명자들의 도움으로 독일 개혁가들의 저작물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갈리아 성서와 함께 대량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콜포처들의 활동을 통해 이 책들은 프랑스에서 널리 판매되었습니다. 콜포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판매 수익으로 그들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Farel은 초등학교 교사로 가장하여 스위스에서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외딴 본당으로 가서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주제 외에도 그는 자녀를 통해 부모에게 다가가기를 희망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시켰고, 미신을 믿는 시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사제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한 도시에서 박해를 받으셨을 때 다른 도시로 도피하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파렐은 배고픔과 추위, 피로를 견디며 생명의 위험이 있는 모든 곳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는 시장, 교회, 때로는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청중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설교가 고함과 조롱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강단에서 격렬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한 번 이상 군중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자주 격퇴되었지만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공격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권의 본거지였던 마을과 도시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차례로 관찰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일했던 작은 본당은 곧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라트(Morat)와 뉴샤텔(Neuchatel) 도시도 로마 의식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우상 숭배 이미지를 제거했습니다.

Farel은 오랫동안 제네바에서 개신교 생활 수준을 구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도시가 정복된다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는 주변의 많은 도시와 마을이 정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단 한 명의 친구와 함께 제네바에 입성했습니다. 그에게는 단 두 번의 설교만 허락되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그의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를 한 사제들은 그를 교회 공의회에 출석하도록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옷 속에 무기를 숨긴 채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곳으로 갔다. 홀 밖에는 성난 군중이 곤봉과 칼을 들고 모여들었고, 파렐이 의회에서 탈출하면 그를 살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치안판사와 군대의 존재가 그를 구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와 그의 동료는 호수를 건너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네바를 복음화하려는 그의 첫 번째 노력은 끝났습니다.

다음 실험을 위해 훨씬 더 겸손한 도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너무 온건해서 종교 개혁의 친구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도 냉담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Farel이 거절당한 곳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강하고 용감한 자도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폭풍 앞에서 용기와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폭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스 4:6). “하나님께서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7, 25).

Froment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곧 부모들은 성경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교실은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약성서와 소책자의 사본은 널리 배포되었고, 감히 새로운 교리를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이 선교사 역시 강제로 도망쳤지만 그가 가르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시행되었고 계속해서 강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돌아왔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마침내 제네바에 개신교 예배가 확립되었습니다.

칼빈이 여러 가지 방향과 고난 끝에 그 도시의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도시는 이미 종교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바젤로 가는 도중에 카를 5세의 군대가 점령한 직선 도로를 발견하고 제네바를 통과하는 우회 경로를 택해야 했습니다.

Farel은 이번 방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습니다. 제네바가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입니다. 중생의 일은 공의회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로마의 권위를 거부했지만 로마 통치 하에서 만연했던 악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순수한 원리를 확립하고, 섭리가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합당하게 수행하도록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렐은 칼비노에게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젊은 전도자에게 그곳에 머물면서 일할 것을 엄숙하고 즉각 간청했습니다. 칼비노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수줍음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는 제네바의 대담하고 독립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인 정신과의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건강의 섬세함은 공부습관과 함께,

그가 후퇴를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펜을 통해 개혁 운동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조용한 안식처를 찾고 그곳에서 출판물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교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렐의 엄숙한 훈계는 천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부름처럼 그에게 이르렀고 그는 감히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마치 하느님의 손이 하늘에서 뻗어 나와 그를 붙잡아 그가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난 곳에 그를 돌이킬 수 없게 고정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 운동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저주가 제네바를 향해 천둥처럼 퍼졌고 강대국들은 제네바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왕과 황제를 자주 복종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위계 질서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세계의 위대한 정복자들의 군대와 맞설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교국 전체에서 개신교는 가공할 만한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승리 이후 로마는 종교 개혁을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소집했습니다. 이때 교황권의 모든 옹호자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양심적이며 강력한 예수회 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과 인간의 이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자연적인 애정의 외침에도 냉담하며, 온 이성과 양심이 굳어진 채, 그들은 조직 자체의 규칙 외에는 어떤 규칙이나 관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직면하고 추위와 굶주림, 고된 노동과 가난을 통해 용감히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여 고문과 감옥과 화형 앞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예수회는 추종자들에게 비슷한 위험을 견디고 진리의 힘과 모든 기만의 무기에 반대할 수 있는 광신주의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저지를 만큼 큰 범죄도 없었고, 실행하기에는 그렇게 사악한 속임수도 없었으며, 가장하기 어려운 변장도 없었습니다. 가난과 겸손을 영원히 맹세하면서, 개신교를 파괴하고 교황권을 다시 세우는 데 헌신할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그들의 연구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수도회 회원으로 나타날 때 성스러운 옷을 입고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고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세상을 버렸다고 공언하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의 신성한 이름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 순진한 겉모습 뒤에는 가장 범죄적이고 치명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질서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거짓말, 절도, 위증, 살인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경우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변장을 통해 그들은 국가 기능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왕의 고문이 되고 국가의 정치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정탐꾼이 되기 위해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자와 귀족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평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부모의 자녀들은 교황의 의식을 지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예배의 모든 외적인 화려함과 허식은 정신을 혼란시키고 눈멀게 하며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피 흘리며 싸워 쟁취한 자유는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회는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황권이 부활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기 위해 교황의 교서가 발표되어 종교 재판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독한 법정은 교황청 지도자들에 의해 다시 설립되었으며, 대낮의 빛을 견디기에는 너무 끔찍한 잔혹 행위가 그 비밀스러운 지하 감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가장 지적이고 고등 교육을 받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목사들, 근면하고 애국심이 강한 시민, 뛰어난 학자, 재능 있는 예술가, 숙련된 장인들이 살해되거나 강제로 다른 나라로 피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종교 개혁의 빛을 끄고,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고, 암흑 시대의 무지와 미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루터를 계승하도록 세우신 고귀한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개신교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을 얻은 것은 왕자들의 총애나 팔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약한 나라가 그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네바를 파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제네바였습니다. 북해를 따라 모래사장이 펼쳐진 네덜란드는 당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스페인의 폭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종교개혁의 승리를 거둔 것은 차갑고 메마른 스웨덴이었다.

약 30년 동안 칼빈은 제네바에서 일하면서 먼저 그곳에 성경의 도덕성을 채택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 개혁을 진전시켰습니다. 공공 지도자로서의 그의 행동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교리에는 오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특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급속한 교황 제도에 맞서 개신교의 원칙을 유지하고, 교만과 부패 대신 개혁 교회의 단순성과 순결한 삶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교의 가르침으로.

개혁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출판물과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모든 나라의 박해받는 사람들은 교훈과 조언과 격려를 구했습니다. 칼빈의 도시는 서유럽 전역에서 박해받는 개혁가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끔찍한 폭풍을 피해 도망자들은 제네바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프고, 부상당하고, 집과 친척을 잃은 그들은 친절하고 즐겁게 환대받았으며 다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찾은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와 경건함으로 입양된 도시를 축복했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용감한 개혁가인 존 녹스(John Knox)와 적지 않은 영국 청교도,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개신교,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자신들의 조국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제13장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종교개혁

네덜란드에서는 교황의 폭정이 아주 일찍부터 단호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터 시대보다 700년 전에 로마 교황은 로마에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교황청"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있던 두 명의 주교로부터 두려움 없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당신의 왕후와 아내로 삼아 당신 가족의 고귀하고 영원한 양식으로 삼으시고 썩지도 부패하지도 않는 지참금을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과 홀을 주셨느니라. 유익한 모든 것은 도둑처럼 가로챱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목자가 아니라 양들에게 늑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폭군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최고의 주교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종의 하인이어야 하지만 스스로를 부르듯이, 당신은 주의 주가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당신은 경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성령은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건축자이시니... 우리가 그 시민인 우리 하나님의 성은 모든 하늘에 미치며 부르심을 받은 그 성보다 크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세운 바벨론은 신성하고 하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며 그 자혜가 불멸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유 없이 자신은 실수한 적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항의를 반영하기 위해 세기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거쳐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들 초기 교사들은 왈도파 선교사의 특성을 지니고 복음 지식을 곳곳에 전파하며 네덜란드까지 침투했다. 그의 교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들은 왈도파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농담, 우화, 사소한 일, 실수가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저기 딱딱한 껍질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선하고 거룩한 것의 본질과 감미로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세기 고대 신앙의 친구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동안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길과 고문 속에서도 신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종교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유일하고 오류 없는 권위이며, "아무도 억지로 믿도록 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설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굳게 선언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저지대에 적합한 근거를 찾았으며 열심히 있고 충실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지방에서 Menno Simons가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사제직을 받은 그는 성경에 대해 전혀 무지했고, 이단에 빠질까 봐 성경을 읽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화체 설에 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때 그는 그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이해하고 기도와 고백을 통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방탕한 장면에 참여하면서 그는 양심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신약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저술과 함께 이러한 검토는 그로 하여금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웃 마을에서 재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참수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유아 세례 문제에 관해 성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당화할 증거를 성경에서 찾지 못했지만 회개와 믿음만이 세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부임을 보았습니다.

메노는 로마 교회를 떠나 자신이 받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터무니없고 선동적인 교리를 옹호하고 질서와 품위를 파괴하며 폭력과 반란을 일으키는 광신도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메노는 이 운동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보았고, 온 힘을 다해 광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야만적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신자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의 유해한 교리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도파 가르침의 결실인 고대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Menno는 큰 열정과 성공을 가지고 이러한 계층에서 일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큰 어려움과 궁핍을 겪었고, 종종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 북부를 횡단하며 주로 비천한 계층에서 일했지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말을 잘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변함없는 성실함과 겸손한 정신, 온유한 품행, 진실하고 뜨거운 경건함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계율을 실천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흩어지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윈스터의 광신적인 추종자들과 혼동되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저지대 국가만큼 개혁주의 교리를 무자비하게 거부한 곳도 없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그토록 끔찍한 박해를 견뎌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카를 5세(Charles V)가 종교 개혁을 불법화했고 기꺼이 그 지지자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은 그의 폭정에 대항하는 장벽으로 일어섰습니다. 저지대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박해하는 칙령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설교하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 불살라 죽어야 할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형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 시편을 부르는 것 역시 사형에 처해졌다.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한 사람들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남자라면 칼에 죽을 것이다. 여자라면 산채로 묻힐 것이다.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찰스와 필립 2세의 통치 하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번은 온 가족이 미사를 놓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심문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밀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막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권자를 위해 그의 나라가 번영하고 그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들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중 한 명은 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해자들의 분노는 순교자들의 믿음과 일치했습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섬세한 여성, 젊은 여성들도 단호한 용기를 보였다. "아내들은 불 옆에 남편 옆에 서서 불에 타면서 위로의 말을 속삭이거나 시를 노래하여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젊은 처녀들은 마치 밤잠을 자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마치 자기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와 불로 향했습니다."

이교가 복음을 파괴하려 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였습니다. 박해는 진리에 대한 증인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군주는 사람들의 정복할 수 없는 결의로 인해 광기에 시달려 잔인한 일을 주장했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귀족 아래서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의 혁명은 마침내 네덜란드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피에몬테 산에서, 프랑스 평원에서, 네덜란드 해변에서 복음의 진보는 제자들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북부 국가에서는 평화로운 진입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비텐베르크의 학생들은 개혁 신앙을 스칸디나비아로 가져갔습니다. 루터의 저작물이 출판되면서도 빛이 퍼졌습니다. 단순하고 정력적인 북방 사람들은 로마의 부패와 허세와 미신에서 돌아서서 순결하고 단순하며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덴마크의 개혁자"인 타우센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릴 때부터 활발한 지성을 보였습니다. 나는 지식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거부되었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의 순결한 삶과 근면, 충실성은 상관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에게는 장래에 교회를 위해 좋은 봉사를 약속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대학 중 한 곳에서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비텐베르크가 아니라라는 조건 하에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학계를 이단의 독에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우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로마교의 요새 중 하나였던 쾰른 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곧 교사들의 신비주의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루터의 저작물 사본을 얻었습니다. 그는 개혁자로부터 개인적인 교훈을 받는 것을 크게 즐기고 싶어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수도원 장상을 불쾌하게 하고 지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곧 결정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텐베르크에 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 누구도 그가 루터교 동조자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타우센은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편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들을 더 순수한 신앙과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그 참 뜻을 설명하였고, 마침내 죄인의 의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로마의 용감한 변호사로서 타우센에 특별한 희망을 걸었던 원장의 분노는 컸습니다. 즉시 그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져 엄격한 감독하에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수호자들은 겁에 질려 많은 수사들이 곧 자신들이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타우센은 감방 창살을 통해 동료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 덴마크 사제들이 이단을 처리하기 위한 교회의 계획에 능숙했다면 타우센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지하 감옥에 묻지 않고 수도원에서 추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최근에 공포된 왕실 칙령은 새로운 교리의 교사들을 보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ausen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은 그에게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는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그 작품을 파괴하려는 교황주의자들의 노력은 그 작품이 가장 크게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는 개혁된 작품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비텐베르크의 샘물을 마신 젊은이들이 동포들에게 생명수를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종교개혁의 두 지도자인 올라프(Olaf)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Laurenius Petri)는 오레브로(Orebro) 출신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루터(Luther)와 멜란히톤(Melanchthon)에게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개혁자인 올라프는 열정과 웅변으로 사람들을 일깨웠고, 라우렌티우스는 멜란히톤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사색적인 기질을 지닌 지식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렬한 경건함과 심오한 신학적 재능,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황주의 반대파가 빠질 수는 없었다. 가톨릭 사제들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올라프 페트리(Olaf Petri)는 종종 폭도들에게 강도를 당했고 여러 차례 간신히 살아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혁자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교회의 통치하에서 사람들은 가난에 빠지고 탄압에 짓밟혔습니다. 성경이 없고 마음에 빛을 주지 않는 단순한 형식과 의식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들은 이교 조상들의 미신적인 이교 신앙과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졌고, 그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모든 사람의 불행을 증가시켰습니다. 왕은 국가와 교회를 개혁하기로 결심하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유능한 보조자들을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군주와 스웨덴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라프 페트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로마 옹호자들에게 맞서 개혁 신앙의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교부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가 성경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되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한복음 7: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갈 1:8). 개혁가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감히 교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강요할 것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교회의 법령은 권위가 없음을 보여 주었고, "성경과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법칙"이라는 개신교의 위대한 원칙을 옹호했습니다.

이 논쟁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단계에서 진행되었지만 "개혁군의 계급과 대열을 구성한 사람들의 자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텐베르크와 취리히의 눈부신 중심지, 그리고 루터와 멜란히톤, 츠빙글리와 오에콜람파디우스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들은 운동의 지도자들이었지만 부하들은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무명의 극장과 스승에서 제자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올라프와 로렌티우스 페트리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지하고 종파적이고 시끄러운 논쟁가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의 무기고가 그들에게 제공한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을 봅니다. 학파의 궤변가들과 로마의 고위 인사들에 대해 쉽게 승리를 거둔 학자들과 신학자들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로 스웨덴 왕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그의 편을 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약성서는 올라프 페트리에 의해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으며, 왕의 뜻에 따라 두 형제는 성경 전체의 번역을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스웨덴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국 전역의 목사들이 성경을 설명해야 하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의 축복된 빛은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중단 없이 확실하게 몰아냈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 그 나라는 이전에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힘과 위대함을 성취했습니다. 스웨덴은 개신교의 본거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0년 후, 극심한 위험이 닥쳤을 때, 이 작고 약한 나라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럽에서 감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30년 전쟁의 끔찍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 북유럽 전체가 로마의 폭정 아래 다시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이 교황주의 성공의 물결에 맞서고, 개신교(칼빈주의와 루터교)에 대한 관용을 얻고,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웨덴 군대였습니다.

제14장

다른 영국 개혁자들

(Tyndale, Latimer, Wishart, Knox, Cranmer 및 Ridley)

루터가 당시까지 닫혀 있던 성경을 독일 사람들에게 열어 주고 있는 동안, 틴데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영국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성경은 라틴어 원문을 번역한 것인데, 그 안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쇄된 적이 없었고 원고 사본의 비용이 너무 높아 소수의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성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논문이 나오기 1년 전인 1516년에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라틴어 신약성서를 출판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로 인쇄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전 버전의 많은 오류가 수정되어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받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종교 개혁 사업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틴데일은 동포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위클리프의 사업을 완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지런한 학생이자 열렬한 진리 추구자로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교리가 성경에 의해 입증되었음을 반복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확신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찾고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천주교의 주장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독수리에게 먹이를 찾도록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찾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숨긴 것은 당신들이요, 가르치는 자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도 당신들이니, 할 수만 있으면 성경까지도 불태우고자 하리이다."

틴들의 전파 활동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깨어 있어서 그가 발을 떠나자마자 위협과 중상으로 그의 일을 파괴하려고 힘썼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에 성공했습니다. "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곳에 뿌리는 동안 원수는 내가 방금 떠난 발을 파괴합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없이는 평신도를 진리 안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적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언어로 됐습니다. 그러면 영국 언어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인가?... 교회는 새벽보다 정오에 빛을 덜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을 모국어로 읽어야 한다." 교회의 의사들과 교사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의사를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저자들은 서로 모순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식 있는 가톨릭 의사가 그와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황의 법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습니다." Tyndale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무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 주신다면 나는 머지않아 쟁기를 다루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전하라는 틴데일의 목적이 이제 입증되었고 그는 즉시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그는 런던으로 가서 한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황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전체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어로 신약성서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두 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에서 인쇄가 금지되자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몇 년 전 루터가 국회에서 복음을 옹호했던 보름스(Worms)로 향했습니다. 그 오래된 도시에는 종교개혁의 친구들이 많았고, 틴데일은 어떤 장애도 없이 그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신약성경 3000권이 곧 완성되었고 같은 해에 또 다른 판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큰 결단력과 인내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항구를 가장 엄격하게 감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런던으로 전달되었으며 그곳에서 전국으로 유포되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진실을 억압하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더럼의 주교는 한번은 틴데일의 친구인 서점으로부터 그의 성경 재고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을 크게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공된 돈으로 새롭고 더 나은 판을 위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판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틴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성서 인쇄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더럼의 주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책들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그 책들이 좋은 정신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틴데일은 배신당해 적들의 손에 넘겨져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순교의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무기 덕분에 다른 군인들은 수세기 동안,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라티머는 강단에서 성경은 사람들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이시며 이 성경은 저자의 능력과 영원성에 참여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 황제, 행정관, 총독은 없습니다. 돌과 짚레와 뿌리째 뽑힌 나무로 가득한 인간 전통의 지름길을 조심하십시오. 말씀의 곧은 길을 따르자. 우리는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걱정해야 합니다.”

Tyndale의 충실한 친구인 Barnes와 Frith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는 리들리 부부와 크랜머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영국 종교 개혁의 이 지도자들은 박식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로마 공동체에서의 열심과 경건함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교황직에 대한 그의 반대는 "교황청"의 오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비에 대한 그의 친숙함은 바벨론에 대한 그의 간증에 더 큰 힘을 주었다.

Latimer가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주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말을 당신이 듣고 또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교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를 떠나지 마세요." 는 유훈 상태가 될 것입니다. 원할 때마다 그를 찾으면 그는 항상 쟁기를 들고 집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결코 태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마가 사는 곳은 이렇습니다. 책이 밖에 있고 촛불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빼고 묵주만 가지고 가세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촛불 아래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정오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연옥이며, 연옥이며 만세. 헐벗은 자와 가난한 자와

유효하지 않은; 그리고 돌과 나무로 형상을 장식하고 즐겁게 장식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그분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 무너지고 전통과 인간 회의와 무감각한 교황이 무너졌습니다. 오! 사탄이 잡초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고위 성직자들도 부지런히 좋은 교리의 열매를 심기를 바랍니다!"

알도파, 위클리프, 요한 후스, 루터, 츠빙글리 및 그 추종자들이 옹호했던 것과 동일한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은 신앙과 실천의 법칙으로서 성경의 무류한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양심을 통제할 수 있는 교황, 공의회, 교부, 왕의 권리에 대해 이익을 제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권위였으며 그 가르침으로 그들은 모든 교리와 주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 화형에 목숨을 바칠 때에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라티머는 화염이 그들의 목숨을 잠재우려고 할 때 순교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영국에서 빛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콜롬바와 그의 협력자들이 뿌린 진리의 씨앗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로마에 항복한 후에도 수백 년 동안 스코틀랜드 교회는 자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 그곳에서 교황권이 확립되었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교황권이 이보다 더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둠이 더 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빛의 광선이 나타나 어둠을 꿰뚫고 다가올 그날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성경과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영국에서 온 롤라드파는 복음 지식을 보존하는 데 많은 일을 했으며, 매 세기마다 증인과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대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루터의 저작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틴데일의 영어 신약성서가 나왔습니다. 고위층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사자들은 조용히 산과 계곡을 건너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꺼진 진리의 횃불을 밝히고 로마가 4세기 동안 억압을 받으며 이론 업적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자 순교자들의 피가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대의를 위협하는 위험을 깨달은 교황의 지도자들은 스코틀랜드의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아들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단을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죽어가는 증인들의 말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로마의 족쇄를 떨쳐 버리려는 확고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해밀턴과 위샤트는 태생뿐만 아니라 인품도 고상했으며, 많은 겸손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목숨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위샤트(Wishart)의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그 불꽃이 잠잠케 할 수 없는 분, 하나님 아래서 스코틀랜드의 교황 통치에 치명타를 가할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존 녹스(John Knox)는 교회의 전통과 신비주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위샤트의 가르침은 로마와의 연합을 버리고 박해받는 개혁가들과 합류하려는 그의 결심을 확증 해주었습니다.

설교자의 직분을 맡도록 동료들의 설득을 받은 그는 자신의 책임에서 물러났고, 며칠 동안 은둔하고 자신과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은 후에야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받아들인 그는 평생 동안 불굴의 결단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충실하고 참된 개혁자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타오르는 순교의 불길은 그의 열성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인의 도끼가 그의 머리 위에 위협적으로 매달려 있는 가운데,

그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른쪽과 왼쪽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의 열성이 약해진 스코틀랜드 여왕과 대면했을 때, 존 녹스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애지중지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왕은 그를 이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람들에게 국가가 금지하는 종교를 받도록 가르쳤고,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방백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Knox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참된 종교는 군주에게서 유래하지도 않고 그 권위도 그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므로 신민은 그들의 종교를 군주의 취향에 맞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 가장 무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오랫동안 파라오의 종교에 속해 있었다면, 부인,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피험자들이 군주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말입니다."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한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로마의 주인]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심판관이 될 것인가?"

"당신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개혁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이것저것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하니 어두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순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더욱 설명하시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그러하니 완고하게 무지한 자들 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느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용감한 개혁자가 왕족의 귀에 전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불굴의 용기로 스코틀랜드가 교황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전쟁에 맞서 자신의 목적을 지켰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신교가 국교로 확립되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박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리 중 많은 부분이 폐기되었지만 그 형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교황의 최상권은 거부되었지만 그 대신에 군주가 교회의 수장으로 즉위했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여전히 복음의 순수성과 단순성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종교적 관용의 위대한 원칙은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단에 맞서 자행한 끔찍한 잔혹행위가 프로테스탄트 통치자들에 의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는 아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존 교회가 규정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예배 형식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어느 정도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17세기에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직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벌금, 투옥, 추방을 당하고 교회가 허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종교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충실한 영혼들은 어두운 골목, 어두운 다락방, 어떤 계절에는 한밤중 숲 속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 환영하는 깊은 숲 속에 흩어지고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은 혼잡했습니다. 가족은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셨고 박해도 그들의 간증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바다 건너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그 나라의 보루이자 영광이 되어온 시민적, 종교적 자유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해는 복음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탕자와 범죄자들로 가득 찬 메스꺼운 지하감옥에서 존 번연은 천국의 진정한 분위기를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멸망의 땅에서 하늘의 도성까지 순례자의 여정에 대한 놀라운 우화를 썼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베드퍼드 감옥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생한 힘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Bunyan이 저술한 『천로역정』과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풍성한 은혜』는 많은 발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Baxter, Flavel, Alleine 및 기타 재능과 교육, 깊은 기독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한때 성도들에게 맡겨진 신앙을 용감하게 옹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행한 일은 이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 정죄되고 배척을 받았지만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플라벨(Flavel)이 쓴 생명의 샘 과 은혜의 방법(The Fountain of Life and the Method of Grace)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보살핌을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박스터의 개혁 목사는 하나님의 사업의 부흥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며,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영혼들을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 안식"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100년 후, 영적 암흑기가 짙어지던 시대에 윌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교회의 통치 하에서 영국 국민은 이교주의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쇠퇴에 빠졌습니다. 자연 종교는 성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였으며 그들의 신학의 대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상류층은 경건함을 무시하고 소위 광신주의보다 더 높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층계층은 대체로 무지하고 악덕에 빠져 있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산산조각난 진리의 대의를 지지할 용기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그토록 분명하게 가르쳤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위대한 교리는 거의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을 신뢰해야 한다는 로마교의 원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의 회원인 윌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신의 은총을 진심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이 은총이 유덕한 생활과 종교 의식의 준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한때 병에 걸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였습니다. 질문을 한 친구가 자신의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뭐야! 내 노력이 희망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내 노력을 빼앗아 갈까요? 나에게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죄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구속주의 보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짙은 어둠이 교회 위에 내려왔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참 종교가 마음 속에 확립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순결함과 외적 행동의 정확성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가장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을 통해 그들은 타고난 마음의 악을 통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극기와 자선과 굴욕의 삶을 살았으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조치를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거나 죄의 세력을 깨뜨리려는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에르푸르트의 감방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괴롭혔던 바로 그 질문 -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 9:2).

개신교의 제단 위에서 거의 꺼졌던 신성한 진리의 불꽃이 보헤미안 기독교인들에 의해 여러 시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대 횃불에서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로마의 무리들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진리를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작센에서 피난처를 찾아 그곳에서 고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에게 빛이 비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에게서였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에는 모라비아 안 그룹이 타고 있었습니다.

건너는 동안 격렬한 폭풍이 그들에게 닥쳤고, 존 웨슬리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독일군은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차분함과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전에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인 중 누구도 수행하지 않을 비천한 일을 다른 승객들을 위해 수행하면서 그들의 겸손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원하거나 받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좋은 일이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 주셨고, 어떤 모욕도 감내할 수 없는 온유함을 나타낼 기회를 날마다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멀리고, 맞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영과 두려움, 교만, 분노, 복수로부터 자유로운지 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편의 중간에 바다가 격노하여 주 뜻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배를 덮고 갑판을 가로질러 퍼져 나갔습니다. 마치 큰 심연이 이미 우리를 삼킨 것처럼 말입니다. 영국인들 사이에서 끔찍한 외침이 터졌습니다. 독일군은 침착하게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나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두렵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었다: '하지만 당신의 여자와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여성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바나에 도착한 웨슬리는 얼마 동안 모라비아인들과 함께 머물렀으며 그들의 그리스도인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회의 형식주의적인 예배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그의 종교 예배 중 하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장치는 없었지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에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모라비아 설교자의 지도를 받아 성경적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모라비아 협회 회의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에 믿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내 죄, 심지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피곤하고 황폐한 수년간의 노력, 수년간의 엄격한 포기, 비난과 굴욕을 통해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를 찾고

그는 기도와 단식, 자선과 극기를 통해 얻으려고 노력한 은총이 “돈도 없고 값도 없는” 선물임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자, 그의 온 영혼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관한 지식을 모든 곳에 전파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어느 곳에 있든 나의 본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정의롭고 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기초가 아니라 믿음의 산물로서 가혹하고 사심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뿌리로서가 아니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이 은혜는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웨슬리의 삶은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한 칭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진리를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Whitefield와 Wesley 형제는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길고 깊은 개인적인 확신을 통해 그들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써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대학에서나 사역을 시작할 때 조롱과 조롱과 박해의 불같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일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동료들에 의해 감리교인이라고 조롱당했는데, 이 이름은 현재 영국과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에서 명예롭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은 예배 형태에 의해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더 높은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파하려고 권면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의 일에 수반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확신을 갖고 진실로 개종했습니다. 이 양들은 늑대를 잡아먹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웨슬리는 새로운 종교 종파를 창설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감리교 연합(Methodist Union)이라고 부르는 단체로 조직했습니다.

신비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 설교자들이 기존 교회로부터 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종교 개혁이 교회 자체 내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지시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완전히 외부로부터 진행되었다면 가장 필요한 곳에 침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설교자들은 교회의 회원들이었고 그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 틀 내에서 일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을 곳에 진리가 침투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도덕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자기 본당에서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형식주의로 석화된 교회가 부활했습니다.

교회사의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웨슬리 시대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임명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의 모든 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전적인 목표에 연합했습니다. Whitefield와 Wesley 형제 사이의 불화는 한때 분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인내와 사랑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논쟁할 시간도 없었고, 오류와 불법이 도처에 퍼지고, 죄인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향력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얼마 후, 많은 교직자들이 그들에게 고의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교회의 문은 닫혔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단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성직자들의 행위는 어둠과 무지와 불법의 요소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번이고,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적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폭도들이 그를 향하여 분노하여 피할 길이 없어 보이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그의 곁에 왔고 폭도들은 물러갔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은 위험이 있는 곳을 무사히 떠났습니다.

한번은 화난 사람들로 부터 자신이 구출된 일에 대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시로 향하는 미끄러운 길을 따라 언덕을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넘어지면 거의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들의 손이 완전히 닿지 않을 때까지 조금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옷깃과 옷을 붙잡고 땅바닥에 던져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붙잡지 마세요. 공격자 중 한 명이 곧 손에 쥐게 된 양복 조끼 덮개로 나를 단단히 붙잡았고, 주머니에 지폐가 들어 있던 다른 덮개는 반으로만 찢어졌습니다... 내 바로 뒤에 있던 건장한 남자가 참나무로 만든 거대한 곤봉으로 나를 여러 차례 때리려 했으나, 내 뒤통수를 한 번만 때렸다면 더 이상 불편함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격은 빗나갔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군중 속으로 달려오더니 나를 공격하려고 팔을 들어올리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가볍게 나를 건드렸다. 머리가 말하길, '뭐라구요? 머리가 부드러워요!'... 마음을 가장 먼저 변화시킨 사람들은 도시의 영웅들이었고, 항상 대중의 지도자였으며, 그 중 한 명은 권투 선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유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준비시키십니까! 2년 전, 벽돌 조각이 내 어깨를 스쳤습니다. 돌이 내 눈 사이에 부딪힌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나는 타격을 받았고, 오늘 밤에는 돌, 하나 우리가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은 떠난 후에 그러나 돌 다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한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내 가슴을 쳤고, 다른 사람은 입을 쳤는데, 그 위력으로 즉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푸라기에 맞았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초기의 감리교인들은 사람들과 설교자들 모두 교회 안의 사람들과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분노한 명백히 비종교적인 사람들로 부터 조롱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정의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목상으로만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박해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구와 소유물을 파괴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하고, 남자, 여자, 어린이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창문을 깨고 감리교인의 집을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나서도록 촉구하는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특정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만나십시오. 인간의 율법과 신의 율법에 대한 이러한 노골적인 위반은 처벌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죄인들의 발을 멸망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이 유일한 범죄인 한 백성에 대해 조직적인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John Wesley는 그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비난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교리가 거짓되고, 오류가 있고, 열정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새롭고 최근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퀘이커교, 편협함, 천주교입니다. . 이 모든 환상은 이제 그 뿌리까지 잘려졌고, 이 가르침의 모든 부분은 우리 교회가 해석한 성경의 분명한 교리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이므로 그것은 거짓되거나 오류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당신의 교리는 너무 엄격합니다. 그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매우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원래의 이의제기입니다. 한동안은 거의 유일한 이의제기였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수천 가지 다른 이의제기의 밑바닥에 은밀히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만든 것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리는 성경의 교리보다 더 엄격합니까? 몇 가지 분명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심문을 받으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의 교리가 이보다 더 엄격하면 그들은 유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조금 덜 엄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신성한 유산의 어느 부분이라도 변경합니까? 아니요, 그는 아무것도 줄일 수 없고, 아무것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성경을 너희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너희는 성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대중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선이 없다! 자선이 없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들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지 않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들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외에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전 영국에 일어난 영적 쇠퇴

웨슬리의 가르침은 대체로 이율배반적인 가르침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폐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는 "선한 일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율법의 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택하신 자들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동으로 율법을 실천하게 되므로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건함과 덕행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는 신의 율법을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잃을 수 없다"는 논제를 옹호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불경건한 행위는 실제로 죄가 아니며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훨씬 더 가증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편적으로 신의 율법을 크게 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사악한 죄 중 하나라도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이 범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율법에서 금하는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는

이 괴물 같은 교리는 본질적으로 로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며, "교황은 법을 수정하고 변경함으로써 법의 준수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어긋나는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주인 영의 영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하늘 주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한 제한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바로 그분의 영감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품성을 불변하게 규정하는 신의 법령 교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웨슬리는 도덕률 폐기론적 입장을 초래한 교리가 성경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도덕률 폐기론 신학자들의 오류에 끈질기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 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 .”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저가 모든 사람을 위 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셨 느니라.”(딤후 2:11; 딤후전 2:3-6) 모든 사람이 구원의 수단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요한복음 1:9). 생명이라는 선물을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계명의 계율이 의식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시행한 도덕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습 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것의 어떤 부분이라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폐할 수 없는 율법이 요, '미쁜 증인으로 하늘에 변하지 아니하고'... 창세부터 있어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사람의 마 음에 새긴 것이니라 사람의 자녀들이 창조주의 손을 떠난 후에.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자들은 지금은 대부분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각 부분은 모든 인류에게 항상 유효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장 소, 기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둘 사이의 불 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루려 함이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뜻하신 바는 (이전의 모든 것과 이후의 모든 것과 일관되게)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모든 그릇된 해석에 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모호하고 모호한 것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보려고 하였고 그 것의 모든 부분의 온전하고 참된 목적을 선포하고 길이와 너비와 모든 것을 보이려 하였노라 그 안에 담긴 모든 계명의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순수함과 영성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의 완벽한 조화를 확증했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 는 가장 가까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고 우리 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 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 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적 중 가장 높은 대열에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악하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깨뜨리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무에서)) 가장 작은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도 동시에 모두... 이 큰 속임수에 수반되는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놀 라운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는 것입 니다. 그분의 율법을 파괴하고 그분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의 교리를 파괴하고 있 습니다!예, 그들은 유다가 '주님, 제가 당신께 문안하고 입맞추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분 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 각자에게 똑같이 정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입맞 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이것은 다른 아닌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입맞추고, 그분의 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면류관을 벗겨내십시오. 복음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실로 그분의 율법의 어느 부분이라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순종의 항목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유형의 신앙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까지도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 전파가 율법의 모든 목적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의 첫 번째 목적, 즉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직 지옥의 가장자리에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 또는 적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를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그들이 아프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아직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안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스승처럼 율법을 확대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힘썼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가 목상하도록 허락된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반세기 이상을 순회 봉사에 종사하고 80년이 넘는 그의 장수 끝에, 그의 추종자로 선언된 영혼의 수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를 통해 죄의 파멸과 타락에서 일으켜져 더 순결하고 더 높은 삶을 살게 된 무리와 그의 가르침으로 더 깊고 풍성한 경험을 얻은 숫자는 구속받은 온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의 믿음과 겸손, 지칠 줄 모르는 열심, 비이기심과 헌신이 오늘날의 교회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제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

16세기에는 사람들에게 열린 성경을 보여주는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하늘에서 온 사자처럼 그녀를 기쁘게 맞이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교황권이 그녀의 입국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성경 지식의 빛은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빛이 들어왔으나 짙은 어둠으로 인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진리와 오류가 지배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결국, 악이 승리했고 하늘의 진리는 거부되었습니다.

“그 정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19) 국가는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거두도록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했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의 억제력이 제거되었습니다. 악이 성숙의 지점에 도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빛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성경에 대한 투쟁은 혁명 현장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끔찍한 화재는 성경이 제거된 냉혹한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교황 정책의 운영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실례, 즉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로마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의 최고 통치 기간 동안 성경의 금지는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자는 또한 “불법의 사람”의 지배로 인해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합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이르되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요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를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치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나 삼일 반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시록 11:2-11)

여기에 언급된 기간인 "마흔두 달"과 "일천이백육십일"은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시대를 나타냅니다. 1,260년간의 교황의 최상권은 서기 538년 교황권 수립으로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군은 로마를 침공하여 포로로 잡혀가던 교황을 포로로 잡았고, 교황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직후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지만, 교황 계층은 그 이후로 한때 가졌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1,260년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자비로 그들의 불같은 시련의 시간을 단축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교회에 닥칠 "큰 환난"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22)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박해는 1798년 이전에 끝났습니다.

두 증인에 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들은 온 땅의 하나님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4; 시.

119:105).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대표합니다. 둘 다 하나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구원 계획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표, 희생, 예언은 오실 구주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는 모형과 예언에 의해 예측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 구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 기간의 대부분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은 무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왕권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증언과 모순되도록 거짓 증인들을 그들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적, 세속적 권위에 의해 성경이 금지되었을 때; 그들의 증언이 왜곡되었을 때, 사람들과 악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을 고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진리를 감히 선포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배반당하고, 고문당하고, 지하 감방에 장사되고,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산속의 요새와 땅의 구덩이와 동굴로 도망가도록 강요당했을 때, 충실한 증인들은 그들을 증언합니다. 붉은 베를 입고 예언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1260년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충실한 종들에게는 그분의 진리를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포크.

11:5).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처벌 없이 짓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책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리시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묵시록 22:18 및 19).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숙한 비난은 그들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안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불경하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떨림을 안겨주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높이는 사람, 자신의 편의에 맞게 또는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바꾸는 사람은 모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은 각 사람의 성품을 측정하고 이 무오한 시험에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끝나면." 두 증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된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들의 무명 사역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놓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은 수세기 동안 교황권을 통해 사탄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탄의 능력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존경한다는 공언 아래, 성경을 알 수 없는 언어로 가두어 사람들에게 숨겨 놓은 것은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력 곧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거리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있는 “큰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 일컬느니라.”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애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였습니다. , 지극히 담대하게 애굽 왕보다 더 오만하게 하늘의 권위를 거역한 군주는 없었나니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 명령을 전하자 바로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되 여호와와 누구시니이까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2) 이것은 무신론이며 애굽으로 대표되는 나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장을 그와 같이 부인하고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큰 성"은 또한 "영적으로" 소돔과 비교됩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부패하여 특별히 방탕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텍스트의 사양을 충족하십시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1798년 직전에 사탄의 기원과 성격을 지닌 어떤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의 증언이 잠잠해지는 그 땅에서는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탕함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인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793년 혁명 동안, "세계는 처음으로 문명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유럽의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를 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가장 엄숙한 진실을 부인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에 대한 믿음과 숭배를 받아들이고 만장일치로 포기한다." "프랑스는 국가로서 우주의 창조자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뻗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수많은 신성모독자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교도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및 기타 국가에 존재하지만 프랑스는 입법부의 법령에 따라 신이 없다고 선언하고 수도의 전체 인구와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이 악명 높은 선언을 듣고 남녀 모두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소돔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평야의 도시를 파괴한 것과 유사한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명백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예언의 계시에 따라 프랑스의 무신론과 방탕함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 영속성은 사회를 더욱 강력하게 통합하여 일시적인 성격의 단순한 시민 계약 상태로 이어지며,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헌신했다면 가정 생활에서 존경할 만하고 우아하고 영구적인 것은 무엇이든 파괴하는 동시에 그들의 목표인 해악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을 고안했다... 재치 있는 말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르누는 공화주의 결혼을 '간음의 성사'라고 표현했다.

"너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나." 이 예언적 명세는 프랑스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진리가 이보다 더 격렬하고 격렬한 반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기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왈덴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피에몬테 산에서 목숨을 바치는 동안, 그들의 형제인 프랑스의 알비장스교도들도 진리에 대한 비슷한 간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의 제자들은 끔찍한 고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 귀부인들과 섬세한 처녀들, 국가의 자부심과 귀족들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고통을 눈으로 즐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권리를 위해 싸우던 용감한 위그노들은 수많은 험난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법자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들짐승처럼 사냥당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고대 기독교인의 후손인 '사막의 교회'는 남부 산간지대에 숨어 아직도 조상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밤에 산비탈이나 외로운 습지에 모일 위험을 무릅쓰고 기병대에게 쫓기며 갤리선에 실려 영원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교양 있고 지능적인 사람들이 도둑과 살인자들 사이에 묶여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자비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냉혈한 총에 맞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방비 상태로 버림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무방비 상태의 여성, 무고한 어린이들이 살해되어 그들이 모인 땅에 묻히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모이던 산기슭이나 숲을 건너다 보면, "매 발걸음마다 시체가 풀밭에 흩어져 있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은 "칼과 도끼와 불로 황폐하여 광활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암흑시대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문예가 꽃피웠던, 공정과 수도의 성직자들이 글을 읽고 웅변을 잘하며 온유함의 미덕을 크게 발휘했던 충만하고 찬란한 시대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선."

그러나 가장 흉악한 범죄 목록, 모든 무서운 세기의 가장 끔찍한 악마적 행위는 성 바르톨로메오의 학살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그 극도로 비겁하고 잔인한 공격의 장면을 공포에 떨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왕은 로마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설득을 받아 그 끔찍한 일을 승인했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대공의 종은 학살을 알리는 신호였다. 왕의 명예를 훼손당할 것을 믿고 집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던 수천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예고도 없이 끌려나와 냉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마 광신자들인 사탄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실 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이셨던 것처럼, 사탄은 순교자를 늘리는 이 불길한 일에서 그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였습니다. 파리에서는 7일 동안 학살이 계속됐다.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의 처음 세 가지. 그리고 학살은 그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왕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방과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어린 아이도, 백발의 남자도 아니다. 귀족과 농민, 노소,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대학살은 프랑스 전역에서 두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꽃 7만 송이가 죽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무한한 기쁨으로 위그노 교도들의 운명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망은 만족되었고 이제 Charles IX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산토 안젤로 성의 대표가 축제 경례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각 탐마다 종소리가 웅웅거렸다. 밤새도록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추기경들과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상 루이스 교회까지 웅장한 행렬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로렌 추기경은 테(Te)를 불렀다.

둠... 고통받는 군중의 외침은 로마 궁정의 부드러운 조화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메달이 제작되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주요 사건을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은 아직도 바티칸에 남아 있습니다. 교황은 찰스의 순종적인 행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어 그에게 황금장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설교단에서는 유능한 설교자들이 카를로와 캐서린, 군사 지도자들을 교황 교회의 새로운 창설자로 칭찬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학살을 선동한 바로 그 악마의 영이 혁명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으로 선언되었고, 프랑스 불신자들의 조롱의 외침은 "비참한 자들을 박살내라!"(그리스도를 뜻함)였습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신성모독과 가증스러운 불경건이 함께 행해졌고, 가장 낮은 인간, 잔인함과 악덕의 가장 비열한 괴물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사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반면, 진리와 순결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이리라.” 혁명과 공포정치 기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무신론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회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롱의 표현 속에서 성경은 수집되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발아래 짓밟혔습니다. 성경적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매주의 안식일을 따로 정하여 열흘마다 그 날을 흥청대며 신성모독하는 날로 정하였느니라. 세례와 성찬은 금지되었습니다. 죽음은 꿈이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묘지에 눈에 띄게 게시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과는 거리가 멀고 어리석음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국가를 제외한 모든 종교 숭배가 금지되었습니다. “파리의 입헌 주교는 국가 대표 앞에서 상연된 가장 뻔뻔스럽고 추악한 희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체 행렬에 등장했고 자신이 수년 동안 가르쳤던 공회에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모든 면에서 역사나 신성한 진리에 기초가 없는 성직자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신의 존재를 엄숙하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으며 자유, 평등, 미덕, 도덕에 경의를 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교의 장식품을 탁자 위에 놓고 대회 의장으로부터 형제적 포옹을 받았습니다. 몇몇 배도한 사제들이 이 고위 성직자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교 프랑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거리에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제한과 요구를 미워한 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남자들

하늘의 왕을 공개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옛날 죄인들처럼 그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 73:11).

새 질서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경스럽고 대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도전한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감히 그분의 천둥을 발사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 누가 그분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한 바로의 질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이 하도다" (시 14:1)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딤후 3:9). 프랑스가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숭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포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탕한 여인의 모습을 한 이성의 여신 숭배를 통해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대표 의회와 최고 시민 및 입법 당국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의식 중 하나는 그 부조리함과 불경함이 결합되어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회의 문은 브라스 밴드에게 열렸고, 그 뒤를 이어 시의회 성원들이 다음 노래를 부르며 엄숙한 행렬에 들어섰습니다. 자유를 찬양하고 호위하는 찬송가, 장차 예배의 대상으로 베일을 쓴 여인을 이성의 여신이라고 불렀고, 당국자들 앞에서 베일이 벗겨져 오른쪽에 놓였습니다. 그 때 그녀는 오페라 무용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국민회의는 그들이 숭배하는 이유의 가장 정당한 대표자로서 이 사람에게 대중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악하고 우스꽝스러운 공연은 패션으로 변모했습니다. , 그리고 이성의 여신에 대한 수여식은 주민들이 혁명에 부응하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모방되었습니다."

이성 숭배를 소개한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 광신주의는 영향력을 잃었고 이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원을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개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군중이 고딕 양식의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있으며, 처음으로 진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인들은 자유와 이성에 대한 진정한 숭배를 기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화국군에게 변영의 염원을 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창조의 걸작인 이 애니메이션 이미지인 이성을 따르기 위해 생명이 없는 우상에 대한 숭배를 버릴 것입니다." 여신이 대회에 참석했을 때 연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회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당신이 두려워하는 신의 무해한 천둥에 떨기를 멈추십시오. 이제부터 이성 외에는 어떤 신성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우상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만 제물로 바쳐라... 존엄한 자유의 원로원, 이성의 장막 앞에 쓰러지라."

"여신은 대통령의 포옹을 받은 후 웅장한 차에 실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성모님을 대신하기 위해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 제대에 올려져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인기 협회는 시청에 입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레종!"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류에게 행해진 모든 어리석음"은 "큰 불로 속죄"된 구약과 신약의 요약본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이 반쯤 탄 잔해를 막대기 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지르다."

무신론이 지금 완성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교황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프랑스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혁명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잉 행위는 진실로 왕좌와 교회의 타트로 돌려야 합니다.” 엄격한 정의에 따라 그들은 교회에 전가되어야 합니다. 교황권은 왕권의 적이자 국가의 평화와 화합에 치명적인 불화의 요소로서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왕들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로마의 천재성은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한 잔인함과 가장 고통스러운 억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좌.

자유의 정신이 성경과 동행했습니다. 복음을 받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지, 악, 미신의 노예로 묶고 있던 족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군주들은 자신들의 독재주의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마는 주권자들의 열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1525년에 프랑스 섭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기(개신교)는 종교뿐 아니라 모든 정국, 귀족, 법률, 명령 및 계급도 파괴할 것입니다." 몇 년 후, 교황의 고위 인사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권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나라들이 당신 폐하에게 복종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감하게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모든 적을 복종시키십시오. 힘." 그리고 신학자들은 개신교 교리가 “사람들을 혁신과 어리석음으로 선동한다. 그것은 왕에게서 신하들의 헌신적인 애정을 빼앗고 교회와 국가를 모두 황폐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는 프랑스를 종교 개혁에 적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위를 유지하고 귀족을 보호하며 법률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해의 칼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뽑혔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 비참한 정책의 결과를 거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국가 번영의 초석인 정의, 절제, 진실, 공평, 자비의 원칙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의는 나라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의로 그 보좌를 굳게 세우느니라"(잠 14:34; 16:12). "의의 결과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히 안식과 안전이니라." (이사야 32:17) 신성한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라의 법을 진심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여 왕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프랑스는 성경을 금지하고 그 제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세기를 거듭할수록 원칙과 고결함을 지닌 사람들, 지적 예리함과 도덕적 힘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표현하여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수 세기 동안 이 사람들은 갤리선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 또는 던전 셀에서 썩었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비행 중에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도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의 제자들이 박해자의 미친 분노를 피하고 지성, 예술, 산업, 질서를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프랑스인 세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그들은 피난처를 찾는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정확한 선물로 다른 나라를 채우는 것에 비례하여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사라진 모든 것이 만약 이 삼백 년 동안 망명자들의 산업적 능력이 그들의 땅을 경작했다면, 이 삼백 년 동안 그들의 예술적 재능이 그들의 생산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삼세기 동안 그들의 창조적인 천재성과 분석력은 그들의 문학을 풍요롭게 하고 그의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지혜가 그의 의회를 이끌었다면 그의 용감함은 그의 전투에서 싸우는 것이었고 그의 공평함은 그의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양심을 다스린다면 오늘날 프랑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번영하고, 행복한 나라,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맹목적이고 냉혹한 광신주의는 모든 미덕의 교사, 모든 질서의 옹호자, 왕좌의 모든 정직한 수호자를 그 영토에서 추방하고 지구상에서 이 나라에 '명예와 영광'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 모닥불 또는 추방.' 결국, 국가는 완전히 파멸되었고, 더 이상 버림받을 양심도 없고, 더 이상 화형에 처해질 종교도 없고, 더 이상 추방될 애국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포와 함께 혁명은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위그노파의 도피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전반적인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번영했던 제조업 도시는 쇠퇴했습니다. 비옥한 지역은 자연적인 경작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지적인 둔감과 도덕적 쇠퇴는 비정상적인 발전 기간을 뒤따랐습니다. 파리는 거대한 빈민가가 되었고, 혁명이 발발했을 때 20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왕의 손에 자선을 구걸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직 예수회만이 타락한 국가 속에서 번영했고, 교회와 학교, 감옥과 갱리선을 끔찍한 폭정으로 통치했습니다."

복음은 프랑스가 성직자, 국왕, 입법자들의 역량을 방해하고 마침내 국가를 무정부 상태와 파멸로 몰아넣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하에서 사람들은 극기와 비이기적인 사랑에 관해 구주께서 주신 축복된 교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극기의 실천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한다고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과 타락으로 인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억압적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귀족들의 탐욕과 방탕은 농민들로부터 억압적인 강탈을 초래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했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재산은 귀족의 손에 있었고 노동계급은 소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비에 휘둘리고 그들의 엄청난 요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모두 지원해야 하는 부담은 행정 당국과 성직자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는 중산층과 하층계급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족의 즐거움은 최고의 법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농부와 농민은 압제자들의 걱정 없이 굶어죽을 수 있었습니다... 인민은 언제나 소유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농업 노동자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과 노동의 삶이었습니다. 구제할 수 없는 비참함, 감히 불평하면 그들의 불만은 무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상 농민보다 귀족에게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뇌물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귀족의 사소한 변덕도 허용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부패 체제 덕분에 법의 힘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세속 거물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들이 일반 시민으로부터 약탈한 세금 중 절반도 왕실이나 주교의 금고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방탕한 도덕으로 낭비되었고, 이렇게 자기 동포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국가의 모든 직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특권 계층의 수는 약 15만 명이었고, 수백만 명이 타락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은 정욕과 방탕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과 통치자 사이에는 신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의 모든 조치에 대해 계략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명이 일어나기 반세기 이상 전에 루이 15세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나태하고 경박하며 관능적인 군주로 유명했습니다. 타락하고 잔인한 귀족, 가난하고 무지한 하층민,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국가, 분노한 국민이 있는 곳에서 끔찍하고 압박한 반란을 예견하는 선지자의 눈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연자들의 경고에 왕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일이 계속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왕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보았지만 그에 맞설 용기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압박한 파멸은 진정으로 그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반응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나 뒤에는 홍수가 난다!"

로마는 왕들과 지배계급의 질투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노예로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악화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왕자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교묘한 정책을 통해 인간을 효과적으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족쇄가 그들의 영혼에 씌워져야 하며,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해방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육체적 고통보다 천 배나 더 끔찍한 것은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기고 광신과 이기심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들은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고 악덕에 빠져서 전혀 자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로마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작업은 대중을 그의 교리에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불신자와 혁명가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로마교를 성직자의 정치행위로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를 억압적인 정당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신은 로마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잔인함을 성경의 정당한 열매로 여겼고, 그것과 아무 관련도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교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표현하고 그분의 주장을 왜곡시켰으며 이제 사람들은 성경과 그 저자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승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볼테르와 그의 동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제쳐두고 불신의 독을 도처에 퍼뜨렸습니다. 로마는 철의 폭정으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잔인해진 대중은 폭정으로부터 초연하여 모든 제한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명예를 누려온 노골적인 사기에 분노하여 진실과 거짓을 함께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방탕과 자유를 혼동한 악덕의 노예들은 상상 속의 자유를 기뻐했습니다.

혁명이 시작될 때 왕의 양보를 통해 인민은 귀족과 성직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균형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현명하고 아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악폐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재건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 찬 학대받은 군중은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폭정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에 옮겼고, 그들을 짓밟은 사람들의 억압자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프랑스는 자신이 뿌린 수확을 피로써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정복 세력에 굴복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프랑스 아래

로마교의 영향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모닥불이 세워졌고 혁명은 첫 번째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16세기에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시점에, 18세기에는 첫 번째 희생자들이 단두대에 처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에게 치유를 가져다줄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불신과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한이 제쳐졌을 때, 인간의 법은 인간의 정욕의 거센 파도를 막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하여 그 나라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서와의 전쟁은 세계사에 '공포의 통치'로 남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평화와 행복이 인간의 가정과 마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공한 것은 내일이면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폭력과 탐욕이 부인할 수 없는 통제를 행사했습니다.

왕, 성직자, 귀족들은 흥분하고 분노한 사람들의 잔혹 행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그의 갈증은 왕의 처형으로만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은 곧 처형대 위에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혁명에 적대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도소는 과밀화되어 수감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왕국의 도시들은 공포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혁명가들의 한 정당은 다른 정당과 대립했고, 프랑스는 그들의 분노의 분노에 의해 통제되는 반대 대중의 광대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폭동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서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여러 파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불행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유럽의 강대국들과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거의 파산했고, 군대는 임금 체불에 항의했고, 파리 사람들은 굶주리고, 지방은 도적들에게 시달리고, 문명은 무정부 상태와 방종으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그토록 부지런히 가르쳤던 잔인함과 고문의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드디어 보복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지하 감옥을 점령하고 고문을 당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은 오래 전에 멸망했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로마는 피에 굶주린 행위를 즐기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의 무자비한 힘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성직자들이 수세기 동안 보여주었던 박해의 모범은 이제 엄청난 힘으로 스스로 반대했습니다. 단두대는 성직자들의 피로 붉게 변했습니다. 한때 위그노들로 가득 차 있던 갤리선과 감옥은 이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벤치에 묶여 있거나 노를 저으며 일하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평화로운 이단자들에게 아무렇게나 가한 모든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야만적인 법원이 모든 규정 중 가장 야만적인 규정을 시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형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없이, 곳곳에 스파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두대가 빠르고 쉬지 않고 작동하는 곳, 감옥이 노예선의 화물창처럼 가득 찬 곳, 거품이 이는 피가 흠통에서 센 강으로 흘러가는 곳...

수레에 가득 실린 희생자들이 파리의 거리를 거쳐 치명적인 목적지로 끌려가는 동안, 주권 위원회가 각 지방으로 파견한 총독들은 수도에서도 볼 수 없는 잔혹한 잔혹행위를 즐겼습니다. 치명적인 기계의 칼날은 살인 작업을 위해 매우 천천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수감자들이 기관총 사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탄 배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리옹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아라스에서는 죄수들에게 빠른 죽음이라는 잔인한 자비조차 거부되었습니다. 로

소뮈르(Saumur)에서 바다까지 루아르 강을 따라 거대한 까마귀와 연 떼가 흉측한 포옹으로 얽힌 벌거벗은 시체 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정부에 의해 살해된 17세 소년 소녀들의 수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어머니와 격렬하게 분리된 어린 아이들은 야코비안 대열을 따라 창에서 창으로 던져졌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인간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수세기 동안 일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이며, 그 확고한 목적은 인간에게 불행과 비참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며, 자비와 사랑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왜곡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상 천국 그런 다음 그는 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치 이 모든 불행이 창조주의 계획의 결과인 것처럼 그들이 그의 일의 악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잔혹한 권력으로 인해 비천해지고 잔인해진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 그는 그들이 과잉과 잔혹 행위를 저지르도록 선동합니다. 따라서 폭군과 압제자들은 자유의 결과에 대한 예시로써 이 자유로운 음탕함의 그림을 지적합니다.

위장한 오류가 발견되면 사탄은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숨길 뿐이며, 군중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열렬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로마교가 기만이며 사탄이 더 이상 이 대리자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모든 종교를 속임수로 여기고 성경을 우화로 여기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만연한 죄악에 스스로를 내맡겼습니다.

프랑스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행을 가져온 치명적인 오류는 합법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 안에 있다는 유일하고 위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아! 네가 내 계명을 들었다라면!

그러하면 네 평안이 강과 같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악의." (사 48:18, 22; 잠 1:33).

무신론자, 불신자,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의 결과는 인간의 복지가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이 교훈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열방의 역사에서 이 교훈을 읽도록 권유받습니다.

사탄이 로마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순종에서 멀어지게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활동을 숨기고 그의 활동을 너무 위장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타락과 비참함을 범죄의 열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 너무나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불행의 근원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에서 하나님의 법은 국가 의회에 의해 명백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른 공포의 통치 속에서 모든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성경을 공개적으로 금지했을 때, 악한 사람들과 어둠의 영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목표, 즉 하나님의 율법의 제약에서 해방된 왕국을 실현하고 기뻐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형벌이 즉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은 "악을 행할 마음이 담대"(전 8:11)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올바른 법을 범하면 필연적으로 비참함과 파멸이 초래됩니다. 비록 즉시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인간의 불경건함은 분명히 그 정죄를 발전시켰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배도와 범죄가 보응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아 두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다하신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잔혹한 세력에 제한을 두는 하나님의 온건한 영은 거의 제거되었고, 인간의 불행만을 기뻐하는 그는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남겨졌습니다. 반역을 선택한 자들은 그 열매를 거두도록 남겨졌고, 마침내 이 땅은 펜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황폐화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에서 끔찍한 부르짖음, 쓰디쓴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프랑스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종교, 법률, 사회질서, 가족, 국가, 교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일어난 사악한 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현자는 진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 그 날이 장수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되려니와 악인은 잘 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노라.” (전 8:12, 13).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 좋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로 만족하리라.” (잠언 1:29, 31).

“무저갱에서” 올라온 신성모독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시록 11:11) 성서를 폐지하는 법령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습니다. 3년 반 후, 같은 의회에서 해당 법령을 폐지하고 성경을 용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세상은 신성한 신탁을 거부함으로써 초래된 엄청난 죄악에 놀랐으며, 사람들은 미덕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대적하며 모독하였느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였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니라.” (이사야 37:2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내 손과 내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 16:21)

선지자는 또한 두 증인에 관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느니라.” (계 11:12).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인 이래로 그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영예를 얻었습니다. 1804년에 영국 및 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 대륙에 수많은 지부를 가진 유사한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1816년에 미국성서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영국 협회가 설립되었을 때 성경은 50개 언어로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책은 2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서 공회의 노력을 통해 1804년 이래로 1억 8,700만 권 이상의 성서가 배부되었습니다.

1792년 이전 50년 동안 외국 선교 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이교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합리주의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신성한 계시와 실험적인 종교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1793년 영국인 최초로 인도 선교사가 된 헌신적인 캐리(Carey)는 영국에서 선교 활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20년 후 미국에서는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을 포함한 학생 단체의 열심으로 인해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후원으로 저드슨은 미국에서 버마로 선교사로 여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외 선교 사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서를 배포하는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여러 나라 사이의 의사 소통이 점점 더 쉬워지고, 편견과 국가적 배타주의라는 낡은 장벽이 무너지고, 로마 교황의 세속 권력 상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성경은 로마의 거리에서 아무 방해 없이 팔렸고, 지금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 곳곳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볼테르는 “나는 사람들이 열두 사람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지겹습니다. 나는 한 사람만으로도 기독교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2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수백만 명이 성서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 시대에는 100권이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1만권, 아니 오히려 10만권이 있을 정도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관한 고대 개혁가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은 많은 망치를 닳게 하는 모루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치려고 준비된 모든 도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 재판하는 모든 혀가 네가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17)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계명들은 다 신실하시니 영원무궁토록 서고 진리와 공의로 행하여졌도다.” (시 111:7, 8) 인간의 권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16장

순례자 아버지

영국의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교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교의 많은 형태를 보존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권위와 신조를 거부하면서도 적지 않은 로마 관습과 의식이 성공회 교회의 예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양심의 문제가 관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므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준수는 로마의 개혁 교회를 분리하는 간격을 좁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교도들의 개신교 신앙 수용을 촉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주의자와 타협주의자에게 결정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계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로마와 종교 개혁 사이의 심연을 메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그의 견해로는 관습 보존에 반대하는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형태를 자신들이 해방된 노예 제도의 특징으로 여겼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정하셨으며 인간은 그 지침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배도의 시작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보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명령한 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던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회 교회가 확립한 많은 관습을 우상 숭배의 기념물로 여겼고, 선한 양심으로 그 숭배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 당국의 지지를 받아 그 형태에 관해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은 법에 의해 요구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투옥, 추방, 사형에 처해 금지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새로 즉위한 군주는 청교도들을 "순응하거나 고통받게 하거나 국외로 떠나거나 더 나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그들은 미래에 더 나은 날이 올 기미를 전혀 볼 수 없었으며,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은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확신에 굴복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결국 어려움과 손실, 투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좌절되었고 그들은 배반당하여 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인내가 마침내 승리했고 그들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친근한 해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탈출하면서 그들은 집과 소유물, 생계 수단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언어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빵을 얻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다양한 직업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땅을 경작하는 데 바쳤던 중년 남성들은 이제 기계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태하거나 징징거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에 시달릴 때가 많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방해받지 않는 영적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순례자로서 이런 일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사랑하는 땅인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들의 심령을 평안케 하였느니라."

유배와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분은 필요할 때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이 그들을 바다 건너 그들이 스스로 국가를 건설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종교 자유라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섭리가 그들에게 보여 준 길을 따라 주저 없이 전진했습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시련을 허락 하셨습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위해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대신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세상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진노와 악한 사람들의 계락을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세요. 박해와 유배는 자유를 향한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공회 교회에서 분리되도록 강요받았을 때, 청교도들은 "알려졌거나 알려지려고 하는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자유 백성으로서 엄숙한 성약으로 연합했습니다. 여기에 개신교의 핵심 원리인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신세계에서 집을 찾아 네덜란드를 떠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섭리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목사인 존 로빈슨(John Robinson) 은 유배자들에게 보낸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헤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살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이상으로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른 도구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신다면, 당신이 나의 사역을 통해 항상 진리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발산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로서는 종교가 한 단계에 이르렀고, 개혁의 도구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개혁 교회의 상태를 충분히 애도할 수 없습니다. 루터교인들은 루터가 본 것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유혹을 받을 수 없었고, 아사 다시피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둔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회할 만한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빛을 비추었지만 하나님의 뜻 전체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은 처음 받았던 빛처럼 추가적인 빛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너희 교회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는 알려진 것이나 아직 알려진 것이나 주의 모든 길로 행하기로 너희가 동의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너희가 서로간에 맺은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여 어떤 빛과 진리는 그의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나 더욱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진리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삼가라 그들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그것을 조사하고 생각하며 다른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 세계는 최근에 무거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지식의 완성을 단번에 달성해야 합니다."

순례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긴 여행의 위험에 맞서고, 고난과 고난을 견디도록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정글의 위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 해변에 강력한 국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종교적 관용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희생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7세기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와 도덕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간 신앙의 유일한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위대한 원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다스리고 이단을 정의하고 처벌할 권리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교리는 가장 뿌리 깊은 교황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신조를 거부했지만 로마의 편협한 정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교황권이 오랜 세기 동안 지배하면서 그리스도교국 전체를 뒤덮었던 짙은 어둠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의 주요 목사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반기독교적으로 만든 것은 관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단자들의 처벌로 인해 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교회 회원들만이 시민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일종의 국가 교회가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의 유지에 기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치안판사에게는 이단을 근절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속 권력은 교회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결과인 박해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식민지가 건설된 지 11년 후, 로저 윌리엄스는 신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최초의 순례자들처럼 그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그는 그 시대에 극소수만이 본 것, 즉 이 자유는 그들의 신조가 무엇이든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렬한 진리 탐구자였으며 로빈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빛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현대 기독교계에서 양심의 자유와 법 앞의 의견의 평등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확언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제한하는 것이 치안판사의 의무이지만 결코 양심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중이나 행정관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려고 하면 그들은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치안판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국에서 여러 왕과 왕비, 그리고 로마 교회의 여러 교황과 공의회가 행했던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의견이나 신념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혼란스러운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 예배에 참석하려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Williams는 법을 비난했습니다. 영국 법전 중 최악의 법령은 본당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성에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자연권을 공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을 예배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비종교인과 이를 거부하는 대중은 위선을 요구하는 듯 보였고,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교리에 따르면,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를 고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요.'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는 신실한 목사이자 흔치 않은 은사, 굽히지 않는 고결함, 진정한 자비심을 지닌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행정관의 권위에 대한 그의 확고한 거부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청원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교리를 적용하면 "국가의 근본적인 국가와 정부가 전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식민지에서 추방을 선고받았고, 마침내 투옥을 피하기 위해 형을 받았습니다.

추위와 겨울 폭풍 속에서 탐험되지 않은 숲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14주 동안 나는 빵이 무엇인지, 잠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굶은 날씨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까마귀들이 저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빈 나무가 종종 그의 은신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로저 윌리엄스는 눈과 미지의 숲을 헤쳐나가며 고통스러운 여행을 계속했고, 마침내 한 인디언 부족에게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 인디언 부족의 신화와 애정을 얻었습니다.

몇 달 간의 변화와 방황 끝에 마침내 Narragansett Bay의 해변을 향해 나아간 Williams는 그곳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종교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현대 국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식민지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권고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주 로드아일랜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 기본 원칙인 시민적, 종교적 자유가 실현될 때까지 성장하고 변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권리 헌장으로 제정한 고귀하고 오래된 문서인 독립 선언문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가장 명시적인 용어로 양심의 불가침성을 보장합니다. "미국에서 공적 신뢰를 받는 직위에 대한 자격으로 어떤 종교적 전제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작성자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양심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이 진리를 확립하는 데는 정교한 추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을 무시하고 고문과 불길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지탱해 온 것은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가 인간의 법령보다 우월하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양심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엇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타고난 원리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누릴 수 있고 양심의 확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땅에 대한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을 때, 수천 명이 신세계 해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식민지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법에 따라 '전쟁이나 기근, 또는 박해자들의 탄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 도망친 모든 국적의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비용으로 환영하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법률, 지역 사회의 손님." 플리머스에 처음 상륙한 지 20년 후, 수천 명의 다른 순례자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인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대가로 제한된 수입을 얻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 외에는 땅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비전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추다...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한 사회 정책의 진전에 만족했고, 경작되지 않은 지역의 궁핍을 참을성 있게 견디며, 깊은 시간이 걸릴 때까지 그들의 눈물과 이마의 땀으로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 지혜의 원천, 자유의 헌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졌으며 그 열매는 절약, 총명, 순결과 절제로 나타났습니다.

청교도 정착촌에서는 수년 동안 거주하면서 "술고래를 보지도 못하고 저주를 듣지도 않고 거지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서의 원칙이 국가의 위대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호책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약하고 고립된 식민지는 강력한 국가들의 연합이 되었고, 세계는 "교황 없는 교회, 왕 없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감탄하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계속해서 미국의 해변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최초의 순례자들을 감동시켰던 동기와는 정반대되는 동기에 이끌렸습니다. 신앙과 원시적 순수성은 광범위하고 형성적인 힘을 행사했지만, 세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최초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채택한 법안은 교회 회원들에게만 투표권과 공직을 맡을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직업은 투표권과 공직을 맡을 권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직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상당 부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역 중에도 교리적인 오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교회 역사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악한 결과가 다시 입증되었습니다. 즉, 국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세속 권력에 호소하여 교회를 지지하려는 시도의 나쁜 결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선언하신 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36)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세상을 교회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뿐입니다.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스가 그토록 고귀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즉 진리는 점진적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비출 수 있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위대한 원칙을 그들의 후손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의 축복을 받아 큰 은혜를 입은 미국의 개신교회는 물론이고 유럽의 개신교회도 제시된 길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간직해 온 오류를 폭로하기 위해 때때로 신실한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났지만, 대다수는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이나 루터 시대의 교황주의자처럼 자기가 믿었던 대로 믿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대로 살아라.

그 결과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변질되었고,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했다면 없어졌을 오류와 미신이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개혁의 정신은 점차 사라졌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교회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세속성과 영적 무감각이 있었고, 사람의 의견을 똑같이 존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간 이론으로 대체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성경이 널리 유포되고 그리하여 세상에 비친 큰 빛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험적인 종교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기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여 계속 거짓 해석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박해를 통해 진리를 분쇄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본 사탄은 다시 타협의 계획을 활용했으며, 그 결과 대배도가 발생하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물에 대한 헌신으로 새긴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우상 숭배자들임을 증명한 자들과 동맹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결과는 이전 세기의 결과보다 적지 않게 해로웠습니다. 종교를 가장하여 교만과 사치가 조장되었고,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했으며, 수백만 명을 파멸시켰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이러한 전통을 옹호하고 옹호했습니다. 개혁자들이 그토록 많은 일을 했고 그토록 타락한 원칙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7장

모닝 헤럴드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중 하나는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나타나심을 약속받은 가운데 귀중하고 기쁨을 주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추방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참으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부부가 에덴에서 등을 돌린 날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꺾고 그들을 다시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려보낼 약속된 분이 오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고대의 거룩한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의 완성이므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에덴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곱 번째 후손이자 지상에서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멀리서 해방자의 오심을 묵상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성도와 함께 임하시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하심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다서 14, 15). 족장 읍은 고난의 밤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살아나실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 자신과 내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욥 19:25-27).

의의 왕국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작가들의 가장 숭고하고 감동적인 진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시인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불로 타오르는 말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왕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비취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 잠잠치 아니하시리라 그가 위의 하늘과 땅을 불러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 50:2-4).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땅이 여호와 앞에 임하시면 기뻐도다 저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6:11-13).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기뻐하라 네 이슬은 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당신의 죽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당신의 죽은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제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치욕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리라 보라 이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다린 여호와와는 그가시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리로다.” (이사야 26:19; 25:8, 9)

그리고 하박국은 거룩한 환상에 사로잡혀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이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땅에 가득하였으니 그의 광채가 빛과 같았도다.” “그가 서서 땅을 측량하시며 보시고 열국을 나누시니 영존하는 산이 부서지며 영원한 작은 산이 무너지니 영원히 행할 것이 그에게 있도다.” “당신은 당신의 말과 구원의 병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머물고 주의 살의 빛과 번개의 빛 가운데로 행하였도다 당신의 창.” “당신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기쁨부음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셨습니다.” (하박국 3:3-13)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했을 때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슬픔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리고 만약 내가 가고 당신은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요한복음 14:1-3).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가 앉으리니. 그의 영광의 보좌에.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5:31, 32)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감람산에 섰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행 1:11).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감의 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대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나 테스.

4:16). 바모섬의 선지자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7).

그분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의 회복”의 영광이 모여들 것입니다.

(사도행전 3:2) 그 다음에는 악의 지배가 길어질 것이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의와 찬송을 베푸시리라(). 그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사 40:5; 61:11; 28:5).

그때에는 평화롭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왕국이 온 하늘 아래 세워질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으로 에덴 같게 하며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리로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너를 버리라 부르지 아니하며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기쁨이라, 네 땅을 불라라 부르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51:3; 35:2; 62:4 및 5).

주님의 오심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을 참으로 따르는 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작별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셨는데, 슬픔도 시련으로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복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기를 바랐던 사랑하는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며 슬픔에 잠겼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그들에게 구주의 재림 때에 일어날 부활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산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살전 4:16-18).

바위가 많은 바모섬에서 사랑하는 제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듣고, 그의 간절한 응답은 순례 기간 동안 교회가 드린 기도를 요약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20).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했던 지하 감옥, 기둥, 교수대에서 수세기를 거쳐 그들의 믿음과 희망이 나타납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부활을 확신하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멸시하고 죽음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무덤에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의인에게 왕국의 시대를 가져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왈덴스인들은 동일한 믿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위클리프는 기다렸습니다. 교회의 소망으로 구속주의 출현.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이 30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며 견딜 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나라가 무너질 큰 날이 가까웠느니라.”

멜란히톤은 "이 낡은 세계의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상서로운 날로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며 "신자들의 온 가족이 그 날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그날, 우리 주께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실 때까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인 녹스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육신을 하늘로 가져가시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으며, "그리고 그분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곧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리틀리와 래티머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리틀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의심할 바 없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한과 함께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속으로 외치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백스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매우 감미롭고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성도들의 믿음과 품성의 일이다. 죽음이 부활 때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라면, 우리는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복이 성취될 때 그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와 기도하십시오. 그 날은 모든 신자가 그들의 구속 사업 전체와 그들의 모든 소망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로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날입니다. 위." "주님, 이 축복받은 날을 서둘러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시대의 교회, "광야 교회", 그리고 개혁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과 목적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가까움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에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25)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큰 힘과 영광으로."

(마가복음 13:24-26) 계시자 요한은 재림에 앞서 일어날 첫 번째 표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갈이 되더라." (계시록 6:12)

이러한 징후는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목격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1755년에 역사 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가장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지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진은 유럽, 아프리카, 북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서인도 제도, 마데이라 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확장은 천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만큼 충격이 컸다. 알제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가까운 거리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마을이 삼켜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을 휩쓸고 도시를 물에 잠기고 큰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충격이 가장 격렬해진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였다. 카디스에서는 바다의 역류가 20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산 중 일부는 마치 기초부터 시작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중 일부는 놀라운 방식으로 정상이 갈라지고 갈라져 엄청난 양의 덩어리가 밑에 있는 계곡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산들은 심지어 화염을 내뿜는 것도 목격되었습니다."

리스본에서는 "지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격렬한 충격이 일어났다. 약 6분 동안 6만 명이 죽었다. 바다는 먼저 물러갔다.

바를 건조한 상태로 두십시오. 그런 다음 평소 수준보다 약 15미터나 상승했습니다." "재난 당시 리스본에서 발생한 가장 특이한 상황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적으로 대리석으로 건설된 새 부두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떨어지는 잔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사람이 타고 있던 부두가 가라앉았고, 시체는 하나도 수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즉시 모든 교회와 수녀원, 거의 모든 대형 공공 건물, 가옥의 4분의 1이 붕괴되었습니다. 약 2시간 만에 여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사흘 동안에 걸쳐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날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때 교회와 수도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눈물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경악에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달려가며 얼굴과 가슴을 치며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끝!' 어머니들은 자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겁에 질려 달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구하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헛되이 드러났고, 불쌍한 피조물들은 제단을 받아들였지만, 형상들과 사제들과 사람들은 공동 폐허 속에 묻혔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에 9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에 예언에 언급된 다음 징조, 즉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일이 나타났는데, 이 사실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든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교회의 오랜 시련 기간, 즉 1,260년의 교황 박해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하신 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시고, 그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이 중 첫 번째가 목격될 때: "그 날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24) 1,260일 또는 1년은 1798년에 끝났습니다. 25년 전에 박해는 거의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두 날짜 사이에 태양은 어두워져야 합니다. 1780년 5월 19일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아직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거의 유일한 현상이 1780년 5월 19일의 어두운 날에 일어났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볼 수 있는 하늘과 대기 전체를 뒤덮은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일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달이 가득 찼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구름이나 대기의 밀도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이 너무 맑아서 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원인을 과학이 밝혀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천문학자 허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암울한 날은 철학이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놀라운 자연 현상 중 하나였습니다."

"어둠의 폭도 놀라웠습니다. 가장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동부 지역; 서쪽으로는 코네티컷의 가장 먼 지역과 뉴욕의 올버니까지; 남쪽에서는 해안 전체를 따라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정착지가 확장되는 한 북쪽으로. Negror는 아마도 이러한 제한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는 결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보스턴 인근에서 적어도 14~15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침은 맑고 쾌적했지만 8시쯤 태양에서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구름은 없었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태양은 옅은 노란색을 띠다가 곧 점점 더 어두워져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숨겨졌습니다.”
“한낮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경각심과 고통을 안겨 주었고, 모든 피조물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집의 새들은 어리둥절하여 헛대로 돌아가고 새들은 동지로 돌아갔습니다. 소들은 마구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고 밤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새벽처럼 울었다. 농부들은 밭에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집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코네티컷 주의회는 하트포드 시에서 회의 중이었지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밤의 모습과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짙은 어둠이 지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뒤,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이 나타나고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여전히 짙은 검은 안개로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간격 뒤에는 매우 가까운 어둠이 다시 찾아왔으며, 이로 인해 밤의 전반부는 아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겪었을 이전의 경험을 넘어서는 끔찍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일몰부터 자정까지 달이나 별에서 나오는 빛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어둠 중의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만약 우주의 모든 빛나는 물체가 뚫을 수 없는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존재에서 제거되었다면 그 어둠은 더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당시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가득 차 보였고, “무덤의 그림자를 흩어지게 하는 효과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달이 보이자 피 모양이 되었습니다.

시인 Whittier는 이 기억에 남는 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먼 해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쓰러진 천칠백팔십 명 중에서
불에 피어나는 달콤한 생명에 대하여,
시원한 대지와 밤하늘 위에
큰 어둠의 공포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울었다
모든 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괴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어두운 하늘을 흔들어야.”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에 "암흑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래로 동일한 밀도, 범위, 지속 기간의 암흑 기간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시인과 역사가가 제시한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그 사건이 성취되기 2천5백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달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피를 흘리라”(요엘 2:31).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강림의 표적을 관찰하고 오실 왕의 표적을 보고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그분은 제자들에게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근처에있다.” (누가복음 21:28, 30, 31)

그러나 교회의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에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식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 추구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구주의 나타나실 표적에 관한 그분의 지시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교리

재림은 무시되었다. 이를 언급하는 텍스트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모호해졌고, 대부분 무시되고 잊혀졌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누리는 자유와 안락함, 부와 사치에 대한 야심찬 욕망, 돈 버는 것에 대한 열광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킴; 모든 사람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인기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추구로 인해 사람들은 이생의 사물에 관심과 희망을 집중하게 되었고, 현 사물의 질서가 사라질 엄숙한 날을 아주 먼 미래에 두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재림의 표적에 대해 추종자들의 주의를 이끄셨을 때 재림 직전에 있을 영적 타락 상태를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적인 사업으로 분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과 하나님과 내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훈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탐식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서 뜻밖에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34, 36)

이 시대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리고 부주의한 안정감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1과 3).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련의 때가 끝날 때와 관련된 엄숙한 사건을 준비하려는 의도로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능히 당하리요?” “눈이 정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며 재앙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누가 설 것인가? (요엘 2:11; 하박국 1:13) "맙소사! 우리는..."

우리가 주를 아노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급히 다른 신을 좇아(호 8:2, 1, 시 16:4)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숨기고 불의의 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와 그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완전한 흑암이라 빛이 없느니라 (아모스 5:20) “그 때에 이르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라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벌하리라” 뚝 위에 앉아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악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자들아”(슌 1:12). 그리고 나는 대담한 자들의 오만을 끝장낼 것이며, 폭군들의 교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사야 13:11)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리라"; "그들의 농장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소피아 1:18, 13).

이 끔찍한 때를 내다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잠잠할 수 없노라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소리를 들었음이라. 파멸에 파멸이 선포되느니라.” (예레미야 4:19, 20).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통과 갈망의 날이요, 혼란과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외치는 날이니라.” (소피아 1:15, 16). “보라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노니 땅을 황무케 하고 거기 죄인을 멸하시리라.” (이사야 13:9)

큰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언어로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 회개와 겸손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 성산에서 소리를 발하여 땅의 모든 거민으로 다 놀라게 할지니 여호와와 그의 날이니라

오라, 그가 가까이 왔느니라." "금식을 거룩하게 하고 금식일을 선포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설과 제단 사이에서 올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키라 그는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시니라. , 그리고 자비가 풍부합니다." (요엘 2:1, 15-17, 12, 13).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위하여 건축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혼미에서 깨우고 인도할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려고 하셨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존재들이 선포하는 삼중 기별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직후에 “땅의 추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인자가 오는 것이 이어집니다. 이 경고 중 첫 번째는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두려워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6,7).

이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의 일부라고 선언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맡겨졌느니라. 이 사업을 지시하기 위해 거룩한 천사들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운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선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과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한 충실한 사람들은 이 경고를 세상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선지자들의 말씀” 곧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의 말과 날이 새어 새벽별이 나타나기까지”(벰후 1:19)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숨은 보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소득이 정금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잠 3:14).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국의 큰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와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 25:14).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 헌신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이었다면 그들은 밤이 언제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그들에게 밝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다른 반열이 그 기별을 전하였다. 예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3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서 돌아서거나 빛이 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12)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받은 빛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밝은 별이 그 영혼에게 보내져 그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약속하신 분이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이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미 5:2). 다니엘은 그분이 오실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단 9:25).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들을 히브리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그럴 것이다

만일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거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죄악된 태만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으며, 동시에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사탄의 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와 지배력을 위한 야심찬 투쟁에 빠져서 그들은 하늘의 왕께서 그들에게 제 공하시는 신성한 영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깊은 경건한 관심을 가지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즉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와 시간, 상황을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를 환영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는 나사렛 언덕에서 온 피곤에 지친 두 여행자가 밤에 쉴 곳과 피난처를 찾으려 도시의 동쪽 끝까지 좁은 길 전체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환영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위해 준비된 비참한 오두막 아래에서 그들은 마침내 피난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세상의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나누었던 영광을 보았고, 온 백성에게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찬 사건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바랐습니다.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땅의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무한한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굴욕 속에서도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을 환영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일 것입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에게 그분을 소개할 것입니까?

천사가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보기 위해 땅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기대의 징후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찬양과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천사는 선택된 도시와 수세기 동안 신성한 임재가 나타났던 성전 위를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똑같은 무관심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만하고 교만하여 성전에서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길모퉁이에서 주제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철학자들의 모임에서, 랍비 학교에서 모두는 온 하늘을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사실, 즉 인간의 구속주가 곧 지상에 나타나리라는 놀라운 사실에 한결같이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는 증거도 없고, 생명의 왕을 위한 준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사자는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발견하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곰곰이 생각하며, 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자.

하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준비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평원 전체에 넘쳐흐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마치 한 명의 사자가 그것을 하늘에서 가져오기에는 너무 큰 기쁨인 것처럼, 수많은 음성이 터져 나와 구원받은 모든 나라가 언젠가 부를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 땅에서는 평화, 사람에 대한 선한 뜻이나라." (누가복음 2:14)

오! 벨레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참으로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교만과 자만심을 얼마나 책망하는가! 그녀는 우리의 범죄 과실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권고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징조를 받는 날도 알지 맙시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발견한 곳은 유대 언덕이나 겸손한 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양에서 온 현명하고 부유하며 고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마술사들은 그분의 작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야곱에게서 떠오를 별에 관해 배웠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실 분이 오시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렸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리라”(눅 2:25, 32; 행 13:47). 그들은 빛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들의 발의 길을 비쳤습니다. 진리의 수호자이자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둠에 가려져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내신 별은 이방인 이방인들을 갖 태어난 왕이 태어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은 “구원을 바라는 자들”(히 9:28)에게이다. 구주의 탄생 소식처럼 재림의 소식도 그들에게 맡겨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묘사한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살전 5:4, 5).

시온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구주의 강림 소식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위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태평하고 안전을 꿈꾸며,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앞서기만 무성하고 귀한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보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을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반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납되게 할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참회와 믿음의 정신은 부족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과 형식주의와 허영과 이기심과 억압이 나타났습니다. 배교한 교회는 시대의 표적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조건 이행을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특권을 등한히 하고 누리지 못한 확실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섭리가 열어 놓은 길을 따르지 않고, 모든 빛의 광선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계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형식 준수로 타락할 것이며, 생명력 있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부여된 축복과 특권에 상응하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필요하며 십자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빛을 받기를 거부하고 고대 유대인들처럼 그분이 방문하실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눅

19:44).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제쳐두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받은 모든 빛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18장

미국의 개혁자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진실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명예롭고 정직한 농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개혁가들처럼 윌리엄 밀러는 생애 초기에 빈곤에 맞서 싸웠으며, 이를 통해 활동과 극기의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가 속한 가문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 저항력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성격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혁명 기간 동안 군대의 대장이었으며, 그 고통스러운 기간의 투쟁과 고통 속에서 그가 치른 희생은 밀러의 생애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적 힘을 보여왔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 기부금은 더욱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활발하고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밀러는 지식에 대한 극심한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학문적 교육의 이점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학문에 대한 사랑과 신중한 사고의 습관, 예리한 비판적 감각이 그를 건전한 판단력과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 성격과 부러워할 만한 평판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그의 성실성, 인색함, 자비심으로 인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희생하면서 그는 처음에는 학습 습관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밀러는 명예롭게 여러 민간 및 군사 직위를 맡았으며 부와 명예를 향한 길은 그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기로 악명 높은 여성이었으며, 어린 시절 그는 종교적 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인 초기에 이르러 그는 결국 이신론자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선량한 시민이자 관대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독교 기관 가운데 살면서 그의 성격은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존경과 신뢰를 얻은 좋은 은사는 성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 좋은 은사는 왜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밀러는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적 해석은 그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믿음은 비록 성경을 제쳐두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 12년 동안 이러한 견해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34세 때 성령은 그의 마음에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느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믿음으로는 무덤 너머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는 어둡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당시 자신의 감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망은 차갑고 우울한 생각이었고, 책임은 모두에게 확실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청동 같았고, 내 발 아래의 땅은 철 같았습니다. 영원, 그것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왜 존재했습니까? 고민할수록 해결점은 점점 멀어지고, 생각할수록 결론은 흩어지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생각이 주체가 되지 않더군요.

비참했지만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투덜거리고 불평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옳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안하지만 희망이 없었다"고 말했다.

Miller는 몇 달 동안 이 상태를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구주의 성품이 내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범법을 속죄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만큼 선하고 동정심 많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이 구세주가 얼마나 친절할 것인지를 느꼈고, 나 자신을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자비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존재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 외에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살바도르나 심지어 미래 상태에 대한 어떤 증거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나에게 꼭 필요한 구주를 정확히 계시해 주는 것을 보았고, 영감 받지 않은 책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필요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원리를 전개했는지 알고 당황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계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내 기쁨이 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친구를 만났도다 구주가 내 만인 중에 으뜸이 되셨도다 전에 어둡고 모순되었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되었도다 영혼, 길, 내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웠으며, 주 하나님이 생명의 바다 가운데 반석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성서는 나의 주된 연구 자료가 되었으며, 정말 기쁘게 성서를 조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절반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거절해서 놀랐다. 나는 그 안에 계시된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며 영혼의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다른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종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않는 동료들은 모든 주장을 기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밀려 자신이 성경의 신성한 권위에 반하여 창조한 모든 개념을 내놓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교훈을 위해 주어졌으므로 사람의 이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선입견을 제쳐두고 의견을 참조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구절을 구절과 비교하고 난외 참조와 성경적 색인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밀려 많은 구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보다 더 빨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모호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연구 중인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모든 텍스트와 비교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각 단어가 본문의 주제와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허용했고, 그 구절에 대한 그의 관점이 각 평행 본문과 조화를 이루면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신성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렬한 기도로 연구했을 때, 이전에 그의 이해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의 말이 진리임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해석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느니라.” (시 119:130).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했으며,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을 검토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해석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언이 성취되는 한 문자 그대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다양한 비유, 은유, 비유, 직유 등은 직접적인 문맥에 따라 설명되었거나 표현된 용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정의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계시된 진리의 체계이고,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나그네가 비록 바보일지라도 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계적으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조사했으며,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마음을 인도하고 성경을 열어 그의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언이 성취되었던 방식을 미래에 있을 예언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세상의 종말 전 현세적 천년기)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가 성취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시기 전 천년 동안의 의로움과 평화를 지적하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공포를 멀리 몰아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끝인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마 13:30, 38-41).);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리라"(딤후 3:13, 1); 그리고 흑암의 나라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입의 영에 의해 소멸되고 그의 강림의 광채로 멸망될 것입니다(살후 2:8).

세상의 회심과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관한 교리는 사도 시대의 교회에 의해 옹호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초까지 기독교인들은 이 교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오류와 마찬가지로 결과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먼 미래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도록 가르쳤고, 그분이 가까이 오심을 알리는 표적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근거가 없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심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만남에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러는 그리스도의 문자적이고 개인적인 오심이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쳐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살전 4:16). 그리고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이르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30, 27). 그는 모든 하늘의 군대와 동행해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마태복음 25: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자기의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마 25:31) 마 24:31).

그분이 오시면 죽은 의인은 부활하고 산 의인은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만일 이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면 반드시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51-53)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도는 주의 강림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주를 만나 주님께서 공중에 계시니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살전 4:16 및 17).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재림 전에는 왕국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족속을 구별하리라.” 또 다른 이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으니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1-34) 우리는 이미 인용한 본문에서 인자가 올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산 자들이 변화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큰 변화를 통해 그들은 왕국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부패한 것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50). 인간은 현재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불멸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그때까지는 그들만이 상속자였던 왕국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 즉 보편적인 평화의 통치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과 같은 사건들이 밀러의 마음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림 이후에 일어나야 한다. 더욱이 시대의 모든 징조와 세상의 상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적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성경 연구만으로 지구가 현재 상태로 계속 존재하도록 지정된 기간이 곧 끝나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준 또 다른 증거는 성경의 연대기였습니다. 나는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성취된 일, 종종 특정 시간 내에 일어난 일. 120년의 홍수(창 6:3), 그 이전 7일,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언된 일(창 7:4),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시적으로 거주한 400년(창 7:4) 15:13),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3일(창 40:12-20); 바로의 7년(창 41:28-54), 광야에서의 40년(민 14:34), 삼년 반의 흉년(왕상 17:1; 누가복음 4:25 참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렘 25:11),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단 4:13-16), 그리고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칠십 이레를 포함한 그 이레 (다니엘 9:24-27), 그 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예언적인 사건들은 나중에 그들의 예언에 따라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여러 연대기를 발견했을 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자에게 계시하신 “이미 정하신 때”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 모세는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느니라”(신 29:29)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리라”(아모스 3:7)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유익하며, 이 책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된 것이니 그가 확신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1장) 21)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성경의 연대기적 부분을 우리의 진지한 고찰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

그녀의. 그러므로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예언적 기간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재림의 때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언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 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밀러는 성경을 해석자로 삼는 자신의 규칙에 따라 상징적 예언에서 하루가 한 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민 14:34; 겔 4:6). 2,300일의 예언적 기간, 즉 문자적 연수는 유대 경륜의 시대가 끝난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므로 그 시간은 그 경륜의 시대의 성소를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밀러는 기독교 시대에 지구가 성소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불에 의한 지구 정결을 상징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 밀러는 만약 2,300일의 정확한 시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림의 시기를 쉽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완성의 때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가 그 모든 교만과 권세, 화려함과 허영, 사악함과 압제와 함께 종말을 맞이할 때... 저주가 세상에서 제거될 때" 땅에서는 사망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되리라."

새롭고 더 깊은 열정으로 밀러는 예언에 대한 검토를 계속했으며, 지금 그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흥미를 끄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에 온종일 밤낮을 바쳤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300일의 시작점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이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게 부분적인 설명만을 해주었습니다. 교회에 닥칠 무서운 박해가 선지자의 이상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육체적인 힘은 그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천사는 얼마 동안 그를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기절하여 며칠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자에게 "이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비전을 주소서"라고 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순종한 천사는 얼마 후 다니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왔다."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비전을 이해하십시오." (다니엘 9:22, 23). 8장의 환상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은 단 한 가지, 즉 시간에 관한 것, 즉 2,30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설명을 계속하면서 주로 시간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 메시야가 나올 때까지 칠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알고 깨달으라. 거리들과 거리는 환난을 당하면 재건되겠고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야가 데려가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니... 그가 많은 사람과 이레 동안 언약을 세우시리라. 그는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소제를 바칠 것이다."

(다니엘 9:24-27)

다니엘이 8장의 환상에서 이해하지 못한 요점, 곧 때에 관한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상을 깨달으라"고 권유한 후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느니라." 여기서 "결정된"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잘라낸" 또는 "분리된"을 의미합니다. 490년을 나타내는 70주일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으로 천사가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과 별개로?

2,300일은 8장에서 언급된 유일한 시간이므로 70이레가 분리된 기간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70주는 2,300일의 일부를 구성해야 하며,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날부터 70주를 기산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명령의 날짜를 알 수 있다면 2,300일 기간의 시작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스 7:12-26). 가장 완전한 형태는 기원전 457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6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의 전이 "고레스의 명령[또는 칙령]을 따라 건축되었다"고 말합니다. ,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은 2,3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에서 요구한 대로 그 법령을 제정하고 확증하고 완성함으로써 그 법령을 완성하였습니다. 칙령이 완성된 때인 기원전 457년을 명령의 날짜로 보면 예언적 명세 전체가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 왕이 나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니라” 즉 육십구 이레, 즉 483년이 소요됩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기원전 457년 가을에 발효되어 그때부터 서기 27년 가을까지 483년이 되니 이 때에 이 예언이 응하였느니라.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서기 27년 가을,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행 10:38). 그리고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18)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4, 15)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계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주간"은 70일 중 마지막 주간이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지정된 기간의 마지막 7년입니다. 서기 27년부터 34년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그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초대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떠날 때 구주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5, 6).

“그가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소제를 그치게 할 것이요.” 세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갈보리에서 드러진 큰 희생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왔던 제사 제도를 끝내셨습니다. 모형이 원형과 만났고 의식 체계의 모든 희생과 헌물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70주 또는 490년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산헤드린의 결의에 따라 그 나라는 스테반의 순교의 결과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하여 더 이상 선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8:5)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먼 곳의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행 8:4, 5; 22:21).

지금까지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은 엄격하게 성취되었으며, 70주일의 시작은 논쟁의 여지 없이 주전 457년에 정해졌습니다.

서기 34년에 끝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300일의 끝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70주, 즉 490일을 2,300일에서 빼면 1,810일이 남았습니다. 490일이 끝난 후에도 1,810일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 34년부터 1,810년은 1844년까지 연장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일은 1844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위대한 예언 기간이 끝날 무렵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의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성소 정결의 시기가 결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 2,300일이 1844년 봄 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언에서는 그 해 가을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첫 날을 주님이 오시는 때로 정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나고 성소의 정결로 대표되는 큰 사건이 그 때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의 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성경이 신의 계시임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도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조사 결과를 거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증거는 제쳐두기에는 너무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 연구에 2년을 바쳤고, 1818년에 약 25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라는 엄숙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쁜 전망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고,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에 참여하려는 내 영혼의 열렬한 소망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성의 향연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있어서 나에게 모호하고, 신비롭고, 모호한 모든 것은 이제 그 신성한 책에서 비치는 맑은 빛 앞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아, 진리가 얼마나 밝고 영광스럽게 보였는가! 이전에 말씀에서 발견했던 모순과 불일치가 모두 사라졌고, 비록 아직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너무나 많은 빛이 있었다. 그로부터 이전에 어두웠던 내 마음을 밝혀 주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쁨을 느꼈으며, 이전에는 그들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중대한 사건들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과 함께, 내 마음에 영향을 준 증거를 고려하여 세상에 대한 나의 의무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이 내 앞에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밀러 그는 자신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악한 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을 예상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공언하는 구주를 볼 희망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두려움은 곧 일어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까봐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어려움을 주의 깊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햇빛 앞의 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는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식으로 5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다고 믿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무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가서 세상에 위험이 닥쳐왔음을 알리세요.'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만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네가 말로 악인을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였습니다.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을 그 길에서 돌이켜 돌이키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기로 말하였은즉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주는 네 생명을 건지시리라 영혼.' (에스겔 33:8, 9) 만일 악인을 효과적으로 경고하면 많은 사람이 회개할 줄 알았고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담당하리라 생각하였노라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목사님이 그 힘을 느끼고 그 선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경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개인적인 의무가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서 세상에 이 말을 전하라. 내가 너희 손에서 그들의 피를 요구하리라."라는 말이 항상 그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1831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까지 영혼의 부담을 안고 9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에 대한 성별의 외투를 받기 위해 밭에서 소를 몰고 갈 때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쟁기를 버리고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이해력 있는 사람들에게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여 청중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언 기간을 통해 한 단계씩 인도했습니다. 노력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밀러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동의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 그는 50세였고 대중 연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에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그의 수고는 처음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회의 후에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 30명의 가족 전체가 개종한 종교적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확신을 갖고 다른 곳에서 설교했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부흥되었습니다. 죄인들은 회심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헌신에 깨어났으며, 이신론자와 불신자들은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인식했습니다. 그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설교는 종교의 큰 주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깨우고 당시의 점증하는 세속성과 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의 설교의 결과로 많은, 심지어 수백 명의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거의 모든 종파의 개신교 교회가 그에게 문을 열었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회의 목사들로부터 일하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밀러는 초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을 변함없는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에게 주어진 요청의 절반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확실하고 가까우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그의 작품이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음료 판매자는 거래를 포기하고 상점을 회의실로 바꿨습니다. 도박장은 폐쇄됐다.

불신자, 이신론자, 보편주의자 및 가장 방탕한 사람들도 변화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는 여러 해 동안 예배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라. 기도회는 다양한 교단에서 서로 다른 동네에서 거의 매 시간 열렸습니다. 사업가들은 정오에 모여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상한 흥분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거의 보편적인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초기 개혁가들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력을 확신시키고 양심을 일깨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833년에 밀러는 자신이 속한 침례교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의 사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활동은 주로 뉴잉글랜드와 중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끊임없이 여행하고 설교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비용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초대받은 장소까지의 여행 경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공공 사업은 금전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그의 소유물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그의 생애 동안 이 부담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밀러에게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이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의 농장은 모든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지 2년 후인 1833년에 구주께서 재림을 나타내기 위해 약속하신 마지막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29) 그리고 요한은 묵시록에서 하나님의 날을 알리는 광경을 환상으로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를 쏟아내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계시록 6:13).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의 거대한 운석 소나기를 통해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기록된 유성우 중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창공 전체가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식민화 초기 단계 이래로 한 계층에서 그토록 감탄하거나 다른 계층에서 그렇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품고 본 천상의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함과 끔찍한 아름다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유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격렬한 소나기는 없었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교수가 설명한 디스플레이. Silliman은 북미 전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시부터 대낮까지, 하늘은 완벽하게 고요하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눈부신 빛의 끊임없는 유혹이 창공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습니다.”

“그 장엄한 표현의 광채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 영광에 대해 적절한 개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별이 빛나는 하늘 전체가 천정 근처의 한 지점에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들은 번개의 속도로 지평선의 모든 부분으로 동시에 방출되었지만, 다 떨어지는 않았습다.

마치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수천 명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강력한 강풍에 날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광경이 끝난 다음 날, 헨리 다나 워드(Henry Dana Ward)는 그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말하거나 기록한 철학자나 학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8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이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유성이 떨어지는 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 있는 유일한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13:13)고 선언하신, 그분의 재림의 마지막 표적이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4:33). 이 이적들 후에 요한은 임박한 다음 큰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양피지처럼 말려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겁에 질려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아들.

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올 심판의 전령, 즉 “끔찍한 예표, 확실한 전령, 위대하고 두려운 날의 자비로운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예언의 성취로 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1840년에 또 다른 놀라운 예언 성취가 일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년 전, 재림을 설교하는 주요 목사 중 한 사람인 조시아 리치(Josiah Litch)는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설을 출판하여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도 명시했습니다. 단 순히 성경의 예언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였던 그의 설명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1840년 8월 11일에 독립을 포기할 것이었습니다. 이 예측은 널리 알려졌고 수천 명이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따랐습니다.

명시된 당시 터키는 대사를 통해 유럽 연합국의 보호를 받아 기독교 국가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그 사건은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중은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예언적 해석의 원칙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운동에 놀라운 추진력이 주어졌습니다. 학식 있고 확고한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설교하고 그의 견해를 출판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이 사업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Guilherme Miller는 성찰과 연구를 통해 훈련된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능력에 그는 하늘의 지혜를 더해 자신을 지혜의 근원과 결합시켰습니다. 밀러는 인격의 고결함과 도덕적 우수성을 고려할 때 어디에서나 존경과 존중을 받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마음의 친절과 그리스도인 겸손, 자제력을 겸비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세심하고 상냥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주장을 저울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정도, 설렘도 없이 그는 모든 이론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확고한 추리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 덕분에 그는 오류를 반박하고 거짓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반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초기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시한 진리는 대중적인 종교 교사들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과 교부들의 전통에서 인용한 내용과 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뿐”이 그의 암호였습니다. 반대자들의 성경적 논증의 부족은 조롱과 조롱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유일한 죄인들을 비방하는 데 시간과 수단과 재능이 소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노력이 부지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을 사람이 부끄러워할 죄로 여기게 되었느니라. 따라서 대중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그것은 사람들을 불신자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경건한 욕망에 따라 행동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모든 악이 재림교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의 깊고 총명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러의 이름은 비난과 조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종교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종교 교사들의 입장에 힘입어 그와 그의 사업에 공격을 가하려고 욕설과 신성모독적이고 저속한 농담을 사용했습니다. 편안한 집을 떠나 자비로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여행하며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백발의 남자는 완고한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악당. .

그에게 쌓인 조롱, 거짓, 모욕은 심지어 세속 언론에서도 분개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엄청난 위엄과 무서운 결과를 지닌 주제를 경솔하고 냉소적으로 다루는 것은 단지 그 옹호자들의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 날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희롱하며 그의 공정의 공포를 비웃으리다."

모든 악의 선동자는 재림 기별의 효과를 반대할 뿐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는 자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애썼다. 밀러는 청중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를 실제로 적용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자기 만족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말은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대해 교인들이 표현한 반대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가 집회 장소를 떠나자 적들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중 가운데 있었고, 그들 중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주의 종의 팔을 붙잡고 성난 군중에게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실패함으로 인해 실망하였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회중이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졌으나 얼마 후 이들 개종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고 교회들은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의 펜에서 모든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응답을 불러일으켰으며, 만약 그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면 그들의 오류를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의 법칙이자 유일한 법칙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 그토록 폭력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강단과 출판물에서 우리를 그토록 많이 보내면서 우리(재림교인)를 당신들의 교회와 교제에서 제외시킬 정당한 이유를 주셨는가?" "만일 우리가 오류에 빠졌다면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류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견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보고 속고와 기도를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비슷한 불신과 불신에 부딪혔습니다. 홍수 전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서 땅에 홍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 때, 그분은 먼저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 주셨고, 이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었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세대의 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하는 형벌 아래서 회개하라는 경고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가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경건에 고무되어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탄원을 가볍게 여기며 심지어 주제넘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자들에 맞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노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온 세상은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말이 수천 사람의 지혜에 맞서!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피난처를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방주에.

비웃는 자들은 자연의 것들, 즉 계절의 변함없는 연속, 비를 내리지 않은 푸른 하늘, 밤의 부드러운 이슬로 상쾌해지는 푸른 들판 등을 가리키며 “그가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설교자가 미친 열광자라고 조롱하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보다 더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고 악한 길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은 예언된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의 불경건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그러나 정한 때에 여호와의 심판이 그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듯이,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9). .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금지된 쾌락 속에서 그들과 연합할 때;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가 될 때; 결혼의 종이 울리고 모두가 다년간 세상적인 번영을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볼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그들의 밝은 환상과 기만적인 희망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다가오는 홍수에 대해 세상에 경고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움을 알리기 위해 선택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노아의 동시대인들이 의의 설교자의 예언을 비웃었던 것처럼, 밀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도 경고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와 설교가 교회들에 의해 그토록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재림이 비참함과 황폐함을 가져오지만, 의인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모든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녀는 그녀의 창시자처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는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3)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예상하시고 천사들에게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친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명하신 분은 자비로우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그분**의 마지막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와 같이 오시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 1:11). 천사의 메시지로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항상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니라”(눅 24:52, 53).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헤어지셨고,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의 확신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은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전한 것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그분이 초림 때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표를 기쁨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그분의 백성을 구속할 권능과 영광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낸 이 메시지로 인해 야기된 짜증과 적개심보다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재림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특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영적 삶에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짧고 동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빨리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구는 물러나고 그들 앞에 영원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행복이나 불행과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모든 세속적 목표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의 형제들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의 일상 생활에 대한 묵묵한 간증은 형식적이고 성별되지 않은 교회 회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쾌락 추구, 이익에 대한 헌신, 세속적 명예에 대한 야망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림교회와 그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과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예언 기간에 관한 주장이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되었다고 가르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는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교황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는 것을 막았지만, 개신교 교회는 거룩한 말씀의 중요한 부분, 즉 특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선지자 다니엘의 말에 당신의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5) 그리고 묵시록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주장은 책 자체의 제목과 모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받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1-3).

선지자는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예언에 관한 어떤 것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은 그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경고와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약속된 축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주제를 조롱하고 거기에 엄숙하게 표시된 상징을 조롱하는 모든 자;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감의 증언 앞에서 어떻게 묵시록이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신비라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공개된 미스터리, 열린 책이다. 요한계시록 연구는 마음을 다음으로 인도한다.

다니엘의 예언과 두 예언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 제시합니다.

요한은 교회 경험에 대해 깊고 흥미진진한 관심을 보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위험과 갈등과 최종적인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창고를 위한 단이든 파괴의 불을 위한 단이든 간에 지구의 수확물을 익게 할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특히 후자 교회를 위해 그에게 계시되었는데, 이는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과 갈등에 관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도 지구에 닥칠 일에 관해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이렇게 널리 퍼진 무지가 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조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실수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려는 흑암의 왕자의 연구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묵시록 연구를 반대하여 벌이게 될 투쟁을 예상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 하셨습니다.

19장

어둠을 통과하는 빛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각각의 위대한 개혁이나 종교 운동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현재의 중요한 움직임은 과거의 움직임과 유사하며 초기 교회의 경험은 우리 시대에 큰 가치가 있는 교훈을 줍니다.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위대한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특히 지상에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지시하시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 시대의 필요에 알맞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빛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신의 시대에 임명된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를 모든 각도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도를 얻겠느냐, 전능자의 온전함에 이르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는 끝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고하니라” (욥기 11:7; 이사야 55:8, 9; 46:9, 10).

성령의 특별한 빛을 받은 선지자들조차 그들에게 맡겨진 계시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분명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안에 담긴 지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으로 밝혀진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응하여 어느 때, 어느 때에는 성령이 내리시는가 물었느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겪을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증거하시기 전에 미리 나타내셨느니라 저희에게 섬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드러났느니라.” (베드로전서 1:10-12).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내용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빛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시와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진 기독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으로 교훈이 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어떻게 “구하고 부지런히 처리”했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열정과 냉담한 무관심을 대조해 보십시오.

최근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선물을 대접합니다. 예언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데 만족하는 방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큰 견책입니까!

인간의 유한한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을 수 없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하늘의 메시지를 어렵듯이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인간의 의견, 전통, 거짓 가르침에 너무 눈이 멀어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에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주께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우주 제국의 왕좌로 높이게 될 현세의 왕자라는 대중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5)
그 메시지는 다니엘 9장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천사는 69주가 “메시아 왕”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제자들은 큰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고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9:25에 근거하여 발표했지만 같은 장의 다음 구절에서는 메시아가 데려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기대되는 지상 제국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구체적인 예언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에게 자비의 초청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으며,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시는 것을 기대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분이 행악자로 붙잡혀 채찍질당하시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지셨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과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에 예언된 정확한 시간과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세부사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으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녀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그녀의 아들의 신성한 위임을 증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주인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확실성과 의심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지적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참 메시아라면 그들은 비통함과 실망에 빠졌겠습니까? 이것은 구주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의 절망적인 시간 동안 그들의 영혼을 괴롭힌 의심이었습니다.

고난의 밤이 이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어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둠에 거할지라도 여호와와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아직도 어둠이 나를 당신께 숨기지 못하였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당신에게는 어둠과 빛이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걷게 하며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굵은 것을 곧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미 7:8, 9; 시 139:12; 112:4; 사 42:16).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모든 면에서 정확했으며, 그 내용이 가리키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때”의 끝에는 다니엘서 9장의 69이레가

그들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 왕국은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지상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엄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백성에게 붙인 바 될” 때에 세워질 미래의 불멸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단 7:27).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모두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줍니다.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자비로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지적한 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16)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왕좌의 존재는 왕국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신성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왕국은 구주의 다음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모이리라 그 앞에서.” (마태복음 25:31, 32). 이 왕국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왕국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고안되었을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약속에 따라 존재하셨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상 성역을 시작한 후에도 인간의 완고함과 배은망덕에 지친 구주께서는 갈보리의 희생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고난의 잔이 그분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닦아 주실 수 있었고, 범죄한 인류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면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구속 계획의 성취가 보장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죄 많은 부부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했던 은혜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즉 제자들이 그들의 희망이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본 바로 그 사건이 그들을 영원히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극심한 실망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눈물과 절망을 안겨준 사건은 아담의 각 자녀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준 사건이었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느님의 충실한 이들의 미래의 삶과 영원한 행복이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한한 자비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누구도 말하지 못한 말씀을 하신 그분의 가르침의 능력으로 얻어졌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순금에는 인간의 교만과 야망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다락방에서도 그들의 주님이 겐세마네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던 엄숙한 시간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2:24). 그들의 비전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앞에는 동산과 뜰과 갈보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거짓 가르침에 그토록 끈질기게 집착하고, 그분의 왕국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지적하신 구주의 말씀을 간과하게 만든 것은 마음의 교만과 세상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오류로 인해 예리하지만 필요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이 허용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메시지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가 좌절되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전파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상을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그토록 쓰라린 경험이 허락된 것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누가복음 24:27).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산 소망이 있게”(베드로전서 1:3)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의식법의 상징과 그림자와 구약의 예언이 제시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전달하는 첫 번째 단계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하신 간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사랑받는 얼굴을 다시 한 번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32)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한 의미에서 그들은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불확실성, 고뇌, 절망이 완벽한 안전과 깨달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항상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주의 치욕스러운 죽음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표정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서는 기쁨과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험을 통과했으며, 인간의 이해로는 모든 것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사랑의 열정을 식힐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확고한 위로”와 “영혼의 닻 같아서 견고하고 견고한”(히 6:18, 19)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었으며,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없음을 확신하였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38, 39, 37). “여호와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25). 그리고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26).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부활의 날, 이 제자들은 구주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머리를 보면 사랑으로 인해 손과 발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15; 마태복음 28:20); 오순절 날에 약속된 보혜사가 내려오시며 위로부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매 믿는 자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앞에서 떨어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희생과 순교를 통해 그분의 은혜의 복음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받게 될 "의의 면류관"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자도의 희망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그들에게 자기의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기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바울이 말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의 경험과 대응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제시된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의 기간이 곧 끝나가고 심판이 가까웠으며,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제자들의 설교는 다니엘서 9장의 70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전한 메시지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의 끝을 알렸는데, 그 중 70주가 일부를 구성합니다. 각각의 설교는 동일한 위대한 예언 기간의 다른 부분의 성취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자리 잡고 간직해 온 오류로 인해 우리는 예언의 매우 중요한 요점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신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실망을 겪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이천삼백 주야와 아침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를 설명하면서, 밀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땅이 성소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정결은 주님이 오실 때 불로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300일의 기간이 확실히 예언되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재림의 때를 드러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의 오류는 성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을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였던 모형적인 제도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연례 행사에서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마지막 사역, 즉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거나 도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기록에 신실하게 기록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제거하고 도말하는 하늘에 있는 우리 대제사장의 봉사의 마지막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서비스에는 조사 작업과 재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이 오기 직전이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 위에 계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에는 모든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12).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포되는 것은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의 사역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니이다”

이 경고를 선포한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자들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을 근거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같은 본문에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밀러는 그리고 그 일행들도 다니엘 8장 14 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주님 강림 전에 전해야 할 다른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70주 후에 이루어질 왕국에 관해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교인들도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에 관해 오해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중적인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집착하여 그들의 마음을 진실로 흐리게 했습니다. 두 반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며, 둘 다 각자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가 있는 그대로 주어짐으로써 그분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큰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섭리로 백성들은 정해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드러 내시기 위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애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메시지는 그들이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자비롭게 보냄을 받았습 니다.

더욱이, 비록 그들이 전달한 소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망했지만,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경고를 받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에 직면 하여 자신의 경험을 성급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기도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충동, 흥분으로 감동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력이 없고 믿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정죄, 지체와 실망의 시험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그들은 처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 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이 뒷받침하는 진리를 거부할 것입 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자신의 해석자로 만드는 대신 인간의 이론과 해석을 받아들이는 위험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경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실수로 인한 당혹감과 슬픔이 필요한 교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주의 깊게 조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진리의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자들에게도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련 당시에 모호하게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말”(야고보서 5:11)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확고하게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된 경험을 통해 그분이 “매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니라”.

제20장

위대한 종교적 각성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선포에 따른 대중교적 각성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 것이 보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요.” 그는 “큰 소리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6,7).

천사가 이 경고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기별에 의해 수행될 사업의 고상한 성격과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소리, 경고가 발해지는 “큰 음성”, 그리고 그 경고가 “땅에 거하는 모든 자,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느니라” 는 움직임의 속도와 전 세계적 범위를 보여줍니다.

메시지 자체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간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라고 선언되며 심판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수세기에 걸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오직 마지막 날에만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심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의 이 부분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된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저 곳으로 달려갈 것이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살후 2:3). 우리는 대배도와 “불법의 사람”의 오랜 통치가 끝난 후에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자”라고도 불리는 “불법의 사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1,260년 동안 그 최상권을 유지할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연령. 이 기간은 1798년에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경고하면서 1798년까지의 전체 기독교 경륜을 망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지난 세기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심판이 그의 시대로부터 약 3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798년 이래로 다니엘서가 퍼졌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엄숙한 소식을 선포해 왔습니다.

16세기의 대개혁과 마찬가지로 재림운동도 기독교계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유럽과 국내 모두에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인 미국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영감받은 보고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나라에는 오직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발견한 고립된 그리스도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을 해석한 지 3년 후인 1821년에 "세계 선교사"인 조셉 울프(Joseph Wolff) 박사는 주님의 곧 오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프는 독일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는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탐구적이고 활동적인 마음을 가진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모여 자기 민족의 희망과 기대, 오실 메시아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끝없이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년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비교할 수 없는 재능을 지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질문자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멸망되고 우리는 포로 상태에 있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즉시 소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였을 터인데 그는 무죄한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을지니라." 이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는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밖에 머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겨우 7살이었던 울프는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이 미래에 승리할 것이라고 이웃의 나이든 기독교인에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이 옛 선지자들과 같이 그 나사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집에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즉시 강한 확신이 어린 울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본문을 읽고 그것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에 놀랐습니다. 그 늙은 그리스도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소년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제로 감히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엄숙한 침묵에 직면했지만,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지식은 그의 유대인 집에서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울프는 자신을 교육하고 종교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부모님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친척들 사이에서 임시 거처를 찾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교자로 인해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한 푼도 없이 홀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쳐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수의 영향으로 그는 로마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쪽 가운데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몇 년 후 그는 로마에 있는 선전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독립적인 사고 습관과 솔직한 말솜씨는 그에게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울프는 교회의 폐단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황 고위 관리들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았지만 얼마 후 그들은 그를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감시 아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결코 로마의 노예 생활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반란군으로 선포되었고 그가 찾은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그 후 그는 영국으로 가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고 성공회에 합류했습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1821년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울프가 "슬픔을 많이 겪고 수고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또한 그 예언들이 그분의 재림에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똑같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약속된 나사렛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굴욕을 입고 처음 오심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한편, 왕이자 구원자로서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참 메시아이시니 손과 발이 찢리셨느니라.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간 사람, 그는 슬픔을 많이 겪고 산고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게서 홀과 그 밭 사이에서 율법의 권세를 거두신 후에 그가 첫째로 오셨고 둘째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을 타고 오사 성산에 서시리라 올리브”; “한때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아담에 의해 상실된(창 1:26; 3:17)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은 예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 피조물의 탄식과 탄식이 그치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들리게 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 16; 고전 15:23).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은 그 본성을 변화시켜(사 11:6-9)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시 8편). 우주의 평화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매우 좋다.”

울프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믿었으며 예언 기간에 대한 그의 해석은 밀려가 지적인 시간의 몇 년 이내에 위대한 완성을 이뤘습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울프는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대답했다. 아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여름의 전조를 아는 것 같이 그분께서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사 적어도 우리로 그의 강림이 임박함을 알게 하셨느니라(마 24:32) 선지자 다니엘의 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서에 이 말이 마지막 때까지 달히리라 기록하였으니 그 당시에도 그러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로 달려갈 것'(히브리어로 시간을 관찰하고 생각한다는 뜻)과 '지식'(시간에 관한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때의 가까움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과 시간이 사람의 지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분은 시대의 징조로 충분히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이나 오해의 대중적인 체계에 관해 울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류의 행복은 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유대인의 책을 읽을 때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읽을 때 그들은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 라고 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으로 그들은 선교 단체의 발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산에 올라가는 것은 감리교도들의 엄청난 모임을 의미합니다."

1821년부터 1845년까지 24년 동안 울프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면서 아프리카를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아시아를 거쳐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를 횡단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을 방문했고 여행 중에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1837년 8월 뉴욕에 도착했고, 그 도시에서 설교한 후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에서 설교하고 마침내 워싱턴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이 의회 중 한 곳에서 제안한 제안을 통해 그 의회는 내가 토요일에 강연을 위해 의회 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의회 의원들과 버지니아 주교, 워싱턴의 성직자와 시민 여러분,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정부의 구성원들도 같은 영예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왕국."

울프 박사는 유럽 당국의 보호도 없이 가장 야만적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세 번이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강도의 희생자였으며 때로는 갈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은 강도를 당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얼굴에 눈이 내리고 발이 얼음 땅에 닿아 얼어붙은 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야만적이고 적대적인 부족들 사이로 비무장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기도와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그분의 도움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손에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와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행 중 하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손에 펴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에 내 능력이 있고 그 책의 힘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하여 그는 심판의 기별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의 많은 부분에 전파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유대인, 투르크인, 페르시아인, 힌두교인 및 기타 여러 국적과 인종에게 그는 이러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모든 곳에 임박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외딴 고립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주님의 곧 재림의 교리를 만났습니다. 예멘의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왕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라(Seera)'라는 책을 소유하고 있으며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멘에서 레갑 족속과 함께 옛새를 지냈더니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원을 심지 아니하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주하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기억하는도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단 지파 중에서 레갑 자손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Tartary의 다른 선교사도 비슷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타타르 성직자가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언제 두 번째 오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 그 신부는 성경 교사라고 공언하고 예언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가 1844년쯤에 오실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선언한 사람의 그러한 무지에 크게 놀란 것 같았습니다.

1826년 초에 재림기별이 영국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운동은 미국처럼 정해진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절의 정확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많이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박하셨다는 위대한 진리가 큰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반체제 인사나 비순응주의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국 작가인 모란테 브록(Mourante Brock)은 약 700명의 성공회 목사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1844년을 주님이 오시는 때로 지적하는 기별은 영국에서도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재림교회 출판물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책과 잡지가 재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842년, 영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인 로버트 윈터(Robert Winter)는 주님의 강림을 알리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에 동참했고 영국의 여러 지역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사제들의 야만성과 악의 속에서도 스페인 예수회원인 라쿤자가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를 하고 싶었고 로마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랍비 벤 이스라엘"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으며 자신이 개종한 유대인임을 나타냈습니다. 라쿤자는 18세기에 살았지만 그의 책이 런던에 침투하여 영어로 번역된 것은 1825년경이었다. 그 출판물은 이미 영국에서 재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성하고 있던 관심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에 루터교 목사이자 유명한 학자이자 성서 비평가인 벵겔(Bengel)이 독일에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Bengel은 신학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교육과 규율을 통해 심화되고 강화된 그의 정신의 진지하고 종교적인 특성은 자연스럽게 그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관상적 성격의 젊은이들처럼 그도 종교적 성격의 의심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불쌍한 마음을 꿰뚫고 그의 젊은 시절을 건디기 힘들게 만든 수많은 화살들'에 대해 감동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뷔르템베르크 당회의 일원으로 취임하자마자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힘으로 기존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모든 합리적인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책의 좋은 효과는 그의 고향 지방에서 여전히 느껴진다.

벵겔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이 떠올랐던 것은 그가 '강림주일'을 위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묵시록의 예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이해력에 드러났습니다.

선지자가 제시한 장면의 엄청난 중요성과 탁월한 영광을 깨닫고 그는 한동안 그 주제에 대한 묵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이 주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언, 특히 묵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으며 곧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지적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믿었습니다. 그가 재림의 시기로 결정한 날짜는 나중에 밀러가 주장한 날짜와 불과 몇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벵겔의 저술물은 그리스도교국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언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고향인 뷔르템베르크와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 운동은 계속되었고 재림기별이 독일에도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신자들이 러시아로 가서 그곳에 식민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임박하셨다는 믿음은 그 나라의 독일 교회들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빛이 비쳤다.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전파했던 제네바에서 가우센은 재림의 기별을 전파했다. 학생 시절, 가우센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합리주의 정신을 접했습니다. 목회에 입문했을 때 그는 참된 믿음에 대해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주의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언 연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롤린의 고대사(Ancient History)를 읽은 후, 그의 관심은 다니엘서 2장으로 옮겨졌고, 가우센은 그 역사가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예언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에 놀랐습니다. 거기

그것은 최근 몇 년간의 위험 속에서 그에게 닛 역할을 했던 성경의 영감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주의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분명한 빛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엄숙함과 중요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은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대중의 믿음은 그의 길에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Farel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제네바 복음화를 통해 부모의 관심을 끌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임무에 대한 자신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책에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싶었고, 어른들에게 먼저 말을 하면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청중을 모았습니다. 그룹이 성장하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제를 이해하고 설명한다면 나는 곧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어른들도 앉아서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대의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곤 했습니다. 그의 교회의 갤러리는 주의 깊은 청취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와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방문한 낯선 사람들과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성공에 고무된 가우센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예언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강의를 출판했습니다. Gausson은 "어린이에게 주어진 교육을 출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잘못된 구실로 그러한 책을 종종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나는 가능하다면 우리 양 떼 가운데 예언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은 큰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대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하느니라."

프랑스어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설교자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Gausson은 지루하고 합리주의적인 매뉴얼인 교회 교리문답 대신에 청소년을 가르치는 데 성경을 사용했다는 주요 위반으로 얼마 후 사역에서 정직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 그는 나중에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일요일에는 교리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예언 활동 역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수직에서부터 언론을 통해,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인 어린이 교사를 통해 가우센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다음과 같은 예언 연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 다음 오심.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재림기별이 전파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주의한 안전에서 깨어나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교회의 교직자들은 그 운동에 반대하였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식을 전파한 일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설교자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주법은 그들에게 어떤 금지도 부과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운동은 주로 가장 비천한 계층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경고를 듣기 위해 가장 단순한 노동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린이 설교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오두막집 거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6~8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했음을 간증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그들은 그 나이대 어린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능력과 예지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타고난 은사를 넘어서는 영향력에 감동을 받았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태도가 변화되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엄숙한 능력으로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들은 부도덕과 악덕을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를 질책하고 청중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속히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사람들은 떨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받았습니다. 부절제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위를 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교회의 목회자조차도 이 운동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주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전해지는 것은 신성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음성이 잠잠해지자, 그분은 그 사업이 성취되도록 당신의 영을 어린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소리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환호하는 군중과 함께 예루살렘에 접근하셨을 때, 질투심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이 소리들이 잠잠하다면 돌들도 소리지르리라.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위협에 겁을 먹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즐거운 선포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들은 성전 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합창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8-16) 바리새인들이 몹시 불쾌하여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어린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듯이,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도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 구주의 강림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Guilherme Miller와 그의 협력자들은 미국에서 이 경고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대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의 글은 먼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도처에 전파되었습니다.

1844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의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소식이 한 주로 전달되면서 곳곳에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 시대의 논증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으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부심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종파적인 생각과 감정을 제쳐두고 봉급과 교회를 포기하면서 연합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목회자들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대부분 겸손한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농부들은 들판을 떠났고, 기계공은 도구를, 상인은 상품을, 직업은 전문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작업에 비해 작업자 수는 적었습니다. 불경건한 교회와 사악함에 빠진 세상의 상태는 참된 파수꾼들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궁핍과 고통을 참았습니다. 비록 사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꾸준히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적인 죄인과 교회의 죄인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날카로운 증언이 도처에서 들렸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레 요한처럼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그들이 대중 강단에서 들었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확신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마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은 소수만이 완전히 저항할 수 있는 확신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안전으로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배도와 세속성과 불신, 그의 교만과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적인 것에 집착했던 애정이 이제 하늘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부드러워지고 굴복된 마음으로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느니라.”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정직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보상을 열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자부심과 예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이루어졌고, 가족들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렬한 중보의 목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도처에 깊은 고뇌에 빠져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용서를 위해, 또는 친척이나 이웃의 회개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재림교회 모임에 집중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인과 천한 자 등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림의 교리를 스스로 듣고 싶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의 정신을 억제하셨습니다. 때로는 악기가 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가 느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신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증거가 반복되자 수많은 군중은 그 엄숙한 말씀을 완전히 침묵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노년층, 청년층, 중년층 모두에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은 찬양을 입에 담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즐거운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에 메아리쳤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도 그 깊은 관심을 끄는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명확한 시간의 선포는 목사로부터, 강단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담대한 죄인.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으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세 때와 같이 있느니라 창조." (베드로후서 3:3, 4). 구주를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해진 시간의 설정에 어긋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들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을 견디지 못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분명한 논증을 듣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고 모욕을 퍼부었다. 이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어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재림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제기한 주장이었습니다.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36).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하고 조화로운 설명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의해 주어졌으며 반대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신 후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과의 기억에 남는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마태복음 24:3, 33) 주님의 한 말씀은 다른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지시를 받았으며 그것이 언제 가까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경고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에 대해 알기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재림이 언제 임박했는지 알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홍수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함. 그리고 같은 장에 기록된 비유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을 대조하며, 마음 속으로 “나의 주님은 늦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종을 저주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재림을 지켜보고 전파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점을 어떤 빛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시는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4:42-

51).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3).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예상하지 못하는 부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오리니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임하리라. ...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구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살전 5:2-5).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할 구실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라는 말은 대담하게 조롱하는 자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사람들이 깨어나서 구원의 길을 묻기 시작했을 때,

종교 교사들은 그들과 진리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을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성실한 파수꾼들은 큰 사기꾼의 일에 가담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방해했습니다. 이 영혼들의 피가 당신의 손에 요구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대중적 견해의 비성경적인 성격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성직자의 영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곳마다 재림의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기신 진리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교제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은 신앙의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 그러면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사야 66:5)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고의 결과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교회들이 기별을 전반적으로 거부하자 천사들은 큰 슬픔을 안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의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에게 속아 재림교인들이 전하는 이단설을 듣는 것조차 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영혼들을 충실히 보살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또 다른 빛이 여전히 그들 위에 비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망으로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엄숙하게 이 시간을 기다렸다. 그들은 밝은 미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통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확신을 경험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소중한 기대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 몇 주 전에 세속 직업은 대부분 체쳐두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순간에 이르러 세상의 광경을 눈을 감는 순간인 것처럼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승천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은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흰 옷은 영혼의 순결함,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자기 성찰의 정신, 동일한 결단력과 열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끈질기게 그들의 탄원을 속죄소에 보냈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거의 없고, 죄에 대한 참된 확신이 거의 없으며, 살아 있는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속주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오류를 숨겼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가장 박식한 반대자들도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 기간에 대한 당신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장소; 그러나 그것은 밀러 씨가 예측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회심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시기는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나타나심을 기대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두려움보다 더 고상한 동기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마음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참된 신자들의 슬픔을 처음으로 조롱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군대는 실망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고 충실한 자들을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는 휘장이 걷혀진다면, 천사들이 그 충성스러운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사탄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21장

거부된 경고

재림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사람들이 심판을 준비하도록 일깨우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참된 희망과 더 깊은 기독교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눈을 열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워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회심을 강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종파나 당파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직이나 규율을 방해하지 않고 모든 당파와 종파 사이에서 수고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활동에서 나는 기존 교단의 이익과 별개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종파에 해를 끼치면서 한 종파에 이익을 주려는 욕망이나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고 있었고, 내가 본 것과 같이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따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개종시키고, 다가올 심판을 세상에 알리고, 동료 인간들이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존 교회."

그의 활동은 교회를 재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재림 교리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모든 동요를 진압하고자 강단에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재림에 관한 설교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 집회에서 그러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큰 환난과 혼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과 헤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무시되고 예언을 연구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때 미국 대부분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세상의 관행과 관습에 대한 점진적이지만 변함없는 순응과 그에 따른 진정한 영적 생활의 쇠퇴가 주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작스럽고 뚜렷한 쇠퇴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그 원인을 꼬집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 자체는 언론과 강단에서 널리 언급되고 주목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노회 모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석의 저자이자 그 도시의 주요 교회 중 한 곳의 목사인 Barnes 씨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가 개종자의 수를 늘리거나 적게 받지 않고 의식을 집행했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에게는 깨어남도, 회심도 없고, 은혜 안에서 눈에 띄는 성장도 없으며, 아무도 그의 사무실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일하십시오. 사업이 증가하고 상업과 산업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세속적인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교단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해 2월 교수. Oberlin College의 Fin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회가 그 시대의 거의 모든 도덕적 개혁에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널리 퍼지지 않는 상황.

우리는 또한 또 다른 확증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부흥시키는 영향력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거의 모든 것에 침투하며 매우 깊습니다. 전국의 종교언론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패션을 사랑하고 악인들과 손을 잡고 쾌락, 춤, 축제 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슬프게도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위해서는 증거가 축적되어 우리에게 무겁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어졌고, 주님도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Religious Telescope 의 한 편집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처럼 종교적으로 쇠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깨어나 병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심의 경우가 얼마나 적고 간헐적인지, 그리고 죄인들의 비교할 수 없는 완고함과 완고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아니면 자비의 문이 닫혔는가?'라고 외칩니다."

그러한 상태는 결코 이유 없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닥친 영적 어둠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자의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거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놀라운 예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 민족의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이고 육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모르고 교만하고 불신하여 구속자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서 구원의 축복에 대한 지식과 참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늘의 선물에 대한 모든 열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었고, 마침내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었습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컸습니까!

비록 생명력 있는 경건의 정신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종교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대의 의식을 열성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배타주의를 엄격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분의 죽음을 매우 직접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며 마침내 랍비들은 그 때를 계산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 눈멀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구원의 은혜로운 제안에 무관심했고, 복음의 축복을 망각했으며, 하늘의 빛을 거부하는 위험에 대한 엄숙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는 곳에는 동일한 결과가 따릅니다. 의무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성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해력이 흐려지고 양심이 무감각해지며 마음이 완고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메시지가 경시되고 가볍게 취급되는 곳에서는 교회가 어둠 속에 싸여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어가고 불화와 이별이 들어오느니라. 교회 회원들은 세상적인 노력에 관심과 힘을 쏟고 있으며,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완고해집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세상의 부패한 영향력에서 분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자아, 세속성과 배도의 상태.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만일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교회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악을 바로잡으셨을 것이라는 경고를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기별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진지하게 그분의 면전에 서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시대에 존재했던 일치와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를 다시 달성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행 4:32, 31; 2:47).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비치는 빛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사도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묘사한 일치를 얻었을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4:3-5)

이것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경험한 축복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파에서 왔고 그들의 교파 장벽은 땅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상충되는 신조는 원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비성경적인 희망은 제쳐지고 재림에 관한 잘못된 견해가 시정되었습니다. 교만과 세상에 대한 순용이 사라졌습니다.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마음은 달콤한 우정으로 뭉쳤고, 사랑과 기쁨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소수에게만 적용되었다면, 만약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대체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서 예수의 재림의 표적을 가장 먼저 분별해야 했던 그분의 종들은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시대의 표적에서 진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희망과 야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교리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그 메시지가 대부분 평신도들에 의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이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언은 “고귀한 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됩니다. 그리고 예언 기간에 나온 논증을 반박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예언 연구를 단념시켰고, 예언서는 인봉되었으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암묵적으로 신뢰하여 경고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확신하면서 “회당에서 추방될”까봐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지는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애착을 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을 지구에 묶은 유대는 천체의 매력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했으며 탐구하는 진리의 메시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하늘이 마련해 놓은 수단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악을 바로잡아 주실 은혜로운 사자를 무시하였고, 더 큰 자극을 받아 다시 한번 세상과의 우정을 구하였다. 여기에 1844년 교회에 존재했던 세속화, 배교, 영적 사망이라는 무서운 상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첫 번째 천사 뒤에는 두 번째 천사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무너졌도다.” (계시록 14:8)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바벨"에서 파생되었으며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 종교나 배도한 종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은 성경에서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된 이미지인 여자로 표현됩니다. 순결한 교회를 대표하는 선한 여인, 배교한 교회를 은유하는 악한 여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의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부부 연합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엄숙한 언약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 연합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것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19). 그리고 다시 :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4). 그리고 바울은 신약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예비하였노라.” (고후 11:2).

교회의 신뢰와 애정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영혼을 차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에** 대한 교회의 불충실함은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과 비교됩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의 죄가 이 이미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느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내 것이 되었느니라.” “네가 왕후가 될 때까지 심히 아름답고 부흥하였더니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네게 둔 내 영광으로 네가 온전함이라

그러나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 때문에 네 자신을 타락시켰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자가 동무를 배신함 같이 네가 내게 범죄하여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남편의 처소는 낮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다.”(겔 16:8, 13-15, 32; 렘 3:20)

신약성서에서는 세상과의 우정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유사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바벨론은 “자주색과 진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음행의 어미라 하였더라.” 선지자는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계 17:4-6, 18)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국의 군주들에 대한 전체적 지배를 유지해 온 세력은 로마입니다. 보라색과 진홍색, 금색, 진주, 보석은 오만한 로마 교황청이 보여준 장엄함과 왕실의 화려함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박해해온 교회만큼 “성도의 피에 취한” 교회라고 진정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왕들"과 불법적으로 연결되는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교회가 매춘부가 된 이교도들과의 동맹; 마찬가지로 세상 권력의 지원을 구하여 자신을 타락시킨 로마도 동일한 정죄를 받습니다.

바벨론은 “창녀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의 딸들은 세상과 불법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 진리와 하나님의 승인을 희생하는 모범을 따르며 교리와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를 상징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한때 순결했으나 나중에 변질된 종교 조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므로 말세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로마 교회만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수세기 동안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아직 장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떠나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바벨론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느 종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들이 출현할 당시에는 하나님 편에서 고귀한 지위를 차지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복음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화려했으므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네게 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함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16:14).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멸하게 만든 동일한 욕망, 즉 행위를 본받고 악인과 우정을 구하려는 욕망에 빠졌습니다.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 때문에 네 자신을 타락시켰느니라."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땅의 왕들"과 사악한 동맹을 맺은 로마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교회는 세속 정부 및 다른 교단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호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빌론"(혼란)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기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유래한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상충되는 신조와 이론을 가지고 수많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분리된 교회들은 세상과 죄악된 연합을 한 것 외에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저서인 Catholic Christian Instructed에서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만약 로마 교회가 성인들과 관련하여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면, 그 딸인 영국 성공회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홉킨스 씨는 천년왕국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현재 로마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 만 국한된 반기독교 정신과 관행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신교 교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들어있어 부패와 사악함에서 완전히 개혁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장로교회와 로마교회의 분리에 관해 Dr. 거스리: "300년 전 우리 교회는 깃발에 성경을 펴고 기록부에 '성경을 연구하라'는 모토를 달고 로마 성문 밖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끗이 나왔느냐?”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찰스 스펀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회는 성례전주의로 완전히 삼켜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순응은 철학적 불신앙으로 인해 거의 악의적으로 찢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영국의 마음 자체는 여전히 감히 강단에 올라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개탄할 만한 불충성 때문에 부식된 것 같습니다."

이 대배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처음에 복음의 단순성에서 벗어났습니까? 이교도의 관습을 준수함으로써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불의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살후 2:7)고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는 동안 교회는 상대적으로 순수했습니다. 세기에 대부분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원시적인 단순성은 사라졌고, 옛 제자들이 무덤으로 내려간 후, 그들의 자녀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이... 앞장서서 사업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의 도래를 보장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의 높은 표준이 낮아졌고, 그 결과 “이교의 홍수가 교회를 침범하여 교회의 관습과 관행과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세속 통치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명목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걸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그들의 우상을 은밀하게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스스로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창립자들, 즉 진정한 개혁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후손들이 계승하여 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조상의 신조를 고수하고 어떤 진리도 미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반면, 개혁파의 자녀들은 조상들이 세운 겸손, 극기, 세상 포기의 모범에서 엄청나게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원시적인 단순성은 사라진 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범람하여 교회의 관습과 관행과 우상을 휩쓸고 갑니다.

거기!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우정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리스도교국 전체의 인기 있는 교회들은 겸손, 극기, 단순함, 경건이라는 성서의 표준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났습니까! 존 웨슬리(John Wesley)는 돈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도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옷이나 불필요한 장신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집 장식,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가구, 값비싼 그림, 그림, 금박에 그 일부를 사용하십시오.” “인생의 정욕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의 칭찬이나 칭찬을 받으려는 것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하여 좋게 말하리라.”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생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우아한 취향, 관대함, 환대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남자의 박수를 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하라." 그러나 당시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무관심하게 다루었습니다.

종교라는 직업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통치자, 정치인, 변호사, 의사, 상인 등은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고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라는 공언 하에 자신들의 부당한 거래를 은폐하려고 노력합니다.

침례받은 세상 사람들의 부와 영향력으로 강화된 다양한 종교 종파는 더 큰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호화로운 방식으로 장식된 화려한 교회들이 가장 잘 알려진 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숭배자들은 값비싸고 유행하는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재능 있는 목회자에게 높은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의 설교는 대중적인 죄를 언급할 수 없고, 교양 있는 귀에 매끄럽고 즐거운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행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교회 서적에 기록되고 그들의 죄는 경건하다고 고백하는 밑에 숨겨집니다.

주요 세속 신문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현재 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새 시대의 정신에 복종하고 예배 형태를 현대의 필요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종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진정으로 기여하는 모든 것을 이제 교회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뉴욕 인디펜던트(New York Independent)의 한 작가는 오늘날 감리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기와 예능." "종교가 인기를 끌면서 자신의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고 종교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워드 크로스비(Howard Crosby)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세상을 불경건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도회, 연극, 나체주의적이고 음탕한 예술, 모든 자유주의 도덕성을 지닌 사회적 사치가 신성한 한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식과 부활절과 교회의 장식에 관해 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교인들도 같은 멸망을 당할 지경에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것과 쾌락 추구의 조류 속에서 극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희생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는 남성과 여성 중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행할 수 있도록 희생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면... 누구도 기부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 안돼!

박람회, 연극, 코미디, 옛날 방식의 저녁 식사, 또는 뭔가 먹을 것을 먹어보세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위스콘신의 워시번 주지사는 연례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 전시, 자선 그림, 자선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복권, 상품 패키지 및 기타 유형의 상품 배포는 공짜로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의 온상입니다. ; 그것들은 그들이 행하는 우연의 게임이다." 그는 도박의 해로운 정신이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 자극되고 활기를 띠고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려는 정신이 그리스도교국 전역의 교회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설교한 로버트 앳킨스(Robert Atkins)는 영국에 널리 퍼져 있는 영적 쇠퇴에 대한 우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를 본받으며 위로를 사랑하며 존경 받기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르심을 받았으나 모든 비방을 싫어하는 자니라 ... 모든 교회의 정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느낀다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이 선포한 가장 큰 죄는 "모든 나라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제시하는 이 취하게 만드는 잔은 그녀가 지구의 위대한 자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결과로 채택한 거짓 교리를 나타냅니다. 세상과의 우정은 그녀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세상에 부패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경의 가장 분명한 주장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로마는 사람들의 성경을 억압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 자체 대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자기 교파의 신조와 가르침을 믿으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찰스 비처(Charles Beecher)는 개신교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교파들은 이렇게 서로의 손과 자신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은 성경 외에 어떤 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느 곳에서나 절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교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신조의 힘이 훨씬 더 교묘하게 성경을 금지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에는 상상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학식이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을 이해한다고 공언하고 건전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목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하고 예리한 진리로 확신을 갖고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일치해 사람들은 무엇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죄가 교회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으며, 그 후 심판의 경고가 가장 널리 선포되고 일반적으로 거부되었으며, 교회가 부패한 미국 교회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빨랐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당시의 교회들은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여"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모든 민족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정신과 우리 시대를 시험하는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이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나라에 있는 개신교 신앙의 교회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무서운 선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도 활동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기만"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역사"에 맡겨져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살후 2:9-11). 이 상태가 달성되고 교회와 세상의 연합이 그리스도교국 전체에 걸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점진적이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그분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 불만을 갖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연결된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헛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 종파가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할수록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결국에는 분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삼중 경고를 거부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완전히 도달할 때를 지적하며,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받아 별도의 친교. 이 기별은 세상에 전해지는 마지막 기별이며 그 일을 완수할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살후 2:12) 사람들이 외면하여 큰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거짓을 믿을 때, 진리의 빛이 마음이 열려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여호와의 모든 자녀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계시록 18:4)

22장

성취된 예언

1844년 봄, 처음으로 주님의 강림이 예상되던 때가 지났을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온 자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패배한 자들로 여기고 그들이 환상을 품고 있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로의 원천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조사하고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서의 증언은 분명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해할 수 없는 표징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가리켰습니다. 죄인의 회심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부흥에 있어서 주님의 특별한 축복은 그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했으며, 신자들은 그들의 실망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

그들이 재림의 때에 적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는 그들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에 특별히 적합한 교훈이 삽입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분명해. 때가 되면.

하박국은 2장 1~4절에서 “내가 감시하며 견고한 성 위에 서서 깨어 있어 내게 말씀하시는 이를 보고 무엇이 고발될 때에 대답할 것을 보고자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지나가는 자로 읽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까지 이를 것이니 그가 끝까지 말할 것이요 결코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 아니라 만일 지디시면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정녕 오시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부풀고 그 속에서 정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1842년 초에,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판에 환상을 기록하고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예언에 주어진 지침이 찰스 피치에게 환상을 설명할 목적으로 예언 도표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 그림의 출판은 하박국의 명령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예언에서 환상의 성취가 명백히 지연되는 시간, 지연되는 시간이 제시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후에는 이 본문이 매우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까지 이를 것이니 끝까지 말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지체하면 기다리라 그가 정녕 오시리라.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스겔의 예언 중 일부는 신자들에게 힘과 위로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너희가 이르기를 날이 길면 모든 묵시가 없어지리라 하는 이 말이 어찌이뇨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같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렀고 모든 환상의 말씀이... 내가 말하리니 나의 하는 말이 응하리라 더디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되 이 사람이 보는 환상은 여러 날에 대한 것이라 그가 먼 때를 가리켜 예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응할 것이다.” (겔 12:21-25, 27, 28)

기대하는 신자들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 모든 시대를 굽어살펴 보신 것을 믿고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느니라.

그는 그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유지 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성경의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 시련의 시간에 실패했을 것 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도 재림교회 사람들의 경험을 예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의 재림의 징조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계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 살렘의 멸망, 이교와 교황의 박해로 인한 교회의 큰 환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 별들이 떨어지는 것 등 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그분의 왕국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종을 묘사하 는 비유를 제안하셨습니다. 25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 천국은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교회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24장의 끝 부분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교 회입니다. 이 비유에서 교회의 경험은 동방의 결혼식 사건으로 설명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하였더라. 미친 여자들은 등은 가져갔으나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매 다 졸며 잠들더니 밤중에 소리가 들렸으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랑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 다.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한 대대적인 개혁은 처녀들이 떠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마 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계층이 표현됩니다. 그들은 모두 등불, 곧 성경을 들고 그 빛 아래서 신랑을 맞으 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릋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 습니다. 마지막 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말씀이 발에 등 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고 비추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으며, 큰 열정으로 마음과 생애의 순결을 추구했습니다. 그들 은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실망과 지체로 인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등은 가져가고 기름은 가져가지 아니하였” 습니다. 이것들은 충동적으 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엄숙한 기별에 의해 자극되었으나 그들은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하였고, 선한 감정의 흔들리는 빛에 만족하였고, 진리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이해 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희망에 가득 차서 주님을 만나러 나갔습 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연과 실망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그들 의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매 다 졸며 잘지니라.”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던 시간의 경과, 실망 과 표면적인 지연을 나타냅니다. 무관심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력은 약해졌으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 밑에 반석이 있어서 실망의 파도도 흔들릴 수 없 었습니다. 무관심하고 신앙을 포기한 부류와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 는 부류 그러나 시련의 밤에는 마지막 부류가 어느 정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점은 그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경박하고 냉담한 사람들은 더 이상 형제들의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서거나 넘어져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별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공언한 어떤 사람들은 유일하고 확실한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인상과 상상을 통제하도록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들의 절차를 승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면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신적인 사상과 행동은 재림교인의 큰 형제회 사이에서 동정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진리의 사업에 치욕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교회 운동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고 수천 명의 죄인들이 회심했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은 지연되는 시기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악의 왕은 그의 신하들을 잃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비난이 쌓이게 하기 위하여 신앙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을 속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대리인들은 모든 오류, 결점, 불편한 행위를 탐지하고 이를 가장 과장된 견해로 출판하여 재림교인과 그들의 신앙을 가증스럽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재림 때에 더 많은 수의 신앙고백을 하게 하고 그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통제할수록 그는 그들을 신자 전체의 대표자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조하는 자”이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주님의 백성의 잘못과 결점을 염탐하고 드러내면서 그들의 선행은 간과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실 때 그는 언제나 활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모든 부흥에 그는 마음이 성화되지 않고 마음이 균형되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어떤 점을 받아들이고 신자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그는 그들을 통해 부주의한 사람들을 속이는 이론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심지어 예배의 집과 주님의 식탁 주위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엄숙한 경우에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형태로 그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악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도성을 향한 여정에서 전진하는 모든 땅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심각한 난관에 부딪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세운 곳마다 믿음을 받았다고 공언하면서도 이단이 침투하여 받아들여지면 결국 진리에 대한 사랑이 소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변인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성경의 증거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광신적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큰 혼란과 고뇌를 겪었습니다. 믿음과 경험은 부족했지만 상당한 자립심을 갖고 어떤 소식을 듣거나 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교사들의 허세에 속았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감동시키신 것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과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한 웨슬리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든 단계에서 불균형하고 극단주의적이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온갖 광신주의로 이끄는 사탄의 속임수에 직면했습니다.

길레르메 밀러(Guilherme Miller)는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어떤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처럼 모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시대에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대답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무질서한 움직임에 사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성결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듯이, 사람이 오류에 빠져서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일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말씀 전체에서 완전한 조화를 발견한다면, 그는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가 인도함을 받는 영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책의 내용 전체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깨달으면 마귀의 율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히 행할지니라.” “나는 기독교계의 모든 소음보다 깨달은 표정, 눈물을 흘리는 얼굴, 상심한 말에서 내적 경건의 더 많은 증거를 자주 얻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적들은 광신주의와 싸우기 위해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광신주의의 모든 해악을 전가시켰습니다. 재림교회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주의자들과 광신자들의 오류를 왜곡하고 추론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불리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견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오셨다는 선포로 인해 그들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재림교인과 신앙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광신자들이 재림교인 대열에 침투했다는 사실은 바울이나 루터 시대에 교회에 광신자들과 사기꾼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더 큰 이유가 되지 않았으며,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 회개와 개혁의 일을 열렬히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면,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의 왕국의 타락한 천사들을 불러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광신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재림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1844년 여름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의 참된 입장에 대해 의심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한밤중의 외침”의 전파는 광신주의와 불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 곧 만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된 희망은 그들을 어떤 인간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었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패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다가 잠들더니 밤중에 소리가 들렸으니 신랑이로다 내가 맞으러 나갔느니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5-7) 2,300일의 끝으로 간주되었던 시기와 같은 해 가을 사이의 중간인 1844년 여름,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선포되었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이 운동을 촉발한 것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회복 칙령이 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2,300일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발효되었으며, 처음에 고려되었던 것처럼 연초가 아닙니다. 457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2,300년은 1844년 가을에 끝난다.

구약성서의 상징에 근거한 주장은 또한 가을을 "성소의 정결"로 대표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때로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상징이 성취된 방식에 주의를 돌렸을 때 이 사실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7). 부활절에 주님 앞에 흔들렸던 첫 열매 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그분의 모든 백성의 부활에 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5:23) 추수 전 잘 익은 곡식의 첫 번째 추수였던 흔들리는 단과 유사하게,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자들의 불멸의 추수의 첫 열매이시며, 그들은 장차 부활하여 신성한 곳간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충족되었습니다. 15세기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인 바로 그 날, 즉 유대력 첫째 달 14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신 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제정하셨다.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투옥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단의 원형으로서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로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변화하여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되리라'

(빌립보서 3:21).

마찬가지로 재림을 가리키는 예표도 상징적 예배가 지시하는 때에 성취되어야 한다. 모세 제도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즉 큰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칠월 십일(레 16:29-34)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신 후에 그는 나가서 백성에게 축복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인들을 멸하심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불멸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성소 정결의 날인 일곱째 달 열흘은 주님이 오시는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2300일이 가을에 끝날 것이라는 이미 제시된 증거와 조화를 이루며, 그 결론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에는 기다림과 졸음의 때가 지나고 신랑이 오느니라. 이것은 예언과 예표를 통해 제시된 논증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신자들이 "한밤중의 외침"을 선포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나라의 가장 먼 곳까지 다니셨습니다. 마치 해가 뜨기 전의 아침 서리처럼 광신주의는 이 선포가 있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은 의심과 당혹감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적인 영향력 없이 인간의 흥분이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종들이 보낸 경고의 메시지에 따라 굴욕을 당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간과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있었다

황홀한 기쁨은 적고, 마음을 더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죽어가는 영들의 부담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밀러는 그 작업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기쁨의 표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온 하늘과 땅이 영광으로 가득 찬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미래의 시간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환호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천국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가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무리, 즉 천국의 합창단에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의 충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마음을 깊이 살피고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경멸, 논쟁과 적개심으로부터의 고립, 잘못된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낙담, 간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날이 가까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의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금식하고 눈물과 애통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혜와 간구의 심령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여지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더니 땅에 큰 애곡이 있었고...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그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도 시대 이후의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 중에서 1844년의 타락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사탄의 속임수에서 더 자유로웠던 운동은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복된 사업의 거룩한 영향력을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신랑이로다 오시니 맞으러 나가라"는 외침에 기대하던 사람은 "일어나 등불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낙담한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졌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름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들판에 남겨두고 기계공들은 연장을 내려놓고 눈물과 기쁨으로 나와서 경고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이 운동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았으며, 이 메시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선포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결합되어 사업에 능력을 주었다.

"신랑이 오느니라"라는 메시지는 비록 성경의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감동적인 힘을 동반했습니다. 의심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셨을 때,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를 호위하는 군중과 합류하여 그 사건의 흥분에 압도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외침이 더 커지도록 도왔습니다. (마태복음 21:9). 마찬가지로, 재림교회 모임에 모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조롱할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주는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응답을 받는 믿음, 상을 목표로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폭우처럼 은혜의 성령이 임하셨네

그분을 열렬히 찾는 사람들에게. 속히 구속주를 대면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엄숙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감동시키는 능력은 그분의 축복이 신실한 신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게 연합되어 서로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외딴 곳에 모여 하나님과 교통했고, 종보의 소리가 들판과 숲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주의 승인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필요했으며, 그들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의 간증을 느끼면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실망할 운명이었다. 기대하던 시간이 지났으나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으며, 이제 그들은 마치 마리아가 구주의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13)

두려움의 느낌, 그 기별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동안 믿지 않는 세상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느낌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감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에서 회복되고 다시 비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어떤 사람들은 교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어 세상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처럼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삶보다 죽음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믿음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과 겁쟁이들을 자신들의 대열에 끌어들이고, 이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결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열렬하고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었던 대로 마지막 경고를 세상에 전달했으며 곧 거룩하신 스승과 하늘 천사들과 함께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근심과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조롱하는 세상의 풍자와 조롱을 견디는 것은 믿음과 인내에 대한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은 그리스도 초림 당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추종자들은 그분이 곧 다윗의 왕좌에 오르고 이스라엘을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희망과 즐거운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들은 그들의 왕을 존경할 기회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자신들의 걸음을 양탄자처럼 펴거나 앞이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그분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인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즐거운 환호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폭발로 인해 불안하고 짜증이 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제자들을 꾸짖기를 원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누가복음 19:40) 예언은 이렇게 해야 한다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쓰디쓴 실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안에 그들은 구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을 무덤에 눕힐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무덤에서 승리로 일어나실 때까지 그들은 모든 것이 예언에 예언되었으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행 17:3)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5세기 전에 주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자시요 가난하고 나귀를 타고 당나귀, 당나귀의 아들.” (슥 9:9).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예언을 성취하고 영감이 예언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을 드러낸 예언과 다른 메시지가 모든 나라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예언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때가 이르매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려 하신 일을 성취하였느니라.

세상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재림교회 전체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유혹을 받아 믿음에 굴복하는 반면, 굳건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운동의 열매, 즉 겸손과 성찰의 정신, 세상을 포기하고 생활을 개혁하는 정신은 이 사업에 수반되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재림의 전파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하지 못했으며,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능한 반대자들도 그의 예언 해석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은 마음과 그분의 살아 있는 능력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열렬하고 헌신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 도달한 입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적인 종교 교사들과 이 세상 현자들의 가장 가혹한 비판과 가장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웅변의 결합된 힘 저명한 사람들과 귀족들의 모욕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섰던 입장 겸손한 수업.

실제로 예상된 사건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니스웨 거리에서 40일 안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니스웨 사람들의 굴욕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니스웨는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깨우고 어느 정도 명백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분이 강림하실 때 하느님께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선을 그어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자기들이 어느 편에 있었을지, '보라, 이는 우리가 기다려온 우리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외쳤을지, 또는 그들이 바위와 산을 향하여 부르짖어 그들을 무너뜨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려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줄 믿노라 그리고 그들이 그 곳에서 후퇴할 것인지를 지켜보았다.

그가 자신을 배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치;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경험을 인도하셨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의 감정은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다음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했던 대로 했을 것이다." "나는 영혼의 피로 부터 내 옷을 빨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들이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비록 두 번이나 실망했지만 아직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나의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나는 수년간 진지하게 숙고한 후에 수행해야 할 엄숙한 의무라고 느낀 것만을 행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자선의 편에 선 것입니다. ,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압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만을 설교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일에서 나타났고 많은 선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 같으니 이로써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느니라." "나는 교만한 자의 승인하는 미소에 구애받을 적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낙담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호의를 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증오를 달래기 위해 의무를 넘어서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나는 물려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그렇게 요구하시면 나는 그녀를 폐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그들이 받은 빛을 무모하게 거절하지 않고 재림교회 운동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위기에 시험 받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때가 조금 남아서 장차 올 일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믿는 자니라." (히브리서 10:35-39)

이 경고가 마지막 날의 교회에 주어진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가리키는 말씀에서 분명해 집니다. "아직 때가 조금 남았으니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지체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교훈은 당시 재림교인의 경험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믿음이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체험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 앞에 놓인 길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의심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비추는 "한밤중의 외침"의 눈부신 빛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봉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알리는 표적이 신속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자면 눈으로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좌절된 희망에 압도되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세상은 "너희는 속았느니라. 믿음을 버리고 재림운동은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메시지를 뒷받침해 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멸망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굳건함을 유지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때가 이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의 유일한 확실한 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빛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지켜보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빛을 받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23장

성역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재림교회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이 된 본문은 다음과 같은 진술이었습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이 말씀은 주님이 곧 오실 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친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수천 명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암호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장 밝은 기대와 소중한 희망이 그 안에서 예측된 사건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예언의 시대는 1844년 가을에 끝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기독교 세계와 마찬가지로 재림교인들도 이 당시 땅이나 땅의 일부가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은 마지막 큰 날의 불 아래서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틀림없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났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현명하지 않게 어려움의 매듭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예상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시대가 1844년에 끝났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때 재림하셔서 땅을 불로 정결케 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그 날이 끝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전의 예언 기간 계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300일은 기원전 457년 가을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회복과 건설 명령이 발효되면서 시작됨을 알았고, 그 날짜를 기점으로 삼아 율법의 적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예언된 사건들 다니엘 9:25-27의 설명에서. 23세기라는 큰 기간 중 처음 483년인 69주일은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에게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27년에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세례와 기름부음은 이 명세를 엄격하게 성취했습니다. 70번째 이레 중간에 메시아가 데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31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70주, 즉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고, 서기 34년에 사도들은 그들의 사업을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첫 490년이 끝나고 2,300년의 대기간을 빼면 아직 1,810년이 남았다. 우리 시대 34년을 기준으로 하면 1,810년은 1844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성소가 깨끗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예언의 모든 규정은 정해진 때에 의심할 바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844년에 일어날 성소의 정결을 성취하는 사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날이 그때 끝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전체 문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틀림없는 성취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재림교회 운동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이 사업이 암흑과 실망으로 끝나도록, 거짓되고 광신적인 흥분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 가두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적 기간에 대한 앞선 계산을 폐기하고 그에 기초한 운동의 정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앙과 경험의 요점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언 연구에서 합법적인 해석 원칙을 채택했으며, 이미 발견된 진리를 고수하고 동일한 성경 연구 기준을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그들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오류가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소에 관한 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들은 지구가 성소라는 대중적인 해석을 뒷받침할 성경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주제, 성소의 성격, 위치 및 봉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작가들의 증언은 매우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모든 의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도 섬기는 예식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으니 예비한 첫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등대와 상과 화목이 있더라. 제의의 떡을 성소라 일컫느니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라 거기에 금 향로와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그릇이 있으니 만나가 담긴 금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1-5)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성소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상 처소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운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을 것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출 25:8)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는 동안 모세에게 주어진 지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고 성막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매우 웅장했습니다. 벽은 금으로 풍성하게 입힌 직각 널판으로 만들어졌고, 밀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붕은 휘장이나 덮개를 여러 개 엮어 만들어졌는데, 바깥 지붕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안쪽 지붕은 고운 아마포로 만들어서 그룹 모양으로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쪽 외에도 성막 자체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칸이 있었는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베일이 첫 번째 칸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성소에는 성막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일곱 등잔이 있어 밤낮으로 성소를 비춥니다. 북쪽에는 진설병의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고 향단에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향기로운 구름이 매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성소에는 궤와 금으로 입힌 귀중한 나무 상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느니라

그 그릇은 속죄소였는데 그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 화려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 칸에서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겉보기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대체되었는데, 비록 영구적인 구조와 더 큰 규모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비율을 준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전의. 이러한 형태의 성소는 다니엘 시대에 폐허로 남아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전 70년 로마인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성소이며, 성서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곳을 첫 언약의 성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는 성소가 없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바울이 앞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말에 두 번째 성소, 즉 새 계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바울이 이전에 이 성소를 언급했음을 결정합니다. 앞 장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말이 다 이루어졌으니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성소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과 참 장막에 속한 것이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라" (히브리서 8:1, 2)

여기에 새 언약의 성소가 드러납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것이요 모세가 지은 것이라 후자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다. 그 성소에서는 지상의 제사장들이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섬기시느니라. 한 성소는 땅에 있었고 다른 성소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막은 모세가 모형에 따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막의 식양과 그 모든 기구의 식양을 네게 보이는 대로 네가 행하라 하시고 또 다시 명령을 내리시되 너는 삼가서 행하라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 준 모형을 좇았느니라."(출 25:9, 40) 그리고 바울은 첫 장막은 "현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드리는 비유니"라고 말합니다. ;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니라",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의 모형이요 같은 하늘에 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리라"(히 9:9, 23; 8:5; 9:2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는 모세가 지은 성소의 모형인 위대한 원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성소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건축에 사용된 예술적 기술은 신성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벽은 순금처럼 보였고 금촛대 위에 있는 일곱 등잔의 빛이 사방으로 반사되었습니다.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빛난 금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커튼은 파란색, 보라색, 주홍색의 천사 형상으로 장식되어 장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현현인 거룩한 쉼기 나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상 성막의 비교할 수 없는 광채는 우리의 선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하늘 성전의 영광을 인간의 눈에 반사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이 계신 곳. 그 안에서 수천 명이 그를 섬기고 수백만 명이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단 7:10).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성전, 그곳의 찬란한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장엄한 건축물에서도 그 광대함과 영광이 희미하게 반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곳에서 수행되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해 가르쳐졌습니다.

하늘 성소의 성소는 지상 성소의 두 칸으로 표현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계 4:5). 그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두려고”(계 8:3)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칸을 묵상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곱 등불”과 지상 성소의 금촛대와 향단으로 대표되는 “금 제단”을 보았습니다.

다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계 11:19), 그는 지성소, 곧 안쪽 휘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기 위해 모세가 만든 신성한 그릇으로 대표되는 “그의 언약궤”를 관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제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였고, 모세는 그에게 보여 준 모형을 따라 지상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형이 천국에 있는 참 성소였다고 가르치고, 요한은 자기도 그것을 천국에서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와 공의로 견고히 세워져 있느니라. 지성소에는 그분의 율법, 곧 온 인류를 시험하는 위대한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담은 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으며,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죄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계획에서 정의와 자비의 연합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이 결합을 고안할 수 있고, 오직 무한한 힘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전체를 경이로움과 숭배로 채우는 연결입니다. 속죄소를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상 성소의 그룹들은 하늘의 군대가 구속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 공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수많은 무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의의 흠 없는 옷을 입히시어**, 그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은 천사들과 합류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은 “이름이 가지라”는 그분에 관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며 자기 보좌에 제사장이 되리니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슥 6:13).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이자 건축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잇돌이 되시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엡 2:20-22).

그는 “영광을 취”할 것이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해 대속받은 자의 노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Apoc. 1:5 및 6).

“그리고 그는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라.” 그분은 아직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좌”, 즉 “무궁한”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누가복음 1:32, 33).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계 3:21). 영원하고 자존하는 존재와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의 언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리라”(사 53:4). ; 히브리서 4:15; 2:18; 요한일서 2:1) 그의 중보는 상처 입고 상처난 몸, 흠 없는 생명의 중보입니다. 상처난 손, 찢린 옆구리, 찢린 발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탄원합니다. , 그의 구속은 무한한 비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 못지않게 아버지의 사랑이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원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한복음 16:26, 27).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고 후 5:19) 그리고 위에 있는 성소의 사역에 있어서는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성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성소”라는 용어는 첫째로 모세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으로 지은 장막을 가리키며, 둘째로 땅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가리킨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새 언약의 성소이며,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이 경륜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가리키는 성소는 오직 새 언약의 성소일 수밖에 없다. 2,300주야가 끝날 무렵, 여러 세기 동안 땅 위에 성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은 의심할 바 없이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그러한 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정결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충분히 가르쳐져 있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도 이와 같이 정결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짐승의]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였느니라(히 9:22, 23)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일반적인 봉사와 실제 봉사 모두에서 정결케 되는 일은 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느니라. 바울은 이 정결함이 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사함, 즉 죄를 깨끗이 하는 행위는 성취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성소와 관련된 죄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 예배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히 8:5)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고,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속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회개한 죄인은 날마다 자신의 예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가서 희생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자신의 형상으로 무고한 희생 제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동물은 죽었습니다. 사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11).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은 범법자의 생명을 요구한다. 그 피는 죄를 지은 죄인의 잃어버린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 성소로 옮겨져 휘장 앞에 뿌려졌고 휘장 뒤에는 죄인이 범한 율법이 담긴 궤가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비유적으로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것이니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사 회중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였음과 같더라 (레프.

10:17). 두 의식 모두 회개자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똑같이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일년 내내 날마다 계속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칸마다 속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더러움과 그 범한 모든 죄를 따라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모든 죄를 인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16:16, 19).

일 년에 한 번 큰 속죄일에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행된 작업은 사역의 연간 주기를 완료했습니다.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레 16:8). 여호와께서 제비 뽑으신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휘장 안에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도 뿌려야 합니다.

“아론은 두 손을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얹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것을 염소의 머리에 둘 것이요 염소를 보내어 지정된 사람의 손을 거쳐 그를 광야로 데려갈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외로운 땅으로 갈 것입니다.” (레위기 16:21, 22) 아사셀 염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그를 인도한 사람은 진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몸과 옷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전체 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그분의 혐오감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를 오염시키지 않고서는 죄와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각 사람은 속죄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활동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겸손한 하루를 보내도록 소집되었습니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전형적인 예배를 통해 가르쳐졌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희생제물의 피로 사하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를 성소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죄인은 피를 바침으로써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법죄를 고백하며 오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용서받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곧 율법 위에 뿌려 그의 요구를 만족시켰느니라. 그리고 중보자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성소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아사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모든 죄를 자백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그것들을 자신에게서 염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멀리 데려갔고 그들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행해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상 성소의 사역에서 모형적으로 행해진 일은 하늘 성소의 사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승천하신 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24)

연중 내내 성소의 첫 번째 칸, 즉 문을 구성하고 성소와 바깥 뜰을 분리하는 “휘장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장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시작하신 봉사 활동을 나타냅니다. 매일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어 속죄제의 피와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그분 앞에 그분 자신의 의의 귀중한 향기와 함께 회개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제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희망은 거기에 집중되었고, 바울은 이 희망이 "우리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까지 이르느니라. 휘장에는 우리의 선구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사 영원히 휘장에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승."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19, 20; 9:12)

18세기 동안 이 봉사 사업은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회개한 신자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에게 용서와 용납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부에 남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배에 매년 끝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 사업도 있다. 2,300일이 끝나고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그 때에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의 장엄한 사역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백성의 죄가 단번에 믿음으로 속죄제물 위에 놓였고,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지상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 시대에도 회개한 자의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놓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사실상 하늘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상 성소의 상징적인 정결이 그것을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써 완성되었듯이, 하늘 성소의 실제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제거함으로써, 즉 도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그분의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록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에는 조사, 곧 심판이 수반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계 22:12).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의 빛을 좇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사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죄를 마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대제사장은 그분을 중보자로 표현한 반면, 아사셀 염소는 죄의 창시자이자 참된 회개자의 죄가 궁극적으로 그 위에 놓이게 될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건제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서 죄를 제거할 때 그것을 아사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의 공로로 그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제거하실 때, 그의 봉사의 마지막에 그분은 그 죄를 심판의 집행에서 최후의 형벌을 짊어져야 할 사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내져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며, 죄와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될 때 존재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24장

지성소에서

성소의 주제는 1844년 실망의 신비를 드러내는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상호 연결되고 조화로운 진리의 완전한 체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재림교회 운동을 지도하셨음을 보여 주며, 현재의 의무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의 지위와 일. 고뇌와 실망의 끔찍한 밤을 보낸 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재림교인들도 “주를 보고 크게 기뻐”했으며,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분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무너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덤에 있던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 이니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그들은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시며 그들의 왕이자 구원자로 나타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오한 섭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면에서 정확했습니다. 이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

“산 소망이 있게” 거듭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 “이천삼백 주야까지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와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사역, 즉 조사 심판을 지적한 것이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300주야 후에 일어날 일이라 이 실수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실망하였으나 예언으로 예언한 모든 것과 성경 본문이 보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 신실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소망이 좌절되어 한탄하는 동시에, 말씀에 예언된 일, 곧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대했던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형적 예배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게 오시는 것으로 그분을 제시합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땅으로 향하지 아니하시더라” ,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인도하여 가까이 하였느니라.”

(단 7:13).

이 오심은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바 여호와께서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1)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오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불길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살후 1:8).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준비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도록 빛이 비쳐졌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대제사장을 따랐느니라

그곳에서 그들의 사역과 새로운 임무가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경고와 교훈의 또 다른 기별이 교회에 주어질 예정이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금세공인의 불과 같으시고 장색의 칼롬과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을 녹여 정화하는 자처럼 앉으실 것이다.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금, 은처럼 연단하실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말라기 3:2, 3)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의 품성은 뿌린 피로써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 그들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계속되고,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제거되는 동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정결케 하거나 죄로부터 분리되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제사가 옛날과 옛날과 같이 여호와께 기쁘시게 되리라.” (말라기 3:4)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으셔야 할 교회는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27) 그러면 그 여자가 새벽처럼 떠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강해지겠느냐?” (아 6:10).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오실 것에 더하여, 말라기는 또한 그분의 재림,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오실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마술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행인을 속여 빼앗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권리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5) 유다는 같은 장면을 언급하면서 “보라 주께서 수만의 성도와 함께 임하시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그들 중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4, 15). 이번 오심과 주님의 성전에 오시는 것은 서로 다르며 별개의 사건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오시는 것과 선지자 다니엘이 8장 14절에서 언급한 것; 또한 다니엘 7:13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오는 것; 말라기가 예언한 주님의 성전 재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제시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결혼식에 남편이 도착하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1844년 여름과 가을에 "신랑이 오십니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두 부류가 발전되었습니다. 한 반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쁘게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에 영향을 받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진리 이론에 만족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유에서는 신랑이 오실 때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신랑의 오심은 결혼식 전에 일어납니다. 결혼식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국의 수도이자 대표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양의 아내'라 불린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그 아내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선지자는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큰 성,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1:9 및 10). ~ 안에

그러므로 신부는 거룩한 성을 상징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계 19:9). 손님이기 때문에 신부로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선포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옛적부터 하늘에서 통치와 존귀와 나라를 얻으실 것이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그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입니다(단 7장). :14; 계 21:2) 왕국을 받으신 후,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의 왕국에 있는 그분의 식탁(마 8:11; 눅 22:30).

1844년 여름에 발표된 “신랑이 오십니다!”라는 선언은 수천 명에게 주님의 즉각적인 재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신랑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땅으로 오시지 않고, 옛적부터 하늘에 계신 이에게 오셨고, 혼인 잔치에 오셨고, 그분의 왕국을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느니라.” 그들은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지상에 있는 동안 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희 주께서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실 때에”(눅 12:36)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유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등불을 가지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얻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쓰러린 시련의 밤에 이 문제에 대한 더 분명한 빛을 성경에서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온 사람들은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사역이 변경된 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 성소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따라 동일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종보의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며 마지막에 그의 왕국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결혼식에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동일한 결혼식 이미지가 제시되고, 조사 심판은 결혼식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혼인 잔치 전에 왕은 손님들을 관찰하러 오며(마 22:11), 모든 사람이 혼인 예복으로 단정하지, 곧 어린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계 7: 14).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면 버림을 받지만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심문 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보좌에 앉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품성을 시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결정하는 이 일은 하늘 성소의 마지막 일인 조사 심판의 일입니다.

조사 사업이 끝날 때, 즉 모든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해 온 모든 사람의 형편이 조사될 때, 그때에만 시험의 시기가 닫히고 자비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는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는 구주의 마지막 성역을 거쳐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때로 인도됩니다. 완료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이는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봉사의 모형이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첫째 칸의 봉사가 그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갈 때에는 나오기까지 회막에 있지 말지니라.” (레위기 16:1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때에

속죄를 마무리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성소에서 그분은 첫 번째 칸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구획의 사역이 끝나자 즉시 두 번째 구획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모형적 예배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일에 성소를 떠날 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의 피를 바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사역의 한 부분만을 완성하시고 다른 부분을 시작하시며 여전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1844년 재림교인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주를 기대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위기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났다는 생각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허락된 시험의 기간이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직전에 끝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은혜의 문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도 열리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구절에서 이 교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온 날씨가 오하려 그분의 오심 직전 기간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한 후에 그들은 세상을 위한 그들의 할 일이 끝났음을 느꼈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수고의 부담을 그들의 영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서 물러났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험 기간이 끝났다는 믿음으로, 또는 그들 자신이 말한 대로 "시험의 문이 닫혔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문제를 조사하면서 더 분명한 빛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1844년에 2,300일의 끝이 큰 위기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동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희망과 은혜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죄 용서가 인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분은 사역의 한 부분을 끝내고 다른 부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향하는 "열린 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동시에 교회에 하신 묵시록의 그리스도 말씀의 적용이 이해되었습니다. 단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3:7, 8).

속죄의 위대한 사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분의 중재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중보 사역에 제시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초림 때 주신 빛을 거절하고 그를 세상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중보의 축복을 부여 하시려고 자기 피의 공로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져 계속해서 헛된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사역은 끝났다.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문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즉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찾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참 희생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의 활동을 기꺼이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부주의하고 믿지 않는 상태를 예시합니다. 모형적인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은 성소 주위에 모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회중에서. 이 속죄일에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아무런 처벌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노아 시대에 하늘에 의해 세상에 전달되었으며, 사람들의 구원은 그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갔고 사람들은 홍수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죄 있는 소돔 주민들에게 자비가 그쳤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살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8).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무한하신 능력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니라”

(살후 2:10-12) 그들이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로 그 속임수에 걸려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위하여 중재하시며, 빛을 구하는 이들에게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림교인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참된 입장을 정의하는 성경 본문이 그들 앞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184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재림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참된 지위에 관한 한 그들의 유일한 위안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빛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재림교회 운동에 동반된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간의 세력이나 사탄의 세력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과거의 경험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가르침을 끈질기게 붙잡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다리고, 지켜보고,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대제사장이 그분의 사역의 또 다른 부분을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또한 교회의 마지막 사업을 보도록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더 분명하게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들여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5장

불변의 하나님의 율법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 (계시록 11:19)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곧 지성소 곧 성소의 둘째 칸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지상의 장막 봉사에서 이 칸막이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속죄를 담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 그분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성소에 관한 주제를 연구한 후에 그들은 구주의 성역에 일어난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상 성막의 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단지 율법의 돌판을 담는 그릇이었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 법궤는 가치와 신성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성전이 열리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지성소, 하늘 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천둥소리 가운데서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친히 돌판에 친히 쓰신 율법입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돌판에 새겨진 계율이 틀림없는 사본인 위대한 원본이다.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불변하는 성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라”라는 구주의 말씀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18).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자 그분의 성품의 반영인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영원무궁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명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점 일획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거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다 신실하시니 영원히 서리라”(시편 119:89; 111:7, 8).

십계명의 핵심은 처음 선포된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써 무지하게 이 계명을 범했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대신에 주의 첫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넷째 계명이 폐해졌다거나 안식일이 바뀌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 처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결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고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식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의 표상이나 모형이라면, 지상의 법계에 보관된 율법은 하늘의 법계에 있는 율법의 정확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한 성경의 조화로운 해석에 대한 신랄하고 단호한 반대의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을 닫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3:7, 8).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즉 봉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열린 문에서 빛이 빛나고 있었고, 거기에 기록된 율법에 포함된 넷째 계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보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설명되어 있는 진리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메시지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지상의 주민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삼중 경고로 구성됩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라는 선언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종결되는 일을 가리킨다. 이는 구주의 증보가 끝나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선포합니다. 1844년부터 시작된 심판의 일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을 위한 은혜의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말로 주어집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판을 준비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은 판결에서 인격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이니라.”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롬 2:12-16)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좇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히브리서 11:6; 로마서 14:23)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그분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전 12:13).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누구든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요한일서 5:3; 잠언 28:9)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가 그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방의 신들보다 더 존경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권리가 제시되는 곳마다 그분의 창조 능력에 대한 증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느니라.” (시 96:5).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와 같게 하여 나로 있게 하려느냐

비슷한가?”라고 성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와, 땅도 조성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0:25, 26; 45:18)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리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100:3; 95:6)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존재들은 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하는지 선언합니다. 영광과 명예와 능력;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이니라”(계 4:11).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인간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반열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 중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안식일에 여호와를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10, 11) 안식일과 관련하여 주님은 그것이 또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는 표징”(겔 20:2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 상쾌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31:17)

“창조의 기념일로서 토요일의 중요성은 토요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이유를 항상 현존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신성한 예배의 바로 그 기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른 어떤 제도도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곱째 날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성한 예배의 참된 기초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중에서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결코 낡아지거나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한, 안식일은 그 표징이자 기념으로 남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보편적으로 준수되었다면 인간의 생각과 애정은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께로 향했을 것이며 결코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는 메시지는 특히 넷째 계명을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적으로 셋째 천사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선언한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계시록 14:9 및 10). 이 메시지에 사용된 기호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짐승과 우상과 표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러한 상징이 발견되는 일련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 탄생 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용과 함께 시작됩니다.

용은 사탄으로 선언되었다(계 12:9). 구세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에게 행동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사탄의 주요 행위자는 이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은 기본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를 상징합니다.

13장에는 용이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표범과 같은”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는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개신교도들은 교황권이 한때 고대 로마제국이 소유했던 권력, 보좌, 권위의 계승자인 교황권을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표범과 같은 짐승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에게 큰 말과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다니엘 7장의 작은 끝 부분으로 묘사된 것과 거의 동일한 이 예언은 의심할 바 없이 교황권을 가리킨다.

“그에게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는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포로로 끌려가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42개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즉 1,260일과 동일하며, 그 기간 동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간은 서기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 1798년에 끝났습니다. 그 때, 교황권이 폐지되고 교황이 프랑스로의 이주에 의해 포로로 잡혔을 때,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었고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상징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더라.” (계시록 13:11) 이 짐승의 모습과 나타나는 방식은 모두 그것이 대표하는 나라가 앞의 상징들에서 식별된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을 다스린 큰 왕국들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약탈적인 짐승들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싸울 때에”(단 7:2)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천사는 물이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15절)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람은 갈등의 상징이다.

대해에서 싸우는 하늘의 네 바람은 왕국이 권력을 얻는 정복과 혁명의 끔찍한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린양처럼 뿔이 달린 짐승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전멸시키는 대신, 이렇게 대표되는 국가는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영토에서 나타나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구가 조밀하고 호전적인 구대륙의 나라들, 즉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 난무하는 바다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대륙에서 찾아야 한다.

1798년에 권력을 잡고 힘과 위대함의 지표를 흔들며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신세계 국가는 어디입니까? 상징의 적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한 나라, 단 한 나라만이 북미 합중국을 명백히 가리키는 이 예언의 사양을 충족합니다.

이 나라의 출현과 발전을 묘사하기 위해 연설가와 역사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상, 즉 성서 작가의 말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짐승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역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일어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식물처럼 자라거나 싹트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기회를 가졌듯이, 국가는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영토에서 출현해야 합니다. 미국의 출현을 묘사하는 한 저명한 작가는 “공허함에서 비롯된 신비”에 대해 말하면서 “말없는 씨앗처럼 우리는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850년 유럽의 한 신문은 미국을 떠오르는 경이로운 제국으로 묘사했으며 “지구의 침묵 속에서 날마다 힘과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은 조국 건국 순례자들에게 대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지 말며 그 모호함 때문에 해가 없고

독재자들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레이덴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평화로운 정복을 통해 그들이 십자가의 장막을 세웠던 강력한 지역을 보라!"

"그리고 그에게는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었습니다." 양 같은 뿔은 젊음, 순진함, 유순함을 나타내며, 1798년 선지자에게 "부흥"으로 제시된 미국의 성격을 적절하게 나타냅니다. 처음 미국으로 도피한 추방된 기독교인들은 왕실의 억압과 성직자의 불관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기반으로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위대한 진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에게 자치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종교적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신의 힘과 번영의 비결입니다. 기독교계 전체에서 억압받고 무력한 사람들이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해안에 도착했으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양 같이 뿔 가진 짐승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계시록 13:11-14).

이 상징의 양 같은 뿔과 용 같은 목소리는 그 나라가 대표하는 것과 그 나라가 실천하는 것 사이의 현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국가의 "대화"는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동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그는 자신의 정책의 기초로 확립한 자유주의적이고 평화적인 원칙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용과 같이" 말하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것이라는 예언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을 통해 나타난 편협하고 박해하는 영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예고하는 것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이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선언은 그 나라의 권위가 교황권에 대한 존경의 행위인 어떤 의식을 강요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한 태도는 이 정부의 원칙, 자유 기관의 성격, 독립 선언문과 헌법의 직접적이고 엄숙한 진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창시자들은 교회가 세속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현명하게 노력했으며,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불관용과 박해였습니다. 헌법은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적 신탁 직위에 대한 자격으로 종교적 성격의 증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자유를 수호하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만 시민 당국이 종교 의식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의 불일치는 상징이 나타내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린양과 같은 뿔을 갖고 순결하고 자비롭고 순결하다고 주장하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명하여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입법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부 형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예언에 나타난 국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그 형상은 두 뿔 가진 짐승의 만든 것이요 첫째 짐승의 형상이니라 짐승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의 특성, 즉 교황권을 연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례와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게 되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에 대한 처벌에 사용하는 교회인 교황권이었습니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권력이 시민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그래서 국가 권위는 교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을 얻을 때마다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뒤를 이어 세속 세력과 동맹을 맺은 개신교 교회들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동일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예는 성공회 교회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장기간의 박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수천 명의 비국교도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강요당했고, 목사와 신도 모두 벌금, 투옥, 고문,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정부에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은 배교였으며, 이것이 바로 짐승인 교황권이 발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배도”가 올 것이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살후 2:3). 그러므로 교회의 배도는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1세기와 비슷한 종교적 쇠퇴 상태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명령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중상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사람들이 있으리라”,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완고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딤후 3:1-5)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느니라.” (딤후 4:1).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꾀술”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역사를 받아들여 거짓 것을 믿게”(살후 2:9-11)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의 광범위한 신앙의 다양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된 통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결코 수행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개신교 교회에서는 공통된 교리에 기초한 연합을 지지하는 강한 감정이 커져 왔습니다. 그러한 고수를 보장하기 위해,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없는 주제에 대한 논의는 피해야 합니다.

찰스 비처(Charles Beecher)는 1846년 설교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교단”의 사역은 “끔찍한 환경 하에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근본적으로 부패한 환경에서 살고 움직이고 숨쉬며, 진실을 숨기고 배교의 세력에 무릎을 꿇기 위해 매 순간 그의 본성의 가장 낮은 요소에 호소합니다. 로마의 상황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총회! 세계대회! 복음적 언약과 보편적 신조!" 이것이 성취되면, 완전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 한 단계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그들 사이의 공통된 교리적 요점에 연합할 때, , 그들이 국가에 영향을 주어 법령을 집행하고 기관을 지원한다면 미국 개신교는 로마 계층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반대자에게 민사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표를 받게 하여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 있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였느니라.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계시록 13:16, 17). 셋째 천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메시지에 언급된 두 뿔 가진 짐승의 명령을 받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즉 표범 같은 짐승, 즉 교황권입니다. "짐승의 형상"은 개신교 교회가 자신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할 때 발전하게 될 배도한 개신교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 후에 예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과 대조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범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의 특별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 곧 교황권과 관련하여 예언자 다니엘은 “그가 주의하여 때와 율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7:25). 그리고 바울은 이 동일한 능력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인다고 주장하는 “불법의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예언은 다른 예언을 보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교황권은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법을 양심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경을 수행한 권력에 최고의 명예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법에 대한 그러한 순종 행위는 하느님보다는 교황에 대한 충성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상 숭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삭제되었고,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 대신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둘째 계명이 생략된 이유로 그것이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의도하신 바로 그 율법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예측한 변화일 수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변화가 제시됩니다. “그는 때와 법을 변경하기를 힘쓰리라.” 넷째 계명의 변경은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킨다. 이에 대한 유일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여기서 교황권은 공공연히 하나님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특히 넷째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구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의 창조 능력의 표요, 넷째 계명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창조주의 기념물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오만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일요일을 옹호하는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국가 권력에 요청한 첫 번째 자원은 일요일 준수를 "주의 날"로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을 주의 날로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계명은 "제칠일은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날을 "나의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다.

2:28; 이사. 58:13).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바꾸셨다는 자주 언급되는 주장은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반박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이를 이루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17-19)

성경 어디에서도 안식일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미국 책자 협회와 미국 주일 학교 연합이 발행한 출판물에 솔직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품 중 하나는 "일요일에 대한 명시적인 계명이나 일요일 준수에 대한 명확한 규칙에 관한 신약성서의 완전한 침묵"을 인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그 날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사도들)은 제칠일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의 첫날을 지키라 명하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카톨릭은 안식일 변경이 그들의 교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개신교가 일요일을 준수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가톨릭 교리서 에는 넷째 계명 을 준수하여 준수해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 토요일을 일요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일요일은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시로서, 교황주의 저술가들은 "개신교도들이 인정하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바로 그 행위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요일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교회가 절기를 제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의 형벌 아래서." 그렇다면 안식일 변경이 로마교회의 권위의 표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로마 교회는 최상권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세상과 개신교 교회는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받아들인다. 비록 성경적 안식일은 거부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인정한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 전통의 권위와 교부들의 권위를 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의 종교이다"라는 로마와 분리되는 바로 그 원칙을 무시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사건에 관한 사실에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운동이 지지를 얻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로마의 깃발 아래 개신교 세계 전체를 집결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스스로를 축하합니다.

로마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바치는 헌사”라고 선언합니다. 개신교 교회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교황권, 즉 짐승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로써 그 안식일을 명령하는 유일한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 권력을 통해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교회는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지키면서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공동체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임을 정직하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의무화되고 합법적인 안식일의 의무에 관해 세상이 계몽될 때 로마의 계명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는 계명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교황권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와 로마가 명령한 제도를 강요하는 권력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로마교가 자신의 최상권의 표시로 선택한 제도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명예의 표시로 선언하신 제도를 거부할 때, 그들은 로마교에 대한 충성의 표시, 즉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놓여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위협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주어져야 하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왜 이러한 형벌을 받는지 알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야 합니다. 예언에서는 첫째 천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삼중 기별의 일부인 셋째 천사의 경고도 마찬가지로 널리 퍼져야 합니다. 예언에는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날아가서 세상의 이목을 끄는 큰 소리로 선포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교국은 두 개의 큰 부류,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든 사람,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을 강제로 “짐승의 표”(계 13:16)를 받기 위해 힘을 합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밋모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자들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계시록 15:2, 3)

26장

개혁 작업

말세에 이루어질 안식일 개혁의 일은 이사야의 예언에 예언되어 있다. . . . 이것을 행하는 자와 이것을 붙잡고 자기를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인자는 복이 있다.” “주께 나아와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된 이방인의 자손 곧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념하리라.” (이사야 56:1, 2, 6, 7)

이 말씀은 문맥에 나타난 대로 기독교 시대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가운데로 모으리라.” (이사야 56:8) 여기에는 복음으로 촉진된 이방인의 집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넘어 그분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는 때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증거를 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에게 봉인하라.” (이사야 8:16)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 있습니다. 열 명 중 이것만이 국회의원의 이름뿐 아니라 직함도 기록하고 있다. 그분은 그분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선언하시고, 이로써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예배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계명 외에 십계명에는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황권에 의해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봉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창조주의 기념일이자 그분의 권위의 표로서 그 정당한 위치로 다시 확립하고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증언을 위하여!" 상충되는 교리와 이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 교리, 이론을 시험해야 하는 유일하고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선지자는 “저희가 이 말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벽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8:20).

다시 명령하신다: “큰 소리로 외치라 주저하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백성”으로 지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 아는 것을 기뻐하며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백성 같으리라.” (이사야 58:1, 2) 여기에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반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가혹하고 엄숙한 질책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선지자는 잊어버린 규례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너는 대대로 기초를 세우시리니 사람들이 너를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길을 회복하여 거할 곳이라 일컬으리이다. 안식일과 내 성일에 너희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이라 존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행하는 체하지 아니하면 네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8:12-14)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로마 권력에 의해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위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도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부분은 복구되어야 하며, 여러 세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안식과 축복으로 거룩해진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아담이 결백한 가운데 지켰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회개한 후, 행복한 거처에서 추방된 후.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장들이 그것을 지켰으며, 선민들이 애굽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 만연한 우상 숭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모인 무리에게 놀랍고 장엄하게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영원히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 보존되었으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지켜졌습니다. 비록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일을 짓밟았지만,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도 한적한 곳에 숨어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각 세대마다 이를 준수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과 창조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러한 진리는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별시켜 줄 것입니다. 삼중 메시지의 결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선포가 있는 직후, 선지자는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땅의 소산을 거두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해력에 나타난 진리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볼 때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토록 귀중해 보이는 빛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행복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어울리지 않게 만드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계명을 순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요구가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추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요일을 지켰고, 우리 조상들도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선하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옳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온 세상을 상대로 제칠일 준수자들의 작은 집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 것도 비슷한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루터 시대에 교황주의자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 죽었으므로 종교가 구원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추론은 종교적 신앙이나 실천의 모든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적인 장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가 수세기 동안 확립된 교리이자 널리 퍼진 교회 관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여 안식일과 그 준수가 더 오래되었고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파되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하나님과 천사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뻐할 때에 안식일의 기초가 놓였느니라(욘 38:6, 7, 창 2:1-3). 이 기관은 우리의 존경을 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권위에 의해 명령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전통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의해 확립되었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식일 개혁 문제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되었을 때 대중적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탐구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일치하는 결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만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쟁과 궤변, 교부들과 교회 권위자들의 전통에 따라 진리를 파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 진리의 옹호자들은 넷째 계명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한 겸손한 사람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놀람과 분노로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이 스킨라의 미묘함보다 성경에 더 정통한 사람들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추론에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끈질기게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했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을 반대하는 동일한 논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저명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냥 당신처럼 믿으세요. 당신이 옳을 수는 없고 세상의 지식 있는 모든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론을 반박하려면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모든 시대에 그분의 백성을 다루셨던 역사를 인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필요하다면 불쾌한 진실을 말하고 대중적인 죄를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개혁 운동을 이끌도록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더 자주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신조, 이론, 신학 체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때때로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문맹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며 그들의 겸손과 순종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맡기심으로써 지상의 영광과 인간의 위대함이 하찮게 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영예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와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부했으며, 많은 사람들도 재림교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재림교회에 적용되는 예언에 대해 잘못되고 상충되는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정확한 시간을 반복해서 정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지금 성소 사건에서 비치는 빛은 재림 때까지 예언적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에 등을 돌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종종 실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근거 없는 생각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시험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 예언들을 그들에게 인용하였고, 그들이 그 시대에 주님을 기다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살후 1:2).

2:3) 이것이 그의 경고의 말씀이다. 만일 그들이 성경이 승인하지 않은 기대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행동 방침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은 그들을 불신자들의 조롱에 노출시킬 것이며 낙담에 빠지고 그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를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한 사도의 훈계에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은 주님이 오실 정해진 시간을 믿음으로 확고히 정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일에 열심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번번이 흥분하여 무너질 뿐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큰 충격을 받아 예언의 위대한 진리에 감명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정해진 심판 때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844년 가을에 2,300일의 끝을 정하여 이 메시지의 기초가 된 예언적 기간의 계산은 방해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예언 기간의 시작과 끝의 새로운 날짜를 찾으려는 반복적인 노력과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잘못된 추론은 현대 진리에서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언을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을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더 자주 정하고 그것을 더 널리 가르칠수록 그것은 사탄의 목적에 더 잘 부합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조장하고 그리하여 1843년과 1844년의 대재림교회 운동을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이 오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안락하게 될 것이며 너무 늦을 때까지 거짓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교인들의 과거 경험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재림교회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큰 실망 속에서 그의 믿음은 홍해에서 히브리인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전의 경험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전히 신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1844년에 함께 일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선포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 강력하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빛의 홍수가 세상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지구의 주민들은 수년 전에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폐쇄 작업은 완료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니”(히 3:19). 그들의 경솔함과 배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토록 지연되고 그분의 백성이 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토록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마치 그가 지적인 일을 거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비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경고를 듣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분의 오심을 연기하십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제시하면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비방을 받을까 함이 나라.” (요한복음 3:20)

사람들이 성경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옹호하기로 결심하고, 악의를 가지고 인기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동기를 공격합니다. 이는 항상 지켜져온 동일한 정책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선고받았고, 예레미야는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진리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동자, 이단자, 당파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너무 불신하여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현대의 죄를 감히 책망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을 의심할 바 없이 경솔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너무 어긋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악자로서 질책과 처벌을 받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리의 사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진리의 유일한 결과는 사람들이 진리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반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보류할 이유가 초기 개혁자들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성인과 순교자들의 신앙고백은 후세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확고한 성실함의 살아 있는 모범이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은혜와 진리를 받은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을 밝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그분의 종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고대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희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 2:7). 이때 하나님의 종에게는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기회가 허락하는 한, 진리의 빛을 받은 각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에게서 그것을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만일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지 말라 악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말라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악인을 그 길에서 돌이켜 돌이켜 그 길에서 돌아서라 하였을 때에는,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오직 주는 네 영혼을 구원하시리라' (겔 33:7-9).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것이 불편함과 수치심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결코 반박할 수 없었던 유일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대중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확신하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하고 중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고후 4:17)고 생각합니다. “, 옛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능욕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니라”(히 11:26).

직업이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정치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옳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은 원칙과 믿음과 담대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개혁.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위한 개혁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법은 마음에 있으니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좀이 옷처럼 먹을 것이요 벌레가 양털 같이 먹을 것임이니라 오직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르리라.”(사 51:7, 8)

27장

현대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곳마다 그 말씀의 신성한 기원을 입증하는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의 메시지와 동행하셨고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오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은 그들의 영혼의 은밀한 방을 밝혀 주고, 감추었던 어둠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확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죄와 의와 장차 심판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공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었으며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 그들의 죄와 불결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무한한 희생이 있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다. 그들은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은 “과거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혼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 새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이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한때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교만한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허영심 많고 거만한 사람이 진지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경건해지고, 술 취한 사람은 진지해지고, 방탕한 사람은 순결해졌습니다. 세상의 헛된 유행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곱슬한 머리, 금 장신구, 의복과 같은 외적인 것; 오직 마음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옷으로 연합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베드로 전서 3:3, 4).

부흥은 깊은 마음 탐구와 겸손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죄인을 향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 그리스도의 피를 얻기 위한 부드러운 동정심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그러한 각성의 열매는 극기와 희생을 움츠러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와 시련을 받기에 합당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영혼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그의 영향력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영생을 거두기 위해 성령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 중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슬픔에 잠긴 당신에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 왔는지! 얼마나 변호하고,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열심이며, 얼마나 복수하는가! 이 모든 증거는 이 문제에 있어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9-11)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이다. 그가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없습니다. 죄인이 전당물을 돌려주고, 흠친 것을 돌려주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죄인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종교적 각성 이후 첫 해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판단하여 그들은 인간의 구원과 인류의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부흥은 초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과 현저한 대조를 보여왔습니다. 폭넓은 관심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공언하며, 교회에 많은 참석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영적 생활에 대한 상응하고 실질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타오르던 빛은 이내 꺼지고, 어둠은 전보다 더 짙어진다.

대중적인 부흥은 종종 상상력에 대한 호소, 감정의 흥분, 새롭고 놀라운 것에 대한 사랑의 만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개종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으며,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증에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뭔가 선정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한,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습니다. 냉정한 이성애 호소하는 메시지는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경고는

들었다.

진정으로 개종한 모든 영혼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종자들은 세상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심하기 전보다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 이름을 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교도와 회의론자들의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많은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크닉, 교회에서의 연극과 전시회, 우아한 집, 개인 전시 등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토지와 소유물, 세속적인 직업은 마음을 사로잡고, 영원한 관심을 끄는 것들은 순간적인 관심조차 거의 받지 못합니다.

신앙과 경건이 널리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임하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사도 시대 이래로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원시적인 경건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대신한 교회에서 스스로 분리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선포하기로 결정하신 위대한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이 사업을 방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위조품을 도입하여 그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그의 기만적인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며 매우 특별한 축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종교적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영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종교적 위장을 통해 사탄은 기독교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많은 부흥들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한 영향이 작용하여 앞으로 더 큰 운동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인 감정적 흥분이 있는데, 이는 속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운동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증을 무시할 때마다

성경에서 극기와 세상 포기를 요구하는 명확하고 입증된 진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6)는 법칙을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계시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는 방패가 됩니다. 현재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의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중요성은 대부분 잊혀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 영속성, 의무적 성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개종과 성화와 관련하여 오류를 가져왔고 교회의 경건의 표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부흥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비결입니다.

다양한 종파에는 경건함으로 유명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 오늘날의 종교적 위험을 제시하면서 에드워드 박(Edward Park)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합니다.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은 신성한 율법을 집행하는 강단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강단은 양심의 소리의 메아리였다. 우리의 가장 저명한 설교자들은 그들의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율법과 율법의 교훈과 위험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연설에 압도적인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신적 완전성의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큰 격언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참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또 다른 위험, 곧 죄의 악의와 그 크기와 단점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계명의 공의에 비례하여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이미 언급한 위험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현대 강단의 경향은 신성한 자비와 정의를 분리하여 그것을 원리로 높이기보다는 감정에 담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학적 프리즘은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인가, 악인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가까이 준수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법과 공의, 그리고 인간 불순종의 범위와 단점을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죄를 속죄하는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곧 성경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쳐두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며 인간은 이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굴욕적인 멍으로 표현하고, 율법의 종살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음 아래 누리는 자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119:45)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십계명을 “최고의 율법”이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부릅니다(야고보서 2:8; 1:25).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반세기 후에 계시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니 이는 그들로 생명나무의 권세를 얻고 문으로 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계시록 11:1).

22:14 - 미국판 개정 및 수정).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하기는커녕 율법이 불변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영화롭게 하려” 오셨습니다(사 42:2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마태복음 5:17, 18)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의 법이 있습니다.” (시 40:8)

하나님의 법은 본질적으로 불변합니다. 그것은 저자의 의지와 성품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ROM.

13:10).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율법의 본질입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은 진리 그 자체니 주의 계명은 다 의로우니이다.” (소금.

119:142, 172).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롬 7:12).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표현인 율법은 그 창시자만큼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회심과 성화의 사업입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를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성한 형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인간은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은혜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탄생이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4)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 죄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의 표준으로 자신의 성품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성품의 완성을 보여 주시고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울이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에 대한 어떤 구제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범법자의 운명은 죽음임을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당신을 죄의 정죄와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범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의 죄 사함”을 얻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자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법을 확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3:21 및 6:2).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제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3). 거듭남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강력한 변화가 죄인에게 일어날 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범법과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옛 생활은 끝났습니다. 화해와 믿음, 사랑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롬 8:4) “율법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언어는 “내가 당신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내 명상이에요!” (시 119:97).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느니라.” (시 19:7).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 또는 그들 자신의 죄와 불순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로서 그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마음의 급격한 변화나 삶의 개혁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피상적인 개종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합류하지 않고 교회에 합류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성화에 관한 잘못된 이론은 현대 종교 운동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거짓이고 실제적인 결과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적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점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중으로 중요하게 만듭니다.

참된 성화는 성경적인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 범사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 4:3, 5:23)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이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7:17) 그리고 바울은 신자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롬 15:16).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13) 그리고 시편 필자는 “당신의 법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구체화된 정의의 위대한 원칙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의 사본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하여 형성된 성품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성품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5:10; 8:29)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 성화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여 자기의 기쁜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빌립보서 2:12, 13).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느낄 것이지만 죄에 대항하여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며 믿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57).

성경은 성화 작업이 점진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죄인이 회심하여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면 그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13, 14)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적 성화를 이루는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에 믿음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자아를 더하라.” 절제와 절제와 인내와 인내와 경건과 경건과 형제애와 형제애와 사랑을 다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5-10)

성경적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겸손의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들은 거룩하신 분의 무서운 위엄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과 고상한 완전성과 대조되는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범이었습니다. 그의 긴 생애는 주인을 위한 고귀한 봉사로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선지자는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죄 많은 현실과 동일시하면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많은 자비 속에.”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전히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였으니 ”(단 9:18, 15, 20).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얼굴은 변색되고 흥해졌으며,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 10:8).

욥은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 42:6).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룹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멸망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6:3, 5)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옮겨진 후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후 12:2-)라고 말했습니다. 4; 에베소서. 3:8).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영광을 바라보더니 죽은 자 같이 천사 발 앞에 엎드린 자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계 22:8).

갈보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걷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자랑스러운 주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생각이 그들을 굴욕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을 가장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습니다.

현재 종교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성화는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가져오며, 이는 성서의 종교에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옹호자들은 성화는 즉각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복이 너희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수렁인 측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표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따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투쟁이나 극기, 세상의 어리석음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쉬운 종교에 대한 열망은 신앙 교리, 오직 신앙만을 대중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없는 줄을 알고 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당신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봅니다. 사실,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14-24)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 기만적인 교리에 반대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은총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조항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알려진 죄를 범하면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이 침묵하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6). 비록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사랑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의 참된 성격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요한일서 2:4, 5). 여기에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거룩함의 유일한 표준에 따라 사람을 측정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거룩함을 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덕법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이 신의 계명을 축소하고 가볍게 하고 이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늘 보시기에 아무 가치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순결과 거룩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이 없고, 그분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성인으로 보는 죄의 악의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신의 성품과 주장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더욱 부적절할수록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에는 더욱 의롭게 보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성화는 존재 전체, 즉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고 흠 없이 보전되기를”(살전 1:1) 기도했습니다.

5:23). 다시 그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각 제물을 주의 깊이 검토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에서 어떤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초대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힘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인간이 창조주를 섬기는 데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 것에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 최고의 봉사를 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들의 존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식욕이나 정욕에 방종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쳐야 할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11).

모든 죄악된 방종은 기능을 무디게 하고 정신적, 영적 지각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은 마음에 약한 인상을 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합시다.” (고린도후서 7:1)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갈라디아 5:22, 23).

이러한 영감받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추구하거나 유행을 숭배하는 데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금지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신의 형상을 따라 남성다움을 저하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책망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약해서 공급할 수 없는 보고를 채우기 위해 너무 자주 식욕, 이득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사랑을 호소함으로써 악을 조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들어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축제와 세속적인 거래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 모독자들도 쫓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먼저 성결”하다고 선언합니다. 만일 담배로 오염된 입술에 예수의 보배로운 이름을 담고, 그 역겨운 냄새에 호흡과 몸이 오염되고, 하늘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독을 흡입하게 하는 자들을 만난다면, 복음의 순수성에 어긋나는 행위에 접하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악마적인”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성결의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담배 종들은 천국 소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Apoc. 21.2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신은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 20).
몸이 성령의 전인 사람은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활력은 피의 값으로 그를 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분을 낭비함으로써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쓸모없고 해로운 방종에 매년 막대한 돈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영혼들은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여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헌물을 빼앗기시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복음을 지지하기 위해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적인 정욕의 제단에서 소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성결하게 된다면, 그들의 재산은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로운 방종에 소비되는 대신에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희생의 모본을 세울 것입니다. .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겸손에 버려졌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라, 가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이사야 52:11)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죄악된 활동과 세속적인 만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성화는 참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가라, 가라, 거기에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조건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고후 6:17, 18).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풍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12) “의인의 길은 돌은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잠 4:18). 믿음과 순종의 각 단계는 영혼을 세상의 빛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밝은 광선이 하나님의 종들 위에 비치며, 그들은 그들을 반사해야 합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우주의 큰 빛을 말하듯이

하늘은 그 영광으로 그들을 밝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품이 찬양 받고 본받을 만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의 은혜, 그분의 품성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그분의 증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축복을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기쁨과 함께.” (골로새서 1:9-11)

다시 그는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의 극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기록합니다. 그분은 가장 포괄적인 언어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로서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여 너희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하노라”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엡 3:16-19).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고 우리도 그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13)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14)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겸손이지만, 슬픔과 자기비하로 특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정죄와 어둠 아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이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걷는 것은 진정한 겸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와 정결케 되어 치욕과 후회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타락한 아담의 자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11)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4).

하느님의 종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 8:10).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이것이 성경적 회심과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제시된 의의 큰 원칙들이 기독교 세계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의 부흥을 특징으로 했던 하나님의 영의 깊고 지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함과 거룩함을 보여 주신 신성한 계율을 무시할 때

그분의 성품과 인간의 가르침과 이론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실천적인 경건이 쇠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으니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시 1:1-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길가에 서서 알아보고 옛 길 곧 선한 길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심을 얻으리라.” (렘 6:16).

28장

조사 판결

예언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는 불이더라. 그분 앞에서 불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법정이 자리를 잡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 7:9, 10).

그리하여 온 세상의 심판자 앞에서 인간의 품성과 생활이 검토되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크고 엄숙한 날에 대한 이상이 선지자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시 90:2). 모든 존재와 모든 법의 근원이시며 심판을 주관하셔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봉사자이자 증인으로서 이 대재판에 참석합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와 그들이 그를 그에게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고,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3, 14).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그분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끝나면 그에게 주어질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해 옛적부터 계신 하늘에 오십니다. 2,300주야의 마지막인 1844년에 예언에서 예언된 것은 그분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이 오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을 위해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조사 심판을 집행하고 그 혜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전형적인 예배에서는 자백과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범법이 속죄제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속죄일 예배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속죄와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에 고려되는 유일한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뚜렷하고 별개의 일이며 나중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먼저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베드로전서 4:17).

사람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 하늘의 기록서는 심판의 결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뜰이 앉았고 책들이 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시자 요한은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영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20) 바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해 말합니다(빌 4:3). 다니엘은 “전혀 없던 환난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단 12:1). 그리고 계시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계 21:27).

“그 앞에 기념비가 기록되었으니” 그 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말 3:16)의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말과 사랑의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전과 그를 섬기기에 베푼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 책에는 모든 정의의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악을 극복하고, 표현된 모든 부드러운 동정의 말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낸 모든 고통과 슬픔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 때에 당신은 내 걸음을 세어 주셨고, 당신은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 56:8).

사람의 죄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심지어 은밀한 일까지 선하든 악하든지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36, 37) 은밀한 목적과 동기는 틀림없는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둠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생각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고전 4:5). “보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이 함께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라”(사 65:6, 7).

각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검토되고 그의 충실함과 불성실함에 따라 기록됩니다. 하늘 책에 있는 모든 이름은 모든 불의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모든 이행되지 않은 의무,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교활한 위선, 하늘이 보낸 경고와 책망의 무시, 때와 시기를 무시하는 등 엄밀하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낭비된 기회, 선과 악을 위해 행사된 감화, 그 모든 광범위한 결과를 기록하는 천사는 모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에서 인간의 품성과 삶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현명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 14) 사도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과 같이 말하십시오.” (야고보서 2:12). 심판 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누가복음 20:35, 36).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9)고 선언하십니다. 죽은 의인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에서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기록을 조사하고 사건이 판결될 때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변호자로 나타나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일서 2:1).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9:24; 7:35)

심판 때에 기록책이 펴지듯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검토됩니다.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처음 살았던 우리의 변호자는 각 세대의 사례를 제시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례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이름이 언급되고 모든 사례가 엄격하게 조사됩니다. 이름은 허용되고 이름은 거부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지 아니한 죄가 기록책에 기록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지고 그 선한 행실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모두 내 책에서 지워 버리겠다.” (예 32:33).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면 그는 자기가 범한 범죄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다.” (겔 18:24).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희생으로 주장한 모든 사람은 하늘 책에 그들의 이름 옆에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보여질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며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43: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포크.

3:5).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32, 33).

지상 법정의 판결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가장 깊은 관심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땅의 심판자 앞에서 검토될 때 하늘 법정에서 보여지는 관심을 단지 희미하게 나타낼 뿐입니다. 신성한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범법을 용서받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회복되어 당신과 함께 “첫 번째 통치권”의 공동 상속자로 면류관을 쓰도록 간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인류를 유혹하고 속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의 신성한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인간이 결코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계획이 수행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하고 완전한 용서와 칭의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대상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동안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범법자라고 비난한다. 큰 사기꾼은 그들을 회의론으로 이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한 품성의 결점, 그리스도와 다른 점, 그가 그들이 범하도록 유혹한 모든 죄를 지적하며,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믿음을 보이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시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상처 입은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하나님이며” (시 51:17).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불에서 꺼낸 낙인이 아니냐?” (속 3: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옷 입히셔서 그들을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엡 5:27)로 아버지께 드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그들에 관하여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니 그들은 합당하리라”(계 3: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그들의 불의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31:34; 50:20) “그 날에 주님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자랑이요 장식품이로다 시온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평생 등록된 모든 사람이니라.” (이사야 4:2, 3)

조사 심판의 역사와 죄를 도말하는 일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사람의 죄가 지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상쾌한 때가 이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행 3:20)면 신자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주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배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를 한 대제사장이 나와서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실 때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28), 그분의 기대하는 백성에게 영생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제거한 후 그것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를 죄의 창시자요 조장자인 사단에게 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신 아사셀을 보내사

광야로(레 16:22).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한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어 천년 동안 이 땅에 갇히게 되고 그 후에는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며 결국에는 모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악인을 멸할 불이니라. 따라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죄가 근절되고 기꺼이 악을 버리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심판 때인 1844년에 죄를 조사하고 도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면밀한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기록부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날에 죄인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낮의 빛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악한 행위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분 앞에 공개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든 죄를 목격하고 그것을 틀림없는 기록에 기록했습니다. 죄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및 동반자에게 숨겨지고, 부인되고, 은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 자신 외에는 누구도 악행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지만 천상의 지능들 앞에서는 분명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의 암흑, 모든 기만적인 술수의 비밀은 영원하신 분에 대한 지식의 단 한 생각도 덮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공정한 계산과 모든 부정직한 거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경건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품을 평가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위장을 꿰뚫으시고 속사람의 속마음을 읽으시느니라.

이 생각은 얼마나 엄숙한가! 날마다 영원을 거쳐 하늘의 책에 그 양의 기록을 가져갑니다. 한 번 한 말, 한 번 행한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선과 악을 모두 기록합니다. 지상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라도 단 하루의 기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 모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들은 정당화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증언할 것입니다.

사진에서 얼굴 특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현되는 것처럼 하늘의 책에도 성격이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존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이 기록에 얼마나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는 장막이 걷히고, 심판 때 다시 직면하게 될 모든 말과 행위를 천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자녀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멈추고, 얼마나 많은 행위가 남겠는가? 푼!

심판에서는 각 재능의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맡긴 자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소유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육체적, 육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까? 우리는 시간, 펜, 목소리, 돈,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고 오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모든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인간의 숨겨진 이기심은 하늘의 책들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구주의 요구를 잊어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시간과 생각과 힘이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넘겨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천국에 가져간 기록은 슬프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지성 있는 존재들은 세상적인 소유물을 얻거나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돈과 시간과 힘은 과시와 방종 때문에 희생됩니다. 그러나 기도, 성경 연구, 영혼의 굴욕, 죄 고백에 바쳐진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계락을 고안합니다. 대기만자는 속죄의 희생과 전능하신 중재자를 드러내는 위대한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의 중보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이나 과시 또는 이익 추구에 소비하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열렬하고 헌신적으로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의 주제와 조사심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지위와 사역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위치를 차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각 개인은 구원하거나 구원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않다. 각 사람은 위대한 심판관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다니엘과 함께 각 개인이 자기 운명에 처하게 될 때, 심판이 내려지고 책들이 펴지는 장엄한 장면을 각자가 자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주제에 관해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참된 중심지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살아 있는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데려가시며, 정의와 죄 사이의 투쟁이 승리로 끝났음을 보여 주소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깊이 조사하고 그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중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이나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곳은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휘장 너머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20). 거기에는 갈보리의 빛이 반사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속의 신비에 대해 더 분명한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늘이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성취됩니다. 치르신 희생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주장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고, 그분의 중재를 통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진실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잠언 28:13).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행위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서둘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것입니다. 품성의 결함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 전체를 지배하려고 노력하며, 만일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그의 노력이 성공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꾀변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처 입은 손과 몸을 당신에게 내어 주시며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고후 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냐면 내꺼야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9, 30) 아무도 당신의 결점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모형적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까 두려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욕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제 남은 시련의 기간 동안 죄에 대한 슬픔과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깊고 충실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경박하고 경박한 정신은 버려야 합니다. 지배권을 위해 싸우는 악한 경향을 제압하려는 모든 사람 앞에는 엄청난 투쟁이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본질적으로 개인입니다. 우리는 그룹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함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비록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은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의 깊고 예리한 조사로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실 것입니다. 각 제품은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없이 시험을 거쳐 발견되어야 합니다.

속죄의 마지막 사업과 관련된 장면은 엄숙하다.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소. 이 작업은 4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곧 - 얼마나 빨리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그녀는 살아 있는 사람의 문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앞에서 성찰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영혼이 다음과 같은 구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33)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3).

수사심판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직전에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때를 바라보시며 계시록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누구나 여전히 불의합니다. 더러운 사람은 누구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공의를 행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여전히 거룩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묵시록 22:11 및 12).

의인과 악인은 여전히 지상에서 필멸의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고 짓고 먹고 마실 것이며,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하늘 성소에서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그를 큰 배에 가두시고 악인들을 밖에 두셨으나 사람들은 칠일 동안 자기들의 멸망이 정한 줄 모르고 방탕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을 비웃는 생활을 하였느니라 임박한 멸망에 대한 경고.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39). 한 밤중의 도둑처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최종적으로 철회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볼까 염려하라.”

(마가복음 13:35, 36) 지켜보는 데 지쳐서 세상의 매력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의 상태는 위험합니다. 사업가가 이익 추구에 열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유행의 노예가 자신을 치장하는 동안, 온 땅의 심판관께서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 “무거워서 너희를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느니라.”

(단 5:27).

29장

악의 근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기원과 그 존재 이유는 큰 혼란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불행과 황폐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악의 일을 보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존재의 통치 아래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확실성과 의심으로 인해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계시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죄의 존재에 관해 조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조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의심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말씀을 거부하는 구실로 이것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통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통치의 본질, 죄를 다루시는 원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악의 큰 문제에 관해 만족스러운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죄의 존재 이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원과 최종 처분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악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유입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다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의적으로 철회되거나 하나님의 정부에 결함이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죄는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침입자입니다. 그것은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변명하는 것은 그를 변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찾을 수 있거나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 즉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과 전쟁을 벌이는 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침투하기 전에는 온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성품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보좌나 주권이나 정사와 권세나(골 1:16).** 하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충성을 바쳤느니라.

사랑의 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그분의 위대한 공의 원칙과의 완벽한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사랑하는 봉사, 즉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경의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강요된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자원하여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타락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고 하늘 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 중 첫 번째이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측량하는 자라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으로 너를 덮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 지키게 한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웠도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독 사이에 왕래하였음이여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성하기까지 네 행위가 완전하였도다 당신에게서 발견됐어요.” (겔 28:12-15).

루시퍼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남아 전체 천사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자신의 고귀한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 광채로 말미암아 네 지혜를 더럽혔느니라.” (겔 28:17). 조금씩 루시퍼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네가 이르되...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높이며 집회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으리라.” (에스겔 28:6; 이사야 14:13, 14) 루시퍼는 피조물들의 애정과 충성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삼으려는 대신, 자신을 위한 그들의 봉사과 경의를 얻으려는 기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예를 탐내면서 이 천사 왕자는 그리스도께서 독점적으로 소유하신 능력을 갈망하였습니다.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협화음 이 하늘의 조화를 좌절시켰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어긋나는 자아를 섬기고 높이는 것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는 나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 의회는 루시퍼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함과 선하심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국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그녀에게서 돌아서서 그의 창조주에게 불명예를 돌리고 스스로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저항의 정신을 일깨웠을 뿐입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심이 만연하도록 내버려두었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대한 교만은 패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시퍼에게 부여된 높은 영예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채와 높임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천군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는 그들보다 더 나은 지혜와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인정받는 하늘의 주권자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권세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참여하셨으나 루시퍼는 신성한 목적을 꺾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천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최상권을 가지셔야 합니까? 왜 그분은 루시퍼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나요?”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만의 영을 퍼뜨리기 위해 나갔습니다. 신비한 비밀 속에서 행동하고 한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실제 목적을 숨긴 그는 천체를 다스리는 법칙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법칙이 그들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거룩한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천사들이 그들 자신의 뜻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큰 권력과 명예를 갈망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주민을 위한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높은 존재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루시퍼를 오랫동안 용납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충실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높은 지위에서 즉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천국에 머물렀으며, 회개와 복종을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직 무한한 사랑과 지혜만이 고안할 수 있는 노력이 그의 잘못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불만의 영은 천국에 알려진 적이 없었으며, 루시퍼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자신의 불만이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오류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요구가 의로우며, 온 하늘 앞에서 그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신과 많은 천사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지위를 잃었으나 만일 그가 창조주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정하신 자리를 채우는 데 만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했다면 그는 다시 직분에 복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그는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한 다음 창조주에 대한 대쟁투에 완전히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그의 특권적인 정신의 모든 능력은 그의 지휘 아래 있던 천사들의 동정을 얻을 목적으로 속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높임을 받은 천사에게 경고하고 조언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의 반역적인 계획에 봉사하기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극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자신이 부당한 판단을 받았으며 자신의 지위가 존중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섞은 데서부터 계속해서 편협함과 노골적인 거짓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기 위해 창조주의 말씀과 행동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 교묘한 논증을 통해 천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로 둘러싸고 교활한 왜곡을 통해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에 의심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주장에 큰 힘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에 그와 가담하도록 유도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로 사탄이 불만의 영이 무르익어 적극적인 반역으로 발전할 때까지 그의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발전되어 그의 진정한 본성과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기름부음받은 그룹으로서 루시퍼는 매우 높임을 받았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주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하도록 이끌 수 있다면 다른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꾀변과 사기를 사용하면서 교활하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함으로써 그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성격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사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큰 영광을 받았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에 싸여 있어서 그의 일의 진정한 본질을 천사들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죄가 완전히 발전하기 전에는 죄의 진정한 악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거룩한 존재들은 그것의 본성과 사악함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될 무서운 결과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교묘하게 공언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정부의 안정과 하늘에 사는 모든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명령을 받는 천사들의 영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면서 교활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불만을 없애기 위해. 그가 하나님 정부의 질서와 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천국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아첨과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천사들 앞에서 그분의 정부 계획을 거짓으로 나타내려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하늘 주민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반포하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단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이 하늘의 거민들과 또한 창조된 모든 세계 앞에 보여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유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찬탈자의 진정한 성격과 그의 실제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하늘에서 발생한 불화가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행정의 결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여호와의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주장의 성격과 자신이 주장하는 신법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할 것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우주는 사기꾼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천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도 무한하신 지혜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찬 봉사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그분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천국과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죄의 본질이나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즉시 존재에서 제거되었다면, 그들은 사랑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겼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파괴되지도 않았고,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완전히 성숙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없는 세기에 걸쳐 온 우주의 이익을 위해, 사탄은 자신의 원칙을 더욱 완전하게 발전시켜 하나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 참된 빛으로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원히 의심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의 반역은 모든 시대에 걸쳐 온 우주에 교훈이 되고 죄의 본질과 무서운 결과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통치의 결과, 즉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성한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안녕이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의 존재에 달려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듯, 반란의 끔찍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모든 거룩한 지성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며, 그들이 범죄의 본질에 대해 속는 것을 막고, 죄를 짓고 그 형벌을 받는 일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대찬탈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이 하늘의 행복의 거처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그 반역 지도자는 창조주의 율법을 경멸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으며, 천사들을 언제나 의롭게 인도할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놔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령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면 천군이 더욱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실존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사단과 그의 군대는 자신들의 반역에 대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책임을 돌리고 만일 고소를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불충성에 대한 단호하고 반항적이며,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그들이 억압적인 세력의 무고한 희생자들이었다고 신성모독으로 항의한 대반역자와 그의 동조자들은 마침내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바로 그 정신이 여전히 땅에서도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정책을 인간들에게도 채택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본을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부과를 깨뜨리고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범함으로써 자유를 약속하려고 노력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여전히 증오와 저항의 정신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양심에 전달될 때, 사단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마치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화를 냅니다. 의로운 아벨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감히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여 주님을 전제적이고 비타협적인 존재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제한이 그 자신의 반역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순결한." (출애굽기 34:6, 7)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심으로 그분의 의를 선포하시고 그분의 보좌의 영광을 유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배도한 영의 미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죽도록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속죄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논증은 루시퍼가 선택한 죄의 길은 결코 하나님의 정부에 기인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줍니다.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에서 큰 사기꾼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구속주에 대항하는 그의 잔인한 투쟁만큼 하늘 천사들과 충성스러운 온 우주의 애정에서 사탄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그의 뻔뻔스러운 신성모독, 산 꼭대기와 성전 꼭대기로 그를 데려가는 그의 헛된 담대함, 그의 마음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의도

우리 주님은 여기저기 그분을 공격하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의와 아찔한 높이에서 몸을 던져 사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도록 고무시켰으며 마지막 외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 모두 이것이 우주의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선동한 사람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악의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의 모든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주의 자비와 사랑, 그분의 동정심과 부드러운 감미로움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자가 하는 모든 말에 반대했으며, 사람들을 그의 대리자로 고용하여 구주의 생애를 고통과 슬픔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예수의 사업을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꾀변과 거짓, 불순종의 자녀들에 대한 명백한 증오, 전례 없는 선한 삶을 사셨던 그분에 대한 그의 잔인한 비난, 이 모든 것은 뿌리 깊은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억압된 시기와 악의, 증오와 복수의 불길의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터져 나왔고, 온 하늘은 그 광경을 말없는 공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희생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실 때까지 천사 송배를 거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24) 그러자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이다”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1:6).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얼룩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굴욕은 끝났고, 그분의 희생은 끝났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의 죄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로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의 자녀들을 다스리던 것과 동일한 정신이 분명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늘의 거민들을 다스리도록 허락되었다면 그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으나 그러고 승영. 그러나 나타난 것은 타락과 예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부에 대한 사탄의 거짓 비난 그들의 진정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단지 자신을 높여 하신다고 비난했으며, 창조주께서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극기를 요구하셨으나 친히 이를 실천하지 않으셨고 희생도 하지 않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주의 통치자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고후 1:2). 5:19). 또한 루시퍼가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의 원칙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하늘은 사탄을 정죄하고 인간을 구속하는 데서 나타난 그분의 의를 보았습니다. 루시퍼는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고 그 형벌이 소급될 수 없다면 모든 범법자는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악마는 죄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으며 따라서 그들의 정당한 먹잇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 유리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형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 떨어졌으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참회와 굴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우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요

단지 이 세상의 주민들이 법을 마땅히 인식해야 하는 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법은 불변함을 우주의 모든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시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계명을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변경될 수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희생은 정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의 기초라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줍니다(이 속죄의 계획만이 성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죄의 존재 원인이 없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될 것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가 사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반역하고 내 나라의 백성을 빼앗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악의 창시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입은 닫힐 것이며 모든 반역하는 군대는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선언하는 동시에 죄의 샅은 사망임을 우주에 선포합니다. 죽어 가는 구주의 “다 이루었다”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속에서 사단에 대한 죽음의 판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쟁투가 결정되었고, 최종적인 악의 근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덤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나라”(히 2:14).

자기를 높이려는 루시퍼의 열망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으니 (이사야 14:13, 14; 에스겔 28:18, 19) 그 날이 이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거 같으리니 그 오는 날이 그들을 살라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라 뿌리와 가지도 남겨 두지 말라.” (말라기 4:1)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주었을 그들의 결정적인 근절이 이제는 그분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존재들의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고 그분의 명예를 확립할 것입니다. 다시는 악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는 두 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훔 1:9). 사탄이 속박의 멍에를 메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자유의 법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시험되고 검증된 창조물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혜의 표현으로 그들 앞에 그 성품이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에서 결코 다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30장

인간과 사탄 사이의 적대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인간이 타락한 후 사탄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선고는 또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대에 이르며,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인류가 겪게 될 대쟁투를 예고하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두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의 법을 어겼을 때, 그의 본성은 악해졌고, 사탄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과 죄의 창시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적대감이 없습니다. 둘 다 배도의 결과로 악해졌습니다. 배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을 따르도록 유도하여 동정심과 지지를 얻을 때를 제외하고는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은 필사적인 동반자 관계로 연합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탄과 인간은 하늘을 대항하여 연합했을 것이고,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의를 품지 않고 온 인류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을 대항하는 투쟁에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사들을 반역하게 한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에 관하여 그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는 불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모든 점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우주의 입법자의 권위를 반대하는 데 굳건히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중단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인간은 그 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손상시키고 부패시킴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늘에 고통을 일으키고 땅을 저주와 황폐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에게 사탄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심어주신 은혜이다. 이 개종시키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사탄의 포로로 남게 될 것이며, 항상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도입된 새로운 원리는 지금까지 평화가 지배하던 곳에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 인간이 폭군과 찬탈자를 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죄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에 저항하고 정복하는 사람은 완전히 위로부터 오는 원리가 자기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사탄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분께서 세상적인 부나 화려함이나 위대함 없이 나타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러한 외적인 이점의 부족을 보상하고도 남을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악인들의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의 죄 없는 극기와 헌신의 생애는 교만하고 음탕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를 깨웠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적개심.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했습니다. 배도의 모든 세력이 진리의 수호자를 대항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주님에 대해 나타난 동일한 적대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을 보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과 그의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진리의 순수한 원칙에 대한 증오와 그 옹호자들에 대한 비난과 박해는 죄와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사단의 종들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비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사탄의 대리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정부에 반대하여 그의 권위를 확립하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순종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고 왜곡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영은 악한 사람들을 움직여 그분의 제자들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예언에서 예상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사이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그의 모든 힘을 전투에 투입합니다. 왜 더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왜 그토록 잠들어 있고 무관심합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무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실제적인 교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분의 영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에게 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죄가 혐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고 단호하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심히 사악함과 악의를 이해하지 못하며 흑암의 왕의 성품과 능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악의,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투쟁의 규모에 대해 너무나 많은 무지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일에 대한 적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중은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악한 천사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잘 발달된 계획과 매우 능숙한 행동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강력한 장군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강단에서 우연히 언급되는 것 외에는 사탄에 대한 언급을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활동과 성공의 증거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 미묘함에 대한 많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모르고 있는 동안, 이 경계하는 적은 매 순간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의 구석구석, 도시의 모든 거리, 교회, 국가 의회, 법원에 자신의 임재를 소개하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남자, 여자, 어린이의 영혼과 육체를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고,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 가족을 분리하고 증오, 경쟁, 분쟁 및 살인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는 이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두셨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이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불법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현대 이스라엘도 그릇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소중히 여기고 변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에는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인과 불신자들의 사회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킵니다. 사탄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서 그들의 눈을 은밀하게 기만적인 눈가리개로 가립니다. 그들은 그러한 동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품성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항상 세상과 닮아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눈이 멀게 됩니다.

세상의 관습에 순응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으로 개종시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가 덜 혐오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과 연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무의 길에서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굴복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유혹자는 자신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가장 적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능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자질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사람들을 그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처럼 존경과 존경을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능과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경건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때,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대신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저주와 함정이 됩니다. 예의 바르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성은 참 종교를 지지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또한 악을 위한 세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 교양 있는 지성과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손에 들려 있는 세련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모본의 믿을 수 없고 기만적인 성격은 그들을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업에 더 위험한 원수로 만듭니다.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신뢰를 통해 솔로몬은 세상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분은 유혹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현명한 왕에게 부여된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대적의 더 효과적인 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에베소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눈 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6:12). 이 영감받은 경고는 수세기를 거쳐 우리 시대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 같이 부르짖어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아담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는 현재 교회에 대한 최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이 무자비한 적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모델을 더욱 밀접하게 모방할수록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사탄. 악한 자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많은 눈물과 유혹으로.

사탄은 가장 폭력적이고 교묘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했지만, 싸울 때마다 그분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전투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치러진 것이었고, 그러한 승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유혹자는 의지를 통제하거나 영혼이 죄를 짓도록 강요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야기할 수 있지만 부패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31장

악령의 작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역과 악령의 활동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습니다.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히 1:14) 거룩한 천사들을 죽은 자의 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존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육체에서 분리된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보여 줍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기 때문입니다(욘 38:7). 인간이 타락한 후,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천사들이 보내졌는데, 이는 인간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본성상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인간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었느니라”(시 8:6)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수, 능력, 영광, 그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관계, 그리고 구속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리고 선지자는 “내가 들으니 보좌 주위에 있는 많은 천사의 음성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의 보좌에서 섬기며 “능력이 있는 천사들”, “그의 종들이 되어 그 명령을 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시편 103:19-21; 요한계시록 5:11). 만만만은 선지자 다니엘이 본 하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2:22).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은 “번개처럼”(에스겔 1:14) 전진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너무나 눈부시며 그들의 비행은 너무나 빠릅니다. 주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 그리고 그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으며 경비병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며 그들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마 28:3, 4). ... 오만한 앗수르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 밤에 여호와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죽이니라.” 산헤립의 군대의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이 “멸망”되었습니다. “그가 그 얼굴을 부끄러워하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왕하 19:35, 대하 32:21).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띠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의로운 롯을 불꽃의 죽음에서 구출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엘리야가 광야에서 피로와 배고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불병거와 불말이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곳은 그가 그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왕의 궁정에서 신의 지혜를 구했을 때나, 버려져 사자의 먹이가 되었을 때; 헤롯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베드로에게; 빌립보에 있는 죄수들에게; 폭풍우가 치는 밤 바다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방인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이와 같이 거룩한 천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수호 천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임명됩니다. 이 하늘의 파수꾼들은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합니다. 사탄 자신도 “욥이 하느님을 헛되이 경외하겠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그 점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울타리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욥 1:9, 10).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시편 기자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편 34:7). 구주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보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마태복음 18: 10).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천사들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왕의 기만적인 세력과 지속적인 악의에 노출되고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불필요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보장하셨다면 그것은 맞서야 할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의와 힘은 누구도 안전하게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많은 결단력 있고 지지 않는 세력입니다.

죄 없는 태초에 창조된 악령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된 거룩한 존재들과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에 빠지자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역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의 전쟁에 그와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연합과 정부, 그들의 다양한 조직, 그들의 총명함과 간교함, 그리고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반대하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역사에는 그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언급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가장 인성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안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사탄은 세상을 통치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우상 숭배를 심었습니다. 유혹자의 영향력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 두 경쟁 세력이 패권을 주장하였다. 예수님은 사랑의 팔을 내밀어 그분 안에서 용서와 평화를 찾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군대는 자신들에게 무한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성공한다면 그의 통치가 곧 끝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갇힌 사자처럼 분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에 대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들렸다는 사실이 신약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단지 원인이 자연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셨으며 영들의 직접적인 존재와 활동을 인식하셨습니다.

나쁜.

그들의 수, 세력, 악의에 대한 놀라운 예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놀라운 예가 가다라 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에 나오는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참한 미치광이들은 모든 역제를 무시하고 몸부림치고 거품을 내고 분노하여 그들의 비명으로 공중을 가득 채웠고, 스스로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투성이가 되고 훼손된 몸과 잃어버린 정신은 어둠의 왕자에게 즐거운 광경을 선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5:9). 에서

로마 군대의 경우 군단은 3~5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탄의 군대도 여러 무리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악귀들만 속한 단일 무리의 수는 군단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악령들은 희생자들을 버리고, 그들이 유순하고 총명하며 친절한 주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돼지 떼를 바다에 던지도록 허락받았고, 가다라 땅의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손실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어 주신 축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으며, 신성한 의 사께서는 떠나도록 초청을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루고자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실을 예수님께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이기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자신과 그의 대리인들에게 비난이 돌아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손실, 치욕,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익을 사랑하여 이 부정한 동물을 키운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으로 악령들이 돼지 떼를 멸망시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돼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과 주인들도 바다에 던졌을 것입니다.

목자와 소유주 모두의 보존은 전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비롭게 행사되는 그분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된 것은 제자들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 대한 사탄의 잔혹한 권세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직면하게 될 적에 대해 알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거나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들의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은인의 자비를 선포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예수의 말씀으로 쫓아내신 귀신으로 말미암아 심한 괴로움을 받더라(막 7:26-30). “귀신이 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사람(마태복음 12:22), 병어리 귀신이 들려 종종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진 청년(마가복음 9:17-27), “더러운 마귀의 영”(눅 4:33-36)으로 고통을 받아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의 평온을 어지럽힌 미치광이가 모두 자비로우신 구주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지능적인 존재로 언급 하시며 그에게 희생자를 떠나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예배자들은 그의 큰 능력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 이 말씀이 어쩡이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36)

귀신들린 자들은 대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탄의 영향력에 굴복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악귀들과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영이 들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 엘루마,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온 젊은 여자입니다.

성경의 직접적이고 풍부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사람들보다 악령의 영향에 빠질 위험이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간계를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가정하면서 그들의 제안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속이고 속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파괴하고, 그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모든 곳에 전파합니다. 그의 행동 방식은 자신과 일하는 방식을 숨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혹자가 우리가 그의 계략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성격과 목적을 더 잘 위장하기 위해 그는 조롱과 경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럽거나 역겨운,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으로 그려지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총명하고 박식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오락과 조롱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완벽한 기술로 자신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제시하는 이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악한 일에 대한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그의 비밀스러운 세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우리 구속주의 우월한 능력 안에서 피난처와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그의 군대의 세력과 악의는 당연히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볼트와 자물쇠로 집을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악한 천사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용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소유물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비참함과 파멸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령의 지배에 맡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저항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항상 안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이 넘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내졌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위에 두신 경비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32장

사탄의 함정

거의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곧 끝나야 하며, 악한 자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그의 울무에 가두기 위해 노력을 배가합니다. 그는 구주의 종재가 중단되고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을 어둠과 회개하지 않음 속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의 능력에 저항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교회와 세상에 무관심이 만연할 때, 사탄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잃을 위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영혼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을 때 그는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힘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반대하고 성령의 감화를 방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한번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갔는데(욘 1:6) 이는 영원하신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그의 악의를 조장하려 함이니라(욘 1:6). 너

의롭다.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에도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그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숭배자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장군과 마찬가지로 그는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을 검토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제시할 주제에 주목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능과 통찰력을 사용합니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상업 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평생 동안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어둠 때문에 주님의 종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관심, 태만, 나태의 마력을 깨뜨릴 수 있는 신성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목사들의 열렬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열정으로 자신의 책략을 펼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식욕이나 다른 형태의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유혹하여 그들의 감수성을 둔화시켜 그들이 가장 배워야 할 바로 그 내용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공격에 의해 정복당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흡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안하십시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부류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품성 부족이나 신앙의 오류를 찾아 종교를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돕는 손길입니다. 형제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은 항상 일하고 있으며, 그분의 종들은 그분께 참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거짓된 색채를 더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열성적이고 열성적이며 자기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종들을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나타낼 것입니다. 모든 참되고 고상한 행동의 동기를 왜곡하고, 암시를 퍼뜨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가증스럽고 기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 대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모범과 일을 따르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16). 그의 행위는 가증한 중상자이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계 12:10)인 사탄의 행위와 유사합니다.

큰 사기꾼은 영혼을 울무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종류의 오류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대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과 능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된 이단입니다. 그의 목적은 불성실하고 증생하지 못한 요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이는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진리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성경적 교리로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받아들인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을 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거짓 이론과 우화나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타락한 사람일 뿐 아니라 영혼에 치명적인 거짓을 전파하는 자로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 왔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고 용감하게 반대했습니다. 올바른 종교적 신앙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관용은 진리를 옹호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호하고 공상적인 해석과 기독교 세계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신앙에 관한 많은 상충되는 이론은 우리의 대적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을 혼란시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널리 퍼져 있는 관습에 기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대신,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반기독교 관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문맥과 분리된 성경 구절에 집착하며, 아마도 자신의 관점에 대한 증거로 절반의 구절을 인용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보여 준다면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뱀과 같은 통찰력으로 자신들의 욕욕에 맞게 준비한 일관성 없는 말 뒤에 자신들을 바리케이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의 비유와 상징에 집착하여 자신의 상상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성경의 증거를 자신의 해석자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환상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

기도 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 없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구절도, 가장 어려운 구절도 그 참된 의미에서 왜곡될 것입니다. 교황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성경 부분을 선택하고,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석한 다음, 그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특권을 거부합니다.

완전한 성경은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잔인하게 왜곡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서는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침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는 곧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과 요한에게 알려려고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신비에 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진리를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기록하여 읽기 쉽게 하여 지나가는 사람도 읽게 하라.” (하박국 2:2) 하나님의 말씀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니 진실로 진실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리라 “빛은 의인에게 뿌려지느니라”(시 97편) : 11) 그리고 회원들이 숨겨진 보물처럼 진리를 열렬히 탐구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거룩함 속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외치면 사람들은 대적의 속임수를 보지 못하게 되지만, 대적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가 인간의 추측을 통해 성경을 능가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교회는 비록 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더라도 죄의 속박 아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 연구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적, 예술적 발견을 통해 세상에 빛의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라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과학과 계시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한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학적 견해와 성경의 진술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추측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과학"의 가르침으로 시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와 그분의 일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종종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립니다. 닳을 놓으면 그들은 불신의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에게 미혹을 받느니라. 인간은 창조주보다 더 지혜로워 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 철학은 영원토록 결코 밝혀지지 않을 신비를 꿰뚫고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분의 목적에 관하여 알려 주신 것을 조사하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여호와와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에 대한 견해를 얻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 계시된 것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탐구하고 추측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의 걸작입니다. 이것이 루시퍼가 천국에서 자리를 잃은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높은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에 관해 계시된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천사들에게도 동일한 불만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몰락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타락한 대천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은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을 무시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의 명확하고 예리한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즐거운 우화를 찾습니다. 제시된 교리가 덜 영적이고, 극기적이고, 굴욕적인 교리일수록, 그 교리를 받는 은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에 봉사하십시오. 영혼의 통회와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기에는 그들 자신의 의미에서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은 속임수에 맞서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진리 대신에 자신의 속임수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방법이며, 개신교인들도 십자가와 관련된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긋나지 않으려고 편익과 정치를 연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 진리 대신 통탄할 이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 가지 실수를 겁에 질려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실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였느니라”(살후 2:10-12). 그러한 경고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받는지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큰 사기꾼의 가장 성공적인 활동 중에는 강신술의 그럴듯한 가르침과 거짓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 그물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렬한 기도로 연구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심각한 오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이 이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구주와 아버지의 관계, 신성한 성품, 선재에 관한 우리 구주의 가장 분명한 말씀과 모순됩니다. 성경을 가장 비합리적으로 왜곡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구속 사역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믿음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더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직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영감받은 성경의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 점에 관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주장이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 보기에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니 이는 영적으로 분변함이라.” (고린도전서 2:14). 이 오류를 옹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사명,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미묘하고 악의적인 오류는 사탄이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단지 사람의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음과 함께 각 개인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대중 강단에서 널리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개인적으로 오시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교활한 장치입니다. 수년 동안 사탄은 “보라, 그가 집 안에 있다”(마 24:23-26)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실되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과학자들은 기도에는 실제적인 응답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기적이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 가 고정된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자신은 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자유가 배제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분 자신의 법에 묶여 있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증언에 반대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자비로우신 구주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며, 사람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걸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십니다. 자연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실 것을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들 사이에는 잘못된 교리와 상상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된 랜드마크 중 하나를 제거했을 때의 나쁜 결과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감히 수행하려는 사람 중 단 하나의 진실을 거부하고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실제로 불신자가 될 때까지 진리의 원칙을 하나씩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대중 신학의 오류는 많은 영혼을 회의주의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을 믿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와 자비와 자비에 대한 감각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제시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의심하는 자들의 큰 군대의 선두에 서서 영혼들을 그의 대열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의심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질책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요구 사항에 순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나 설교의 결점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거나 신성한 강단에서 설명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 태만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불신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만이나 나태 때문에 회의적인 원칙을 채택합니다. 방종을 너무 좋아하여 헌신과 극기를 요구하는 영예로운 일의 성취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들은 성경 비평을 통해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는 신성한 지혜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유한한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비판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불신, 회의주의, 불신앙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나 성실함을 가장하여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논쟁을 좋아해서 비판하고 논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식자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이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한 자들과 연합하고 낙원의 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위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둘 수 있는 강력한 기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주재님은 손으로 들어올리려고 하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롬 11:33).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그분이 행동하시는 동기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무한한 능력과 결합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라. 우리는 불만과 불신을 품지 말고 오직 경건한 복종으로 엎드려야 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면 유익할 만큼 그분의 목적을 많이 계시해 주실 것이며, 전능하신 손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신뢰해야 할 더 많은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지만, 불신에 대한 모든 변명을 결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반대가 제거되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빛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배양될 때만 번창할 것입니다. 단호한 노력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불신은 격려를 받음으로써 더욱 강해지며,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에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의심하고 헐뜯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의심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약속의 확실성을 불신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 그들은 그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는 대신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은 가지를 넓게 뺏어 햇빛이 다른 식물에 닿는 것을 막고, 그들이 추운 그늘 아래에서 위축되어 죽게 놔두십시오. 이 사람들의 일은 그들에 대한 확고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과 회의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끊임없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헐뜯는 대신, 이미 그들에게 비취지고 있는 빛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들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와 매우 유사한 위조품을 제시하여 기꺼이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희생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의 권력 아래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한복음 1:9)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의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같은 교훈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알리라.” (마태복음 7:7; 요한복음 7:17)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사탄과 그의 군대가 그들에게 대항하여 행하고 있는 계략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략이 그분의 심오한 계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유혹의 불 같은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과 고뇌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이 그들의 최종 승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걸맞게 그들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목적은 그들이 악의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나 마귀가 만일 통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분의 백성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과 반대되는 모든 영향력은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성공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나 폭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속 4:6).

“여호와와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도 너희가 선을 위하여 열심하면 너희를 해할 자가 누구리요?” (베드로전서 3:12, 13). 발람이 풍부한 상급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이스라엘에게 주문을 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그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와 그의 영이 그가 선포하려고 했던 재앙을 막으셨고 발람은 쫓겨났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찌 미워하리요 하느니라 “내 영혼이 의인의 죽음을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도 주의 것과 같기를 원하노라.” 제물이 다시 바쳐졌을 때 사악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그가 축복하셨은즉 내가 돌이킬 수 없느니라. 그분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보지 못하시며 야곱의 악을 보지 못하시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들리느니라.” “대저 야곱을 해할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느니라.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행하셨느냐 하리로드'(민 23:8, 10, 21, 23). 그런데 셋째 단을 쌓고 발람이 다시 저주하려 하였더니 마지못해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형통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질책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민 24:9).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들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한 지상의 어떤 세력이나 지옥의 세력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저주를 마침내 그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파괴자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는 가장 약한 영혼이라도 어둠의 군대를 대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과 만일 자신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대적하여 패배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숨어서 그의 지역에 침입하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십자가의 군사들을 그들의 강력한 요새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유혹자의 속임수와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계시되어 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는 데 전문가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구절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서를 연구해야 하며, 하느님에 대한 복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울무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3장

첫 번째 큰 실수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사탄은 우리 인류를 속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을 선포한 그는 땅의 주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와 연합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렸으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억압적이고 그분의 피조물들의 유익에 어긋난다는 사탄이 하늘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죄 없는 부부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거처를 보고 사탄의 시기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단번에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하여 그의 권세 아래 두게 한 후 땅을 차지하여 지극히 높은 신 분을 대적하여 거기에 그의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였다.

만일 사탄이 자신의 참된 성격을 드러냈다면 그는 즉시 격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 위험한 적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시 매혹적인 생물이었던 뱀을 자신의 영매로 사용하여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창세기 3:1). 만약 그녀가 유혹자와의 논쟁을 거부했다면 그녀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그와 추리하려 하다가 그의 속임수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패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의심하고 논쟁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사탄의 속임수를 은폐하는 인간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스니라 만지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2-5).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지혜를 갖게 될 것이며, 더 높은 존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와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아담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승영을 얻을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라고 깨달았습니까? 그는 사탄이 그에게 믿게 한 것처럼, 그들이 곧 더 고상한 존재 상태로 이끌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범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며, 사탄은 자신이 인류에게 은인임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자신을 낳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는 사탄의 말은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참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알고 범죄의 쓴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에덴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났는데, 그 열매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했다면 그는 이 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것이며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완전한 소멸을 가리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인간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법으로 인해 상실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불멸을 그들 손에 닿게 하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로마서 5:12, 디모데후서 1:10).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요한복음 3:36).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건을 갖추면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로마서 2:7).

불순종하여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된 유일한 사람은 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선언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그것은 영혼불멸에 관해 설교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탄의 권위에 근거한 이 동일한 선언은 그리스도교국의 강단에서 반향되었으며, 우리의 첫 조상이 받아들인 것처럼 인류의 대다수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의 선고: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20) 죄를 짓는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그토록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토록 불신하는 이상한 완고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는 영원히 살았을 것이며, 따라서 죄는 불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룹과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창 3:24)을 지키고 있었으며, 아담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사탄은 그의 천사들에게 인간의 자연적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오류를 받아들일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은 죄인이 영원한 비참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흑암의 왕은 그의 대리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복수심에 찬 폭군으로 제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져 영원히 그의 진노의 결과를 느끼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영원한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께서 그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은 그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인류의 창조주이자 은인이신 분을 역전시킵니다. 잔인함은 사탄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자에 의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사탄 자신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자가 누구인지 확실할 때 자신이 초래한 파멸을 기뻐합니다. 만일 그가 허락한다면 그는 전 인류를 그의 그물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아담의 아들딸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분은 우리의 첫 조상을 이기셨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계시며, 창조주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흔들고 그분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를 의심하게 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악함과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더 나쁜 분으로 대표합니다. 큰

사기꾼은 자신의 끔찍한 잔인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리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불의한 정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가혹한 법령에 의해 부과된 종살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분의 부드러운 정부 아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세상에 제시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의 느낌, 심지어 우리의 정의감에 얼마나 역겹습니까? 죽은 악인들은 사후에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짧은 지상 생활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러나 이 교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가르쳐져 왔으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교국의 신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 학식 있는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보는 광경은 성도들의 기쁨을 영원히 더해 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성품을 지닌,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존재들이,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러한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더욱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노의 대상에 대한 유기의 법령이 영원히 집행되는 동안,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자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솟아올 것입니다. 외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라!”

하느님의 말씀의 어디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연민과 연민의 감정이 전혀 없을 것이며, 심지어 약간의 인간성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까? 이러한 감정은 무감각한 자의 무관심이나 아만인의 잔인함으로 대체될 것인가? 아니요, 아니요 - 그것은 하나님의 책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위에 표현된 의견은 교육을 받은 사람, 심지어 정직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탄의 꾀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성경의 명확한 표현을 잘못 특징짓도록 유도하여 그 언어에 창조주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속한 신랄함과 악의의 색을 부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 33:11).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문을 지켜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지옥 불 속에 가두어 고통받는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과 저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의 귀에는 이 끔찍한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악인에게 끝없는 비참함을 가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아, 끔찍한 신성 모독!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그분이 죄를 영속시키는 이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에 대한 희망 없이 계속되는 고문은 불행한 희생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저주와 신성 모독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죄의 짐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없는 시대를 통해 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속된다고 해서 증가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이단이 초래한 악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이 가득하고 동정심이 풍부한 성경의 종교는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웃을 입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거짓된 색으로 칠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께서 불신을 받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미움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궁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 널리 퍼진 충격적인 사상들

강단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대해 수천, 수백만 명의 회의론자와 불신자가 생겼습니다.

영원한 고초론은 바벨론이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는 바벨론의 가증한 포도주를 구성하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계 14:8, 17:2).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이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성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그들도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인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빛났던 빛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빛나는 분을 위해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저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다고 해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 아래 떨어지고 그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고초에 대한 교리를 혐오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되는 오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과 연민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길에 던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본래 불멸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여, 그들은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위협이 단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이기적인 쾌락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주장하지만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러한 교리는 육욕적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악인의 죄악을 조장합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떻게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진술을 간단히 인용해 보십시오. 사고로 죽사한 젊은 무신론자의 장례식에서 한 보편주의자 목사는 다윗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자신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죽은 암논에 대하여 위로하였더라”(삼하 13:39)..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서 아마도 술에 취해 죽는 사람들, 또는 옷을 빨지 않은 채 범주의 피 얼룩으로 죽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이 청년이 죽은 것처럼 신앙고백을 한 적도 없고 종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죽는다. 성경에 만족하자. 성경의 대답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암논은 극도로 죄가 많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술에 취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므로 암논이 내세에서 선할 것인지 악할 것인지를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음의 표현은 어땠나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보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압살롬이 암논의 죽은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음이라'

“우리는 이 말에서 무엇을 추론해야 합니까? 끝없는 고통은 그의 종교적 신념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순수성과 평화, 보편성에 대한 가장 기분 좋고, 가장 계몽되고, 가장 자비로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승리의 논증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으며, 그 아들이 모든 유혹에서 멀리 떠나 있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죄의 부패함에서 정결케 되어, 충분히 정결케 되고 빛 비춤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총회에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고양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현재의 죄와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숨결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영혼에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마음은 하늘의 지혜와 불멸의 사랑의 감미로운 황홀경에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유업의 안식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화된 성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천국의 구원이 우리가 이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마음의 변화도, 현재의 믿음이나 현재의 신앙고백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봉사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은 에덴에서 뱀이 말한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는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분은 가장 사악한 죄인, 즉 살인자, 도둑, 간음자가 죽은 후에 불멸의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결론을 내립니까? 섭리의 섭리에 대한 다윗의 복종을 표현하는 간단한 문장에서.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보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그가 죽은 암논에 대하여 위로를 받았음이다.” 이 슬픔의 심각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그의 생각은 죽음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추방된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근친상간하고 술 취한 암논이 죽자마자 즉시 행복한 거처로 옮겨져 정화되고 흠 없는 천사들의 사회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육욕적인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유쾌한 우화입니다! 그것은 사탄 자신의 교리이며,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교훈과 함께 죄악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이 거짓 선생이 취한 행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행실을 예시해 줍니다. 성경의 문맥에서 분리된 단어는 거의 없으며, 이는 많은 경우 주어진 해석과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단절된 구절들은 왜곡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는 교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술취한 암논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로 인용된 증언은 단순한 추론일 뿐이며, 술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성경의 명확하고 긍정적인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고전 6:10). 이것이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회의적인 사람이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궤변에 속아 육신적인 안전의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직접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삶 대신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에 이끌려 그들의 존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제와 난관과 실망으로 괴로워할 때, 삶의 섬세한 실타래를 끊고 영원한 세계의 행복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당신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죄인에게 공의를 집행하실 수 없다고 스스로 우쭐대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의 값은 사망”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6:23)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범법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셨으며, 마음이 상하고 생명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대가로 얻은 속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영혼은 범법에 대한 죄와 형벌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악인과 의인에 관해 성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편주의자들은 그들을 천국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천사로 여깁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계 21:6). 이 약속은 목마른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느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생명수가 필요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7) 여기에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죄를 저항하고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의인에게 말하여 그들이 잘 되리라.” “악인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샅을 받을 것임이니라”(이사야 3:10, 11). 현자는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여 그 날이 장수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잘하지 못하리라”(전 8:12, 13). 그리고 바울은 죄인이 “진노의 날에 자기를 위하여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데 그 날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이라고 증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온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느니라”(로마서 2:6, 9).

“자제하지 못하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에베소서 5:5).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은 밖에 있느니라”(계 22:14, 15).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의 성품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 대까지 보전하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면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4:6, 7) “그분은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하나씩 멸망될 것입니다. 악인의 자손은 멸망되리라.” (시편 145:20, 37:38) 하나님 정부의 능력과 권위는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복적 공의의 모든 표현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존재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뜻이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노예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피조물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속성에 대한 감탄으로 그분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고 예시하신 친절, 자비,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성한 정부의 원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익을 위해, 심지어 그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악인에게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분의 정부의 법칙과 그분의 성품의 의로움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감싸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따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화하며 그분의 자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선물을 받는 동안, 주신 분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참으셨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와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반역자들을 그분의 편에 묶으실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것입니까?

사탄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그의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만, 기만, 방종, 잔인함이 그의 성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나

천국에 들어가 이 땅에서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거짓말쟁이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함은 허영심과 교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부패한 자에게는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심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이기적인 이익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며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갑자기 천국으로 가서 거기에 항상 존재하는 높고 거룩한 완전의 상태, 모든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모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고양되는 선율의 황홀한 음악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구속받은 자들 위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빛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무리와 함께 그들의 찬양 소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아니, 아니, 그들에게 천국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수년간의 시련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순결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고 천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삶은 그들을 천국에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결함과 거룩함과 평안은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의 얼굴에서 숨겨지기 위해 기꺼이 멸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위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정의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홍수처럼 큰 날의 불꽃은 악인은 고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났을 때, 생 각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고, 법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살인자인 가인의 생명을 살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계속 만연한 사악함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 주셨습니다. 가인의 가르침과 모본의 영향으로 그의 수많은 후손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대하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였”고,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포악이 가득하며”(창 6:5, 11).

세상에 대한 자비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악한 주민들을 쓸어버리셨고, 자비로 소돔의 부패한 주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능력을 통하여 동정과 존경을 얻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반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인과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우주를 향한 자비 안에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생명은 의인의 유업이요 사망은 악인의 몫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노라니”(신명기 30:15). 이 성구에서 언급하는 죽음은 아담에게 선언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그의 범법으로 인해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 전체에게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행 24: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러나 부활될 두 계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8, 29).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것들을 다스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느니라”

(계시록 20:6)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범법의 형벌, 즉 “죄의 삶”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간과 강도가 다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마침내는 둘째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죄인을 그의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없으므로, 그의 범죄로 인해 이미 타협되었고, 그 자신이 무가치함을 보여 주신 그 존재를 그에게서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한 영감받은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네 곳을 찾아도 얻지 못하리라”(시편 37:10).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은 마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오바댜 16장)고 선언합니다. 악명에 뒤덮인 그들은 절망적이고 영원한 망각에 빠진다.

그리하여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와 파멸이 끝날 것입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며 원수들은 끝났고 그들의 폐허는 영원히 남아 있느니라.”

(시편 9:5, 6)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어떤 부조화도 없이 보편적인 찬양의 후렴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들었습니다(계 5:13).

그러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을 것이며, 선택받은 자들의 노래에 맞춰 비명을 지르며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존재들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적 불멸의 근본적인 오류 위에 죽음의 양심 교리가 기초하고 있는데, 이 교리는 영원한 고초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 이성의 지시, 인류의 감정에 반대됩니다.

대중적인 믿음에 따르면, 천국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남겨둔 친구들의 삶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의 고난과 괴로움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범한 죄를 목격하고, 그들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실망과 고난을 견디는 것을 보는 것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친구의 위를 맴돌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겠는가? 그리고 호흡이 몸에서 떠나자마자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이 지옥 불길에 던져진다는 믿음은 얼마나 절대적으로 역겨운 일입니까! 친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가 저주와 죄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통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운 생각 때문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사람이 죽어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영이 나가면 진토로 돌아가니 당일에 그들의 모든 도모가 무너지리로다”(시편 146:4). 솔로몬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느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 미움, 시기심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영원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네가 가는 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전혀 없느니라”(전 9:5, 6, 10).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때 감사하는 왕은 하나님께 그분의 크신 자비에 대한 찬양의 조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노래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리이다 살아 있는 자들아, 오직 살아 있는 자들만이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을 찬양합니다”(이사야 38:18, 19). 대중적인 신학은 죽은 의인이 천국에 있고, 축복 속에 들어가고, 불멸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전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시편 기자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무덤에서 누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까?” (시편 6:5).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땅에 내려가는 자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라”(시 115:17).

오순절 날 베드로는 조상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행 2:29, 34). 다윗이 부활하는 날까지 무덤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인이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을 당하였느니라”(고전 15:16-18). 사천년 동안 의인이 죽어서 직접 천국에 갔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멸망한 자”라고 바울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자 틴데일은 죽은 자들이 잠든다는 교리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죽은 영혼들을]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와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는 논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있다면 왜 천사만큼 좋은 상태가 아닌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부활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죽음을 통한 불멸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널리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지적한 아담 클라크 박사는 금세기 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교리는 지금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근면과 순종과 용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후계자들은 이 점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었고,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듣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복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현 설교 체계에서 이보다 더 경멸받는 교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기독교 세계에 의해 거의 완전히 가려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는 종교 저술가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논평했습니다. 4:13-18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의인의 복된 불멸 교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의심스러운 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이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나팔소리가 그들의 심판과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이 곧 당신과 합류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요한복음 14:2, 3).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명령의 말씀과 들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이 위로의 말과 위에 인용된 보편주의 목사의 말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후자는 고인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더라도 마지막 숨을 내쉬면 천사들 사이에서 영접받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슬픔에 잠긴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영생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지시합니다.

누구든지 복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조사받아야 하며, 그 사람의 품성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에 따라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죽음의 순간에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음입니다.” (행 17:31). 여기에서 사도는 세상의 심판을 위해 특정한 시간, 그러므로 미래의 시간이 정해졌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유다는 같은 기간을 언급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다시 그는 에녹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임하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고”(유 6, 14, 15). 요한은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이미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거나 지옥의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미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점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모호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으며,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로운 마음이 현재 이론에서 지혜나 정의를 볼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심판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조사한 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라는 훈장을 받을 것입니까? 그분은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임재 안에 계실 것입니까? 악인들은 온 땅의 심판관의 선고를 받기 위해 고통의 장소에서 부름을 받을 것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지옥 불에 던져지랴?” (마태복음 25:41) 아, 의례적인 조롱이군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영혼불멸 이론은 로마가 이교 신앙을 빌려 그리스도교에 편입시킨 거짓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사악한 로마 법령에 관한 수많은 우화”로 분류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솔로몬의 말에 대해 이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무감각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죽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고 있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쉬며 며칠이나 몇 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면 잠을 거의 자지 아니한 것 같이 보이리라.”

의인은 죽는 순간 상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진술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러한 확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즉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부활하는 날까지 잠자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살전 4:14, 욥 14:10-12). 은실이 끊어지고 금잔이 부서지는 그 날에(전 12:6) 사람의 생각도 소멸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잠잠하다. 그들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욥 14:21). 지친 의인에게 복된 안식을 주소서! 길든 짧은 시간은 그들에게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누리게 됩니다.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기록된 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52-54)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들은 중단되었던 생각의 길을 정확히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느낌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권세 아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들의 첫 번째 기쁨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외침으로 메아리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34장

강신술

성경에 제시된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대중 신학의 오류로 인해 모호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차용되어 대배도의 암흑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통합된 자연적 불멸 교리는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느니라”(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친 진리)를 억압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 하늘 천사들의 존재와 인간 역사와의 연관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히 죽은 자의 영이 살아 있는 자를 섬기기 위해 돌아온다는 믿음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에서 들어가고 그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산 자들을 계몽하고 가르치기 위해 왜 지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죽은 자의 영은 지구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악에 대해 경고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로운 영들이 전달하는 신성한 빛으로서 그들에게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신성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영계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악의 왕은 산 자를 죽은 자와 교통하게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위조는 완벽합니다. 친숙한 모양, 단어 및 어조가 놀라운 정확도로 재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의심 없이 그들은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실제로 그들과 교통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사탄은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행복하며 심지어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방문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때때로 경고를 하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신뢰를 얻자마자 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친구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가장 위험한 실수를 암시합니다. 그들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마치 가장 신성한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부지런히 받아들여지고 맹목적으로 믿어집니다. 성경,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받으며, 언약의 피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자기들과 같은 수준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장을 하고,

대반역자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지상에서 약 6천년 동안 계속된 하나님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매술자의 사기와 속임수로 영매술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결과가 실제적인 발현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자연적인 힘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강신술이 시작된 신비한 애도는 사기나 인간의 간교함의 결과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소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를 도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매술이 단순한 인간의 사기라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자연적인 특성을 부인할 수 없는 현현을 직면하게 되면 속임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한 이적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등한히 합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탄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유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사탄의 역사”(살후 2:9, 10)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받은 이적들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도다”(계 13:13, 14). 여기서 단순한 사기가 예측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행할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들이 행할 의도가 없는 이적에 속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우월한 정신의 힘을 기만 활동에 사용해온 어둠의 왕자는 모든 계층과 상황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혹을 능숙하게 적용합니다.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그는 영매술의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의 속임수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매술이 전달하는 지혜는 사도 야고보가 묘사한 지혜로서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하고 동물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야고보서 3:15). 그러나 큰 사기꾼은 이것을 은폐할 때 자신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도록 숨깁니다. 유혹의 광야에서 하늘 스랍의 광채를 입고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분은 빛의 천사로서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하여 이성애 호소하고, 매력적인 장면으로 감각을 즐겁게 하며, 사랑과 자선의 감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애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상상력을 자극하여 송고한 비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여 마음 속으로 영원하신 존재를 경멸하도록 유도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리고 그분의 눈앞에 땅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옮길 수 있었던 이 강력한 존재는 모든 사람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제시할 것입니다. 신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주고 자기를 높이면서 야망을 불러일으키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를 타락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악의 애무였으며, 그는 그것을 통해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선악을 알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5)고 선언합니다. 영매술은 “사람은 진보하는 피조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운명은 신성을 향해, 심지어 영원까지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각 양심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것이요 다른 양심이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판결은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공평할 것이다. (...) 법원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 심령술사 선생님은 “영적 의식”이

그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모두 타락하지 않은 반신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의롭고 완전한 존재는 누구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하심 대신에 예배의 참된 대상이 되십니다. 인간 성취의 참된 표준인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사탄은 인간 자신의 잘못되고 죄 많은 본성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 유일한 심판의 법칙 또는 품성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지적, 영적 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것이 허용된 대상에 점차적으로 적응합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순결함, 선함, 진실의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아가 당신의 가장 높은 이상이라면 당신은 결코 더 높은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높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하향이 될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감각적인 사람들에게 영매술은 더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보다 덜 교묘하게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체적인 형태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탄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모든 징후를 연구하고,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죄를 지적한 다음, 악한 경향을 만족시킬 기회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정당한 일을 과도하게 하도록 유혹하고, 부절제를 통해 그들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이끈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해 수천 명을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을 통째로 잔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영들을 통해 “참된 지식은 인간을 모든 율법 위에 놓는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이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지은 모든 죄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욕망이 최고의 법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부패와 부패가 모든 손에 가득하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마음의 충동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는 가르침을 열렬히 받아들입니다.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향으로 바뀌어 있으며,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그물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영매술의 거짓된 진술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들이 함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영매술의 동일한 기초를 구성하는 이론은 성경의 가장 명확한 진술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그들의 생각은 소멸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주장되는 모든 것을 명백히 금지하셨습니다. 히브리인 시대에는 오늘날의 강신론자들처럼 죽은 자와 의사소통을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라고 불리는 “친근한 영들”은 성서에서 “귀신들의 영들”이라고 선언합니다(비교 민 25:1-2; 시 106:28; 고린도전서 10:20), 계시록 16:14). 신접한 영들과 교제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죽음의 형벌 아래 엄숙히 금지되었다(레 19:31; 20:27).

이제 마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암흑시대의 우화. 그러나 과학계에 진출하고 교회를 침범하고 입법 의회와 심지어 왕의 궁정에서 호의를 얻은 수십만, 예, 수백만 명의 영매술-이 엄청난 속임수는 부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난받고 금지된 마법을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매술의 실제 성격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이 정의와 죄,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가장 부패한 사탄의 종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고 그곳에서 매우 높임을 나타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활하세요. 천국은 당신의 집입니다.” 강신술 교사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또는 :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2:17).”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 (이사야 5:20)

이 거짓말하는 영들로 의인화된 사도들은 그들이 지상에 있었을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 희망의 기초를 무효화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빛을 소멸시킵니다.

사탄은 성경이 단순한 허구이거나 기껏해야 인류의 어린 시절에 적합한 책이지만 지금은 무시하거나 쓸모없는 책으로 버려야 한다고 세상이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 영매술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귀하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추종자 모두를 심판할 책을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 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에 넣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영매술의 나타남을 믿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구주의 생애에 대해. 그들은 예수의 초점을 흐리게 하려고 노력한 후에 자신들의 기적에 주의를 끌고 이러한 기적은 그리스도의 업적을 훨씬 능가한다고 선언합니다.

영매술이 이제 그 형태를 바꾸고 가장 불쾌한 측면 중 일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언론을 통해 나온 그의 발언은 약 40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그 속에서 그의 진정한 성격이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인할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형태에서도 이전보다 더 관용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그 기만이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는 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공격했으나 이제는 둘 다 받아들인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그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는 아무 효과도 없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으로 자리 잡았으나 선과 악의 구별이 거의 없는 약한 감성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한 그분의 책망,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로 간주하도록 배웁니다. 유쾌하고 매력적인 우화는 감각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인 성경을 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부인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매술의 기만적인 힘과 그 영향력에 빠질 위험에 대해 공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그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며, 영의 지배에 자신을 내맡긴다는 생각에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지된 땅으로 모험을 떠나며, 막강한 파괴자는 그들의 뜻에 반하여 그들 위에 자신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 방향에 복종시키도록 유도하는 데는 단 한 번만 걸리며, 그것은 그들을 포로로 만듭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마법과 유혹의 주문을 깨뜨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이 올무에 빠진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최악된 품성의 특성에 빠지거나 알려진 죄를 고의적으로 품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의 보살핌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속임수를 쓰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손쉬운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그 힘아래 두는 자들은 자신의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몰락을 달성한 후에, 유혹자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유인하기 위한 그의 대리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껄이고 투덜거리는 점쟁이와 점쟁이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겠느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대신하여 상담을 받으니까? 율법과 증언으로!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새벽을 보지 못하리라”(이사야 8:19,20). 만일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 성경에 것처럼 분명하게 표현된 진리를 받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영매술의 선언과 나타남에서 사탄이 권세와 거짓 표적과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욕적인 마음에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죄를 포기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빛에 눈을 감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반면, 사탄은 그들 주위에 속임수를 엮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을 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이라”

(살후 2:10, 11).

영매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뿐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 왔습니다. 사탄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물리칠 때를 제외하고는 한 치의 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구주께서 하셨듯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속임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을 왜곡할 것입니다. 이 위험의 시기에 굳게 서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의 증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척이나 사랑하는 친구를 사칭하고 가장 위험한 이단을 선포하는 악령들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이 방문객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에 호소하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타나는 자들은 귀신의 영들이라는 성경적 진리로 그들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계 3:10)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않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의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굴복할 때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혹. 진실로 진리의 지식을 구하고, 순종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며, 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라.”

(요한계시록 3:10) 이것이 구주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단 한 영혼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내버려두시기보다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속히 보내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악인에게 닥칠 끔찍한 속임수를 지적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망과도 언약을 세웠고 내세와도 언약을 세웠나니. 재앙의 홍수가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니라.”

(이사야 28:15) 여기에 기술된 부류에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죄인에게는 형벌이 없다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가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은 환난의 날에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이 제공한 진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사탄이 제공하는 거짓말, 즉 영매술의 환상적 주장의 피난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지옥 같은 거래를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대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고 열렬한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입니다. 회의론자들과 비슷한 자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을 옹호하는 자들의 광신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성경의 엄숙한 선언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우스꽝스럽다고 말하여 스스로를 즐겁게 합니다. 그들은 너무 편협하고 연약하고 미신적인 마음에 대해 큰 동정심을 갖는 척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인식하고 그분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마치 실제로 죽음과 계약을 맺고 지옥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즉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복수 사이에 넘을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운 것처럼 그러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두려움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혹자에게 완전히 굴복했고 그와 매우 친밀하게 연합했으며 그의 영에 완벽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의 울무에서 벗어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세상을 속이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사업의 기초는 에덴에서 하와에게 주어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보증으로 세워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창 3:4, 5). 그는 영매술의 발전에 있어서 그의 속임수의 걸작을 위한 길을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아직 그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지막 남은 시간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을 보니 하나님...강력하시다”(요한계시록 16:13, 14).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이 미혹의 그물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치명적인 안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깨어나게 됩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를 통치자로 삼고 공의를 다림줄로 삼겠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릴 것이며, 물이 그 숨은 곳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내세와 맺은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의 홍수가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요”(이사야 28:17, 18).

35장

교황권의 성격과 의도

로마교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호의적으로 개신교에 의해 간주됩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않고 교황주의자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화해적인 길을 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개혁 교회를 교황 직위와 분리시키는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점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 쪽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와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교황권을 미워하도록 가르쳤고 로마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표현되는 감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교황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중상을 당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세계는 그 선언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어둠의 세기 동안 교회를 지배했던 가증함과 부조리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야만적 결과로 그들의 끔찍한 잔인함을 변명하고,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그들의 감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오류 주장을 잊었나요?

이 오만한 힘으로 팔백년 동안이나 이 진술은 폐기되기는커녕 19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마교는 교회가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고, 오류를 범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난 시대에 교회의 길을 형성해 온 원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황 교회는 무류성에 대한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교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를 옳게 만듭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세속 정부가 부과하는 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로마가 이전 권력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의 폭정과 박해가 신속히 부활할 것입니다.

현대 작가 (JOSIAH STRONG, DD, *Our Country*, pp. 46-

48)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교황 계층의 태도와 미국 정책의 성공 측면에서 특히 미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말합니다.

“미국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두려움을 광신이나 유치함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 제도에 적대적인 로마교의 성격과 태도를 전혀 보지 못하며, 로마교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징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 중 일부를 가톨릭 교회의 원칙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더 비싸거나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1854년 8월 15일자 회칙에서 비오 9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터무니없고 잘못된 교리나 외침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국가.' 같은 교황은 1864년 12월 8일자 회칙에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종교적 예배', '교회가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

“미국 로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력한 부분에 대해 관대합니다. 오코너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가톨릭 세계에 대한 위협 없이 반대가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단지 용인될 뿐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대주교는 한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단과 불신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종교가 국법의 필수적인 부분인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힘 내 힘'.

가톨릭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수 천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빛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진심 어린 예배와 단순한 의식과 형식 사이의 대조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이 기만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부드러운 연민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빛의 광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관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체계로서 로마교는 역사상 이전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개신교 교회들은 큰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광범위한 계획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통제권을 되찾고, 다시 한번 박해를 확립하고, 개신교가 행한 일을 되돌리기 위한 치열하고 단호한 갈등에 대비하여 영향력을 확장하고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부록, 참고 10 참조). 개신교의 후원을 많이 받는 미국 내 대학과 신학교의 인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의식주의가 성장하고 가톨릭 신자로의 빈번한 탈북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의 염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이 일에 전념해 왔으며 교황권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황주의자들이 보고 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타협과 양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정한 성격과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그 패권의 위험성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사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가톨릭 종교가 매력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예배는 무의미한 의식의 지루한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로마교가 속임수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잡하고 품위 없는 사기가 아닙니다. 로마교회의 예배는 매우 인상적인 의식입니다. 그들의 엄숙한 의식과 전시는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시키고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보기는 매혹적입니다. 장엄한 교회, 인상적인 행렬, 황금 제단, 보석으로 장식된 성물함, 엄선된 그림과 절묘한 조각품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음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기둥이 있는 대성당의 높은 돔형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의 선율과 뒤섞인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깊은 음표는 마음에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들고 죄 많은 영혼의 갈망을 실망시킬 뿐인 외적인 화려함, 화려함과 의식은 내적 부패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십자가의 빛 속에서 참된 기독교는 너무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떤 외부 장식도 그 참된 가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는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니 하나님께 값진 것이니라.

스타일의 광채가 반드시 순수하고 고상한 사고의 표시는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높은 개념, 섬세한 취향의 세련미는 일반적으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종종 사람들이 영혼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와 불멸의 생명에 대한 시야를 잃게 하고, 무한하신 조력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사단에 의해 이용됩니다.

외적인 의식의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매력적입니다. 가톨릭 예배의 화려함과 의식에는 매혹적이고 매혹적인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회를 천국의 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굳건히 발을 디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진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력한 형태의 경건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바로 대중이 원하는 종교이다.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교회의 주장은 로마교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 고백의 의식은 또한 악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앞에 무릎 꿇고 타락한 인간에게 마음의 은밀한 생각과 상상을 열어 주는 사람은 그의 인간성을 감소시키고 그의 영혼의 모든 고상한 본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필사자이며 종종 포도주와 방탕으로 타락한 제사장에게 그의 삶의 죄를 폭로함으로써 그의 품성의 표준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오염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타락한 인류의 모습으로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굴욕적인 고백은 세상을 부패시키고 최후의 멸망을 준비하는 많은 악이 흘러나오는 은밀한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여는 것보다 동료 인간에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보다 참회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더 적합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가죽끈과 뼈기풀과 꿩눈을 사용하여 육체를 죽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무거운 것은 육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기보다는 기꺼이 메고 싶어하는 멍에입니다.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로마 교회와 유대 교회 사이에는 놀랄 만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을 은밀히 짓밟았지만, 외적으로는 그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순종을 고통스럽고 지치게 만드는 강탈과 전통으로 율법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한 것처럼, 로마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이 상징이 상징하는 분을 생애에서는 부인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회와 제단과 의복 위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십자가의 휘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녀는 외적으로 존경받고 고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의미한 전통, 거짓 해석, 엄격한 강탈의 덩어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위선적인 유대인들에 관한 구주의 말씀은 더욱 적용됩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들은 무겁고 어려운 짐을 묶어서 남자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은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마태복음 23:4) 양심적인 영혼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끊임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교회의 고위 인사들은 정욕과 감각적 쾌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형상과 유물에 대한 숭배, 성인을 부르는 일, 교황을 높이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의 파멸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에게서 그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 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든 영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죄의 본질, 그리고 대쟁투에 걸려 있는 참된 결과를 왜곡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들의 꾀변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를 축소시키고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품게 하여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미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자신의 성격에 내재된 잔인함은 창조주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체계로 구체화되고 예배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은 눈멀게 되었으며,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의 대리자로 붙잡고 있습니다. 신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인해 이교 국가들은 신의 은총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통해 끔찍한 잔인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교와 기독교의 형태를 결합하고 이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가톨릭 교회는 그에 못지않게 잔인하고 반항적인 관행에 의지해 왔습니다.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고문 도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심판 때까지 결코 알려지지 않을 규모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인 사탄이 이끄는 교회의 고위 인사들은 희생자의 생명을 끊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가장 큰 고문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지옥 같은 과정은 자연이 항복할 때까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반복되었으며, 고통받는 사람은 죽음을 달콤한 안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반대자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채찍질, 굶주림의 고통,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육체적 고행을 가했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참회자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구상에 머무르는 것을 축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제정하신 모든 유대를 해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묘지에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억제하고 동료 인간을 위한 모든 생각과 동정심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 억제하기 위해 헛된 사업에 일생을 바친 수백만 명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수백 세기 동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국의 중심부와 그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 사탄의 단호한 잔인성을 이해하려면 로마교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이 엄청난 속임수 제도를 통해 악의 왕은 하느님께 불명예를 돌리고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가 자신을 위장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그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성경에 대해 그토록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무거운 짐 중 어느 것도 인간에게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심령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수도원에 갇혀 있도록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모범도 세우지 않으셨으며, 사랑과 동정심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감성은 더욱 세련되고 죄에 대한 인식은 더욱 예리해지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품성은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통에 가두는 것으로 항상 알려졌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자 사도 요한은 분개하여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다. (누가복음 9:54)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꾸짖으시며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영혼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9:56)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정신은 그의 대리자라고 공언하는 정신과 얼마나 다른가.

가톨릭 교회는 이제 끔찍한 잔혹 행위에 대한 사과의 기록을 덮어 세상에 유쾌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교황권의 모든 원칙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암흑시대에 창안된 교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속지 마십시오. 개신교인들이 지금 그토록 기꺼이 존경하고 있는 교황권은 종교 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 자신들의 죄악을 폭로했던 바로 그 교황권입니다. 그녀는 왕들과 왕자들을 지배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했던 것과 똑같은 자부심과 오만한 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제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교황권은 정확히 예언이 선언한 바로 그 것, 즉 마지막 날의 배도입니다(살후 2:3, 4). 자신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카멜레온의 다양한 모습 뒤에는 변하지 않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자들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천년 동안의 기록이 성도들의 피로 기록된 이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로 인정되었느냐?

개신교 국가들에서 가톨릭교가 이전 시대보다 개신교와 덜 크게 다르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교황권에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실제로 오늘날 존재하는 개신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크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세상의 호의를 구하는 동안 거짓 사랑이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대신에 그들은 이제 그들에 대한 무자비한 견해에 대해 로마에 사과하고 그들의 광신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 심지어 로마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힘과 영향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만연했던 지적, 도덕적 어둠이 그 교리, 미신, 억압의 확산을 촉진했으며, 현대의 더 뛰어난 지능, 지식의 일반적인 확산, 종교 문제에 대한 증가하는 자유화로 인해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가 증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합니다. 편협함과 폭정의 부활.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비웃음을 당합니다. 지적, 도덕적, 종교적 큰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열린 페이지에서 하늘로부터의 빛이 세상에 비쳐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더 커질수록 그것을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둠도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인들은 교황권의 진정한 성격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혐오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견해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되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자랑하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진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며, 덜 영적이고 굴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잇는 방법, 그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모든 사람, 즉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두 부류의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크게 어두워진 날이 교황권의 성공에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위대한 지적 빛의 날이 성공에도 똑같이 유리하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될 것입니다. 옛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이 가리웠고 수천 명이 엮매어 자기 발 앞에 놓인 그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대에는 “거짓 과학이라 불리는” 인간의 추측에 눈이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을 가린 것처럼 쉽게 그물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창조주의 선물로 여기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야망을 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론을 더 높일 때 총명은 무지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19세기의 거짓 과학은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교황권이 확대되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교황권을 즐거운 형태로 받아들이는 길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암흑기.

현재 미국에서 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국가의 지지로 확보하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신교도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부록, 주 11 참조). 더욱이 그들은 구대륙에서 잃어버린 패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교황권이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고려된 주요 목적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습은 로마에서 유래했으며 로마가 자신의 권위의 표시라고 선언하는 관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정신, 즉 세상 관습을 따르는 정신,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 전통을 숭배하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개신교 교회에 스며들어 있으며, 교황권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일요일 승영 사업을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그랬습니다.

독자가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될 것인지 알고 싶다면, 로마가 지난 시대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수단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합된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고 싶다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그 수호자들에 관하여 나타낸 정신을 보십시오.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는 왕실 칙령, 총회의, 교회 조례는 이교 축일을 기독교 세계에서 영예로운 위치에 올리는 단계였습니다. 일요일 준수를 의무화한 최초의 공개 조치는 콘스탄티누스(321년)가 공포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존경받는 태양의 날”에 쉬도록 요구했지만,

시골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합니다. 사실상 이교법이었지만 황제는 명목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를 부과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신의 권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왕자들의 호의를 구하고 콘스탄티누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아첨꾼이었던 주교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안식일에서 안식일로 옮겼다는 선언을 장려했습니다. 일요일.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의 단순한 증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무의식적으로 그 거짓을 인식하고 변화의 실제 작성자를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하려고 하던 모든 일을 주의 날로 옮겼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옹호하는 주장은 비록 근거가 없지만 사람들이 주의 안식일을 짓밟도록 조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대중적인 명절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황권이 굳건해지자마자 일요일 승영 사업은 계속되었다. 한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농업에 종사했고, 여전히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통제력 있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성한 직무에 관련된 치안 판사는 일요일에 민사 논쟁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자유인에게는 벌금을, 하인에게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부자들은 재산의 절반을 잃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영원히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기적도 사용되었습니다. 보고된 다른 경이로움 중에는 일요일에 밭을 갈려고 하던 한 농부가 손에 찔린 쇠로 쟁기를 닦은 후 2년 동안 쟁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고통과 수치심 때문에”.

나중에 교황은 본당 신부들에게 일요일을 어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설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 협의회는 그 이후로 심지어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자주 채택된 주장을 승인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일요일에 일하던 중 번개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날은 안식일임이 틀림없다. “눈에 보인다” -

고위 성직자들은 “오늘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제들과 목사들, 왕들과 방백들, 그리고 모든 충실한 사람들에게 “오늘을 그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교국의 유익을 위해 더욱 경건하게 기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세요.”

공의회는 법령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자 세속 당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칙령을 공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공의회에서는 이전의 모든 결정이 더욱 강력하고 엄숙하게 재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법에 통합되어 대부분의 그리스도교국 전역에 걸쳐 정부 당국에 의해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준수를 옹호하는 성경적 권위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존중하라는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다”라는 여호와와의 적극적인 선언을 뒤집을 교사들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편이 필요했습니다. 12세기 말에 영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던 한 열성적인 일요일 변호사는 진리에 대한 신실한 증인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너무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 동안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강화할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부족함은 채워졌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일에 더욱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제시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끔찍한 위협과 함께 일요일 준수에 필요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서, 그것이 확보하려고 했던 기관만큼이나 사악한 사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예루살렘 골고다의 성 시므온 제단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태어난 곳은 로마의 교황궁이었다. 교회의 권력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사기와 불순물은 모든 시대에 걸쳐 교황 계층에 의해 옹호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명부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해가 뜰 때까지 9시부터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는 많은 기적들로 입증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들이 마비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밀가루 대신 피가 튀고 물이 많아도 물레가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반죽을 오븐에 넣고 꺼냈는데 오븐이 매우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반죽이 익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9시에 빵을 굽기 위해 반죽을 준비했지만 월요일까지 따로 두기로 결정했는데, 다음날 그것이 빵으로 변해 하느님의 능력으로 구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 제구시가 지나서 빵을 굽다가 다음 날 아침에 빵을 떼어 보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고안을 통해 일요일 옹호자들은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는 일요일을 고대 안식일의 일부와 통합함으로써 일요일에 대한 더 나은 존중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하게 지켜야 할 시간은 다양했다. 스코틀랜드 왕의 칙령은 토요일을 정오부터 거룩하게 여겨야 하며 그 순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누구도 세속적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의 신성함을 확립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황주의자들은 안식일의 신적 권위와 그것을 대체한 제도의 인간적 기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16세기에 교황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곱째 날이 하느님에 의해 성별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숭배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준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의 정책에 대한 놀라운 예는 안식일 준수자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왈덴파에 대한 장기간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역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암흑 시대의 암흑 속에서 중앙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잊혀지고 잊혀졌으며, 수세기 동안 신앙을 행사하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는 그의 존재를 들었고, 에티오피아 황제는 곧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양보도 이어졌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칙령이 선포되어 가장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폭정은 곧 너무도 쓰라린 멍에가 되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인들은 그 멍에를 그들의 목에서 떼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끔찍한 투쟁 끝에 로마교도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추방되었고 고대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기뻐했으며 로마의 기만과 광신주의와 전제 권력에 관하여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은 다른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자신들의 섬 왕국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합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완전한 배교 이전에 교황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교회 관습에 따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로마는 최고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약 천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이 배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일 수밖에 없었으나, 다만 독립을 회복하고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데로 돌아섰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기록은 참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의 적개심과 안식일 창설 제도를 존중하기 위해 로마가 사용하는 수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높이는 일에 연합할 때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 짐승으로 대표되는 권세가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교황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상징됩니다. 두 뿔 가진 짐승은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겠고, 더욱이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하는 자와 종”에게 이르기를 짐승의 표를 받으라”(계 13:11-16). 미국이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대표되는 강국임이 입증되었으며, 로마가 인정 특별일로 선언한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패권. 그러나 교황권에 대한 이 헌사에서 미국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통치를 인정했던 국가들에서 로마의 영향력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분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계 13:3). 치명상이 발생한 사건은 1798년에 교황권이 폐지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 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재림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살후 2:8).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는 기만적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자는 교황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라.”

(계시록 13:8). 구세계와 신세계 모두에서, 교황권은 오로지 로마 교회의 권위에 기초한 일요일 제도에 부여될 영예를 통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미국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 간증을 세상에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에서 이 예측의 성취를 향한 급속한 진전이 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적을 조작한 교황의 통치자들처럼 일요일 준수에 대한 신의 권위에 대한 동일한 주장과 성경적 증거의 부족이 동일합니다. 인간이 일요일 휴식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늘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개신교 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녀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오류라고 주장하는 이 권세의 도움을 구하여 그로부터 시작된 제도를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녀가 이 사업에서 개신교를 돕기 위해 얼마나 쉽게 올 것인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황 지도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로마 교회는 교황의 감독을 받으며 교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운명을 지닌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백만 명의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교황과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국적이나 정부가 무엇이든, 당신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맹세를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로마에 대한 복종의 맹세가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약속을 면제해 줍니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 승영 사업에 대한 로마의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확립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는 권력을 다시 확립하고 잃어버린 패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문제에 개입하려는 그들의 교활하고 끈질긴 노력을 역사가 증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백들과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을 확고히 했습니다. 로마교는 교황이 “ 국가의 법,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어긋나는 선고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교령”)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레고리오 7세와 인노켄티우스 3세의 원칙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 힘이 있었다면 그녀는 지난 몇 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에도 그것을 활기차게 실천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미국에 일단 확립되게 하십시오. 종교적 관습은 세속법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교회와 국가의 권위가 양심을 지배해야 하며 이 나라에서 로마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개신교 세계는 함정에서 탈출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만 로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교리는 입법 법원과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박해가 반복될 비밀스러운 공간에 크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수행할 때가 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고 의심 없이 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기회뿐이며, 그 기회는 이미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 곧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책망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36장

임박한 갈등 - 그 원인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창조주께 반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같은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가 확고히 추구해 온 목표입니다. 율법 전체를 버리거나 그 계율 중 하나를 거부함으로써 달성되는 결과는 결국 동일할 것입니다. “한 점”을 범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과 모본은 범법의 편에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이 됩니다(야고보서 2:10).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려고 애쓰는 사단은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으며, 이제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마지막 큰 투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의 마지막 투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인간의 율법과 여호와의 교훈 사이의 싸움, 성경의 종교와 우화와 전통의 종교 사이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진실과 정의에 대항하여 연합할 기관들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인생의 지침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앙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놀랄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둥인 교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영감받은 저자들이 제시한 창조주의 위대한 진리, 인간의 타락, 속죄, 하나님 율법의 영속성은 공언하는 기독교계의 많은 부분에 의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사실상 거부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독립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이 탁월한 재능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성경에 관해 추측하는 법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목사들이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교사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사항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롱이나 경멸만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선별됩니다.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은 그들의 창조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음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주신 분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며,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의 성품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많은 경우 철학적 우상이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창조 활동을 통해 계시되어 경배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연을 신격화하면서 자연의 신을 부인합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우상 숭배는 엘리야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많은 현자, 철학자, 시인, 정치가, 언론인의 신 - 집단의 신

많은 대학, 심지어 일부 신학 기관에서 나온 세련된 패션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받아들인 오류 중 그 어떤 오류도 하늘의 권위를 더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은 없으며, 이성의 명령에 더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더 유해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더 힘이 듭니다. 모든 국가에는 존중과 순종을 요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들 없이는 어떤 정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존재를 다스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명한 장관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령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 즉 법령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강단에 얼마나 오랫동안 용납될 것입니까? 그러나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것보다 국가와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더 큰 범죄입니까?

우주의 주권자가 그분의 율법을 폐하고 죄인을 정죄하거나 죄인을 정당화하는 기준 없이 세상을 두는 것보다 나라들이 그들의 법령을 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실험은 이미 시도되었습니다. 무신론이 지배 세력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명령된 장면은 끔찍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제한을 버리는 것은 가장 악독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정의의 표준이 제쳐지면 악의 왕이 이 땅에서 자신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곳마다 죄는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으며 의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유해한 가르침을 통해, 천성적으로 통제를 용납하지 않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복종의 정신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종의 상태는 사회를 초래합니다. 군중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속기를 조롱하는 동시에 사탄의 속임수를 열렬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음탕함을 제어하고 이방인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의 씨를 뿌리고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과한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법은 곧 무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행위, 탐욕, 거짓말, 사기를 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세적 번영을 방해하는 그분의 법령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추방한 결과는 그들이 예견하지 못한 것과 같을 것이었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재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존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더 이상 가족을 보호하는 신성한 깃발로 남지 않게 됩니다. 힘있는 자가 원하기만 하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 갈지라도.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과 함께 폐하여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명 세계는 강도와 살인자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에서 면제된다는 교리는 도덕적 의무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세상에 최악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불법과 방탕과 부패가 마치 무서운 울무처럼 우리 위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족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독교를 공언하는 나라에서도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미움, 악한 의혹, 위선, 다툼, 거짓, 불화, 신성한 진리를 배반함, 음탕함 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토대와 기초를 형성해야 할 종교적 원리와 교리의 전체 체계는 붕괴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불안정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가장 사악한 범죄자들이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마치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예를 얻은 것처럼 선물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성격과 범죄가 크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그 악덕에 대한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을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절도, 살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지옥같은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악덕에 대한 열광, 호색적인 생활 행위, 부절제의 증가, 모든 계층과 정도의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일깨워 악의 흐름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패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이득에 대한 욕망과 감각적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부절제가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어렵게 하여 사단이 그들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자들은 왜곡되고, 뇌물을 받고, 기만당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 정욕, 시기, 온갖 종류의 부정직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공의가 멀리 섰고 진실이 거리에 넘어지고 공의가 들어오지 못함이니라”(이사야 59:14).

로마의 패권 아래 만연한 죄악과 영적 어둠은 로마가 성경을 억압한 결과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자유 시대에 복음의 빛의 불꽃 아래 만연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부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제 사탄은 성경을 숨겨서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없으므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믿음을 도입함으로써 마치 사람들이 율법의 계율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범법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회를 통해 일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인기 없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거부했으며, 진리에 맞서 싸우면서 해석을 채택하고 회의주의의 씨앗을 널리 뿌리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불멸성과 죽음에 대한 의식이라는 교황의 오류에 집착하면서 영매술의 속임수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을 거부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가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이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의무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인기 있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안식일을 함께 버립니다.

안식일 개혁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넷째 계명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보편화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불신앙, 영매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경멸의 문을 열어 주었으며, 이들 지도자들은 기독교 세계에 존재하는 죄악에 대해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류는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패의 원인이 소위 “기독교 안식일”에 대한 모독에 크게 기인하며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 사회 도덕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선언을 고수합니다. 이 진술은 참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되어 온 미국에서 특히 강조됩니다. 여기서 도덕 개혁 중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절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종 일요일 운동과 결합되며 후자의 옹호자들은 사회의 최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연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제와 개혁의 적들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류를 확립하려는 운동이 그 자체로 좋은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류를 옹호하는 논증은 아닙니다. 우리는 독을 건강한 음식과 섞어 위장할 수는 있지만 그 성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복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집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 하나는 진실과 거짓을 결합하여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운동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즉 성경과 조화되는 원칙을 옹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명을 옹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혼불멸과 일요일 성화라는 두 가지 큰 오류를 통해 사탄은 사람들을 그의 속임수로 이끌 것입니다. 전자가 영매술의 기초를 놓은 반면, 후자는 로마와 공감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심령주의와 악수하기 위해 만을 건너 손을 뻗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연을 건너 로마 세력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중 연합의 영향으로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짓밟는 로마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영매술은 오늘날의 명목상 기독교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속이고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더 큼니다. 사탄 자신도 현재의 질서에 따라 개종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영매술을 통해 기적이 행해질 것입니다. 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선은 이제 거의 식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기로** 결심하고 **(악센트 철회)** 그들 모두를 강신술의 대열로 끌어들이므로써 그의 대의를 강화합니다. 기적을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로 자랑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인들도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천주교인, 개신교인, 세속인 모두 힘이 없는 경건의 형태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은 이 연합에서 세상의 회심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천년왕국의 시작을 향한 큰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신술을 통해 사탄은 인류의 은인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새롭고 더욱 고귀한 종교 신앙 체계를 제시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 일합니다. 그의 유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절제는 이성을 폐위시킵니다. 관능적인 방종, 싸움, 유혈 사태가 뒤따릅니다.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최악의 정욕을 자극하고 희생자들을 악과 피에 잠긴 영원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서도록 준비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또한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의 수확물을 모으기 위해 환경을 통해 일합니다. 그는 자연 실험실의 비밀을 연구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힘을 사용하여 원소를 통제합니다. 그가 옴을 괴롭게 하려고 갔을 때 양 떼와 목자들, 하인들, 집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죽었는지, 한 순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신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파괴하는 자의 세력에서 그들을 봉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여호와와 법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서 그분의 축복을 거두실 것이며, 그분의 율법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보호의 돌보심을 거두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행은 가져올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의사로 나타나는 동안, 그분은 인구가 많은 도시가 황폐하고 황폐해질 때까지 질병과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일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사고와 재난, 큰 화재, 맹렬한 토네이도와 무시무시한 우박, 폭풍, 대홍수, 사이클론, 쓰나미, 지진 등 모든 장소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익어가는 수확물을 파괴하고 기근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방문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쇠퇴하며” “민족의 산당들이 쇠약하며 땅이 그 거민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이사야 24장) : 4와 5).

그리고 나서 큰 사기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일으키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범법자들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자들에게 돌릴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일요일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며, 그들의 죄는 일요일 준수가 엄격하게 시행될 때까지 그치지 않을 재앙을 가져왔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제시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외심을 파괴하고 있다고 선언될 것입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현세적 번영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비난이 반복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확고한 근거 위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아함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묻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니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계명을 잊어버렸느니라” 주를 따르며 바알들을 좇았느니라”(왕상 18:17,18).

거짓 비난으로 인해 백성들의 분노가 고조될 때, 그들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 관하여 따랐던 것과 매우 유사한 길을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하여 추구할 것입니다.

강신술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들로부터의 통신은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확신시키고 땅의 법이 하나님의 법처럼 순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엄청난 불경건함을 한탄할 것이며, 도덕의 타락한 상태가 일요일의 모독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종교 교사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큰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최후의 싸움에서 사단의 정책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촉진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은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성취하려고 애쓰던 바로 그 일을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바쳤습니다. 동일한 기만 정책이 로마 교회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늘의 대표자 역할을 한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정부 하에서

로마에서는 복음에 대한 충실함으로 인해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행악자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덮고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그들 자신에게도 가장 사악한 범죄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을 율법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지나 양심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유혹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수단은 잔인함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힘을 통해 그는 의식을 지배하고 자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를 통해 일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을 강요하도록 유도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존중하는 자들은 법과 질서의 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구속을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일으키며,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자들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적인 양심의 가책은 완고함, 완고함, 권위에 대한 경멸로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불충성으로 기소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국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제시할 것입니다. 입법부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비방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거짓된 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동기에 대해 최악의 해석이 내려질 것입니다.

개신교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의 분명한 주장을 거부하므로, 성경으로 전복시킬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에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나머지 기독교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황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은 모든 계층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뇌물을 주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 연합할 것입니다. 신성한 권위의 부족은 억압적인 법령에 의해 보충될 것입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미국에서도 주지사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른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싸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이 예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제37장

성경—안전 장치

“율법과 증거를 위하여! 만일 저희가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저희에게는 아침이 없느니라.” (이사야 8:20).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과 어둠의 영의 속이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경을 따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은 그 속임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더욱 강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에 맞서는 최후의 싸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큰 사기가 곧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위조품은 진리에 너무 가까워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둘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 모든 진술과 모든 기적이 시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대와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시험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 정부, 목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만 그분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한 자들만이 마지막 대쟁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 날카로운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발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참석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현세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랐으며, 그들의 모든 희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악명 높은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들 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언을 통해 미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우리 앞에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환난의 끝과 관련된 사건과 환난의 기간을 준비하는 사역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한 번도 계시받은 적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드는 모든 인상을 빼앗기 위해 조심하고 있으며, 환난의 때에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보내시어 그 경고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룩한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한 경배에 대해 선포된 무서운 심판(계 14:9-

11)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예언을 적용하여 연구하도록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진실에 귀를 닫고 우화를 더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때가 이르면 그들이 건전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딤후 4:3) 그 때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군중은 성경의 진리가 그들의 죄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표준과 모든 개혁의 기초로 유지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두실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의 의견, 과학의 추론, 교회 협의회의 신조나 결정은 교회가 다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만큼 다양하고 불일치합니다.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전부가 어떤 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신앙의 요점.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감독, 목사, 신학 교사를 지침으로 삼도록 이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지도자들의 정신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뜻에 따라 군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러 오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심지어 제사장들과 방백들까지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정죄하고 부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비난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신성한 능력과 지혜의 영향력을 느낄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 속에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메시아적 성품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배웠고, 그들의 권위에 암묵적으로 굴복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도자들과 현명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까? 만일 그가 그리스도라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구속주를 거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교사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서 작용했던 정신은 여전히 높은 경건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검토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와 부와 인기를 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수가 적고, 가난하고, 인기 없는 자들로 멸시하며, 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권위에 부당하게 복종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흠어지더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적 이상을 통해 그분은 양심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의 권위를 높이는 일을 예견하셨는데, 이는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에 끔찍한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분의 무시무시한 질책과 이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훈계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직자들을 위해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일반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갑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로마가 유지했던 동일한 원칙으로 인해 개신교 교회의 군중이 스스로 성경을 검토하는 것도 방해받았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해석에 따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조나 교회의 확립된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성서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 차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을 교직자들에게 기꺼이 맡깁니다. 오늘날 종교를 공언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외에는 자신의 신앙 요점에 대해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고 목사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오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그들의 인도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낡은 길에서 벗어나려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여 학식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사하기를 꺼리므로 그들은 절망적으로 오류의 사슬에 얽매게 됩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보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지켜보시는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만, 성직자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을 빛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은 영혼들은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인식, 그의 영원한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 오만, 편견에 희생됩니다.

사탄이 인간의 영향력을 통해 그의 포로들을 울무에 빠뜨리는 수단은 많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고, 부드러운 애정의 띠로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묶습니다. 당신의 연결이 무엇이든 - 아버지, 자녀, 부부 또는 사회적 - 효과는 동일합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며,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대한 확신을 순종할 만큼 충분한 용기나 독립성을 갖지 못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잘 못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의롭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삶은 믿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빛과 진리가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듣고 보는 특권을 누리려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들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25).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을 때 무지는 오류나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여러 개의 도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표지판에는 각 도로가 어디로 가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표지판의 지시를 고려하지 않고 그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택한다면, 그는 매우 성실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익숙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그에게 성경을 언급하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젊은이나 노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마땅한 형벌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율법과 그 원칙과 주장에 대한 신실한 제시를 그들의 손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목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의 신념이 강할지라도; 비록 목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를 갖고 있으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성적 존재의 첫 번째이자 가장 높은 의무는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빛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모든 생각을 저울질하고 구절과 구절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것처럼 신성한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는 위대한 지혜를 가장하면서 성경에는 신비롭고 은밀한 의미, 사용되는 언어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의심과 어둠 속에 가려져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24) 성경의 언어는 상징이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분명한 의미에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17) 사람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만일 그들의 마음을 그릇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다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사업이 성취될 것이며, 현재 오류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천만 명을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할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에 마음의 모든 능력을 적용해야 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이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의 온순함과 복종이 진정한 배움의 정신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철학적 문제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갈 때처럼 자신감을 갖고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의존과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자존자(I am)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정신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진리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신비라고 말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는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위로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실천하고 싶지 않은 진리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연구에 적용되는 지적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단일성,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경고로 훈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격려와 힘을 얻도록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하늘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요청한 대로 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유혹은 종종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함으로써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의 무기로 사탄과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성한 것들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는 여호와와 신이 그를 대항하여 그 깃발을 세우시리라”(사 59:19).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위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은 회의주의의 침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의 기초 자체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냉소와 궤변, 교활하고 해로운 현대의 불신앙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그의 유혹을 모든 계층에 적용합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들을 조롱이나 경멸로 공격하는 반면, 교육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똑같이 계산된 과학적 반대와 철학적 추론으로 대항합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이들조차도 기독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의 불신앙은 피상적일지라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비웃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히 10:29).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생명이 불신의 혐오스러운 입김으로 인해 타버렸습니다. 인간 이성의 오만한 결정을 신뢰하고 신성한 지혜의 도움 없이 신성한 신비를 설명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결박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열렬히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 특히 심판 장면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깊고 생생한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마법에 걸린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여, 잠들지 마십시오. 대적은 우리 가까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졸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뛰어들어 여러분을 먹이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신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악행을 자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열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강화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늘 책에는 그것들이 땅에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래스의 경우도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탄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깨우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조심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4-16)

시련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삼은 사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 돌풍이 불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올 것이며, 그 때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가 일어나고, 광신과 불관용이 다시 표면화되고, 박해가 다시 불붙고, 성실하지 못한 위선자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석처럼 굳건히 설 것이며, 그의 믿음은 번영하는 때보다 더 강해지고 그의 희망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증거들을 목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깨달았으므로 모든 거짓 행실을 미워하나이다.” (시 119:99 및 104).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을 향하여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건조한 해에도 수고하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잠언 3:13; 예레미야 17:8)

제38장

마지막 경고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르렀도다. 귀신과 모든 더러운 영의 교접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교접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1, 2, 4).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그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바벨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에 스며든 부패에 대한 추가 언급과 함께 반복되어야 할 때를 지적합니다.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종교계의 끔찍한 상태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흐려지고 마음은 더욱 굳건해지며, 마침내 개인들은 대담한 불신앙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계명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짓밟을 것이며, 마침내는 그것을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백성을 경멸함으로써 알아보십니다. 강신술의 가르침이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육신적인 마음에 부과된 제한은 제거될 것이며 종교적인 신앙고백은 가장 비참한 죄악을 가리는 망토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나타남을 믿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며, 그리하여 악한 천사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예언이 정한 때에 바벨론에 대하여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선언하였다. (아포크.

18:5). 그 여자는 자기 죄의 분량을 가득 채웠고 멸망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벨론에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신실한 자들을 그 곳에서 불러내어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고 큰 소리로 힘차게 외쳐 바벨론의 죄를 알리는 천사로 그 운동을 상징하는 이유이다. 그녀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내 백성아, 그에게서 나오라"는 외침이 들린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합된 이 경고는 땅의 거민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경고를 구성한다.

세상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연합한 땅의 세력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이냐”(계 13:16) 모든 사람이 교회의 관습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거짓 토요일을 지킵니다.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됩니다. 반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 그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듯이, 인간의 규례를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순종하기로 선택한 권력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섞이지 않은 채 잔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계시록 14:9, 10).

그러나 진리가 그의 마음과 양심에 제시되고 거부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의 의무는 결코 그 참된 빛으로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모든 동기를 저울질하시는 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 속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법령은 국민에게 맹목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지능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은 특히 논란이 많은 진실의 요점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시험하는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인간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구별의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따르고 넷째 계명을 반대하는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충성의 증거이다. 한 부류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표를 받아들임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 다른 부류는 신성한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를 더 선호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제시한 자들은 종종 단순한 경각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교적 불관용이 미국을 장악할 것이며,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 즉 종교 자유의 수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신있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의 의무 준수 문제가 널리 요동치자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마치 문앞에 있는 것처럼 확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전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효과를 생성합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에서 죄를 책망하기 위해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며 순수하고 단순한 진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개혁가들은 그들의 사업을 시작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공격하는 데 매우 조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본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의 교리로 다시 인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불경건한 왕과 배도한 백성의 죄를 책망하라고 촉구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분명한 표현, 즉 그들이 제시하기를 꺼렸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마크 제거)** 그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진실과 위험을 열심히 선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선포했으며,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더 큰 권능으로 그것을 베풀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도구를 통해 일하셔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교육 기관에서 얻은 학문적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국가 당국이 부과한 교회의 의무적 준수, 강신술의 침입, 은밀하지만 급속한 교황권의 발전 등의 끔찍한 결과가 모두 폭로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교회라는 말을 놀라면서 듣게 될 것인데, 그 교회는 그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사람들이 “일이 정말 이런가?”라는 불안한 질문을 가지고 고대의 스승들에게로 향할 때, 목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고조된 양심을 침묵시키기 위해 우화를 제시하고 즐거운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단순한 권위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명확한 것을 요구하므로 대중 사역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군중을 선동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게 할 것입니다.

논쟁이 새로운 분야로 확산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짓밟힌 하나님의 율법에 쏠릴 때 사단은 움직일 것이다. 메시지를 지원하는 힘은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직자들은 빛이 자신들의 양 떼를 비출까 두려워 빛을 차단하기 위해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는 시민 권력의 강력한 힘에 호소할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교황주의자와 개신교도는 연합할 것이다. 일요일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더욱 대담해지고 단호해짐에 따라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벌금과 투옥의 위협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지위와 기타 보상과 이점을 제안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리지 않는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보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비슷한 상황에서 루터가 했던 것과 동일한 요구이다. 법정에서 심문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힘차게 옹호할 것이며, 그들의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심적인 순종은 반역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눈이 멀게 된 아버지는 믿는 아들에게 잔인하고 가혹할 것입니다. 상사나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직원을 억압할 것입니다. 애정이 철회됩니다. 아이들은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딤후 3:12).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휴식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감옥에 갇히고 추방되고 다른 일부는 노예로 취급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억제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물러나고 인간이 신의 계율을 미워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다가옴에 따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성화되지 못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대적의 대열에 가담하게 된다. 세상과의 연합과 세상의 정신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사물을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그들은 더 쉽고 더 인기 있는 쪽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때 진리를 기뻐했던 재능 있고 친절할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영혼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전 형제들의 가장 쓰라린 적이 됩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될 때, 이 배교자들은 그들을 거짓된 빛으로 제시하고 비난하며, 거짓 증언과 암시를 통하여 통치자들을 그들에게 대항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유능한 대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박해의 때에 주님의 종들의 신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눈을 고정하면서 신실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들에게 강권하여 말하게 하신지라 거룩한 열심과 저항할 수 없는 신성한 충동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결과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명예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피해의 폭풍이 그들에게 닥칠 때, 불안에 짓눌린 일부 사람들은 기꺼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말의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수행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동시켰던 열정은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끼며 힘을 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명하신 분의 말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넣어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데일, 박스터, 웨슬리는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성경이 정직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분노로 박해가 가해졌으나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의 여러 시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맞게 조정된 특별한 진리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진실은 증오와 반대 사이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분의 빛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종들에게 궁극적인 자비의 초대를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한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 결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반대가 더욱 격렬해지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며,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통렬해졌지만, 위기 상황과 함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커졌습니다. 그의 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의를 얻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분류하여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패배한 세상이 두려운 걸까?"

다양한 형태의 박해는 사탄이 존재하고 기독교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한 지속될 원칙의 발전입니다. 어둠의 군대로부터 반대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인데, 그들의 영향력이 당신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의 모범으로 비난을 받은 악한 사람들은 악의 세력과 연합하여 유혹적인 유혹을 통해 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강제력을 호소하여 양심을 강제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인간의 증보자로 남아 계시는 한 통치자와 백성 모두 성령의 억제하는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전히 국가의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율이 없었다면 세상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통치자 중 많은 사람이 사탄의 활동적인 대리인인 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분의 도구를 갖고 계십니다. 원수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제안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영향을 받아 대답할 수 없는 주장으로 그러한 제안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싸움은 강력한 악의 흐름을 저지할 것입니다. 진리의 적들의 반대는 억제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일을 이루게 되리라.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저명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환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합류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동참하는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인 범위와 특이한 힘을 지닌 작업이 예측됩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있을 강력한 움직임은 이것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 날의 일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전파가 시작될 때 귀한 씨앗이 싹트게 하기 위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가 주어진 것처럼, “늦은 비”는 복음 전파가 끝날 무렵에 주어질 열매를 익게 할 것입니다. 수확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계속 알자 그가 나오시는 것은 아침이 되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오세.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의의 스승을 주시며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라”(요엘 2:23).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 선포가 시작될 때 이른 비를 쏟아 부어서 성취된 예언들은 복음 선포가 끝날 때인 늦은 비에서 다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상쾌하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행 3:19, 20).

거룩한 봉헌으로 빛나고 타오르는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서둘러 갈 것이며, 온 땅에 수천 개의 음성으로 경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도 합니다(계 13:13). 그리하여 지구의 주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취하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메시지는 논증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성령의 깊은 확신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니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교 봉사자들이 배부하는 출판물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진리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빛의 광선이 모든 곳을 관통하고,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속박을 깨뜨립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는 지금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수단이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제39장

고뇌의 시간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이르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이니라 그 때에 네 백성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단 12: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났을 때, 자비는 더 이상 땅의 범죄한 주민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는 “늦은 비”, 즉 “주 앞에서 상쾌함”(사도행전 3:19)을 받았으며 그 앞에 놓인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지구에서 돌아온 천사는 자신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마지막 시험은 세상에 적용되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함을 입증한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분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게 선언하실 때 천사의 무리 전체가 그들의 면류관을 벗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아포크.

22:11). 모든 사건은 사할이 걸린 문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의 수가 채워졌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만국의 위엄”(단 7:27)이 곧 구원의 후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주.

그분이 성소를 떠나실 때 어둠이 땅의 주민들을 덮습니다.

그 두려운 시대에 의인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가해졌던 제한이 제거되었고, 마침내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오래 참음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자비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며 그분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시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하던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제거되었습니다. 신성한 은혜의 피난처가 없다면 그들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주민들을 마지막 큰 환난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정욕의 파괴적인 바람을 억제하기를 그칠 때, 논쟁의 모든 요소는 풀려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과거 예루살렘에 닥친 것보다 더 끔찍한 파멸에 휩싸일 것입니다.

한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고 애곡으로 땅을 가득 채웠느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을 때, 천사가 그 끔찍한 멸망을 초래하여 그의 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천사들이 사용하는 파괴적인 능력이 악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행사될 것입니다. 지금은 황폐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신성한 허락을 기다리는 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은 세상에 심판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며, 자연의 무서운 동요, 인간 사이의 전쟁과 유혈, 지구를 불행으로 가득 채우는 모든 것의 원인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수반되는 권세는 악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 불타오를 것이며, 사탄은 증오와 박해의 영을 더욱 강렬하게 가져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 나라에서 사라졌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가장 끔찍하고 비뚤어진 정욕에 조종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여겼습니다. 성전 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염된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바쳐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목사들과 사도들을 죽기까지 박해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때, 땅의 주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의 형태는 결국 하나님의 영을 거두게 될 백성에 의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왕이 그들에게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영감을 주는 사탄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유사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교국 전체에 걸쳐 논쟁의 특별한 쟁점이 되었고 종교 당국과 세속 당국이 연합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소수가 대중의 요구에 복종하기를 끈질기게 거부하면 일요일을 보편적인 저주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 교회 제도와 국가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혼란과 불법에 빠지는 것보다 이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으니라. 1900여 년 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동일한 주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럴듯한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온 민족이 멸망할까 하노라"(요한복음 11:50). 이 주장은 결론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에게 법령이 내려질 것이며, 그들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죽일 자유를 백성들에게 줄 것입니다. 구세계의 로마교와 신세계의 배도한 개신교는 모든 신성한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해 유사한 행동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로 묘사한 고난과 고뇌의 장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수척하게 하였는가 아아 그 날이 심히 커서 이같은 일이 없었나니 이는 야곱에게 환난의 때이거니와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0:5-

7).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로 싸웠던 고뇌의 밤(창 32:24-30)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경험을 상징합니다. 원래 에서를 위한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 행해진 속임수 때문에 야곱은 형의 치명적인 위협에 겁을 먹고 목숨을 걸고 도망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자와 아이들과 양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의 변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복수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장도 없고 무방비 상태인 야곱의 대상은 폭력과 학살의 희생자가 되어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부담에 자책의 참을 수 없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협을 초래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 위협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때가 다가옴에 따라 편견을 없애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합당한 빛 가운데 두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고통을 보지 않도록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냈고, 야곱은 홀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게 남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며 깊은 겸손을 가지고 부모와 맺은 언약과 베델의 밤 이상과 그 땅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망명.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둠과 고독 속에서도 그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어깨에 손이 얹혀지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는 적이라고 생각한 그는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가해자와 싸운다. 새벽에 낯선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의 손길에 건강한 남자는 마비된 것처럼 보이며 울부짖으며 애원하며 신비한 적 대자의 목에 몸을 던집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언약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당혹감과 후회, 괴로움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성한 방문객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분께 매달리고 축복을 구합니다. 천사는 "새벽이 되었으니 나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족장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큰 자신감과 확고함과 인내가 나타나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이 자랑스럽고 오만한 주장이었다면 야곱은 즉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자신의 약함과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천사와 싸워 이겼느니라”(오세. 12:4). 굴욕과 회개와 자기 항복을 통해 이 그릇되고 죄 많은 필사자는 하늘의 폐하를 이겼고, 그는 떨어뜨려도 확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으며, 무한한 사랑의 마음은 죄인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증거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본을 따르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상기시키는 이름에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사실은 그가 사람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고소하면서 그의 죄 때문에 그를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충동하여 그를 대적하도록 선동했고, 족장의 긴 투쟁의 밤 동안, 사탄은 그를 낙담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애착을 깨뜨릴 목적으로 그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야곱은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에게 굳게 매달리고 열렬하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청원을 주장하여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에서를 부추겨 야곱을 대적하도록 부추겼던 것처럼, 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악인들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비난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민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작은 무리는 그분의 최상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지구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건이 하늘 성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적은 그들이 범하도록 유혹한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고 “~에게”를 삽입함) 의 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가장 추정된 관점에서 주님 앞에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은 보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은총에서 제외됩니다. 주님은 공의로 용서하실 수 없다고 선언함

그들의 죄를 멸하고 그와 그의 천사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는 그들을 자신의 먹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자신의 손에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를 최대한으로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 믿음, 확고함은 엄격하게 시험될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희망은 쇠퇴합니다. 평생 동안 좋은 것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처지는 절망적이며 그들의 타락의 오점은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겁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애쓰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진리로 인한 박해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내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에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계시록 3장)라는 구주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10). 그들이 용서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당하지 않고 품성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배신적인 음모를 듣고 반란의 활동적인 활동을 관찰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 큰 배도가 중단되고 악인의 불경건이 끝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 영혼의 불타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의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은 강력한 악의 물결에 저항하고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극심한 자기비난입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모든 능력을 바쳐, 힘을 더해 더 힘차게 전진했다면, 사단의 형태가 그들을 이길 힘이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많은 죄를 회개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슬퍼합니다. 5).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꿩은 불안과 깊은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중보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이용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언어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이다.

만일 야곱이 사기로 장자권을 얻은 죄를 미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번민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그들의 믿음을 제거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간구할 자신감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야 할 숨겨진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리 조사되어 심판 때에 지워지고 기억되지도 아니하느니라.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삶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불충실함을 간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 결코 악을 승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은 자백과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하늘 책에 남아 있도록 허용하며 사탄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더 높고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더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심각해지고, 대적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미루시는 분들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되 환난의 때나 그 후의 때에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경우에는 절망적입니다.

마지막 끔찍한 싸움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다가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고뇌의 말로 필사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할 것이며, 반면에 악인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범법의 결과를 애용하지만 그들의 죄는 슬퍼하지 않는 에서나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진정한 회개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만, 옛날의 바로처럼 형벌이 제거된다면 그들은 하늘에 대한 반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또한 죄에 속고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았지만 참된 회개로 그분께로 돌아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탄이 이 반열을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험할 때 당신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는 천사들, 사탄의 공격은 맹렬하고 단호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끔찍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눈은 그의 백성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니라. 그들의 고통은 크며 풀무불이 곧 그들을 소멸할 것 같으니 그러나 정련하시는 분이 그들을 불로 연단한 금 같이 드리실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밝은 번영의 시대만큼 강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신의 땅에 속한 본성이 소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뇌와 고난의 기간에는 피곤함과 지체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즉 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인내와 결단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족장처럼 열심하고 인내하는 자는 그와 같이 성공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분의 축복을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씨름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모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때까지 영혼의 통회와 강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허용한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파도가 간구하는 사람을 덮칠 때,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믿음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속임수와 양심을 속박하는 법령의 세력에 빠질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더라도 환난의 때에 더 깊은 괴로움과 환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낙담의 무서운 압력 아래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약속을 확증함으로써 그분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소홀히 하느니 차라리 이기적인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그분의 승인을 받는 가장 깊은 가난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이 없는 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관심사에 몰두하도록 허용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금 우상, 집, 비옥한 땅을 제거할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걷기를 거부한다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전하는 사자들이 냉담하고 사심 없고 게으른 태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열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을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나이다”(창 32:30).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승리할 권세를 가진 왕자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곧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경험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보다 괴로움이 더 크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생생한 이야기도 증거의 규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14:20).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어떤 생각으로도 유혹의 세력에 굴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발을 심을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된 욕망을 품고 있어서 유혹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나니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4:30).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으며, 사탄이 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죄는 그분 안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설 자를 찾아야 할 조건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의 소중한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과 연결시키고, 우리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와 연결시키며,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하는 학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더 쉽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항상 우리 앞에 두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품성을 신성한 모델에 맞추는 일에 천사가 고용한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에 큰 위험을 끼치지 않고는 이 사업을 등한히 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짧은 줄을 알므로 너희에게 크게 분내어 시간”(Apoc. 12:12).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표현되는 장면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그의 기만과 파괴 활동은 환란의 때에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악마의 힘의 표시로서 초자연적인 본성에 대한 무서운 환상이 곧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악마의 영들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속이는 함정에 빠뜨리고, 하늘 정부에 대항하는 사탄의 마지막 투쟁에 가담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이 대리인들을 통해 황제와 신하 모두 똑같이 속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오직 세상의 구속주에게만 속한 칭호와 예배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증언과 모순되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놀라운 치유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대기만의 드라마의 정점에 있는 행위로서 사탄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인화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구주의 재림을 그 희망의 완성이로 여긴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면 큰 사기꾼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사탄은 묵시록(1:13-15)에서 요한이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와 유사한 장엄하고 눈부신 광채를 지닌 존재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은 인간의 눈으로 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승리의 함성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가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음성은 다정하고 부드러우며 멜로디가 가득합니다. , 구주께서 선언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일부를 제시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추정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지키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합니다. 일곱째 날을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로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강력하고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속임수니라

마술사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인들처럼,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큰 무리가 이 마술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니라”(행 8:10)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축복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 곧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여될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바로 그 부류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더욱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을 왜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관해 당신의 백성에게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당신의 재림의 방식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그가 집 안에 있겠으나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24-27) 이 오는 것은 위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목격될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사로잡는 강력한 속임수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 그들은 변장한 사기꾼을 찾아낼 것입니다. 시련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입니다. 유혹의 체질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확고히 자리잡아서 감각의 증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한 위기 속에서 성경과 성경에만 매달릴 것인가? 사탄은 가능하다면 그들이 그날에 서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길을 막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보물로 그들을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지우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생의 염려로 짓눌려 시험의 날이 도적 같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통치자들이 공포한 법령이 그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와 마을에서 도망하여 모일 것입니다. 가장 황량하고 외로운 곳에서 떼를 지어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성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피에몬테 계곡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바위의 요새”(사 33:16)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의 높은 곳을 그들의 성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 모든 상류층과 하층계층,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당하고 잔인한 노예 생활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선고받고, 어둡고 역겨운 지하 감옥에 굶주리게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인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손도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련의 시간에 그분의 백성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전 세상에 임했을 때 그분은 신실한 노아를 잊으셨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평지의 도시들을 멸절시켰을 때 그분은 롯을 잊으셨는가?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요셉을 잊으셨나요? 이세벨의 맹세가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을 위협했을 때 그분은 엘리야를 잊으셨나요? 그는 감옥의 어둡고 음울한 동굴에 있는 예레미야를 잊었나요? 풀무불 속에 있던 세 명의 합당한 히브리인을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입니까?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느니라. 여자가 자신이 키우는 아이를 그토록 잊어버리고 자기 자궁에서 나온 아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사 49:14-

16).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만지는 자마다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자니라”(속 2:8)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감옥에 던져도 지하 감옥의 벽은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교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모든 시련을 잘 아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감옥은 궁전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곳에 거할 것이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처럼 어두운 벽이 하늘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그들의 오래 참음은 그들을 죄에 더욱 담대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형벌은 비록 오래 연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확실성과 끔찍함은 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 자기의 이상한 일을 행하시며 자기의 일, 자기의 이상한 일을 행하시리라”(사 28:21). 자비로우신 우리 하느님께 형벌을 가하는 행위는 이상한 행위입니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에스겔

33:11).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여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유죄인은 무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권능이 크시며 죄 있는 자를 무죄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출 34:6, 7; 나 1:3). 율법 범죄자에게 임할 보응의 엄중함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기를 꺼려하심으로 판단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 죄악을 회개하기 전에는 벌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마침내 진노의 잔을 가차 없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의 중보를 그치실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긍휼 없는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계 14:9, 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쏟아부으신 재앙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기 직전에 세상에 임할 가장 강렬하고 무서운 심판과 비슷했습니다.

묵시록의 저자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악한 상처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변하였고 바다 가운데 모든 살아 있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들과 물샘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 당신은 의로우시도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심판하시나이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도 마시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6:2-6)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자기 손으로 흘린 것처럼 자기 피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 안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아벨 시대 이후로 거룩한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같은 정신을 갖고 선지자들을 살해한 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뒤따르는 재앙에서 태양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받았고 큰 열로 사람이 그치더라”(8절과 9절). 선지자들은 그 끔찍한 당시의 땅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땅은 [...] 밭의 수확물이 죽었으므로 슬프다.” “들의 나무가 다 시들었고 인생의 기쁨이 말랐도다.” “씨앗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곳간은 황폐해졌습니다.” “소가 어찌 그리 신음하느냐! 소떼가 소란을 당하는 것은 풀이 없음이라... 강물이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느니라.” “그 날에 성전의 노래가 고통의 부르짖음이 될 것이며 사체가 많아 각처에 버린 바 되리라”(요엘 1:10-12, 17-20; 아모스 8:3).

이 재앙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주민이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인간에게 내려지는 모든 심판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는 죄인이 그의 죄를 온전히 받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멸해 왔던 하느님 자비의 피난처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들이 한 곳에서 떠나 유리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되 얻지 못하느니라”(암 8:11, 12).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과 식량 부족을 겪을지라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심 없는 그분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까지 세시는 이가 그것을 돌보시리라. 기근의 때에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악인들이 굶주림과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양식은 주어지고 그의 물은 보장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랐느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을 들을 것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사 33:16, 41: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초원에 양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소가 없더라도” 그러나 그를 경외하는 자는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주 안에 있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하박국 3:17, 18).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시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도, 어둠 속에 퍼지는 역병도, 한낮에 멸망시키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너는 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는 눈으로만 보고 악인의 보응을 보리라. 주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의 거처이십니다. 어떤 재앙도 네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시 121:5-7, 91:3-10).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보다 앞선 순교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머지않아 자신들의 피로 그들의 간증을 인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기뻐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기대하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니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마태복음 27:42). 야곱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너의 표정 내면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Pallor는 모든 얼굴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렬한 중보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비전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애정 어린 애정으로 여러분의 고뇌를 지켜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서 그들을 구출해 달라는 지휘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잔을 마시고 세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로 그 지연이 그들의 청원에 대한 최선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신앙 체험 동안 거의 실천하지 않았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실천하도록 인도받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를 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밀은 모아져서 하나님의 창고를 위한 단으로 묶일 것입니다. 가라지는 묶음으로 묶여 멸망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상의 파수꾼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령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적들이 그 법령을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그들의 존재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충실한 영혼 주위에 배치된 강력한 수호자들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치켜든 칼은 부서져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사의 형태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출해 오셨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들은 번개처럼 눈부신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행자 옷을 입은 남자처럼 왔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듯 정오에 참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가정의 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놀란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제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감옥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갑옷을 입은 그들은 구주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에서 돌을 옮기러 왔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은 의인의 모임에 자주 발견되며, 악인의 모임에도 방문합니다. 마치 소돔에 가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하고, 그들이 천국의 한계를 넘었는지 확인하려고 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은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당신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그분께서는 재난을 억제하시고 군중의 평안을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이 조롱하고 억압하기를 좋아하는 충실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빛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사실을 무시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종종 그들의 회의에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귀는 그들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입술은 그들의 제안에 반대하고 그들의 조언을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그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의회와 법정에서 이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 역사에 대해 깊은 지식을 보여 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유능하고 유능한 옹호자보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의를 옹호하는 데 더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키고 그분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목적을 무너뜨리고 악을 중단 시켰습니다.

위험과 고난의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려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하나님의 백성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오실 왕의 징조를 기다립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들이 "경비원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주저 없이 주어집니다. “아침이 오고 밤도 오느니라”(사 21:11, 12). 산꼭대기 위의 구름에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의의 태양이 곧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가까왔으니 의인에게는 끝없는 낮이 시작되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밤이 임하느니라.

고군분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청원을 주님 앞에 보낼 때, 보이지 않는 것과 그들을 가르치고 있던 휘장이 거의 벗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면서 빛나고, 천사의 노래 선율처럼 "주의 신실하심에 굳건히 서라. 도움이 오리라"라는 말이 귀에 울립니다. 전능하신 정복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친 전사들에게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반쯤 열린 문을 통해 그분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모든 고난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검증되지 않은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싸웠고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보내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주님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모든 십자가를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평화를 누리도록 준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갈등을 허용하십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시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참된 신자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약속의 아치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시온에 이르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덮이겠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나,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나 건초가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누구에게?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느냐... 파괴하려고 준비하는 괴롭히는 자의 진노를 너희가 종일 두려워하느냐? 당신을 괴롭힌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가 곧 풀려나리니 그는 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바다를 가르고 그 파도가 소리 지르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니라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느니라”(사 51:11-16).

“그러므로 너희는 놀려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주 여호와,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 주실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서 머뭇거림의 잔을 거두리라, 곧 내 진노의 잔이니 너희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를 슬프게 하는 자들의 손에 내가 그것을 맡기리니 그들은 네 영혼에게 이르기를, 몸을 굽혀 우리가 너를 넘어가게 하라. 당신은 당신의 등을 나그네의 땅과 길로 삼으셨습니다.”(사 51:21-23)

수세기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세력이 그들을 대적할 때 당신의 백성이 직면하게 될 위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포로 유배자들처럼 그들은 굶주림이나 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내 소유로 삼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껴 주리라”(말 3:17). 그 당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의 피가 흘렀다면 그것은 순교자들의 피처럼, 하나님을 위한 수확을 위해 뿌려진 씨앗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충실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확신시키는 간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고해진 마음이 자비의 물결을 거부하여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인들이 남아 있다면

적들의 먹이가 된다면 그것은 어둠의 왕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 장막에 감추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리로다”(시 27:5).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진노가 쉬기까지 잠간 숨어 있으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그 거민을 벌하시리라.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리라”(사 26:20, 21). 주의 오심을 참고 기다리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원은 영광이로다.

40장

하느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 법의 보호가 철회될 때, 여러 나라에서 법을 파괴하려는 동시적인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법령에 정한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미워하는 종파를 뿌리 뽑으려고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단 하룻밤 만에 결정적인 공격이 완료되어 불화와 반대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잠해질 것이라고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숲과 산의 한적한 은신처에 숨어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반면,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악한 천사들에 의해 쫓겨난 무장한 사람들의 무리가 비참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가장 극단적인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노래가 있어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겠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와 산 곧 그 반석에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그 음성의 영광을 듣게 하시며 진노하심으로 그 팔을 낮추시며 맹렬한 불꽃과 번개와 홍수와 우박을 내리시리라.” (이사야 30:29, 30)

승리와 조롱과 저주의 함성을 지르며 수많은 악인들이 그들의 먹이를 향해 돌진하려 할 때, 보라,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짙은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각 무리를 기도로 감싸는 것 같습니다. 성난 군중이 갑자기 멈춘다. 그들의 조롱하는 포효는 잦아듭니다. 그의 살인적인 분노의 대상은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징조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목상하며 그 은은한 광채 아래서 보호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찾아보아라"라고 말하는 분명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약속의 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름들 궁창을 덮고 있는 검고 두려운 구름이 물러가서 스데반처럼 확고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으신 인자를 보라. 그분의 신성한 형상 안에서 그분의 굴욕의 흔적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그분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리는 간구를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다시,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라고 말하는 감미롭고 승리에 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고 결백하며 흠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천사들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킨 이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입니다. 태양은 그 힘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빠르게 서로 뒤따릅니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놀라움으로 바라보지만, 의인들은 엄숙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표적을 관찰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류 흐름이 멈춥니다.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나타나 서로 충돌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한가운데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광활한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서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17)

이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든다. 큰 지진이 나니 이는 사람이 땅에 창세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더라 이가 심하니라

지진이 일어나도다”(계 16:18). 궁창이 열리고 달하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하늘에 비치는 것 같으니 산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으며 견고한 바위가 사면으로 던지는 것 같도다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 같은 굉음이 들리고, 바다는 분노로 휩싸인다.

허리케인의 날카로운 소리는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악마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지구 전체가 바다의 파도처럼 솟아오르고 팽창합니다. 표면이 조각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산맥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소돔과 같이 된 항구들이 거센 물에 삼켜졌도다.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려고”(계 16:19, 21) 나타났다. 무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파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부를 흠뻑렸던 화려한 궁전은 그들의 눈앞에서 폐허로 변합니다. 감옥의 벽은 깨지고, 믿음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니라”(단. 12:2).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모두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일어나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맺는 평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를 찌른 자”(계 1:7), 그리스도의 고통을 조롱한 자,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가장 폭력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은 일어나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봅니다. 충실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촉촉한 구름이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그들을 통과하여 마치 여호와와 복수하시는 눈길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격렬한 번개가 내려와 지구를 화염으로 뒤덮습니다. 무시무시한 천둥소리 너머로 신비롭고 두려운 목소리가 악인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그토록 태평하고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던 자들이 이제는 경악에 놀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자연의 소리 너머로 들립니다.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보고 그분의 능력에 떨며 반면에 사람들은 자비를 구하며 비열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거룩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3:6) "너희는 바위에 들어가서 여호와와의 두려운 앞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여 티끌 속에 숨으라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사람의 교만한 것이 낮아지되 여호와께서 홀로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무릇 자기를 높여 낮추는 자를 대적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 앞에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바위 틈과 바위 굴에 들어갈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임재와 그가 일어나사 땅에 임하실 그 위엄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사야 2:10, 20, 21)

구름 틈을 통해 어둠에 비해 네 배나 더 밝은 별이 빛납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가혹함과 진노를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비밀스러운 곳에 숨은 것처럼 안전합니다.

여호와와의 장막의 비밀. 그들은 시험을 받았으며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간증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서도 변함없이 성실을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악마로 변한 인간들의 어둠과 끔찍한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창백하고 불안하고 수척해졌던 그들의 얼굴에서는 이제 감탄과 믿음,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승리의 노래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일지라도, 산들이 바다 가운데에 옮겨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물이 으르렁거리고 요동하나 그 맹렬함으로 산이 흔들리도다.” (시 46:1-3)

이 거룩한 확신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이 물러가고 별이 총총한 하늘이 양쪽에 있는 어둠과 무거운 궁창과 대조되어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천상의 도시의 광채는 반쯤 열린 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 접힌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손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50:6) 천둥과 불꽃 가운데 생명의 지침으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거룩한 법, 즉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는 심판의 법칙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손이 판을 펼치면 마치 불펜으로 굿듯이 십계명의 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어가 너무 명확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일깨워지고, 미신과 이단의 어둠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소되며, 간단하고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신성한 십계명이 지상의 모든 주민의 눈에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회개하고 개심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의 품성을 그녀의 품성과 비교하여 그녀의 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의 교훈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법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때 멸시했던 율법으로 인해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숭배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다시 보게 되리라.” (말라기 3:18)

목사로부터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원수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과 그들이 쌓아온 모래 기초를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종교 교사들은 영혼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한다고 공언하면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종 결산의 날이 올 때까지, 신성한 직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영원에서만 우리는 한 영혼을 잃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아 물러가라 하시는 자의 파멸은 심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합니다. 가장 강력한 천둥소리처럼 그분의 말씀은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악인은 그들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에게 축복이 선포될 때,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곧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난다. 그것은 구주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이며, 멀리서 보면 어둠에 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인자의 표징인 줄을 아느니라.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이 점점 더 밝고 더 영광스러워져서 거대한 흰 구름이 되고, 그 밑부분은 소멸하는 불 같은 영광을 품고 그 위에는 콘서트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력한 정복자로서 전진하십니다.

지금은 부끄러움과 비참함의 쓴 잔을 마시는 '슬픔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승리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하사" 그분은 "의를 위하여 심판하시며 싸우시느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묵시록 19:11 및 14). 천상 선율의 찬송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동행합니다. 창공에는 수천만, 수백만의 빛나는 형상이 넘쳐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펜도 이 장면을 묘사할 수 없으며, 어떤 필멸의 마음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상상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땅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더라."(하박국 3:3, 4). 구름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모든 사람이 생명의 왕을 바라보느니라. 이제 가시관이 거룩한 머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그 위에 계시니라 거룩한 이마 하나님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의 눈부신 광채를 훨씬 능가하며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계시록 19:16).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공포가 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고, 무릎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예레미야 30:6; 나훔 2:10)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외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조용해지고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그 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인의 얼굴은 빛나고 땅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만왕의 왕이 화염에 싸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느니라.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땅이 그 앞에서 진동하며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서 불이 사르며 그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겠고 그가 위의 하늘과 땅을 불러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시 50:3, 4).

"땅의 왕들과 대인들과 부자들과 천부장들과 유력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15-17)

조롱하는 농담이 멈춥니다. 누워있는 입술이 닫힙니다. 무기의 천둥소리와 전쟁의 소란이 "소란하며 피에 구르는 옷"(사 9:5)이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탄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조롱하던 입술에서는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부르짖음이 새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멸사하고 거부했던 그분의 얼굴을 뵈기보다 오히려 산의 바위 아래에 묻히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귀를 꿰뚫는 그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콤하고 호소력 있는 호소는 얼마나 자주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까! 친구, 형제, 구속주의 감동적인 간구를 통해 그녀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음성도 그보다 더 충만할 수 없습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으려느냐?”

(겔 33:11). 아, 이 목소리가 그들에게 이상할 수도 있구나! 예수께서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으니 이는 내가 손을 뻗었으나 듣는 자가 없었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버리고 나의 책망을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24, 25).

그 목소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초대를 거부하고, 특권을 무시하는 등 기꺼이 사라지게 할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굴욕을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그는 대제사장의 부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 고난받는 자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64). 이제 그들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만, 그분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비웃던 자들은 이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군인들에게 자신에게 왕위를 씌워달라고 명령한 오만한 헤롯이 있습니다. 악한 손으로 그분께 자색 옷을 입히고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운 바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저항하지 않고 흘 같은 형상을 그의 손에 쥐고 그의 앞에 몸을 굽혀 신성모독적으로 조롱하였느니라.

생명의 왕을 치고 그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꿇는 시선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임재의 압도적인 영광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들은 공포와 후회의 마음으로 이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갈보리 사건을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사탄의 환희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그를.” ;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지금 그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27:42, 43).

그들은 주인에게 포도원 소산을 주기를 거부하고 종들을 학대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비유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스스로 내린 선고를 기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 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불충실한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통해 그들 자신의 행위와 또한 정당한 형벌을 봅니다. 이제 필멸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솟아오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지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보다 더 크게,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메시아입니다!”라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의 면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원소들의 전쟁으로 분열된 지구의 깊은 동굴에 그들은 숨으려고 노력하지만 헛된 일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양심이 깨어나고 위선 생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며 영혼이 헛된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파멸 같이 오며 파멸이 광풍 같이 오”던 그 날의 후회와 비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27)?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실한 백성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은 이제 그들 위에 임한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기쁨에 찬 노래로 “보라 이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외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25:9)

지구의 움직임, 번갯불, 천둥의 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의인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며 외치십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구의 길이와 너비에 걸쳐,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것이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리고 온 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심히 큰 군대의 발소리로 울릴 것이다. 그들은 죽음의 지하 감옥에서 불멸의 영광을 입고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그리고 살아 있는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 길고 즐거운 승리의 합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때와 같은 높이로 무덤을 떠납니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아담은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체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는 후세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바로 이 한 가지 측면에서 인류의 엄청난 퇴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태초에 사람은 성품뿐 아니라 형태와 특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고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본받으실 것입니다. 부패하기 쉽고, 은혜가 없고, 죄로 인해 변색된 필멸의 형태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불멸하게 됩니다. 모든 기형과 결함은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회복된 구속받은 자들은 태고의 영광 가운데 인류의 온전한 키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죄의 저주의 마지막 남은 자들은 제거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실한 자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인 영광과 혼과 몸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원! 오랫동안 소문이 돌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간절한 기대로 숙고했지만, 완전히 이해된 적은 없었습니다!

살아 있는 의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집니다. 천사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린아이들은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어머니의 품에 안겨집니다. 오랫동안 죽음으로 헤어진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느님의 도성으로 올라갑니다.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살아있는 바퀴가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 올라갈 때 바퀴는 “거룩하다”고 외치고, 날개는 움직여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행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 차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상장을 주시고, 그들에게 왕권의 휘장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눈부신 날개는 그들의 왕 주위에 속이 빈 사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왕의 장엄한 모습은 성인들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의 얼굴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랑의 충만함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를 통해 모든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눈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흥하고 그분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친히 오른손으로 씌우십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의 “새 이름”(계 2:17)이 적힌 면류관이 있고 “주님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손에는 승리자의 손바닥과 빛나는 하프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스리는 천사들이 음을 칠 때 모든 손이 하프 현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여 풍부하고 선율적인 화음으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떨게 하고 모든 목소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계시록 1:5, 6)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주문을 완전히 여시고 진리를 지켜온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순진한 아담의 집인 하느님의 낙원을 목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 더 영광적인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갈등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제자들을 위한 구주의 기도가 성취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곧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고 기쁨으로"(유 24장) 그들을 당신의 피로 사신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여기 있나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지켰습니다." 오! 사랑을 구속하는 경이로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죄의 불화와 저주가 제거된 채 그분의 형상을 관상하고, 인간이 다시 한번 신성과 조화를 이루는 그 시간의 휴거!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신자들에게 인사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기쁨"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구주의 기쁨은 그분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영광의 왕국에서 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 가운데서 목상하면서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얻은 사람들을 볼 때,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얻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안식의 항구, 그곳으로 인도된 것을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끝없는 세기 동안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환영받고 영접받는 순간, 기쁨에 찬 예배의 외침이 공중에 울려 퍼집니다. 두 아담이 곧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창조하셨고 창조자에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로 인해 구주의 몸에 십자가형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잔혹한 못 자국을 보자마자 주님의 가슴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합당하시도다." 구주께서는 다정하게 그를 들어 올리시며 그가 오랫동안 유배되었던 에덴의 집을 다시 바라보도록 권유하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아담의 지상 생활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시드는 나뭇잎, 모든 희생 제물, 아름다운 자연의 모든 훼손, 인간의 순결에 대한 모든 오점은 그의 죄를 새롭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연한 죄악을 보고 그들의 경고에 응하여 죄의 원인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가 후회하는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참을성 있는 겸손으로 그는 거의 천년 동안 범법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된 구원자의 공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속죄 사업을 통해 아담은 그의 첫 번째 통치권을 회복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의 황홀 속에서 그는 한때 그의 기쁨이었던 나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은 그가 순수하고 기쁨이 넘쳤던 시절에 그 자신이 수확했던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꾸었던 포도나무, 한때 그가 그토록 즐겁게 돌보던 꽃을 관찰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장의 현실을 포착합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에덴임을 깨닫고,

쫓겨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요.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아담은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구원받은 그의 가족의 무리를 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빛나는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가슴에 얹으며 구원자를 포옹합니다. 그가 황금 하프를 연주하면 하늘의 화랑은 승리의 노래를 울려 퍼집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여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 아담의 후손들이 곡조를 따라 구주의 발 앞에 절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던집니다. 그를 예배합니다.

이 만남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울었던 천사들이 목격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의 무덤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취된 구속 사업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수정 바다,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짐승과 그의 형상과 및 그 위에 승리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의 표와 네 이름의 숫자 위에"

(계시록 15:2)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도 나는 것 같은 "거문고 타는 자들의 하프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불렀으니 이 노래는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래라. 이는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찬송이로다. 사천이면 너희가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체험의 음악임이요 또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라' 땅은 산 자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첫 열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계 14:1-5; 15:3)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계 7:14). 그들은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의 때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동안 중보자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해방되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덮으시리라." (계시록 7:15) 그들은 기근과 역병에 휩싸인 지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높은 온도로 인간을 처벌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 자신도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와 고요함도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물샘으로 인도하시니라" 생명이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그들의 눈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계 7:16, 17).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시험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반대와 미움과 비방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극기를 행하였고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였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죄의 악의와 그 힘 죄책감과 불행에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에 대한 감각은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을 겸손하게 하며,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다락방, 오두막, 지하 감옥, 단두대, 산, 사막, 땅과 바다의 동굴에서 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들은

"무기력한 것과 괴로움과 학대를 받는 것". 수백만 명이 악명을 안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기만적인 주장에 굴복하기를 확고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시 50:6). 이제 세상의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치욕을 없애시리로다." (이사야 25:8) "그들은 그들을 '주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재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주시며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기로"(사 62:12; 61:3)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하고, 고난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군주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관을 썼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날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통증의 모든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맑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찬양의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목소리가 하늘의 아치를 가득 채우는 하모니에 하나가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의 모든 거민이 응답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라"(계 7:10, 12).

이생에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난 치욕과 영광, 삶과 죽음, 공의와 자비를 매우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최대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사랑의 길이와 폭, 깊이와 높이는 어렵듯이 이해될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는 대로 보고 아는 대로 알지라도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놀라움과 기쁨을 주는 마음에 새로운 진리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비록 땅의 슬픔, 고통, 유혹이 끝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지적인 지식을 항상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지식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에 걸쳐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늘의 위엄자, 그룹들과 광채스랍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께서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떨어졌다;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의 비애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소멸시킬 때까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치욕을 짊어지셨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주, 모든 운명의 중재자께서 인간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신다는 사실은 우주의 영원한 감탄과 숭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구속받은 나라들이 그들의 구속자를 바라보고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볼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음을 알면서 그들은 황홀한 찬송을 터뜨렸습니다. 피!"

십자가의 신비는 다른 모든 신비를 설명합니다. 갈보리에서 나오는 빛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비, 부드러움,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함, 정의, 능력과 혼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높고 송고한 보좌의 위엄을 목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운 표현에서 그분의 성품을 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 어린 칭호인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계획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어떤 계획도 고안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은 이 땅을 구원받고 거룩하며 행복하고 불멸의 존재로 채우는 기쁨입니다. 구주께서 흑암의 세력과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 되며, 그 결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영혼의 가치는 아버지께서 지불된 대가에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열매를 보시고 만족하십니다.

제41장

지구의 황폐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네게 마시게 한 잔에 갑절을 주어 그에게 주라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였은즉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주어 그에게 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여황으로 앉아 있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니 애통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러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 이르리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음행하고 기뻐하던 땅의 왕들이 그를 위하여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을진저 큰 성 바벨론이여 화 있을진저 그 심판이 이르렀음이라도 하리라 한 시간 안에” (계시록 18:5-

10).

그 향락의 풍성함으로 부하게 된 땅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여 이르기를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저 큰 성읍이여! 고운 베와 자색 홍색 베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데 한 시간에 많은 부가 망하였도다.” (계시록 18:3, 15, 16).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이니라 그녀는 그들의 죄악을 채웠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멸망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 그들의 최악된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부자들은 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혈벗은 사람을 입히고, 공의로 대하고 자비를 사랑하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동료 인간의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우상들이 멸망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쾌락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즐거움은 쓰라린 쓰라림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물은 손상되었습니다. 평생의 이익을 한 순간에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궁궐이 파괴되고 자기들의 금이 흩어짐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의 비탄은 그들의 우상과 함께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잠해졌습니다.

악인들이 슬픔에 잠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결과가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임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승리를 거두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제거하고 싶어했던 그들이 조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역병과 폭풍과 지진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안전한 장막이 되신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희생했던 목사는 이제 그의 가르침의 성격과 영향을 분별합니다. 그가 강단에 서 있을 때, 거리를 걸을 때,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전지한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각

영혼의 감정, 쓰여진 모든 글, 말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의 도피처에서 안식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비참하고 파멸된 영혼들 속에서 그는 수확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여 이르기를 평강이 없거든 평강하다 평강하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거짓으로 의인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8:11; 에스겔 13:22)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보라, 내가 너희 행위의 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목자들이 울부짖어 양의 우두머리여 울부짖으라 양의 우두머리여 너희가 죽임을 당할 날이 이르렀으니 목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며 양 떼의 우두머리에게도 구원이 없으리라 무리." (예레미야 23:1, 2; 25:34, 35)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옳고 공정한 법의 창시자에게 반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율에 대한 경멸로 인해 수천 가지의 악, 불화, 증오, 죄악이 생겨났고, 결국 지구는 거대한 전쟁터, 부패의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더 좋아하는 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는 이상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불순종하고 불충한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 즉 영생에 대해 느끼는 소망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능과 웅변으로 세상이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빛으로 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신실함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에 던져졌다고 서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신랄한 비난을 퍼붓는다. 불성실한 목자들은 즐거운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들을 박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이 교사들은 세상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고백합니다. 군중은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파멸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한때 그들을 크게 존경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선포할 것입니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웠던 바로 그 손이 일어나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같은 이제 그들의 원수들을 멸절시키는 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갈등과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열국과 변론하심이라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시리로다” (Jer. 25:31). 6천년 동안 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하늘 사자들은 사람의 자녀들을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 악한 자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싸움에 완전히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받은 율법의 권위를 회복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논쟁은 사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쟁변하시나니”; “그가 악인을 칼에 붙이시리로다.”

구원의 표는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파괴적인 무기를 든 남자들로 대표됩니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늙은이와 젊은 남자와 처녀와 소년과 여자를 진멸할 때까지 죽여라. 그러나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여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앞에 있던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9:1-6)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수호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떨어지다.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처녀, 어린아이들이 함께 멸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리니 땅이 그들의 피를 드러내고 죽임을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6:21)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니라.

그 날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큰 환난을 내리시리니 각 사람이 자기 동무의 손을 붙잡고 저마다 손을 들어 자기 동무의 손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스가랴 14:12, 13). 하나님의 혼합되지 않은 진노가 무섭게 부여지므로 땅의 악한 거민들 곧 제사장들과 총독들과 백성, 부자와 가난한 자, 높고 낮은 자들이 그 날에 엎드려지리라. 지구의 반대편 끝까지;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거두어지지도 않고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다.”(예레미야 25:33)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악인들은 온 땅에서 멸절되고, 그분 입의 영에 소멸되고, 그분 영광의 광채로 멸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하시며, 땅에는 그 주민들이 텅 비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그 표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온전히 노략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소멸하고 거기 거하는 자들이 황무하게 되리니 땅의 거민이 불사름을 당하리라.” (이사야 24:1, 3, 4, 6)

지구 전체가 황량한 사막처럼 보입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마을의 폐허, 뿌리째 뽑힌 나무, 바다에 던져지거나 땅 자체에서 던져진 거친 돌들이 표면을 흩어지게 하고, 거대한 동굴은 산들이 기초에서 분리된 장소를 나타냅니다.

예표된 사건은 속죄일의 마지막이자 엄숙한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지성소 봉사가 다 끝나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에서 제하여졌을 때 아사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법을 그 모든 죄대로” 고죄하고 그것을 염소 머리에 두었다. (레프.

16:21).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속죄의 역사가 완성되면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죄가 사탄에게 담당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들에게 범하게 한 모든 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양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보내졌듯이, 사탄도 사람이 살지 않고 암울한 사막인 황량한 땅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계시자 요한은 사탄의 추방과 땅이 멸망하게 될 혼돈과 황폐의 상태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악인의 멸망의 장면을 제시한 후 예언은 계속됩니다. 용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거기 가두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천년이 차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후에는 잠시 놓이는 것이 중요하니라.” (계시록 20:1-3)

"심연"이라는 표현이 혼란과 어둠의 상태에 있는 지구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구절에서 분명합니다. “태초에” 땅의 상태에 관하여 성서 기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창 1:2). 예언은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기름진 땅이 사막이 되고 그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느니라”(예레미야 4장) :23-26).

이곳은 천년 동안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만 국한된 그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기 위해 다른 세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갇혔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기만과 파멸의 일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에 사탄이 무너질 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오 아침의 딸 계명성아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멸절시킨 자여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엎드러졌는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음부 깊은 곳으로 끌려가리라 하였으니 네가 보는 자들이 너를 주목하며 너를 주목하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황폐하게 하며 그 성읍들을 황폐케 한 자가 누구냐 하리로다 그의 포로들을 자기 집으로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14:12-17)

육천년 동안 사탄의 반역 활동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막과 같이” 만드시고 “그들의 성읍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포로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육천년 동안 그의 죄사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였고, 그는 그들을 영원히 포로로 가둘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결박을 끊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이제 사탄의 세력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홀로 남아 죄가 초래한 저주의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은, 아니,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 무덤에 존귀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개자식처럼 무덤에서 쫓겨났습니다 ...

당신들이 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은 당신들이 당신의 땅을 황폐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18-20)

천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의 결과를 숙고하기 위해 황폐한 땅의 이곳 저곳을 방황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고통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의 타락 이후 끊임없는 활동의 삶은 반성을 추방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고 하늘 정부에 대한 첫 번째 반역 이후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끔찍한 미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탄의 포로 생활이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수고와 떨림과 그들이 너를 섬기게 한 고역에서 그치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네가 바벨론 왕을 향하여 이 말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을 대표하여] 그리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억압자가 어찌 그리 그쳤는가!... 여호와께서 악인의 지팡이와 통치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분노로 백성을 치는 자, 그치지 않는 재앙으로 만국을 치리하던 자가 이제는 박해를 받으니 능히 막을 자가 없느니라”(사 14:3-6).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천년 동안 악인의 심판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지적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며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리라.” (고린도전서 4:5) 다니엘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오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신원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단 7:22). 그 때에는 의인들이 왕이 되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4 및 6). 바울이 예언한 대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고전 6:2)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동을 법전, 즉 성경과 비교하여 몸에서 행한 행동에 따라 각 사건을 결정합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해지고 그들의 이름 반대편에 사망 책에 기록됩니다.

또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모르십니까?” (고전 6:3).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시고 영원한 옥에 가두셨느니라”(유 6절)고 선언합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 “기록된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자 요한은 의인의 부활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시록 20:5)

그리고 이사야는 악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들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함께 갇히게 되며 감옥에 가두어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이사야 24:22)

42화

갈등의 끝

천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는 구원받은 무리들과 동행하고 수많은 천사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무시무시한 위엄으로 강림하시는 순간, 죽은 악인들에게 일어나 형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군대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에서 살아난 사람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의인들은 불멸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었습니다. 악인은 질병과 죽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돌아켜졌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비자발적인 고백으로 입술을 열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적개심과 동일한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 생애의 결함을 고칠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의 범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은혜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첫 번째 기간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요구를 회피하고 그분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천사들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반복한 곳인 감람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희와 함께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가운데가 갈라지고... 아주 큰 골짜기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가 되고 그의 이름이 하나이리라.” (스가랴 14:5, 4, 9). 매혹적인 광채를 지닌 새 예루살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화되고 준비된 장소에 안식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의 능력을 빼앗기고 기만적인 일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악의 왕은 비참하고 우울함을 느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자 그는 수많은 군중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희망이 되살아났으며 대쟁투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깃발 아래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편성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악인은 사탄의 포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군 지도자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시적인 교활함으로 자신을 사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계의 합법적인 소유자인 왕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유산은 불법적으로 그에게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속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능력이 그들을 무덤에서 다시 데려왔으며, 가장 잔인한 폭정에서 곧 그들을 구출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지자 사탄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정신과 에너지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을 차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사탄의 환희에 차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셀 수 없이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그 도시를 전복시키고 자신의 보좌와 왕국을 회복할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큰 무리 중에는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장수 종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통제와 지배에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모든 기술과 지식을 바친 키가 크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 그들의 놀라운 예술 작품으로 인해 세상은 그들의 천재성을 이상화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잔인하고 사악한 발명품은 땅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 세계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왕과 장군이 있고,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용감한 사람이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이 왕국을 떨게 만드는 자랑스럽고 야심찬 전사가 있습니다. 죽어서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들은 생각의 흐름이 멈춘 바로 그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승리에 대한 동일한 열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탄은 먼저 그의 천사들에게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이 왕들과 정복자들과 용사들에게 의논합니다. 그들은 자기 편에 있는 힘과 수를 보고 성 안의 군대가 자기들에 비해 적으니 그도 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즉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숙련된 장인이 군사 도구를 제작합니다. 성공으로 유명한 군사 지도자들은 천사들의 군중을 중대와 사단으로 조직합니다.

마침내 진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상의 정복자들이 소집한 적이 없고,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시대의 연합군과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사인 사탄이 선봉대를 지휘하고 그의 천사들이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왕과 천사들이 군사 행렬을 이루고, 군중은 각각 지정된 사령관과 함께 대규모 무리를 지어 따라갑니다. 밀집된 대열은 군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조각나고 불규칙한 지구의 표면을 가로질러 신의 도시를 향해 전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새 예루살렘의 문은 닫히고, 사탄의 군대는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도시 위 높은 곳에는 빛나는 금 기초 위에 높고 장엄한 보좌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시고, 그분 주위에는 그분 왕국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도, 어떤 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광채는 하나님의 성을 가득 채우고 문 너머까지 퍼져 그 광채로 온 땅을 가득 채웁니다.

보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한때 사탄을 위해 열심이었으나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깊고 강렬한 헌신으로 구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다고 선언했을 때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위해 순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계 7:9)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경주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며, 흰옷은 이제 그들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의 상징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아치 길을 통해 메아리치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노래를 높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스랍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동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삭제된 브랜드

지능) 구속받은 자들은 사탄의 능력과 악을 목상하며,

이전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찬란한 군중 속에는 마치 자신의 힘과 선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노래의 후렴과 모든 찬송의 주요 음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입니다.

땅과 하늘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위엄과 능력을 부여받은 만왕의 왕은 그분의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에게 형을 선고하시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억압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보좌와 책들이 열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묵시록 20:11 및 12).

기록책이 펴지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책에 고정되자마자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그들은 순결함과 거룩함의 길에서 그들의 발이 어디로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반역과 교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죄의 방종으로 이끌리는 매혹적인 유혹, 왜곡된 축복,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멸시, 거절된 경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의해 거부되는 자비의 물결, 이 모든 것이 마치 불의 문자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좌 위에는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환상과 유사하게 아담의 유혹과 타락의 장면과 위대한 구속 계획의 연속적인 단계가 투영됩니다. 구주의 겸손한 탄생; 단순함과 순종의 어린 시절; 요르단에서의 세례; 사막에서의 금식과 유혹; 인간에게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을 계시하는 그분의 공적 사역;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찬 낮, 고독한 산에서 기도하고 철야하는 밤; 시기와 증오와 악의 음모로 인해 그분의 혜택이 보상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의 짓눌린 무게에 짓눌린 겟세마네에서의 끔찍하고 신비스러운 고통; 살인적인 폭도들의 손에 그분이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공포의 밤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거칠게 끌려다니는 무저항의 죄수; 하나님의 아들이 안나스 앞에 의기양양하게 드러나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고발당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문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한 군중 앞에 마지막 장면이 드러납니다. 인내심을 갖고 갈보리 길을 걷고 있는 고통받는 자, 십자가에 매달린 하늘의 왕; 오만한 제사장들과 그분의 최후의 고통, 초자연적인 어둠을 조롱하는 대중; 들끓는 땅, 부서진 돌들, 세상의 구속주께서 생명을 포기하신 순간을 표시하는 열린 무덤들.

끔찍한 광경은 일어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에서 눈을 돌릴 힘이 없습니다.

배우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배역을 기억한다. 헤롯은 이스라엘 왕을 멸망시키려고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죄 많은 영혼이 세례 요한의 피에 달려 있는 가증스러운 헤로디아; 악하고 기회주의적인 빌라도; 조롱하는 군인들;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분노하여 외치는 무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 하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찬란하신 그분의 얼굴의 신성한 위엄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헛된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며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구조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영웅적인 바울, 열렬한 베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요한, 그리고 그들의 신실한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벽 밖에 있으면서 모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자들입니다. 거기는

잔인함과 악행의 괴물인 네로는 한때 자신이 고문했던 사람들의 기쁨과 고향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악마적인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악한 품성의 특성이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의 영향력과 모범으로 자극되고 발전된 정욕이 세상을 떨게 만드는 범죄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백성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고문과 지하 감옥과 기둥을 사용하는 천주교의 사제들과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율법을 바꾸려고 하는 오만한 교황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없애버릴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늦게 그들은 전지하신 분이 당신의 율법에 열심이시며 결코 죄를 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백성의 관심과 그분의 관심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온 악한 세상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선고됩니다.

이제 죄의 값은 고귀한 독립과 영생이 아니라 노예 생활과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악인들은 반역의 값으로 인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봅니다. 가장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치셨을 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얼마나 바람직해 보이는가! 잃어버린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나는 이것들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 두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아! 이상한 어리석음이군요! 나는 평화와 행복과 명예를 불행과 치욕과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매료된 듯,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 안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과 율례를 묵상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경이로움, 환희, 숭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선물의 물결이 도시 밖의 군중 위로 퍼지자 모두가 하나되어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계시록 15:3)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왕을 경배하며 옆드리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할 때 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자신이 떨어진 곳을 기억합니다. 눈부신 스랍, “아침의 아들”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그가 존경을 받은 회의에서 그는 영원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매우 가까이 서서 그분의 영광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키가 크고 장엄한 존재감을 지닌 천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을 보고 이 천사의 높은 지위가 자신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당신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시기하기 전까지 당신의 순수함과 순결함, 평화와 만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사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의 참소와 반역과 기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자신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그의 고집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행한 일과 그 결과, 즉 동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 생명의 끔찍한 파괴, 왕국의 흥망성쇠, 왕위의 파멸, 오랫동안 이어지는 소동, 갈등, 혁명 등을 검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대하고 인간을 점점 더 깊은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사탄적인 음모가 그들의 것을 예치한 자들을 파멸시키는 데 무력하다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투쟁의 열매인 자신의 왕국을 바라볼 때, 사탄은 오직 실패와 파멸만을 본다. 그는 군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이 쉽게 먹이가 될 것이라고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큰 싸움의 과정에서 거듭해서 패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의 능력과 위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 반역자의 계획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고 반역에 책임이 있는 신의 정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거대한 지성의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대쟁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수많은 군중이 받아들이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음모의 지도자는 진실을 거짓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반역이 진압되고 사탄의 역사와 성격이 드러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그분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을 차지하려는 그의 마지막 대대적인 노력에서 사기꾼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뒤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대의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그들의 계약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저주의 대상이다.

사탄은 자신의 자발적인 반역이 자신을 천국에 부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훈련시켰습니다. 천국의 순수함, 평화, 조화는 그에게 극도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들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애썼던 불신은 전적으로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은 몸을 굽혀 자신이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리이까 주만 홀로 기록하시니 주의 규례가 나타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계시록 15:4) 오랜 갈등 속에서 진실과 오류에 관한 모든 질문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반역의 결과, 신의 율례를 부인한 결과가 모든 창조된 지능의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대조적으로 사탄의 통치의 결과는 온 우주에 제시되었습니다. 사탄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이 마침내 입증되었습니다.

대쟁투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영원한 선을 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 당신의 모든 일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시 145:10).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대쟁투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온 우주, 충성하는 자와 반역하는 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인간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치르신 위대한 희생은 우주 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오느니라. 그분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곧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기쁨과 영광은 더 큼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 자신의 형상대로 새로워진 자들을 바라보시며, 모든 마음 속에 신성의 완전한 인상을 지니시고, 모든 얼굴이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사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당신의 영혼이 행한 일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해하십니다. 그런 다음 모인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서 찬양의 노래가 올라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행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계시록 5:12)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했지만 그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센 급류처럼 반역의 영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광란으로 가득 찬 그는 큰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늘의 왕에 맞서 최후의 필사적인 투쟁을 벌일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돌진하여 자신의 분노로 그들을 고취시키고 즉각적인 전투를 벌이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꺾어 반란을 일으킨 셀 수 없이 많은 수백만 명 중에서 이제 그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사탄을 고무시키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며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을 향하여 타오르며, 그들은 귀신의 분노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으므로 내가 이방인 곧 열방 중에 가장 강한 자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휘방하고 너를 더럽히리라 구덩이에 내려가라... 보호하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 가운데에서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보게 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이의 눈에 너를 땅 위의 재로 만들었으니... 놀랍게도 너는 변했고 다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28:6-8, 16-19)

"소란을 피우며 싸우는 자들의 모든 갑옷과 피에 뒹구는 옷이 다 타서 불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나라 위에 임하고 그의 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살육에 붙이셨느니라." "악인에게 울무와 불과 유향과 광풍을 내리시리니 보라 그의 잔의 뒹이로다." (이사야 9:5; 34:2; 시 11:6)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구가 열립니다.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무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갈라진 틈새마다 삼키는 불꽃이 분출됩니다. 바위 자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오븐처럼 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기로 인해 물질들이 서로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도 타 타버리게 됩니다(말 4:1, 벧후 3:10). 지구 표면은 녹아내린 덩어리, 즉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활한 불못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 "여호와의 신원의 날 곧 시온의 노락을 보우하시느 해"(사 34:8).

악인은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잠 11:31). "그들은 겨 같아서 다가오는 날이 그들을 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1) 어떤 사람은 한 순간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의인의 죄는 사탄에게 옮겨졌고, 그는 자신의 반역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한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의 형벌은 그가 속인 자들의 형벌보다 훨씬 클 것이니라. 그의 속임수에 미혹된 사람들이 멸망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정화하는 불꽃 속에서 악인들은 마침내 멸망당합니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지들입니다. 법의 완전한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하늘과 땅이 그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였느니라.

사탄의 파괴적인 일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6천년 동안 그는 자신의 뜻을 수행하여 지구를 불행으로 가득 채우고 우주 전체에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탄식하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분의 임재와 유혹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쉬어라. 온 땅이 이제 평화로웠느니라! [의인들을] 기쁨으로 외치라." (이사야,

14:7). 그리고 신실한 우주 전체에서 찬양과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큰 무리의 소리도 같고 큰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렛소리도 같으니"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 19:6)

땅이 멸망의 불길로 뒤덮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에 안전하게 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지만, 그분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계 20:6; 시 84:1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화합니다. 저주의 흔적은 모두 제거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구조되기 전에 죄의 끔찍한 결과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난 이마와 옆구리, 손과 발에는 죄가 초래한 잔혹한 일의 유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광채가 그 손에서 나오며 거기에 그 능력이 피난처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3:4) 그분의 손, 진홍색 강이 흘러나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분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는 구주의 영광이 있고 "그의 능력의 숨은 곳"이 있습니다. 구속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만큼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굴욕의 표시는 그분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보리의 상처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 양 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네게로 돌아갈 것이요, 참으로 첫 번째 권세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4:8) 화염검이 첫 부부에게 에덴의 문을 닫은 이후로 거룩한 사람들이 고대하던 때가 이르렀다. 그 때는 "하나님의 언으신 것을 속량하시는"(엡 1:14) 때이다. 원래 인간에게 그의 왕국으로 주어진 땅은 인간에 의해 사탄의 손에 넘겨져 오랫동안 강력한 대적에게 붙잡혀 있던 땅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지으신 이가..." (이사야 45:18).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지구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집으로 조성될 때 성취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37:29).

미래의 유산을 너무 물질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집으로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확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거처에 관해 전혀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고전 2:9). 인간의 언어로는 의인이 받을 보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생각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한한 마음은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기업을 나라라고 부릅니다(히 11:14-16).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는 그분의 양떼를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건강을 위하여 있느니라. 수정같이 맑은 사냇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물결을 일으키며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가 있느니라. 그곳에서는 넓은 평야가 아름다운 언덕으로 솟아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저 생명의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와 순회객으로 살아온 하느님의 백성은 집을 찾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거처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라.” “더 이상 네 땅에 폭력과 황폐와 파멸의 소리가 네 경내에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며 네 성문을 찬송할 것이라.”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들은 남이 살 것을 건축하지 아니하며 남이 먹을 것을 심지 아니할 것이며 (...) 나의 택한 자는 그 열매를 즐기리라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 (이사야 32:18; 60:18; 65:21 및 22).

그곳에서는 “사막과 메마른 곳이 이를 기뻐하고 광야가 즐거워하여 장미꽃처럼 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시 대신에 너도밤나무가 자랄 것이고, 덤불 대신에 도금양이 자랄 것이다.” (이사야 35:1; 55:13)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사 11:6, 9).

고통은 천국의 분위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장례식도, 슬픔의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 21:4).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나니 거기 거하는 백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삼켜지리라.” (이사야 33:24)

거기에는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요 너희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과 같은 영광스러운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있다(사 13:1). 62:3). “그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빛나는 수정 같으니라.”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그리로 들어오리라.” (묵시록 21:11 및 24). 여호와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 백성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19)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계시록 21:3)

하나님의 도시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휴식이 필요하지도, 쉬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는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침의 신선함을 느낄 것이고, 아침의 끝은 언제나 멀리 있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취심이라.” (계시록 22:5) 태양의 빛은 불편할 정도로 눈부시지는 않지만 한낮의 밝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초과하는 밝기로 능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불멸의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태양의 빛이 필요 없이 영원한 낮의 영광 가운데 행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심이라.” (계시록 21:22) 하나님의 백성은 성부와 성자와 열린 친교를 유지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울을 통해 수수께끼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3:12).

오늘 우리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자연의 작품과 그분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 반영된 하느님의 모습을 목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두운 휘장 없이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알려진 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 속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온유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들과의 순수한 친교, 축복받은 천사들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모든 시대의 충실한 자들과의 조화로운 사회 생활,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유대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엡 3:15) - 이 모든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곳에서 불멸의 마음은 지치지 않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이로움과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를 목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도록 유혹하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대적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수진이 발전하고 모든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정신이 지치거나 에너지가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열망이 실현되고, 가장 높은 야망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 감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로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자극할 새로운 목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에 열려질 것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해방된 그들은 먼 세계, 즉 인간의 비참한 광경에 슬픔에 잠겼고, 구조된 영혼의 소식을 듣자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쳤던 세계로 지치지 않고 날아갈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지구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의 기쁨과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얻은 지식과 지식의 보물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목상했습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각으로 창조의 영광, 즉 해와 별과 체계들이 모두 정해진 순서대로 신화의 보좌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에는 그분의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식이 발전할수록 사랑과 존경,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대쟁투의 놀라운 성취를 열어 보이실 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더욱 뜨거운 헌신으로 떨게 될 것이며, 그들은 더욱 황홀한 기쁨으로 금 하프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수백만의 목소리가 연합하여 강력한 찬양의 합창단을 부풀립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들으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토록 주소서.” (계시록 5:13)

큰 갈등이 끝났습니다. 죄와 죄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정화됩니다. 광대한 창조물 전체에 조화와 행복의 단 하나의 맥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생명과 빛과 기쁨이 끝없는 공간의 모든 영역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놀라운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을 지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선포합니다.

부록

일반 참고 사항

참고 1 - p. 53 - 서기 321년에 공포된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판사와 도시의 주민, 모든 상업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태양의 존경스러운 날에 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 문제를 처리할 완전하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를 파종하고 포도원을 심는 데 이보다 더 적합한 날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하늘이 부여한 선물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우 권위 있는 이 법에 관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로마 제국. 그 이전에도, 심지어 그가 살던 시대에도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일요일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와 그 준수 방식에 관해 모세임은 콘스탄티누스가 정한 율법의 결과로 주의 첫날이 “이전보다 더 엄숙하게 지켜졌다”고 말합니다. 일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농업 작업을 허용했습니다. Taylor 감독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의 날에 모든 종류의 일을 수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 Morer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기독교인]은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상적인 일에서 더 큰 휴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습니다).”3 Cox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콘스탄틴] 시대나 후기에, 이 기념식은 본질적으로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기타 교회 축제에 상응하는 제도로 여겨졌습니다.”4

참고 2 - p. 54. 묵시록 12장에는 큰 붉은 용의 상징이 나옵니다. 본 장 9절에서 이 상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과 그와 함께 그의 천사들이 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용은 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지구에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운영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그 나라는 한동안 그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이교 국가들의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두로 왕으로 대표되는 에스겔 28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는 그가 이 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에 모든 이교 국가 중에서 로마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탄의 주요 행위자였으며 따라서 그 대표자는 용입니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이교주의가 형식적인 기독교에 굴복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p.에서 말했듯이. 54, “이교주의가 교황권에 무너졌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왕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즉, 사탄은 처음에 이교를 통해 행했던 것처럼 교황권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용으로 대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 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교황권이 출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반대가 이교주의의 형태로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무시당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분과의 동맹을 가장하여 반대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교황권도 이교 로마 못지 않게 사탄의 도구였다. ..용에 의해. 그러므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 도인 사탄의 대표자입니다.

교황권을 상징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같은 예언적 노선에 따라, “다른 짐승”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계 13:11-14).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즉 그의 앞에서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짐승 역시 박해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용처럼” 말하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교황권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고, 두 뿔 가진 짐승도 같은 권세를 행사 합니다. 그녀는 또한 사탄의 직접적인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탄적 성격은 거짓 기적을 통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행위로 더욱 드러납니다. “그는 또한 큰 이적을 행하시니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사람 앞에서 땅에 내려오느니라. 그가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도다.”

첫 번째 박해 세력은 용 자체로 표현됩니다. 이교에서는 사탄과의 공개적인 동맹과 공개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핍박 세력에서는 용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용 이 세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격력에서는 용의 흔적이 전혀 사라지고 양 같은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용 의 목소리는 걸 모습 뒤에 숨겨진 악마의 힘을 배신하고 두 전임 세력과 같은 계열임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 와 그분의 순수한 종교에 대한 모든 반대에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 신”이 동기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박해하는 지상 세력은 단지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참고 3 - p. 328. 독자가 예언 기간에 대한 윌리엄 밀러의 합리적인 입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1850 년 3월 보스톤의 Advent Herald 에 처음 게재된 특파원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발췌문을 재현합니다.

“대예언 기간인 70주를 정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정경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정경은 아 닥사스다 제7년을 기원전 457년으로 지정합니다. 이 문서의 정확성은 20회 이상의 일식 발생으로 입증됩니 다. 70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영이 반포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부터 제이십년까지 아무 조서도 없었더라. 제7년부터 시작되는 490년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 서기 34년에 끝나며, 제20년 에 시작하면 기원전 444년에 시작하여 서기 47년에 끝나야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서기 47년에 폐쇄를 기념하기 위해 20년째부터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닥사스다 제칠년 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정경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는 기원전 457년 의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정확성이 반복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일식이 정확하게 계산되 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은 전체 연대기적 연대를 변경하고 시대의 확 립과 시대의 조정을 전적으로 각 몽상가의 재량에 맡기게 되므로 연대기는 점술보다 더 큰 가치가 없을 것입니 다. 70주는 반드시 서기 34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제7년이 잘못 고정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증거 없이는 수정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묻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던 시기는 언급된 다른 어떤 시기보다 이 시기와 훨씬 더 잘 조화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반인 AD 31년의 십자가 처형은 쉽게 무효화될 수 없는 수많은 증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70주와 2,300일은 같은 시작점을 가지므로 밀러의 계산은 2,300년에서 그리스도 전의 457년을 빼면 즉시 검증됩니다. 이와 같이:

$$\begin{array}{r} 2,300 \\ - 457 \\ \hline \text{서기 1843년} \end{array}$$

그러므로 1843년은 1844년 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대에는 한 해가 지금처럼 겨울의 한가운데에 시작되지 않고 1844년 이후 첫 번째 초승달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춘분. 결과적으로 2,300일의 기간은 옛날 방식으로 1년을 계산하여 시작하였으므로, 마지막에도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843년은 겨울이 아닌 봄에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300일은 기원전 457년 초부터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점인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그해 가을까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서기 1844년 가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Mill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843년이나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망과 명백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1844년에 “한밤의 외침”으로 알려진 운동으로 이어진 것은 다른 경전의 증언과 관련하여 정확한 시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예언적 계산에 따르면 1844년 가을에 2,300일이 마감됩니다. ...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4 — p. 373 — 재림교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갈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능숙하게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해 보니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이것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큰 보상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하여 그 때에 입을 옷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져야 할 유일한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일 것입니다. Apoc을 참조하세요. 19:8.

참고 5 — p. 374 - 지오 박사. 뉴욕 시립 대학교의 히브리어 및 동양 문학 교수인 부시는 1844년 3월 Advent Herald 에 게재된 William Miller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예언적 시대 계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사는 말했다.

부시: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예언적 연대기 연구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이 위대한 시대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이의가 제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선지서에서 성령에 의해 주어졌다면, 그것들이 연구되어야 하고 아마도 예언서에서 주어졌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건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추측으로 비난받아서 안 됩니다... 1년 동안 하루를 예언 기간으로 삼는 가운데 가장 건전한 주석과 미디어의 뛰어난 이름이 당신을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Isaac Newton 경, Newton 주교, Kirby, Scott, Keith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해 오랫동안 당신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니엘과 요한이 언급한 주요 기간이 실제로 이 시대에 만료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저명한 신학자들의 발언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주장되는 동일한 견해를 견지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단을 확신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 “이 조사 분야에서 당신이 얻은 결과는 진리와 의무라는 큰 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당신의 오류는 당신의 연대기와는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발생해야 하는 사건의 성격에 대해 당신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설명이 모욕적이라고 간주되는 주된 정면 이유입니다.... 세상 앞의 큰 사건은 물리적 화재가 아니라 도덕적 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제4제국의 통과와 관련이 있지만, 오스만 제국의 세력과 그분의 왕국의 설립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된 것은 그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영과 그의 섭리의 영광스러운 행정 안에서.” 분명히 부시 박사는 세상의 회심이 2,300일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밀러와 부시 모두 옳았지만, 그 사건이 위대한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착각이었습니다.

밀러가 가르친 교리는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적 설명에서 발전된 모든 요점을 개별적으로 고려한다면 그의 반대자들 중 일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견해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반박하려는 사람들은 밀러와 이 반박자들 사이만큼 그들 사이에도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밀러의 이론을 반박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론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확실히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의 지도자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은 밀러에 반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확립된 개신교 해석의 원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Boston Recorder (정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뢰했던 대다수의 형제들과 공통된 해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근거 없는 밀러의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입장을 반박하려는 결심에서 일부는 개신교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인 문자적 해석의 원칙을 활용하기보다는 정의되지 않은 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데 보편주의자와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교수와 부시 교수가 제시한 주장에 대해 뉴욕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부활.몸의.

우리는 해석의 스타일이 두렵게도 보편주의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주의자 하트퍼드(Hartford)가 프랜시스 교수에 대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스튜어트: “그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중적인 해석에 대해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발생한 장면과 사건에서 특별한 언급과 성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하여 대중적인 목사들은 성경의 증언을 가볍게 따르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참고 6 — p. 411 — 지구가 성소라는 생각은 창조주의 원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의 영원한 거주지로 정화되고 준비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본문에서 추론되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웨슬리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화가 필요한 다른 거처나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텍스트는 지구나 인간의 거주지를 성역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이 입장을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것들은 세 개로 제한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17)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 본문이 지구를 성소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목적에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은 성소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은 그들이 곧 소개될 땅의 일부, 즉 팔레스타인을 언급한다고 주장됩니다. 이 입장은 두 번째 입장에서 지지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주의 성소[일부 번역에서는 '성소'로 번역함]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24:26) 돌과 상수리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이요 여호와와의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다른 텍스트는 훨씬 더 제한적이며 여기에 사용된 추론에 대해 똑같이 결정적입니다.

“그분[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땅, 그분의 오른손이 얻으신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 78:54). 이 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로 데려가는 것은 “그분의 성소 문지방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지구가 성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땅과 성소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말입니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성소를 건축하였으니 ”(대하 20:7, 8). 이는 출애굽기에 주어진 순서와 일치한다.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은 책에는 성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건축, 주님의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은 레위기 1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솔로몬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건축된 순회 성소의 기구들은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이 곳은 성소, 즉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 성소를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경은 지상 성소의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히 9:23)이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때로 하늘 성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7 — p. 429 — 1844년의 실망 이후 잠시 동안 밀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재림교인들은 세상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도다”라는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14:6 및 7). 당연히 그들은 이 선언으로 경륜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업이 끝났다는 생각은 조언을 받거나 어떤 교훈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몇몇 광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곧 포기되었습니다. “시험의 문이 닫혔다”는 견해를 포기한 한 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느니라”라는 선언 이후에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고, 마지막 천사인 셋째 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인의 심판은 예수께서 여전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들의 대언자로서 계시는 동안 완전히 성취됩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성도들에게 영생이 즉시 주어지며, 이는 그들이 심문을 받고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 비추어 그들은 또한 성소와 그 정결함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통해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속죄일의 실제적 사역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 개의 휘장 곧 문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히 9:3) 그 중 하나는 닫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심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파하였고, 동료들에게 믿음으로 지성소 곧 둘째 휘장에 들어가도록 권면하였으니, 그곳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모든 신실한 자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라. 아벨은 현재까지 선물입니다.

참고 8 — p. 435 — 요한계시록 14:6과 7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천사가 뒤따랐는데 둘째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르더라.” 여기서 “따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 본문에서와 같은 구조에서 “함께 가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Liddell과 Scott은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를 따르다, 그를 따라가다, 그를 따라가다.”

로빈슨은 “따라가거나, 동행하거나, 함께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명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으며, 그들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함께 가는 아이디어가 포착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I Cor.

(**스마트 표시 제거**) 10:4,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신령한 샘에서 마셨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따라오는 영적인 돌에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따르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에서 번역되었으며 여백에는 “나는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poc의 아이디어를 이해합니다. 고전 14장 8절과 9절은 단순히 둘째와 셋째 천사가 어떤 시점에 첫째 천사를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이다. 세 개의 메시지는 다른 아닌 삼중 메시지입니다. 등장 순서대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후에는 함께 남아 있으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9 - p. 335년 — 로마의 주교들은 아주 일찍부터 모든 교회에 순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을 둘러싸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이에 대한 놀라운 예이다. 이 논쟁은 2세기에 일어났다. Mosheim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를 기념했습니다....그 날은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유월절 또는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축제를 기념하여 성찬을 기념하여 유월절 양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인 유대력 첫째 달 14일에 이 절기를 지켰고,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셨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반면에 서방 교회는 부활절 다음 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연결시켰다.

“그 세기(2세기) 말에 로마의 주교인 빅터는 자신의 법률과 법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 점에 있어서 서방 그리스도인들이 준수한 규칙을 따르도록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그는 아시아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권위 있는 편지를 썼고, 그들에게 부활절 축일을 축하하는 시기에 관해 서구 기독교인들의 모범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이 오만한 요구에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응답했으며, 조상들이 물려준 관습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문의 천둥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주교들의 단호한 반응에 분노한 빅터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이 그의 형제들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로마 교회와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을 제외시켰다. 교황 찬탈의 리허설.”

그러나 한동안 Victor의 노력은 거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시아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고대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통제해온 제국 권력의 지원을 얻어 로마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호의로 부활절 대축일을 로마의 관습에 따라 모든 장소에서 같은 날에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²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황제의 권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때때로 나타나는 소수의 분열론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유명한 대회의 결의안을 감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³

참고 10 - p. 565 — 현재 국가 문제에 대한 교황권의 급속한 영향력보다 더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없으며 인간과 국가에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교황권은 지상 조직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교황에게 복종하는 가톨릭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는 비스마르크 총리가 독일을 사실상 교황권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의 싸움의 정치 문제에 교황의 간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차르조차도 교황권에 기꺼이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레오 13세의 수위권을 기념하는 황금 희년을 맞아 이탈리아 왕국과 스웨덴과 노르웨이 연합 왕국을 제외하고 개신교나 가톨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로마에 인정적인 존경을 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로마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국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확립 또는 금지"로부터 스스로를 면제하기로 헌법상 약속되어 있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로마에 부지런히 법원에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교황 대표단이 기브스 추기경에게 로마인의 위엄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정부 선박은 미국 국기 대신 교황기를 명예의 자리에 싣고 뉴욕 항구에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의 서품식에서

교황 왕자의 보라색 왕관을 쓴 기본스에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그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 가톨릭 개종자들은 많은 상원의원과 정치 대표자들이 자녀들을 조지타운에 있는 예수회 대학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다른 교육 기관이 아닌 수도 교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 많은 상원 의원과 정치 대표자가 가톨릭 신자이거나 로마가 워싱턴의 모든 교육 기관을 합친 것보다 상원 의원과 정치 대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로마가 수도에 국립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클리블랜드 행정부의 내무장관인 LQC Lamar는 자신의 부서에서 다른 종파의 구성원보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더 많은 직위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만약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교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 그것은 그들이 다른 교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 교회가 워싱턴에 “인디언들 사이에서 선교 및 교육 봉사 활동의 기회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력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연합은 종교적 통제를 받는 정부 소유 토착 학교의 5분의 4가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행정부 내무부 법무차관 보좌관 Mr. Zach. 몽고메리는 공립학교에 대한 모든 로마 가톨릭의 적대감을 지닌 로마 가톨릭 신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Carroll Institute 에서 재직하는 동안 그는 공립학교 시스템이 이단적이고 반부모적이며 행복을 파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은 그의 법무차관 임명이 확정되자 공립학교에 대한 적대감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뉴요커 옵저버(New Yorker Observer)는 정부 지원을 받는 유일한 공립 병원은 로마 가톨릭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188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뉴욕 대표 중 한 명인 워너 밀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스트리아의 신임 대사 존 제이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냉정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투표를 통해 완전히 바티칸에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캐나다의 린치 대주교는 랜돌프 헨리 스펜서 처칠 경 (The Churchman, New York, 1887년 4월 2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일랜드 투표는 미국에서 큰 요인입니다.” “귀하의 조직의 힘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선과 다른 선거에서 권력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 후 (INTELLIGENT MARK REMOVED) Jay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hamberlain 씨가 수산 청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발표가 있는 후 즉시 그가 체결한 어떤 조약도 정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영국 주재 대사인 펠프스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제안은 그 지명이 패배할 것이라는 즉각적인 발표를 촉발시켰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1888년 2월 16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습니다. “공통학교를 위한 임시 지원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상원의원이 연사에게 예수회 신부가 보낸 원본 편지를 보여주었다”는 예산에 대한 논쟁. 이 편지에서 그는 국회의원에게 예산에 반대하고 이를 무효화하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예산을 파괴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모든 것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의회위원회에서 성공했고 필연적으로 이 예산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상원을 세 번, 세 번의 다른 의회에서 통과했고, 매번 더 많은 찬성표를 얻었지만,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원에서 예산에 찬성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의회 위원회. 그리하여 6년 동안 의회의 입법이 방해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세속 언론을 대규모로 통제합니다. New York Evangelist, Christian at Work, Christian Union 및 Independent 와 같은 주요 "개신교" 종교 신문은 모두 교황권에 아첨하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1888년 3월 29일 복음 사가는 기브스 추기경을 “유일한 추기경”으로 인정합니다. 인디펜던트는 교황 레오 13세가 "오랜 통치를 기원하며 그의 자유주의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를 “거룩한 아버지”로 환호하며 “전 세계 기독교 세계”의 이름으로 그를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과 인류 복지에 대한 열의가 많은 오류에서 벗어난 것만큼이나 분명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들에 대한 편협함”; 그리고 1888년 1월 26일 기독교 연합은 그를 "현세의 왕자"이자 "최고의 교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11 - p. 573 — 이러한 운동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뚜렷이 나타나지만, 거의 모든 형태를 구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전국개혁협회(National Reform Association)입니다. 그것은 “7개 주에서 온 11개의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를 대표하는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의 모든 지파", 전국기독교절제여성연맹(National Christian Temperance Union) 및 금지당(Prohibition party)의 저명한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민 정부의 모든 권위와 능력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통치자로 인정했으며, 그분의 뜻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최고법”; 그리하여 “모든 기독교 법률, 기관, 정부 협약을 지구의 기본 법칙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기초 위에 두었습니다.” 보스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인 데이비드 그레그(David Gregg, DD)가 발표한 제안 중 하나는 국가가 “인간의 양심에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독교 정치가는 정부가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도덕의 법칙을 강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B Graham 목사가 제시한 또 다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와 그 기독교적 특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황폐하고 황량한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 그것을 진압하고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사상에 기초한 그들 자신의 정부를 세운 다음, 그들이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머물게 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DD가 설명하는 또 다른 설명은 일곱째 날을 지키는 유대인과 모든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로 분류되며 “이 문제(국가 개혁)에 대해 같은 입장에서 살 수 없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한 당사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륙”, 국가 기독교 개혁.

국가개혁 정부론의 확립은 곧 신권정치의 제도임은 누구나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통치되는 공화국은 그분의 것이며,

이는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이스라엘 정부와 같은 실제적이고 참된 신권정치입니다.” 정부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윌라드 씨가 쓴 전국 WCTU 월간 논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정한 신권정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법률과 입법자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즉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자 애국자로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투표할 권리.” 1887년 WCTU 전당대회의 연례 연설에서 윌라드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정치의 문을 통해 법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온건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를 장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의 당임에 틀림없는 당을 국가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그들이 쉬지 않도록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거에 대군으로 행진하라... 나는 기독교 여성들의 인내와 부단한 노력이 다음 세대의 정치에서도 반응할 것이며, 하나님의 당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사람이 만든 신권정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정부의 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이 세워진 이론이고, 그것이 바로 교황권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 개혁 이론은 교황권의 살아있는 형상을 세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 정당 이 교황 이론을 옹호하면서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교황의 협력을 확보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e Christian Statesman은 전국 개혁 협회(National Reform Association)의 공식 기관이며, 1884년 12월 11일자 사설에서 그 신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남아메리카 공화국, 프랑스 및 기타 지역에서 유럽 국가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국가 기독교의 옹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속주의에 대한 모든 제안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정치적 무신론의 발전에 대한 저항에 가까이 협력할 때마다 우리는 가까이 그들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개최될 국가 기독교 진흥을 위한 세계 회의에서는 로마 카톨릭 신자만이 많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문에서 1881년 8월 31일자 실베스터 스코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종교 예배]는 우리의 일에 대한 결의와 로마 카톨릭 시민들과 모든 면에서 협력할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제안에서 일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며,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와 악수하는데 동의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들이 가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가까이 받아들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은 상황의 요구 중 하나입니다. 도덕법 문제에 관한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구분 사이의 연결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사상가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교황 레오 13세의 1885년 회칙입니다. 그 회칙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국가의 헌법과 입법이 참된 교회의 원칙을 모델로 삼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위의 처방을 단 한 순간이라도 잊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전국개혁연합의 목적이 로마와 동일하기 때문에 “즐거이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로마의 도움이 있든 없든 개신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마다 그것은 교황권에 대한 형상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 12 - p. 578 — 아비시니아(지금의 에티오피아)에는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셉 울프(Joseph Wolff)는 1838년에 발행된 자신의 신문에서 자신의 그 나라 방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은 하마지엔 지방의 아비시니아인들 사이에서 엄격히 준수됩니다.”

참고 13 — p. 605, 613 — “인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장 완전한 사전인 Webster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고, 비준하고, 확립하는 것; 보안; 무엇을 인증하는가? 보증, 승인 또는 확인하는 것.” 그가 제공한 “표”와 “표징”이라는 용어는 로마서 4:11에서처럼 성경에서 인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는 안전이나 안정의 증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징이나 기념으로 주어졌습니다.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창 9:13). 아브라함과 의 언약에서 할례는 표징이나 기념이었습니다. 비준하거나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끊어졌느니라(창 17:11, 14). 이 표지판이나 기념관은 기관이었습니다.

의식. Gesenius는 원문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로 "기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억, 기념이라는 의미에서 기념물은 표시 또는 표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31:17 그리고 에스겔. 20:12, 20에서는 여호와와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의 표징입니다(롬 1:20). 그것은 또한 할례와 같은 제도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있는 표이고 안식일은 마음에 있는 표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겔 20:20).

에스겔에서. 9:4,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표로 번역되었다. Gesenio는 그것이 "표시, 표시"라고 말합니다. 칠십인역은 이 본문에서 “표징”으로 번역된 로마서 4장 11절의 그리스어 원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표징, 표시, 인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동일한 사물에 적용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스겔. 9:4 및 계시록. 7장 2절과 3 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나 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본문 모두 악인에게 완전한 멸망이 닥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은 임박한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마”는 지성이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마음”은 성향이나 애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마에 표시하거나 인을 치는 것은 “마음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히 10:16).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의 인자입니다(사 8:16). 그것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표이므로 이마에 붙인다고 합니다. 짐승의 경배자들(요한계시록 13장)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마가 지성을 나타내듯이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시 89:48 참조: “그가 그 영혼을 무덤의 손아귀에서 건지시리이까”). 강제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종들은 이마에만 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항상 로마 계층 구조에서 원해 왔습니다. 이 표시의 성격에 대한 증거는 25장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표나 인은 그분의 안식일이며, 짐승의 인이나 표는 안식일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날'이라는 가짜 토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12절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식일은 네 번째 계율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안식일을 지킨다. 그들은 그분의 표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징의 중요성은 넷째 계명이 율법에서 창조주와 거짓 신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사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Jer와 비교해보세요. 10:10-12; 사도행전 17:23, 24; Apoc. 14:6, 7 등. 그리고 만일 준수한다면 그분의 백성이 박해를 받게 될 그분의 율법의 일부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나 표를 받으려고 애쓰는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그들은 안식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킬 때 그분의 말씀에서 등을 돌린 자들은 그분의 음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고백할 것입니다(히 12:25, 26; 요엘 3:9-16 등). pp도 참조하세요. 이 책의 639, 640.

약력

콜롬바 — 복음은 2세기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4세기에 수캣(성 패트릭)의 노력을 통해 아일랜드로 퍼졌습니다. 서기 449년 이교도 색슨족이 영국을 침공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 신앙이 거의 완전히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 수캣의 노력으로 발전한 교회 중 하나에서 온 아일랜드 원주민 콜롬바(Columba)의 사역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콜롬바는 자신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교도 픽트족(고대 스코틀랜드 주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개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는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작은 섬인 아이오나(Iona)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교회와 대학이 세워졌고, 그곳으로 파송된 전도자들을 통해 유럽 상당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Columba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키가 높고 품행이 고상했습니다. 그는 예리한 통찰력과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뛰어난 정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공동체를 인도하는 데 헌신했으며, 그들에게 기독교 지식은 물론 유용한 사업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개인적으로 일했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일랜드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그가 종종 불렀던 대로 "그의 마음의 섬"인 아이오나(Iona)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죽기 전날, 그는 선교부 건물과 그의 작은 농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두 손을 들고 거기에 신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그는 시편을 필사하는 일상 업무를 다시 시작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복에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기록된 곳으로 갔습니다.

말했다: 여기, 페이지 끝에서 나는 멈춰야 합니다.' 아침 종이 울리자 그는 교회로 갔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즐기기도 전에 콜롬바는 제단 앞에서 기절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다시 한 번 힘없이 오른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얼굴에서 기쁨이 빛나며 영원히 쉬었습니다.”

콜롬바는 서기 521년 아일랜드 도네갈 카운티 가르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기 597년 스코틀랜드 아이오나에서 사망. 승..

왈덴스 (Waldensians)라는 이름은 1150년경 프랑스 리옹 출신의 상인 피터 왈도(Peter Waldo)에게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상업 활동을 하던 와중에 문자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얻었고, 성경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전도자의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용과 감독하에 신약성서를 당시 남부 프랑스의 모국어인 로망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함으로써 종교 개혁 운동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언어 중 하나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완전한 번역이었으며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나 Waldensians 또는 Vaudois로 알려진 초기 기독교인들은 Waldo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초기부터 사도 교회의 신앙을 옹호하고 로마교의 폭정과 부패에 맞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교구 - 롬바르디아 평야, 피에몬테 알프스,

프랑스 남부 지역 — 로마 관구의 일시적인 영역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밀라노는 교황의 우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위 성직자들의 행동을 거부했으며 피에몬테 산맥에서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알비파(Albigensians)도 교황의 찬탈에 대해 비슷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치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 알비파는 멸종되었다. 수세기 동안 왈도파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로마와의 외적인 순응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으로 인해 피에몬테 계곡 주민들은 새로운 삶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고 박해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종종 군인 군대가 그들을 상대로 파견되었습니다. 학살은 학살을 따랐다. 가장 끔찍한 고문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가 노인, 무력한 여성, 어린 아이들에게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1685년에 정복이 완성되었다. 살아남은 계곡의 모든 주민들은 정복자들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부주의, 잔인함, 역병이 그들의 사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어 그곳에 들어간 14,000명 가운데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남은 사람은 3,000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추방형을 선고받았고, 겨울이 끝날 무렵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끔찍한 고통 끝에 생존자들은 제네바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후, 이 그룹의 일부는 산으로 돌아와 버려진 집을 되찾았습니다.

18세기에는 종교 박해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799년에도 왈덴스인들은 여전히 많은 시민적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받기 위해 종종 납치되거나 강제로 끌려갔고, 그들은 로마 성직자들에게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1848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피에몬테의 통치자들에 의해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령에서는 교황이 여전히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그의 권력은 종교의 자유에 영구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에 교황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신약성서는 로마의 바티칸 창문 아래에서 젊은 왈덴스인들의 손에 의해 인쇄되었습니다. 감옥 중 하나는 출판사로 개조되었고, 한때 예수의 순교자들의 비명을 울리던 고문실에는 인쇄기가 설치되어 평화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 또는 “종교 개혁 이전의 가장 위대한 개혁가”인 위클리프의 존은 1324년경 영국 요크셔에 있는 같은 이름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8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생애 초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당시에도 약 30,000명의 학생이 등록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애가 거의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조공 요구를 거부한 에드워드 3세의 행동과 저지대의 교황 대사들을 상대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국민의 권리를 변호함으로써 위클리프는 왕과 국민의 신임과 승인을 얻었다. 비록 그는 교황과 그의 협력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적대감에 쫓겨 결국 대학에서 쫓겨났지만, 왕에 의해 루터워스의 목사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위클리프는 학자, 외교관,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식과 지적 능력은 그가 대학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법칙이자 기초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1378년에 태어난 보헤미아 후시네츠 출신의 존 후스(JOHN HUSS)는 진리의 횃불이 위클리프로부터 16세기 개혁가들에게 전달된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402년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 기관의 목사이자 베들레헴 예배당의 설교자였던 그는 위클리프만큼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개혁가가 포기한 교황 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무오류라는 위대한 기본 진리를 옹호하고 교회의 악덕을 신실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1415년 콘스탄스에서 불탔다.

“후스는 그의 정신적 재능과 능력의 양보다는 그가 확신을 형성하는 솔직함, 그것을 유지하는 끈기, 그것을 표현하는 이타적인 열정으로 인해 훨씬 덜 주목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지적 부에 어떤 것도 추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 자본에 대한 그의 기여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정직과 자유, 빛 속에서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가장 용감한 순교자 중 한 사람”으로 당연히 선언되었습니다.

후스의 헌신적인 친구인 프라하의 제롬(JEROME OF PRAGUE)은 고귀한 보헤미안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 수년을 보낸 후 프랑스, 독일, 영국의 주요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각각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그는 위클리프의 저작물에 익숙해졌고 큰 열정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의 봉투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핵을 처음으로 연 사람은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저술물을 보헤미안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의 도시로 돌아와서 후스와 합류하여 개혁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제로니모는 1365년경에 태어나 1416년 콘스탄사 시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 작센주 튀링겐 숲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이슬레벤은 가장 위대한 개혁가인 루터의 탄생지입니다. 문학의 르네상스가 이미 시작되고 인간의 마음이 중세주의의 혼미함에서 깨어났던 1483년에 태어난 루터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인간을 미신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마그데부르크(Magdeburg)와 아이제나흐(Eisenach)에 있는 만스펠트(Mansfeld) 학교에 다녔으며, 그때에도 그는 날카로운 지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이제나흐에서는 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위한 빵을 구하던 중 친절한 우르술라 코타(Ursula Cotta)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르술라 코타(Ursula Cotta)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그 불쌍한 어린 학생에게 어머니로서의 보살핌을 바쳤습니다. 1501년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년 후 그는 학업을 수도원 생활로 바꿨습니다. 그는 1507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이듬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면죄부에 반대하는 유명한 논문이 1517년에 출판되었고 1521년에 그는 보름스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25년 동안 그에게 파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클리프처럼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활동적인 생애의 대부분을 비텐베르크에서 보냈지만, 그의 장례식은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거행되었으며, 그곳에서 활동적인 노동에 지쳐 1546년 2월 18일에 사망했습니다.

“루터의 육체적 삶은 대부분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초기에는 날씬했지만 말년에는 약간의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후기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의 둥그스름함은 건장함 때문이 아니라 에데증적인 경향의 결과라고 한다.

이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에 체액이 축적됩니다. 그의 습관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겐 번개가 있었지만 천둥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말은 강력한 효과를 냈습니다.”

“루터의 성격은 그의 삶에서 너무나 투명해서 그의 노선을 추적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너무 순진해서 온 세상이 그의 허물을 덮으려고 공모했다면 그의 손으로 그것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의 충동은 적들에 맞서 진실의 싸움을 벌이는 확고한 신념과 활력 넘치는 성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잔인한. 그는 이타적이고 열정적이며 정직하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온화함과 인간미가 넘쳤습니다. 루터는 인류의 위대한 창조 정신 중 하나였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강력했고, 대중 연설가로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평민 중 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왕자 중의 왕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독일 종교 개혁의 협력자인 필립 멜란톤은 14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덴 공국의 브레텐 장군의 아들이자 유명한 로이클린의 친척이자 학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연구를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멜란톤의 이해력의 강력함과 명료함은 지식 습득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2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입학했고 17세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Schwartzerd(검은 흙)에서 같은 뜻의 그리스 인류명인 Melancthon으로 바꾼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독일어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21세의 나이에 멜란톤은 비텐베르크의 그리스 의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후 위대한 개혁가가 죽을 때까지 루터와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멜란톤은 루터를 엘리야에 비유하며 그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을 멜란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군중과 악마들과의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책들이 그토록 호전적인 이유입니다. 나는 길을 닦아야 하는 거친 선구자인데, 필립 스승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온 마음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쓴 것은 멜란톤의 논리적 사고와 그림이 그려진 펜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명료함, 강력함, 단순함, 우아함은 그의 적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멜란톤은 1560년 비텐베르크에서 사망하여 성 교회의 루터 옆에 묻혔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 오는 1484년 설날 스위스 남서부의 좁은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위스 최초의 개혁가였으며 그의 업적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리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1519년에 그 도시로 부름을 받았고, 1525년에 폭력도 거의 소란도 없이 종교 개혁이 그 곳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반면, 교황청은 무기를 들고 종교의 자유에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개혁군의 군목으로 일하던 츠빙글리는 1531년 10월 11일 카펠 전투에서 전사했다.

“츠빙글리는 저명한 개혁가, 유능한 학자, 유창한 설교가, 애국적인 공화주의자이자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루터와 칼빈의 천재성과 깊이, 멜란톤과 오에콜람파디우스의 학식은 부족했지만, 목적의 정직성과 인격의 고결성, 영웅적인 용기와 종교 개혁에 대한 헌신에서는 그들과 동등했고, 관대함에서는 그들을 능가했습니다.”

JOHN OECOLAMPADIUS — 오에콜람파디우스는 "바젤의 개혁가"로 불리지만,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를 더 널리 축하합니다. 그의 도덕적, 지적 자질은 멜란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주님께서 해야 할 큰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을 기뻐하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멜란톤과 나란히, 칼빈은 베자와, 오에콜람파디우스는 츠빙글리와 나란히 섰습니다.”

오에콜람파디우스는 1482년 당시 뷔르템베르크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첫째, 그는 루터의 저작물을 호의적으로 여겼고, 1522년 바젤에 초대되자 개혁가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지적 중심지이자 유일한 대학과 최대 규모의 인쇄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에콜람파디우스는 곧 의회의 의장직을 맡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대학교; 그리고 1529년에는 바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에콜람파디우스는 1531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프랑스 최초의 개혁가 중 한 사람인 자크 르페브르는 1450년경에 태어나 1536년에 사망했습니다. 르페브르는 파리 대학교의 교수였으며 1507년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한 주석을 출판했으며, 1521년에 그의 작품 중 하나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1세와 마가렛 공주의 호의로 그에 대한 소송은 보류되었습니다. 1523년에 그의 프랑스어 신약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전투와 마드리드에서 프란치스코가 체포된 후 교황파는 개혁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당시 75세였던 르페브르는 스트라스부르로 도망갔다. 왕이 석방된 직후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번역본을 출판한 후 나바라의 마가렛의 거주지인 네라크(Nerac)로 물러나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르페브르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여 자신의 저서에서 이를 유지했지만, 종교개혁이 교회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학자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그는 공개적인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하여 마지막 순간에 쓰라린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눈물과 극심한 고뇌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계속 울었지만 결국 그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죽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종교개혁의 가장 유명한 선구자 중 한 명인 길에르메 파렐은 1489년 프랑스 동부 도피니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헌신적인 학생이었으며 파리에 있는 한 대학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 신앙의 원칙을 받아들여 그의 열렬한 성품의 모든 힘을 다해 복음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강제로 파리에서 도망친 그는 바젤에 거주하고 Zwingli 및 Oecolampadius와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에너지와 사심 없음에 매료되었지만 그의 신중함이 부족하여 때로는 경솔하고 심지어 경솔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박식한 정치가인 에라스무스는 비타협적인 개혁가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의 영향력으로 파렐을 바젤을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고 생산적인 존재의 대부분은 스위스에서 광범위하고 위험한 일에 소비되었으며, 그 결과 그 나라의 상당 부분에 개혁 신앙이 확립되었습니다.

1532년 파렐은 앙그로나 계곡에서 열린 왈도파 종교회의에서 개혁가들의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왈덴스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1565년 뇌샤텔에서 사망하는 날까지 종교 개혁을 위해 계속 일했습니다. “파렐은 열렬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직자라기보다는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신학자라기보다는 이상파괴자에 가깝습니다.” 베자는 자신의 설교에서 “그는 어느 누구도 그의 천둥소리를 듣고 떨지 않을 정도로 숭고함이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존 칼빈(JOHN CALVIN) — 칼빈은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피카르디의 누아용에서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564년 제네바 시에서 사망했다. 칼빈은 곧 로마교를 버리고 1534년에 프랑스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1536년에 그는 바젤에서 그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제네바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거의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정부와 개혁 방법은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며, 이것이 그가 머물기로 동의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정부에서는 모든 종류의 부도덕을 억압했습니다.

심각성. 유럽 전역에서 제네바로 온 난민들 외에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들의 연설과 베자의 연설의 명성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칼빈의 습관은 검소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어떤 반대도 극복할 수 없는 매우 명확한 이해력, 탁월한 기억력, 목적에 대한 확고함과 경직성을 소유했으며, 다양한 주제를 물리칠 수 없으며 우여곡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했습니다.” 일부 불관용 행위는 그의 공적인 경력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사생활에서의 그의 성격은 흠집이 없었습니다. 설교자, 작가, 목사, 유럽 전역의 종교 개혁 지도자로서 그의 활동 범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기를 선택했고, 이미 적당한 봉급에 추가를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목적 외에는 선물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끊임없이 부를 축적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는 200달러가 조금 넘는 신용을 남겼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그는 화려함 없이 매장되었으며 그의 안식처를 표시하는 기념물은 없습니다.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사도적 정신과 활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에 훨씬 못 미치는 개혁가.” 그는 1492년경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59년 홀스타인 시에서 사망했다.

1536년에 메노는 로마 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는 유아세례를 반대하여 루터교회와 개혁 교회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광신주의를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교회에 사도 시대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열렬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세례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었으며, 삶의 순결은 교회 회원의 조건이었습니다.

HANS TAUSEN은 1494년 덴마크에서 태어나 1561년에 사망했습니다. 1524년에 그는 개혁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덴마크 최초의 종교개혁 설교자였으며, 부겐하겐과 함께 그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설립한 주요 주체였습니다.

올라프와 로렌티우스 페트리는 스웨덴 외레브로에서 태어났는데, 전자는 1497년, 후자는 1499년에 태어났습니다. 올라프는 1552년 스톡홀름에서, 로렌티우스는 1573년 옅살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보호 아래 스웨덴에서 종교 개혁을 확립하는 데 주요 도구였습니다. 구스타프 바사.

16세기 영국의 가장 저명한 개혁가 중 한 사람인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은 1484년에 태어났다. 그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직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는 열망을 표현했고, 탈출을 위해 대륙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박해.. 신약성서는 1525년에 쾰른과 보름스에서 인쇄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모호해졌습니다. 그는 구약성서를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종교 개혁의 교리를 제시하는 여러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왕과 고위 성직자들의 사절을 피하기 위해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일을 추구했고, 그의 은신처를 조심스럽게 숨겨 오늘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534년에 그는 앤트워프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빌보르덴 성에서 그는 1536년 10월 6일 목이 졸려 화형당했습니다.

헨리 8세가 그의 처형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는 개혁가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였습니다.

성경 번역자이자 영국 종교 개혁의 촉진자로서 틴데일의 업적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영어 성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분께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승인된 버전은 Tyndale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 것은 영국 종교 개혁의 많은 지도자들의 견해를 형성했으며, 그들도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때때로 "영국의 존 녹스"라고도 불리는 휴 라티머는 14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라티머가 말했듯이 "그의 아들들을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양육한" 왕실의 관리였습니다. 라티머는 케임브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교황의 열성적인 추종자였으나 순교자 빌니의 노력으로 종교 개혁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의 친밀한 설명은 헨리 8세의 호의를 얻었고 헨리 8세는 그를 우스터의 주교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라티머는 다른 교황의 오류와 함께 화체설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6개 조항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를 통과하면서 즉시 자신의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체포되어 6년 동안 타워에 수감되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즉위와 함께 석방된 그는 주교직을 제의받았지만 확고부동하게 그 명예를 거절하고 세속적인 악덕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질책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다시 탑에 갇혔습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령으로 인해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티머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고 1555년 옥스퍼드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연설이 분명했고 용기 있고 정직하며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층민.

지식과 경건함으로 유명한 영국의 주교이자 순교자 인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는 15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크랜머의 호의로 그는 헨리 왕의 목사로 임명되었고, 에드워드의 통치 기간에는 런던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즉위한 후 그는 1555년 라티머와 함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사임하지 않는 한 발언 허가를 거부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한 나는 결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사생활에서 리들리 주교는 "경건함, 겸손, 절제, 질서의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는 그를 "탁월한 자질을 부여받은 사람경건하게 학식을 갖고 이제는 의심할 바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인 존 녹스(JOHN KNOX)는 15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가톨릭 신부로 서품되었습니다. 제롬과 어거스틴의 저작과 순교자 위샤르트의 영향으로 그는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함락시켰을 때 녹스는 포로로 잡혀 루앙으로 이송되어 19개월 동안 갤리선 노예로 복무했습니다. 석방된 후 스코틀랜드의 상황으로 인해 그의 귀국은 불가능했고, 그는 영국에서 한동안 에드워드 6세의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즉위하자 그는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로 가서 각지에서 영국 망명자들의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한 교리를 지닌 칼빈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로마 교의 영향으로 무법자이자 반역자로 여겨졌으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1572년 사망할 때까지 그 나라의 종교 개혁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자의 진보(Pilgrim's Progress) 작가 존 번얀(JOHN BUNYAN)은 162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스토우(Elstow) 마을에서 양철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와 같은 사업 분야를 계속 이어가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unyan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종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지만 대부분의 급우보다 도덕적 자질을 소유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의회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의 계시물. 번연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길고도 극심한 갈등 끝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침례교에 합류하여 설교자가 되었고 얼마 후에는 침례교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660년에 왕정복고를 강요하는 억압적인 조치로 번연은 베드퍼드 감옥에 투옥되어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츠용 신발끈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계책을 통해 신앙을 희생하거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법을 어길 경우 영국으로 돌아가면 추방과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오늘 떠나게 하시면 내일 다시 설교하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쓴 『천로역정』이 영어가 사용되는 곳 어디에서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이방인 선교사가 동료 종들을 위해 번역한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번연은 큰 열심과 성공을 거두며 전파하여 “주교 번연”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지혜의 원천이자 천재성의 영감이었습니다. 진리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극기가 그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번연은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는 성공적인 노력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폭풍에 노출되어 6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존 번연(John Bunyan)의 이야기에 제시된 것보다 더 놀라운 교육의 예, 즉 지성과 마음 모두에 대한 성경의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는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 업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가르침과 교육을 받은 그의 어머니는 지성이 뛰어나고 경건함이 깊으며 규율이 확고하고 현명하며 능숙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공부했으며 박식함으로 유명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Clube Santo”가 결성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위드필드와 다른 사람들은 헌신의 실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기, 감옥 방문 등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1725년에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인디언들의 개종을 위해 조지아로의 선교가 계획되었고, “장신구와 삶의 안락함, 육체적 금욕과 명상 생활을 경멸하는 데 익숙한 성직자들”에게 부름이 주어졌을 때 웨슬리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식민지에 머물렀지만 그의 사명을 달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1738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교회들이 그에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마침내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상한 현장 설교 방식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내 평생 동안 품위와 질서에 관한 모든 면에서 매우 완고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거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1791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400,000km 이상을 여행하고 40,000번의 설교를 했으며 모든 교회와 회중을 감독하고 방대한 양의 서신을 처리하고 방대한 저술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인 조지 위드필드(George Withefield)는 영국 글로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감리교 클럽의 회원이었던 그는 동료들 중 처음으로 회심을 고백했습니다. 화이트필드는

1736년에 성임되었으며, 특히 일반 교회 예배를 통해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일곱 번 방문하여 모든 주요 도시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광범위하게 일했으며 네덜란드도 여행했습니다. Whitefield는 예정 교리에 관해 웨슬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리로 인해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감리교라는 두 가지 분파가 출현했습니다. 그는 1770년 56세의 나이로 7차 미국 횡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Whitefield의 설교의 힘은 모든 계층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군중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고 그의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루에 서너 번씩 설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매사추세츠 주 엑서터에서 큰 강당을 두 시간 동안 중단하면서 연설했습니다. Whitefield는 다음날 그곳에서 설교할 의도로 Newburyport로 여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쉬시려고 자기 방에 가실 때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홀에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는 상들리에의 촛불이 꺼질 때까지 멈춰 서서 계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숨진 채 발견됐다.

순례자 목자인 존 로빈슨(JOHN ROBINSON)은 157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교육을 받고 기성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여한 교회의 최상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낀 그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에게 고통스러웠으며,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진리가 내 마음 속에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관계를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 때문에 배은망덕한 내 마음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로빈슨은 네덜란드에서 피난처를 찾은 망명자 중 하나였으며 라이덴에 있는 순례자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경건함과 학문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례자들이 미국에서 집을 찾기로 결정했을 때 그룹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대다수가 형제들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 라이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사님의 사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신세계로 자신의 무리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625년 레이덴에서 사망했다.

나중에 그의 가족은 망명자들에 합류했고, 그의 후손들은 뉴잉글랜드 정착민들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로빈슨의 성격은 순례자들에게 한 고별 연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개혁의 소망을 품은 몇 안 되는 사람, 즉 신조나 교회의 가르침에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운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종교 자유 옹호자인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는 1600년경 웨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83년 로드 아일랜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성공회에서 성직자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자신이 말했듯이 “그의 양심은 그를 국가 교회와 그 예식과 주교들에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631년에 미국으로 갔지만, 청교도 식민지에 비해 너무 급진적이고 솔직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추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입법자들이 준비한 규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할권 내의 개인 또는 개인이... 치안 판사에게 법적 권리 또는 권한을 거부하는 경우... 첫 번째 표(십계명)의 외부 위반을 처벌합니다.. . . 추방이나 추방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윌리엄스는 종교 문제에 대한 치안 판사의 관할권을 단호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평화와 질서에 위험한 진보적인 사상을 품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를 건국한 후 그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널리 퍼져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매사추세츠와 마찬가지로 생명, 재산, 시민 정부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스의 가르침이 국가의 평화와 질서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으며 매사추세츠에서 그의 추방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윌리엄스의 성품은 비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확고한 반대자들조차도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존경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인디언들의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고, 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했으며, 매사추세츠 식민지와 다른 백인 정착지가 원주민의 적대감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 주요 추장들과의 지식과 우정을 통해 압박한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스가 겪은 불의를 갚은 방법입니다.

유명한 예언 해석가인 길헤르메 밀러(GUILHERME MILLER)는 1782년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대부분은 뉴욕주 로우햄프턴에 있었으며 1849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혁명군 장교였던 밀러는 1812년 전쟁에서 육군 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신론적인 감정을 흡수했지만, 그의 성실한 성품 때문에 수용소의 방탕한 생활이 그에게 너무나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기꺼이 군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이신론이 미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사실 때문에 밀러는 비록 성경을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의 해석자로서 현재의 신학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 자체의 해석자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두 가지 어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1818년에 그리스도의 친히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부터 13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열렬히 조사했지만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만 표현했습니다.

1831년에 공개 강연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1844년까지 500개의 다른 도시에서 4,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약 200명의 목사들이 밀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500명의 설교자들이 그의 선포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1000개 지역에 약 50,000명으로 구성된 신자들의 회중이 세워졌습니다. 밀러의 수고만으로 6,000명 이상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했으며 그 수는 아마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개종자 중 약 700명은 그의 강의에 참석하기 전에는 명백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비록 재림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의 방식과 가까움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845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검토해 보았지만, 내 의견으로는 내 입장을 무효화하는 어떤 주장도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으며, 기회가 있는 동안 동료들에게 그 위대한 사건에 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일은 내 젊은 형제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혼자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령의 질병이 허락하는 한 때때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이 선포한 교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사망했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인 선교사이자 여행가인 조셉 울프(JOSEPH WOLFF)는 1795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적 재능, 예리한 지각력, 정력적인 기질, 뛰어난 신중함으로 인해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유럽 국가의 저명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1812년에 볼프는 프라하에서 베네딕도회 수도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있던 로마에서는

선교사로 교육받은 그는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동양 언어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교황 비오 7세의 총애를 누렸지만 그가 여러 차례 표현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종교 재판소의 눈에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울프는 대학과 영원한 도시를 떠나야 했다. 영국에서 그는 빨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런던 유대인 협회의 창립자들은 선교 활동에 대한 그의 특별한 적성을 깨닫고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권유했으며 그곳에서 동양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여행하며 모험을 즐기는 동안 울프는 왕과 왕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계급의 학식 있는 사람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여 그는 불굴의 용기와 큰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울프는 때로는 모국어로, 때로는 다른 언어로 어디에서나 설교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저명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과 여행의 날씨가 지친 그는 말년을 영국 교구의 목사로 보냈으며 1862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존 알버트 벵겔(JOHN ALBERT BENDEL)은 1687년 뷔르텐부르크에서 태어나 175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예리한 분별력, 폭넓은 학식, 확고한 신앙심을 지닌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한 매우 가치 있는 비평적 책과 주석적 책을 셀 수 없이 많이 집필한 저자였으며, 이 책은 여전히 성경 연구생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벵겔의 해석 규칙은 “성경에 아무 것도 덧붙이지 않고, 다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추출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고센(LOUIS GAUSSEN)은 1790년에 태어났으며 제네바 출신이며 개혁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가우센은 스위스 전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Jean Merle D'Aubigné 박사 및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제네바를 침략한 합리주의 철학을 성경적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당회에 의해 정직되었습니다. 1834년에 그는 새로 설립된 제네바 복음주의 학교의 신학 교수직을 맡았으며, 성경에 관한 여러 작품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1863년에 일어났다.

비오 9세와 무오류의 법령 — 우리는 교황 비오 9세가 무오류성 법령을 공포한 내용인 글래드스톤의 논문 "바티칸 법령"을 요약합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셀 수 없이 많은 종소리와 1869년 12월 8일 바티칸 대성당에서 제작된 산 안젤로의 정경. 1870년 7월 18일 네 번째 공개 회의에서 교황 무오류성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권력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 사목자와 신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신앙과 도덕 문제뿐만 아니라 규율과 통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하는 즉각적인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 그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관해 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의 공식 입장에서 말할 때 오류가 없으며”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교황의 신성모독이라는 이 최고 행위는 곧바로 교황의 세속적 주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무오류 법령이 선포된 지 6주 후인 1870년 9월 후반, “교황의 세속권력의 주된 지지자였던 프랑스 제국은 나폴레옹 3세가 항복하면서 스당의 구 위그노 요새에서 무너졌다. 러시아의 개신교 왕 윌리엄에게. 그리고 9월 20일, 이탈리아 군대는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국왕의 이름으로 통일 이탈리아의 미래 수도인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비오 9세가 로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날부터

무류성으로 인해 그는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권력을 박탈당하고 국가적 권위에 복종하기를 꺼린 이 자랑스러운 로마 교황은 1878년 사망할 때까지 바티칸 궁전의 투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